

교육부 검정

2013. 8. 30.

고등학교 **문화**

김대용 · 강황구 · 권형중 · 김태우 · 석은동 · 신혜영 · 여승욱 · 정강욱



“갈이 멀지요?”
“과년찮은데도 뭐... ”
상문연구사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 연도 | 교과서 사용자 | | | | 상태 |
|----|---------|---|----|----|----|
| | 학년 | 반 | 번호 | 이름 | |
| | | | | | |
| | | | | | |
| | | | | | |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고등학교

문화

김대용 · 강황구 · 권형중 · 김태우 · 석은동 · 신혜영 · 여승욱 · 정강욱



‘그런데 뭐지?’
‘고전창은데요 위 ...’ ‘채권속이지’ - 

상문연구사



이 책의 머리말

어린이들은 대개 동화책을 좋아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인데도 매번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곤 하지요. 동화는 어떻게 어린이들을 이토록 매혹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동화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구체적인 인물이 나오고, 또 아이들이 궁금히 여길 만한 일들이 흥미롭게 짜여 제시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계는 어떠한 곳이며,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를 체화해 가게 되겠지요.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어린이들처럼 상상의 즐거움 속으로 빠져들지요. 그런데 언어가 지닌 특성 때문에 문학 작품은 어떤 예술 갈래보다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또 인간의 삶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그 결과 문학 작품은 우리로 하여금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상상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계를 찬찬히 바라보게 하지요. 그리고 그러한 성찰의 결과를 상상력을 활용하여 또 다른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문학 활동은 다른 예술 갈래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인문 등 다양한 분야와 맥락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사고력에 바탕을 둔 의사소통 행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상상력을 매개로 한 소통 방식 때문에 문학 활동은 우리의 삶을 고양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인 삶은 물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삶의 주체가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학 활동은 인간과 공동체의 삶에 대한 성찰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화 활동의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또 문학 활동은 우리 공동체나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해 왔고 인정해 온 문학적 관습과 문학사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문학 자체의 고유한 문화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학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문학 자체의 고유한 문화를 익혀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함으로써 인간과 공동체의 보편적인 문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문학을 통해 상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교과서를 통해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다양한 원리를 익혀 능동적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함으로써 자신과 타인, 공동체 삶의 주체로 성장해 가기를, 그리고 문학의 관습과 문학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학의 전통을 창조해 가기를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저자 일동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이 교과서는 대단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 → 원리 → 활동'으로 학습 내용이 심화되도록 구성하였으며, 모든 학습은 문학 작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학습자가 문학에 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득하고, 스스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였다.

단원의 길잡이

대단원 설정의 취지, 구성, 학습 목표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대단원 학습의 방향을 밝혔다.



생각 열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활동으로 중단원 학습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기

중단원 학습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학습에 활용되는 작품들을 모두 제시하였다.



소단원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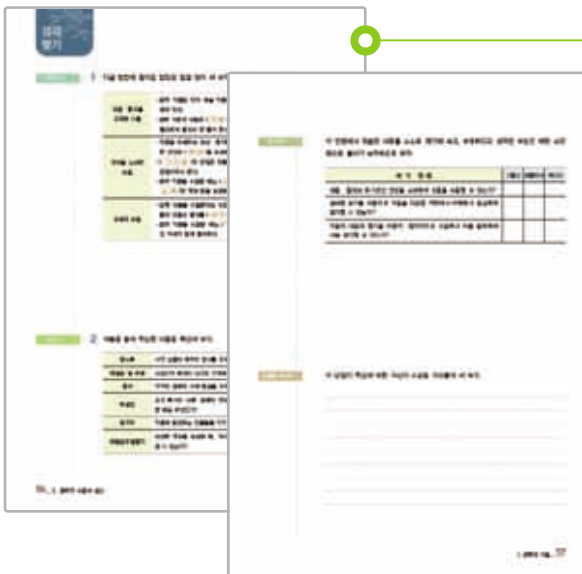
문학과 관련된 지식, 원리 등의 학습 내용을 설명한 다음, 구체적인 작품을 학습 활동과 함께 제시하여 문학 지식과 원리를 스스로 체득하게 하였다. 작품을 제시할 때에는 작품 수용의 주안점을 미리 밝혀 학습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학습 활동의 구성

학습 활동은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으로 단계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 내용 학습** 제시된 문학 작품의 내용을 파악하는 단계
- 목표 학습** 제시된 문학 작품을 통해 학습 내용을 체득하는 단계
- 적용 학습** 학습 내용을 다른 문학 작품이나 학습자의 경험에 적용하여 내면화하는 단계



생각 맺기

중단원의 학습 내용을 확인, 평가, 소감 쓰기를 통해 단계적으로 마무리하였다.

- 확인하기 1** 학습한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단계
- 확인하기 2** 학습한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하는 단계
- 평가하기** 학습 도달 정도를 스스로 평가하고 보완하는 단계
- 단원을 마치며** 학습에 대한 소감을 적어 봄으로써 학습을 마무리하는 단계



단원의 마무리

대단원 전체 학습 내용과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방법을 작품 목록과 함께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대단원 학습을 마무리하였다.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2

1 문학의 수용 · 14

(1) 내용 · 형식을 고려한 수용 · 16

01 청노루 _ 박목월 · 18

· 신록 예찬(이양하), 도요새에 관한 명상(김원일), 빈집(기형도)

02 메밀꽃 필 무렵 _ 이효석 · 21

· 사하촌(김정한)

(2) 맥락을 고려한 수용 · 28

01 광야 _ 이육사 · 31

· 춘망(두보), 봄(김소월)

02 허생전 _ 박지원 · 34

· 농무(신경림)

(3) 주체적 수용 · 40

01 원고지 _ 이근삼 · 41

· 생명의 서(유치환)

02 규중칠우쟁론기 _ 지은이 모름 · 50

· 성북동 비둘기(김광섭)



2 문학의 생산 · 58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60

01 꽃 _ 김춘수 · 61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_ 장정일 · 62

· 한림별곡(한림제유)

02 소나기는 그쳤나요? _ 장진 · 65





(2) 작품의 창작 · 72

01 차마설_이곡 · 73

• 이옥설(이규보), 휴당물설(학생 작품)

02 고향_백석 · 76

• 화랑의 후예(김동리), 설령당 한 그릇(학생 작품)



3 문화와 문학 활동 · 82

(1) 문학과 인문 · 사회 · 84

01 오렌지_신동집 · 85

• 새 1(박남수)

02 나의 열정, 나의 시_문정희 · 88

03 광장_최인훈 · 94

• 타는 목마름으로(김지하)



(2) 문학과 예술 · 101

01 나목_박완서 ·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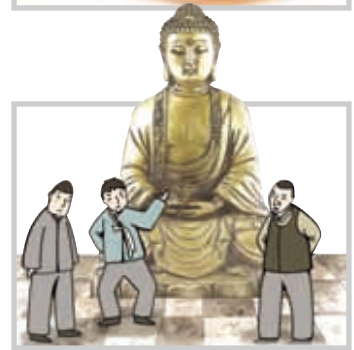
•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김혜순)

02 해_박두진 · 107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황지우)

03 느낌, 극락 같은_이강백 · 110

• 선학동 나그네(이청준)



(3) 문학과 매체 · 115

01 오발탄_나소운 · 이종기 각색 · 116

• 뼈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이세룡)

02 토지(소설)_박경리 · 125

토지(만화)_오세영 · 130

• 복덕방(이태준 소설) • 복덕방(오세영 만화)

03 아무리 봐도_이철수 · 138

• 빈집이지만(이철수)





II 문학과 삶 · 146

1 나와 문학 · 148

(1) 내 안의 풍경 · 150

01 별 헤는 밤_윤동주 · 151

02 외딴 방_신경숙 · 154

• 나의 열어뒀은 아름답다(이현희)

(2) 내 삶의 길 · 161

01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_권정생 · 162

• 자화상(서정주)

02 수오재기_정약용 · 167

● 생산 활동 · 170

나와 문학 - 수필 쓰기



2 사람들과 문학 · 174

(1) 만남 · 176

01 심생전_이육 · 177

02 헬로우 고스트_김영탁 · 183

• 성탄제(김종길)

(2) 이별 · 192

01 속미인곡_정철 · 193

• 규원가(허난설헌)

02 너의 침묵_한용운 · 196

• 아리랑(지은이 모름)

● 생산 활동 · 198

사람들과 문학 - 시 쓰기



3 삶의 터전과 문학 · 202

(1) 공동체와 문학 · 204

01 성에꽃 _ 최두석 · 205

• 슬픔이 기쁨에게(정호승)

02 완득이 _ 김려령 · 207

• 빨래(추민주)

03 성묘 _ 고은 · 215

쇠찌르레기 _ 림종상 · 216

• 우주 비행(홍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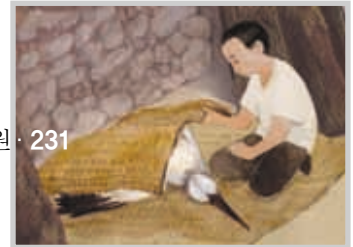
(2) 자연과 문학 · 221

01 누이와 늑대 _ 한승원 · 222

•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조식)

02 생태학적 상상력과 우리 시의 방향 _ 이승원 · 231

• 양계장집 딸(나희덕)



● 생산 활동 · 236

삶의 터전과 문학 - 소설 쓰기 / 영상물 만들기

I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244

1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징 · 246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 · 248

01 격황소서 _ 최치원 · 249

바리데기 _ 지은이 모름 · 251

• 압록강은 흐른다(이머락)



이 책의 차례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256

01 시집살이 노래_ 지은이 모름 · 257

봄 봄_ 김유정 · 258

• 강령 탈춤(지은이 모름), 태평천하(채만식)



2 한국 문학의 역사 · 264



(1) 원시 · 고대 문학 · 266

01 고대 가요 두 편 · 268

• 해가(지은이 모름)

02 원왕생가_ 광덕 · 270

• 정음사 | 지은이 모름

03 단군 신화_ 지은이 모름 · 272

• 온달(지은이 모름)



(2) 중세 문학 · 275

01 청산별곡_ 지은이 모름, 용비어천가_ 정인지 등 · 278

• 일신이 사자 훈이~(지은이 모름)

02 한시 두 편 · 281

• 들국(김용택)

03 국순전_ 임춘 · 283

04 만복사저포기_ 김시습 · 287



(3) 근대 태동기 문학 · 291

01 만흥_ 윤선도 · 293

• 논밭 갈아~(지은이 모름), 개화(이호우)

02 누항사_ 박인로 · 295

• 상춘곡(정극인)

03 흥부전_ 지은이 모름 · 299

• 흥보가(지은이 모름), 연의 각(이해조)

04 하회 별신굿 탈놀이_ 지은이 모름 · 305

• 봉산 탈춤(지은이 모름)



(4) 근대 문학 · 310

01 해에게서 소년에게_ 최남선 · 313

• 동심개(이중원), 봄은 간대(김억)

0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_ 이상화 · 316

• 인동채(정지용)

03 금수회의록_ 안국선 · 319

04 삼대_ 염상섭 · 323

• 창선감의록(조성기)



(5) 현대 문학 · 328

01 눈_ 김수영 · 331

• 이 사진 앞에서(이승하)

02 북어_ 최승호 · 333

• 멸치(김기택)

03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_ 조세희 · 335

• 공사장 끝에(이시영)

04 불모지_ 차범석 · 340



3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 350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352

01 경문 대왕의 귀_ 지은이 모음 · 353

미다스 왕의 귀_ 지은이 모음 · 354

• 석류들(발레리)



(2)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 356

01 레 미제라블_ 빅토르 위고 · 357

애사_ 민태원 · 359



(3) 한국 문학의 세계화 · 361

01 진달래꽃_ 김소월 · 362

• AZALEA FLOWERS(고창수 옮김)

• Azaleas(데이비드 맥캔 옮김)



●● 부록 · 371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문학의 수용
- 2 문학의 생산
- 3 문화와 문학 활동



단원의 길잡이

문학은 작가와 독자가 작품을 매개로 다양한 맥락 속에서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활동이다. 작품이 독자에게 일정한 영향을 미치듯이 독자의 반응 역시 작품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작품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은 모두 능동적인 '문학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 활동은 인문, 사회, 예술, 매체 등 인접한 사회·문화 분야와 다양하게 소통하며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문학 작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작가, 작품, 독자와 관련된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으로 형상화할 내용을 생성하고, 그 내용을 담아낼 적절한 형식을 탐색하여, 내용과 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한다.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도 이와 같은 작품 생산의 기본 원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선은 내용과 형식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섬세하게 읽어야 한다. 여기에 다양한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독자가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할 때 더욱 균형 있으면서도 비판적·창의적인 수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나아가 주체적인 수용 활동이 작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이어짐으로써 문학 활동은 더욱 역동적이고 풍요로운 의사소통의 과정이 된다.

이 단원은 문학 활동의 기본 원리를 익히고 심화할 수 있도록 세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문학의 수용' 단원에서는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소통 맥락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문학의 생산' 단원에서는 자신의 체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익히게 된다. '문화와 문학 활동' 단원에서는 문학이 인접 분야와 소통하는 양상과 문학이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는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학습 목표

- *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소통 맥락을 이해하여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 *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소통 맥락에 따라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할 수 있다.
- * 문학이 인접 분야 및 매체와 관련되는 양상을 이해하여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1

문학의 수용

이 단원에서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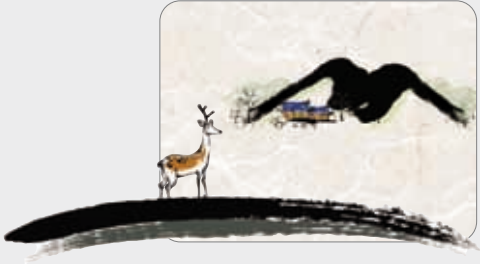
-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한다.

생각 열기



김재홍, '시집가는 날'

위 그림은 그냥 보기에는 _____인 것 같은데 책을 왼쪽으로 돌려서 보면 _____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붙였나 보다. 문학 작품도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겠군.



(1) 내용·형식을 고려한 수용

- 01 청노루 | 박목월
 - 신록 예찬 | 이양하
 - 도요새에 관한 명상 | 김원일
 - 빈집 | 기형도
- 02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 사하촌 | 김정환



(2) 맥락을 고려한 수용

- 01 광야 | 이육사
 - 춘망 | 두보
 - 봄 | 김소월
- 02 허생전 | 박지원
 - 농무 | 신경림



(3) 주체적 수용

- 01 원고지 | 이근삼
 - 생명의 서 | 유치환
- 02 규중칠우쟁론기 | 지은이 모름
 - 성북동 비둘기 | 김광섭

(1) 내용 · 형식을 고려한 수용

문학 작품은 언어로 된 예술 작품이다. 다른 예술 작품들처럼 문학 작품도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일정한 질서를 이룸으로써 독자적인 미적 구조물이 된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작가가 삶의 다양한 체험 속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들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물이나 사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일상적인 체험이나 역사적인 사건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추상적인 사상(思想)이나 이념(理念), 가치(價値)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작가가 인식하고 느낀 대로 적는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문학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 문학 작품은 신문 기사나 역사서, 철학서처럼 사실 그 자체나 개념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가가 인식하고 느낀 것이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지니도록 형상화되어야 독자들이 재미있게 몰입할 수 있는 문학 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식과 정서의 형상화, 곧 허구화를 위해 작가는 상상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요컨대, 문학 작품의 내용은 인생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정서이며 이를 바탕으로 상상해낸 것들이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그 내용을 아름답게 담아내는 ‘형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문학 작품의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일정한 질서에 따라 미적으로 구조화하여야 하는데 이 구조화의 방식과 결과가 문학 작품의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형식은 일차적으로 문학의 고유한 체계와 관습에 바탕을 두고 있는 문학의 갈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작가는 작품의 내용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갈래를 선택한다. 정서 표현이 주된 목적이라면 시와 같은 서정적인 갈래가 더 적절할 것이며, 현실의 구조를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면 소설과 같은 서사적인 갈래가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런데 문학의 갈래들은 각기 고유한 내적 구성 요소들을 지닌다. 시는 화자와 어조, 시행의 구분과 운율, 이미지 등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고, 소설은 서술자, 인물, 사건, 배경 등이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극문학은 인물, 사건, 배경이 중요한 구성 요소이되 서술자가 없다는 점이 소설과 뚜렷하게 다른 점이다. 작가는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필요한 내적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고 유기적으로 관련지으며, 때로는 특정한 구성 요소를 부각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으로 같은 갈래에 속하는 작품들이라 하더라도 각기 고유한 형식을 지니게 되고 한 작품 속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긴밀하게 교섭하게 된다.

허구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엮어낸 것. 문학 작품에서 허구는 어디까지나 현실에 바탕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개연성 있는 허구’라 한다.



한편, 문학 작품의 형식은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형성된다. 표현은 작가가 자신의 창의적인 발상을 어휘나 문장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구체적인 언어로 드러낸 것이다. 문학에 쓰이는 언어는 일상의 언어를 재료로 하되 비유나 상징, 역설, 반어 등과 같은 표현 방법을 통해 드러남으로써 일상의 언어보다 참신하며 형상적이고 다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형상화된 작품의 내용은 풍부하고 심층적인 의미를 형성하며, 작품의 형식과 한 덩이로 녹아들게 된다. 이처럼 작가는 문학 작품을 생산할 때, 당대의 문화적 관습을 따르기도 하지만 자신의 개성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마치 육체와 정신의 관계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구조화될 때 예술로서 온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독자가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내용만을 떼어서 본다거나 형식만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의 구성 요소들, 구체적인 표현들을 전체의 의미 맥락과 관련지으며 섬세하게 읽어 나갈 때 그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와 아름다움을 더욱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다. 내용과의 관련 속에서 해당 형식이 선택된 이유를 이해하고, 형식의 작용에 의해 내용이 그렇게 조직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 몸여름없이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산에는 꽃 지네
 꽃이 지네
 갈 몸여름없이
 꽃이 지네

- 김소월, '산유화(山有花)'

● '산유화'의 내용과 형식

'산유화'는 반복과 대칭을 통해 안정된 미적 구조를 참신하게 형성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산과 사계절이라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는 '꽃'과 그 꽃이 좋아 산에 사는 '새'를 부각하여 근원적으로 고독하지만 아름다운 존재를 형상화하였다.

4개의 연이 모두 감탄형 종결 어미 '~네'로 끝나고, 첫 연과 마지막 연의 리듬이 반복된다. 또 2연과 3연은 시행의 길이(음보 배열)가 대칭이 되어 있다. 반복과 대칭의 구조는 작품 전반에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안정된 형식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변함없는 이치와도 관련된다. 막는다고 꽃이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새가 그저 꽃이 좋아 산에 사는 것도 모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이다. 생성과 소멸, 고독과 화합의 대칭이 맞물려 반복되는 것이 바로 자연의 모습이므로 이 작품의 내용은 곧 형식과 한 덩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1 청노루

박목월

이 작품은 자연을 노래한 대표적인 현대시이다. 내용과 형식이 주제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관련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시집 “청록집” 표지

‘청노루’의 제목을 딴 “청록집”(1946)

“청록집”은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등 세 시인의 공동 시집이다. 이 시집으로 인해 세 시인은 청록파라 불리게 되었다. 이 시집의 시들은 시인들의 개성이 드러나면서도 자연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과 일제 강점기 말 우리말을 갈고 닦아 만들었다는 점, 어둡고 불안한 시대의 어려움을 직접·간접으로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머언 산 청운사(靑雲寺)

남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紫霞山)

봄눈 녹으면

느릅나무

속잎 피어나는 열두 구비를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5

10



박목월(1916~1978)

경북 경주 출생. 향토적 서정성을 바탕으로 민요조를 개성 있게 수용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경상도의 가랑잎”, “사력질(砂礫質)”, “무순(無順)” 등의 시집이 있다.

내용 학습

1 '청노루'에 초점을 두고, 이 작품에 표현된 자연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2 이 작품에 쓰인 표현 방법이 주제를 드러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토의해 보자.

| 표현 요소 | 특징 | 효과 |
|--------|----|----|
| 운율 | | |
| 이미지 | | |
| 내용 전개 | | |
| 화자(어조) | | |

목표 학습

3 이 작품과 다음의 작품들이 각기 갈래를 달리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가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은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授受)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에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산과 들을 흔들 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록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에 결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五欲七情)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에 영일(寧日)을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卑小)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汚點) 또는 한 잡음(雜音)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 이양하, '신록 예찬'에서

나 “누가 내게 그 일을 시키고 있어? 그 사람을 대?”
 병국이가 술이 찬 잔을 한쪽으로 밀며 소리쳤다. 출렁거린 술이 반쯤 식탁 위에 쏟아졌다.
 “왜 그래? 자연 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 박제를 해서 호구를 잇는 건 죄가 되고, 돈 많은 놈이 허가 낸 사냥총으로 새를 잡아 구워 먹는 건 죄가 안 된다 이 말씀이야?”
 병국이가 코웃음을 치고는 자기 잔의 술을 죽 들이켰다.
 “이 지구 상에 희귀조가 계속 멸종되어 간다는 건 너도 알지? 인간이 새로운 새를 창조해 낼 순 없어.”
 “그 개떡 같은 이론을 집어쳐. 내가 알기론 이 지구 상에는 삼십억이 넘는 새들이 살고 있어. 그 중 내가 오십 마리를 죽였다 치자, 그게 형은 그렇게 안타까워? 그렇담 숫제 참새구이도 없애 버리지 뭘, 닭도 진화를 도와 하늘로 해방시키구.”
 “박제하는 놈을 못 대겠어?”
 병국이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아우의 멱살을 틀어쥐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서

적용 학습

4 다음은 기형도의 ‘빈집’을 줄글로 바꾸어 적은 것이다. 제시된 활동에 따라 원작을 복원해 보자.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짝꿍던 밤들이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이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이,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이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이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이 ()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네
 - 기형도, '빈집'에서

- 1단계: () 속에 적절한 말들을 넣어 보자.
- 2단계: 행과 연을 나누어 보자.
- 3단계: 원작과 비교하여 보고,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02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이 작품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떠돌이 장꾼 허 생원의 삶을 다룬 소설이다. 인물의 삶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5 이지러는 젖으나 보름을 가재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돌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10 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공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 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콩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

15 “장 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객줏집 토방이란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지.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려 물방앗간으로 들어가

20 졌단 말이네.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 서방네 처녀와 마주

“팔자에 있었나 부지.”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25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놈팽이가 있는 것두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던 말야. 짐작은 대고 있었으나 성 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져 들고날 판인 때였지. 한집안 일이니 딸애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 달빛 비친 메밀밭이 이 작품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 이지러지다 (달 따위가) 한쪽이 차지 않다.
◆ 확실히 정확하게 맞아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게.



이효석(1907~1942)

강원 평창 출생. 소설가. 초기에는 동반자 작가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나 후기에는 세련된 언어, 풍부한 어휘, 시적 분위기 등이 돋보이는 작품을 다수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 '돈(豚)', '산', '분녀', '장미 병들다', '화분' 등이 있다.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끄는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력저력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제천인지로 줄행랑을 놓은 건 그다음 날이었나?”

“다음 장도막에는 벌써 윈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관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 가기가 상수[◆]라고, 처녀의 뒷공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제천 장관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허나 처녀의 꿀은 꿩 귀 먹은 자리야. 첫날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나.”

“수 좋았지. 그렇게 신통한 일이란 쉽지 않아. 함용 못난 것 얻어 새끼 낳고, 걱정 늘고, 생각만 해두 진저리 나지……. 그러나 늘그막바지까지 장돌뱅이로 지내기도 힘드는 노릇 아닌가? 난 가을까지만 하구 이 생애와두 하직하려네. 대화쯤에 조그만 전방[◆]이나 하나 벌이구 식구들을 부르겠어. 사시장천[◆] 뚜벅뚜벅 걷기란 여간이래야지.”

“옛 처녀나 만나면 같이나 살까……. 난 거꾸러질 때까지 이 길 걷고 저 달 볼 테야.”

산길을 벗어나니 큰길로 띄어졌다. 콩무니의 동이도 앞으로 나서 나귀들은 가로 늘어섰다.

- ◆ 상수 자연으로 정하여진 운명.
- ◆ 전방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가게.
- ◆ 사시장천 사시사철의 잘못된 표기. 봄·여름·가을·겨울 네 철 내내의 동안.

❓ 산길에서 큰길로 배경을 바꾼 의도는?



“총각두 싫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렀다. 총죽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그 꼴이 되었으나 싫게 생각 말게.”

“저, 천만예요. 되려 부끄러워요. 계집이란 지금 웬 제격인가요. 자나 깨나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5 허 생원의 이야기로 실심해 한 끝이라 동이의 어조는 한풀 수그러진 것이었다. “아비 어미란 말에 가슴이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제겐 아버지가 없어요. 피붙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뿐인걸요.”

“돌아가셨나?”

“당초부터 없어요.”

10 “그런 법이 세상에.”

생원과 선달이 야단스럽게 꺾꺾들 웃으니, 동이는 정색하고 우길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정말예요. 제천 촌에서 달도 차지 않은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에 쫓겨났죠. 우스운 이야기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 없고 있는 고장도 모르고 지내 와요.”

15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를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똥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

◆ 실심하다 근심 걱정으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산란하여지다.
◆ 대근하다 건디기 힘들다.

❓ ‘나귀’와 ‘허 생원’의 공통점은?



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얹어매고 반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찢었다.

“그래, 대체 기르킨 누가 기르구?”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 가서 술장사를 시작했죠. 술이 고주라서 의부라고 전 망나니예요. 철들어서부터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룬들 편한 날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을 당하곤 하니 집 꼴이 무어겠소. 열여덟 살 때 집을 뛰쳐나서부터 이 짓이죠.”

“총각 낫세론 섬이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군.”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맹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훔칠 듯하였다. 나귀와 조 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 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다.

“모친의 친절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 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봉평? 그래 그 아버 성은 무엇이구?”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 생원은 경망하게도 발을 밧디디었다.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째 풍덩 빠져 버렸다. 허비적거릴 수록 몸을 견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에는 벌써 펴 흘렀었다. 옷째 짙은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해깝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원 몸이라 장정 등에는 오히려 가벼웠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것 없어요.”

“그래, 모친은 아버를 찾지는 않는 눈치지?”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 오려고 생각 중인데

❓ ‘봉평’이라는 말에 허 생원이 놀라는 이유는?

- ◆ 고주 고주망태, 술에 몹시 취하여 정신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
- ◆ 낫세론 나잇살론.
- ◆ 훔치다 물체가 바람 따위를 받아서 휘우듬하게 쏠리다.
- ◆ 해깝다 ‘가깝다’의 방언.

요. 이를 물고 벌면 이력저력 살아갈 수 있겠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렇다?”

동이의 탐탁한 등어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업혔으면도 하였다.

5 “진중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조 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나귀야. 나귀 생각하다 실족을 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던 말이지.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종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10 “사람을 물에 빠치울 쟈 판은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 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텅텅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동실동실 가벼웠다.

15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훗훗이 쉬어. 나귀에겐 더운물을 끓여 주고. 내일 대화 장 보고는 제천이다.”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 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20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득시니 같이 눈이 어둡던 허 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뜨이지 않을 수 없었다.

걸음도 해갑고 방울 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청청하게 울렸다.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전체 줄거리

떠돌이 장꾼인 허 생원과 조 선달이 드팀전의 장을 거두고 술집에 들렀을 때 함께 다니는 동이가 계집과 농탕을 치고 있었다. 화가 난 허 생원은 그의 뺨을 치고 쫓아냈지만 동이는 다시 돌아와 허 생원의 나귀가 발광하고 있다고 알려 준다. 허 생원은 나귀를 괴롭히던 장터 아이들을 쫓지만 아이들에게 왼손잡이라고 놀림만 당한다. 허 생원 일행은 대화장으로 발길을 옮긴다. 허 생원은 달 밝은 밤이면 으레 봉평에서 맺은 기이한 인연 이야기를 한다. 메밀꽃이 활짝 핀 달 밝은 여름밤, 개울가에서 먹을 감기 위해 옷을 벗으려 방앗간에 들어간 허 생원은 울고 있는 성 서방네 처녀를 만난다. 둘은 하룻밤의 기이한 인연을 맺었지만 성 서방네가 빛을 감지 못해 도주하는 바람에 그 뒤로는 만나지 못한다. 이야기를 마친 허 생원은 동이가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났으며 어머니 고향이 봉평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 개울에 빠지게 된다. 허 생원은 동이에게 함께 제천으로 가 보자는 말을 건넨다.

② 나귀 → 나귀 새끼
허 생원 → ()

- ◆ 탐탁한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한.
- ◆ 피마 다 자란 암말.
- ◆ 훗훗이 좀 갑갑할 정도로 후더운 기운이 있게.
- ◆ 아득시니 ‘어둡서니’의 방언. 멀쩡해 보이나 실지는 조금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사람.

효석 문화제

매년 9월에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서는 효석 문화제가 열린다. 봉평면은 여울목·노루목 고개, 유품 전시장, 가산공원, 물레방아 생가를 연결하는 ‘메밀꽃 필 무렵’ 답사의 길을 조성하고, 1930년대의 봉평장터를 재현해 두었다. 이곳에서 효석 백일장, 문학 심포지엄과 강좌, 문학의 밤 등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린다.

(이효석 문학관:

<http://www.hyoseok.org>)

내용 학습

1 '허 생원' 과 '동이' 의 삶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허 생원 | 동이 |
|------|----|
| | |

내용 학습

2 '동이' 의 이야기를 들은 '허 생원' 이 말을 더듬고, 발을 헛디딘 이유를 말해 보자.

목표 학습

3 주제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 요소가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자.

| | |
|----------|--|
| 왼손잡이 | |
| 허 생원의 나귀 | |

목표 학습

4 전체 줄거리를 참고할 때, 다음 작품의 작가가 배경을 설정한 의도를 '메밀꽃 필 무렵' 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가뭄은 오래오래 계속되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거무스름한 구름장이 모여 들다가도, 해만 지면 그만 어디로 사라져 버렸다. 꼭 거짓말같이……. 보광사 절 곁을 살며시 넘어다보는 그놈도 알고 보면 알미운 가뭄 구름. 뒷 산성 용구렁에 안개가 자욱해도 헛일. 아침 놀, 물밑 갈바람은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어쨌든 농부들은 수백 년래 전해 오고 믿어 오던 골짜기 천기조차 온통 짐작을 못 할 만큼 되었다. 날마다 불벌만 짹짹 — 그들의 속을 태웠다. 콧물만 한 물이라도 있는 곳에는 아직도 환장한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풀 물도 없어진 곳에는 강아지 새끼도 한 마리 안 보였다. 물 좋던 성동들도 삼 년 전 소위 수도 수원지(水源池)가 생기 고는 해마다 이 모양 — 여기저기 탕고리 수염 같은 벼포기가 벌써 밭장게 모깃불 감이 되고, 마을 앞 정자나무 밑에는 떡심 풀린 농부들의 보람 없는 걱정만이 늘어갈 뿐이었다.


걱정 끝에 하룻밤에는, 작년에도 속은 그놈의 기우제(祈雨祭)를 또다시 벌였다. 앞산 봉우리에도 장작불을 피워 놓고 성동리 사람들은 목욕재계를 하고 어떤 위인은 낡은 두루마기, 또 어떤 위인은 제법 몽당 도포까지를 걸치고서 쪽 늘어섰다. 구장, 들깨, 갓이 비풀어진 봉구……. 옛날 훈장 노릇을 하던 노인이 쥐꼬리보다 작은 상투를 숙이고서 제문을 읽자 농부들은 일제히 하늘을 우러러보고 절을 하며 비를 빌었다.

— 김정환, '사하촌' 에서

전체 줄거리 보광사 절 사람들이 저수지에서 내려온 물을 독차지하다시피 하자 아래쪽 성동리 농민들과 절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보광사의 논을 부치고 사는 성동리 농민들이 폭양 아래 이 주사네 논을 매는데, 보광리의 젊은 남녀들은 해수욕을 다녀오고 유성기를 틀어 놓고 흥청댄다. 보광사에서 기우제를 드리지만 가뭄은 계속되고, 보광사 소유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던 아이가 절 산지기에게 쫓기다 벼랑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일어난다. 가을이 되어 보광사에서 간평을 나오지만, 그들은 소작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술을 마시며 놀다가 예년과 다른없는 소작료를 매긴다. 농민들은 압류 취소와 소작료 면제를 탄원하러 보광사로 몰려간다.

적용 학습

5 다음 기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다고 가정할 때, 소설의 구성 요소를 각기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계획표를 만들어 보자.



3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60년 만에 북측 아내 안○○(92) 씨를 만난 임○○(89) 씨는 주름이 깊게 팬 처의 얼굴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10여 년간 같이 살면서 말싸움 한 번 하지 않았을 정도로 금실이 좋았던 임 씨 부부였지만 1·4 후퇴 때 피난하다 헤어져 지금까지 생사도 모른 채 살아왔다.

“그래서 잘 쫓아다녀야 하는 거야, 맹주들.”이라며 야속한 세월을 타박하던 임 씨는 휠체어에 앉아 울고 있는 아내에게 “내가 큰 죄를 지었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아내한테 확인하고 쓴웃음을 지은 임 씨는 준비한 용돈 봉투를 건네주다 한국 돈을 꺼내며 “이것도 쓸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 ○○뉴스, 2010. 11. 3.

| 구성 요소 | 계획 내용 |
|-------------|-------|
| 인물 | |
| 배경 | |
| 사건 (줄거리) | |
| 서술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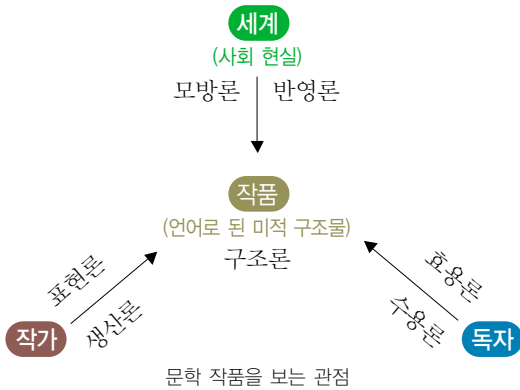
(2) 맥락을 고려한 수용

문학을 보는 관점

모든 대상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인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여서 작품이 지닐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온전하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작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문학은 작가와 독자가 작품 및 작품의 표현 대상인 세계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이므로 이 대화의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은 문학 작품을 각기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기준점이 된다.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보는 관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

문학 작품의 표현 대상으로, '현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인간, 사회, 자연, 우주 등 문학의 재료가 되는 문학 외적 대상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먼저 작품을 기준으로 한 관점이 구조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작가를 비롯한 작품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작품의 가치를 작품 그 자체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이루는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문학 고유의 미적 가치를 밝힐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무엇보다 작품을 구조론적 관점에 따라 섬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작품을 작가나 세계로부터 분리함으로써 작품 이해의 폭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작가를 기준으로 작품을 보는 관점에는 표현론적 관점과 생산론적 관점이 있다. 표현론적 관점은 문학 작품을 작가의 주관적인 체험과 영감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본다. 작품은 일차적으로 작가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작품에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문학 활동은 세계로부터 소외되고 만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관점이 생산론적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작품은 작가와 세계의 상호 교섭의 결과로 작가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 본다. 이러한 관점은 세계가 작품에 반영된다고 보는 반영론적 관점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세계를 기준으로 작품을 보는 관점에는 모방론적 관점과 반영론적 관점이 있다. 모방론적 관점은 작품이 세계를 드러난 그대로 재현한다고 본다. 이 관점을 지나치게 따라가게 되면 작품은 세계의 복제품이 되어 작가의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없게 된다. 반영론적 관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작품은 작가의 인식과 관점을 통해 세계를 반영한다고 본다. 이때 반영한다는 것은 세계의 모습을 단순히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세계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그 세계의 본질적

인 구조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여 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독자를 기준으로 작품을 보는 관점에는 효용론적 관점과 수용론적 관점이 있다. 효용론적 관점은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교훈과 즐거움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관점이다. 그런데 독자는 작품에서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다. 독자는 자신의 관점으로 작품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면서 능동적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이처럼 독자의 문학 활동이 주체적이며 능동적임을 강조한 관점이 수용론적 관점이다.

문학 맥락을 고려한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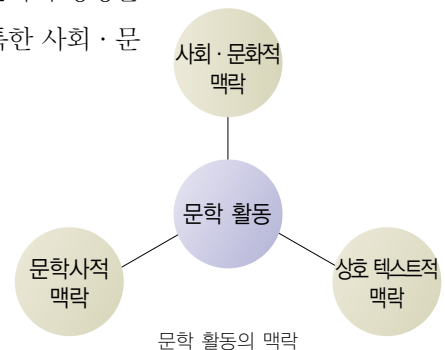
문학 활동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고립되어 있지 않고, 사회·문화적으로, 문학사적으로, 상호 텍스트적으로 다양하게 연관되어 일정한 관계망을 이룬다. 이 관계망을 문학의 맥락이라 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학 맥락을 고려하면서 문학 활동의 구성 요소들, 즉 문학 작품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균형 있게 살펴 가며 작품을 수용해야 한다. 문학의 소통 맥락을 고려한 문학 작품의 수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 활동의 두 주체인 작가와 독자는 독특한 욕망과 성격을 지닌 개별적 존재이므로 문학 활동은 작가와 독자의 개인적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도 한다. 작가의 개인적 영감과 경험이 표출된 작품의 경우 독자는 작가의 개인적 인생 이력과 성향을 작품 수용에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의미를 좀 더 충실하게 읽어낼 수 있다. 정지용의 ‘우리창 1’은 어린 아들을 잃은 작가의 체험을 알고 읽을 때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였던 의도와 시적 상황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독자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작가의 경험과 관련지어 작품의 내용에 공감하거나 작품의 내용을 비판해 봄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꾸어 갈 수 있다.

한편, 작가와 독자는 사회·문화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므로 집단적 존재이기도 하다. 또, 문학은 그 자체로 사회적 관습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문학 활동은 작가, 작품, 독자, 세계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양상과도 다양하게 관련된다. 문학 활동과 관련된 이러한 사회·문화적 양상들을 사회·문화적 맥락이라 한다. 작품은 표현 대상이 되는 세계의 독특한 사회·문화적 양상을 반영한다. 그런데 작품은 표현 대상이 되는 시대의 모습뿐 아니라 작가가 몸담고 있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도 관련을 맺게 된다. 홍명희의 ‘임꺽정’은 1928년에서 1940년에 걸쳐 신문에 인기리에 연재되었는데, 조선 명종대의 왜곡된 사회 구조를 배경으로 지배층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저항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었다. 이 작품이 독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은, 작가와 독자 모

상호 텍스트성

문학 이론에서 텍스트는 독자에게 읽히기 전의 원전(原典)을 가리킨다. 상호 텍스트성은 이러한 텍스트들이 서로 관련되어 의미를 형성하는 양상을 가리킨다.



두가 400년 전의 사회 구조와 의적 임꺽정을 그들이 살아가는 일제 강점기의 시대 현실에 투영해 봄으로써 민족적 저력을 발견하고 저항의 의지를 고취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문학 활동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동적으로 관련되므로 독자는 작품 속에 그려진 당대의 사회·문화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작가가 몸담고 있는 시대와 독자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문화적 양상까지 함께 관련지으며 작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문학 활동이 문학사적 요소들과 관련되는 양상을 문학사적 맥락이라 한다. 문학사를 통해 우리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할 때, 우리 문학의 전통을 계승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문학사를 통해 체계화된 시조나 가사의 형식을 인터넷 시조 창작 동호회나 라디오 방송에서 활용하는 일 등이 그러한 예이다. 또, 특정한 작품을 수용할 때에도 그 작품이 생산된 문학사적 맥락을 활용함으로써 훨씬 풍성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말기 시문학과 시인들이 일제의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우리말로 서정시를 썼다는 문학사적 사실을 알 때, 그들의 여리고 섬세한 서정시에서 오히려 강한 저항적 의미를 새롭게 읽어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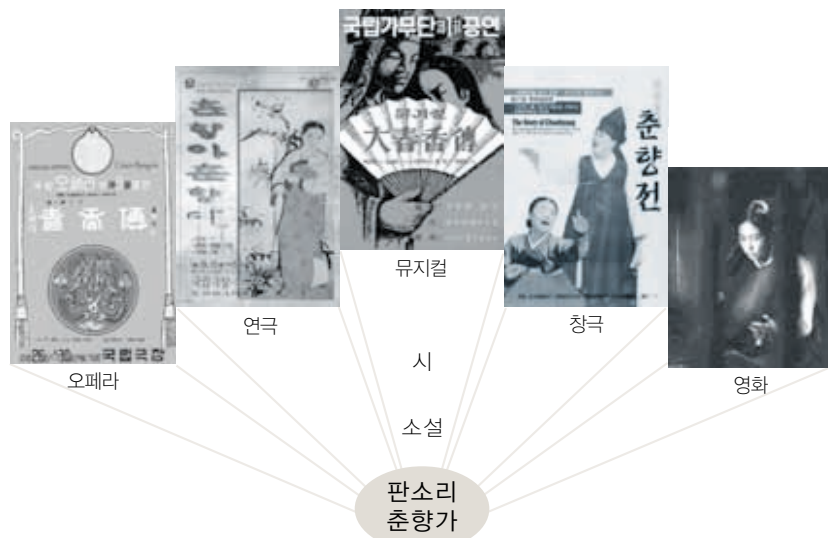
하나의 문학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내용이나 형식을 공유하며 관련되는 양상을 상호 텍스트적 맥락이라 한다. 서사 무가인 ‘바리데기’가 현대 소설로 쓰인 경우나 ‘춘향전’을 소재로 현대시가 쓰인 경우, 신화에 나타나는 신의 일대기가 조선 후기 영웅 소설의 형식으로 활용된 경우 등이 좋은 예이다. 이처럼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작가와 독자는 자리를 바꾸어 문학적 대화를 이어 나가며 우리 문학과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독자가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도 다양한 독서를 바탕으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을 다양하게 고려하면 그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황석영의 소설 ‘바리데기’

서사 무가 ‘바리데기’를 차용해 환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전쟁, 인종과 종교, 문화와 이데올로기로 분열된 현대 세계의 상처와 구원의 염원을 다루었다.

‘춘향전’을 소재로 한 현대시

- ‘춘향’ (김영랑)
- ‘추천사’ (서정주)
- ‘수정가’ (박재삼)
- ‘향아’ (신동엽)



국립극장(<http://www.ntok.go.kr>)

01 광야(曠野)

이육사

이 작품은 1944년 시인이 작고한 후 1945년 12월에 발표된 작품이다. 문학 활동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여 보자.

5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10

모든 산맥(山脈)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15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1904~1944)

경북 안동 출생. 시인.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강한 남성적 어조와 대결 의지로 민족의식을 담은 시를 썼다. 주요 작품으로 '교목', '꽃', '절정', '청포도' 등이 있으며, 유고 시집으로 "육사 시집"이 있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해 보자.

| 연구분 | 시간 | 중심 내용 |
|-----|----|-------|
| | | |
| | | |
| | | |

목표 학습

2 다음 시어들의 함축적 의미를 구조론적 관점에 따라 파악한 다음, 작가, 작품, 독자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다시 정리해 보자.

| | 구조론적 관점(내재적 관점) | 사회 문화적 맥락 |
|-----------|-----------------|-----------|
| 강물 | | |
| 눈 | | |
| 매화 향기 | | |
| 가난한 노래의 씨 | | |
| 초인 | | |
| 광야 | | |

3 두보의 생애와 시대 등을 고려하여 '춘망'을 읽고 다음에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나라히 파망(破亡)하니 퇴과 7름 썬 잇고
жат 앞 보미 풀와 나무 썬 기뻛도다.
시절(時節)을 감탄(感歎)호니 고지 늑믈롤 썬
리게코
여희여슈믈 슬호니 새 ㅁ호믈 놀레노라.
봉화(烽火)ㅣ 석돌롤 니어시니
지뵈트 음서(音書)논 만금(萬金)이 스도다.
셤 머리롤 글구니 썬 더르니
다 빈혀롤 이기디 몯홀 듯호도다.

- 두보, '춘망(春望)' / 분류두공부시언해 초간본(1481)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물만 있고
성 안의 봄에는 풀과 나무만 깊어 있구나.
시절을 슬피 탄식하니 꽃까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별을 슬퍼하니 새조차 마음을 놀라게 한다.
천란이 석 달을 이었으니
집에서 오는 소식은 만금보다 값지도다.
흰머리를 긁으니 또 짧아져서
다해도 비너를 이지지 못할 것 같구나.

이 나라 나라는 부서졌는데
이 산천 여태 산천은 남아 있더냐
봄은 왔다 하긴만
풀과 나무에 뿐이어

오! 서럽다. 이를 두고 봄이나
치위라 꽃잎에도 눈물뿐 흘으며
새무리는 지저귀며 울지만
쉬어라 이 두근거리는 가슴아

못 보느냐 별경계 솟구는 봉숫불이
끝끝내 그 무엇을 태우려 함이로
그리워라 내 집은
하늘 밖에 있나니

애닦다 굵어 쥐어뜯어서
다시금 짧아졌다고
다만 이 희끗희끗한 머리칼뿐
이제는 빗질할 것도 없구나.

- 김소월, '봄'('춘망'을 옮김, 1926)

두보(杜甫)와 이백(李白)은 같은 시대를 살다간 한시의 거장으로 각각 시성(詩聖)과 시선(詩仙)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들의 시풍은 다른 면이 많다. 이백이 산수 자연의 운곽을 자유분방하게 그려 청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면, 두보는 전란으로 떠돌며 피폐한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나라와 백성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뇌를 침울하고 비장하게 표현했다. 조선은 세종, 성종 대에 국가가 주도하여 두보의 시를 대대적으로 번역하여 "분류두공부시언해"라는 번역집을 출간하였다.

- (1) 조선 조정이 이백의 시를 번역하지 않고 두보의 시를 번역한 이유는 무엇일지 당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토의해 보자.
- (2) 김소월의 '봄'이 '춘망(春望)'과 다른 점을 찾아보고, 김소월이 '춘망'을 그렇게 번역한 이유를 다양한 관점과 맥락을 고려하여 설명해 보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를 비판한 박지원의 대표적 소설이다. 당대의 사회 현실, 박지원의 사상적 경향, 우리 시대와의 비교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어 보자.

박지원의 한문 단편 소설들

- ‘마장전’, ‘예덕선생전’, ‘민옹전’, ‘양반전’, ‘김신선전’, ‘광문자전’, ‘우상전’: 시정(市井) 인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
- ‘허생전’, ‘호질’: “열하일기”에 실린 현실 비판적 작품들.
- ‘열녀함양박씨전’: 여성의 삶을 다룬 작품.

박지원의 한문 소설들은 복고적인 한문학의 형식을 벗어난 참신한 형식 속에 조선 후기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 의식과 개혁 사상을 담아낸 작품들이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를 인식하고 새로운 문학을 창조하였다는 점에서 박지원의 한문 소설들은 오늘날 그 문학성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 변 씨 이 작품이 실린 “열하일기”의 ‘옥갑야화’에서 변 씨는 변승업의 윗대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음. 변승업(1623~1709)은 1645년에 역관이 되어 부를 크게 이루었다고 함.

이튿날 변 씨는 받은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서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냥을 버리고 십만 냥을 받겠소? 이제부터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변 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끝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 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 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혹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에 정의가 날로 두터워 갔다. 어느 날, 변 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냥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질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 냥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物種)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 냥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고로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利)를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오? 대개 만 냥을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는 고로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을이면 한



박지원(1737~1805)

조선 후기 문신, 실학자, 소설가. 북학파로서 이용후생의 사상에 바탕을 둔 작품을 많이 남겼다. 청나라를 여행하고 “열하일기”를 써 당시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문집에 “연암집”이 있다.

고을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 내듯 할 수 있지요.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종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 냥을 꺼어 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 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히 만 냥을 지닌 사람 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족히 백만 냥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에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히 나의 말을 들어 주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냥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 씨가 이번에는 판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 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어허,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우선, 졸수재(拙修齋) 조성기(趙聖期) 같은 분은 적국(敵國)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던만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반계 거사(磻溪居士) 유형원(柳馨遠) 같은 분은 군량(軍糧)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 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족히 구왕(九王)의 머리를 살 만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 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 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 씨는 본래 이완(李浣)이 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 씨에게 위항(委巷)이나 여염(閭閻)에 혹시 쓸 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 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래 하던가?”

❓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과 관련하여 당시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하며 읽어 보자.

- ◆ 조성기(1638~1689) 숙종 때의 학자이다. 자는 성경(成卿)이고 호는 졸수재이며, 한문 소설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과 문집으로 ‘졸수재집’이 있다.
- ◆ 유형원(1622~1673) 실험파의 선구자. 전북 부안의 반계동에 은거하며, “반계수록(磻溪隨錄)”이라는 저서를 남겼다.
- ◆ 구왕 청나라 세조의 숙부로 정권의 실세였다. 이름은 다이근(多爾袞)이고 예친왕(睿親王)에 봉해졌는데, 병자호란 때 태종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왔다.
- ◆ 이완(1602~1674) 효종·현종 때의 무신. 병자호란 때 공을 세웠으며, 효종이 북벌을 계획하자 어영청 대장이 되어 무기를 제조하고 성곽을 수축하였다.



◆ 구종 말구종.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異人)이야. 자네와 같이 가 보세.”

밤에 이 대장은 구종 들도 다 물리치고 변 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 갔다. 변 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 5

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10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오.”

❗ 당시 사회의 문제점에 주목하며 ‘이완’과 ‘허생’의 대화를 들어 보자.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 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 같은 이를 천거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5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10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 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 권귀(權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15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20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25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 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
30 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 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 ◆ 와룡 선생 제갈량의 별호. 중국 삼국 시대 때 유비가 제갈량의 보좌를 얻기 위해 그의 초옥을 몸소 세 번이나 찾아가던 일이 있음. 이를 삼고초려라 함.
- ◆ 훈척 나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 ◆ 빈공과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科擧).
- ◆ 백구지국 중국 봉건 시대 제후국 가운데 가장 높은 대우를 받는 나라. 백구는 천자가 성(姓)이 다른 제후를 존중하여 이르던 말.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辮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한테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고 앓았고, 무령왕(武靈王)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판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 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다음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이우성, 임형택 옮김.)

② 당시 사회에 대한 허생의 대응을 평가해 보자.

- 번오기 전국 시대 진나라 장수로 있다가 연나라로 망명한 인물. 연나라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진나라에 들어갈 때, 번오기는 진시황이 자기의 목에 현상금을 건 것을 알고 선선히 자기의 목을 베어서 형가에게 주어, 그가 진시황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예물로 쓰게 하였다.
- 무령왕 전국 시대 조나라 임금. 북방 오랑캐에게 대항하기 위해 전쟁에 편리한 오랑캐 옷을 입었다.

전체 줄거리 허생은 10년 계획으로 남산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가난을 못 이겨 어느 날 공부를 중단하고 장안의 갑부인 변 씨를 찾아가 십만 금을 빌려 지방으로 내려간다. 그는 이 돈을 밀천으로 장사를 벌여 크게 돈을 벌고 이 돈으로 도둑들을 섬에 모아 살게 한 다음 변 씨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 이후 두 사람은 깊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하루는 변 씨가 어영대장인 이완을 허생에게 소개한다. 이완은 나라를 살릴 방책을 허생에게 구하게 되지만 오히려 허생에게 비웃음만 사고 돌아간다. 이후 허생은 종적을 감춘다.

내용 학습

1 '돈'에 대한 허생의 가치관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고, 허생이 중시한 삶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2 당시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이완 대장이 허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다음과 같은 박지원의 사상이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자신이 허생이라면 이러한 사상을 당대에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토의해 보자.

박지원은 “열하일기”를 통해 청나라의 실용적 풍토와 번성한 문물을 조선이 과감하게 받아들여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그의 입장은 선입견을 버리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이로움을 추구하여 백성을 풍요롭게 해야, 백성을 바른 덕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던 그의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적용 학습

4 다음 작품은 1960~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를 배경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다양한 관점과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감상하여 보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팽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뿐
처녀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걱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럽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붙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신경림, '농무(農舞)'

(3) 주체적 수용

추체험의 과정

“..... 소설을 이루고 있는 말은 말 속에 또 말이 있죠. 그리고 그 속말, 그러니까 속뜻을 풀어내는 실마리도 소설 안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걸 읽어 내려면 행동의 앞뒤 관계를 따지고, 인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여러 가지 관련 지식과 사실들을 참고해야 합니다. 나는 금방 ‘읽어 낸다’는 표현을 썼는데, 달리 보면 그건 주어진 뼈대와 틀에다 독자가 ‘읽어 넣는다’고 할 수도 있어요.....”

- 최시한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독자가 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추체험(追體驗)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추체험이란, 독자가 작가의 경험과 상상을 따라가며 작가가 작품 속에 형상화해 놓은 허구적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함을 가리킨다. 그런데 문학 작품의 언어는 본질적으로 다의성이 강하며, 문학 작품 속의 세계는 작가에 의해 선택되고 상상된 세계이므로 문학 작품에는 생략되었거나 불확정적인 부분이 많다. 독자는 추체험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자신의 경험이나 인식을 동원하여 메꾸고 찾아 가면서 작품을 자신의 의식 속에 구체화해 간다. 특정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 살아가는 독자의 경험과 인식은 독자마다, 인생의 시점마다 제각기 다르므로 같은 작품이라도 독자에 따라, 읽는 시점에 따라 독자가 구체화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문학 작품은 작가가 생산한 그대로 전수되지 않고 제각기 다른 독자들에게 의해 늘 새롭고 다양하게 재구성되는 것이다.

한편 독자가 작품을 재구성하는 추체험의 과정은 독자가 작품을 사이에 두고 작가와 나누는 심미적 대화의 과정이기도 하다. 이때 ‘심미적’이란 단순히 형식에서 비롯된 감각적인 아름다움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삶에 대한 미의식에 관한 것으로, 어떤 삶이 참되고 아름다운 삶이며 어떤 삶이 추악하고 거짓된 삶인가에 대한 인식과도 관련된다.

독자는 자신의 경험과 인식, 사회 문화적 맥락을 비롯한 다양한 맥락 속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작품에 형상화된 삶에 대해 심미적 의미를 해석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독자는 자신의 해석과 평가를 작가의 심미적 판단과 관련짓는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작가의 심미적 인식에 동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비판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점이나 맥락을 바꾸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함으로써 독자는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한다.

이와 같은 주체적 수용은 독자 스스로 사회적, 역사적, 심미적 주체로서 삶을 성찰하고 경험과 인식을 확장함으로써 더욱 조화롭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아울러 독자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에서 비롯된 심미적 판단은 오늘날 대중 매체나 인터넷의 발달과 맞물려 작가의 작품 생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학이 인간의 삶을 더욱 역동적으로 반영하게 한다.

요컨대, 작품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독자는 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이룬 구조를 섬세하게 따라 읽으며 작가의 표현 의도를 밝혀 가되 그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읽어야 한다. 또,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며 작가의 심미적 인식을 자신의 인식과 견주어 보면서 무엇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올바른지 비판적으로 따져 보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더 바람직한 가치를 지향하며 작품을 수용해야 한다.

미의식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거나 이해하고, 아름다움을 가리켜 판단하는 의식. 미의식의 기준은 사람마다,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미의 범주

- 숭고미: 주체의 의지가 현실의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때 얻을 수 있는 미의식.
- 우아미: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미의식.
- 비장미: 주체의 의지가 현실적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 얻을 수 있는 미의식.
- 골계미: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상에서 얻을 수 있는 미의식. 해학과 풍자.

01 원고지

이근삼

이 작품은 실험적 기법과 현대인의 비극적 삶에 대한 풍자가 돋보이는 현대극이다. 현대인의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등장인물

- 5 중년 교수 (본직(本職) 번역) 처 장남 장녀 감독관 천사

(전략)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 장녀의 말하기의 특징은?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 10 장녀 인제 어머니가 돌아오세요. 어머니는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찢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형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잡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살살이 툄다. 돈을 한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툄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며 깨운다.

- 15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원고지'의 실험적 형식

'원고지'는 "사상계" 1960년 1월호에 발표된 작품이다. 기존의 정통 사실극과는 다른 실험적 형식을 다양하게 시도함으로써 한국 희곡사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등장인물이 해설자의 역할을 한다든지, 원고지 모양의 소파나 옷, 철쇄 등의 소재를 상징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인물의 대사와 실제 상황이 상반된다든지, 무대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기법들이 이 작품을 사실극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게 하는 요소들이다. 이러한 기법을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감상하여 보자.

◆ 플랫폼 무대를 만들거나 세트를 세울 때 토대가 되는 깔판.



이근삼(1929~2003)

평남 평양 출생. 극작가이자 영문학자. 풍자와 해학을 통해 현대 사회와 문명을 주로 비판하며, 실험적인 희곡 작품을 많이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 '국물 있습니다' 등이 있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 교수를 감고 있는 철쇄나 줄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에 긴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처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처 김 씨 만나봤어요?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처 그렇지만 김 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요?

교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5

10

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교수 내가 그 이 씨를 만난다니까.

처 이 씨는 또 누구요?

교수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5 처 그 주인이 왜 이 씨예요? 김 씨지.

교수 그래, 김 씨랬어.

처 이름도 못 외고 어떻게 해요?

교수 (화를 내며) 김 씨면 어떻게 이 씨면 어때? 박 씨면 또 어때?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 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다가 보면 영 딴 사람한
10 테 가게 된단 말이야. (잠시 사이) 거 애들한테 음악이나 한 곡 틀라고 하시오.

처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애들아, (잠시 후) 애들아, (대답이 없다.
여전히 부드럽게) 애들아.

장남 (처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호령이나 하듯이) 왜 그래요?

처 가벼운 음악이나 한 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15 장남 알겠어요!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건 상관없다. 판
이 고장이 난 듯, 똑같은 곡이 되풀이된다. 처는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
으로 귀를 막는다. 참다못해 교수는 손을 흔들며 중지하라는 시늉을 한다. 음악이 멎으며 옆
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20 장녀가 보인다.

교수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처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교수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시오?

처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25 교수 그 곡 이름이 뭐지?

처 ‘찬란한 인생’ 이라나요.

교수 ‘찬란한 인생’ 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군.

처 그런가 보죠.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 있는 신문지를 집어 본다.

◆ 축음기(蓄音機) 레코드에서 녹음한 음을 재생하는 장치.

교수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 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끄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5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집는다. 날짜를 보더니

처 당신두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 삼 년 전 신문과 오늘 신문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교수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서) 오라, 삼 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에는 두 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지프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지프차는 도망가 버리구.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 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끄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 맞았군.

10

15

처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삼 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당신 피곤하시죠?

장녀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얘,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난 김에 밥이나 좀 줘라.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20

처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교수 괜찮아, 밥 먹었어.

처 어디서요?

교수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거리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구.

처 언제요?

25

교수 오늘 아침에도 먹었구, 점심도…… 글썸……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 하겠군.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리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검둥이와 미녀’, ‘어떤 여자의 고백’ …… 이렇게 넷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5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교수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잔치를 했는데.

처 당신두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구.

10 교수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만 환을 내지 않았소?

처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뻘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래서 그랬지요.

교수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처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시누이의 아버지…….

15 교수 됐어,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며) 아이 피곤해. (이때 밖에서 시계가 여덟 시를 친다. 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여덟 시야! 여덟 시! 늦겠군.

처 어디 가세요?

교수 어디 가긴 어디 가. 나 가는 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20 전번 모양 철쇄를 졸라맨다. 이어 문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다시 들어온다.

처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시기가 바쁘게.

교수 여덟 시를 치기에 아침 여덟 신 줄 알았지.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캄캄하지 않아. 생각해 보니 밤 여덟 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오늘 밤은 좀 푹 쉬어야겠군.

25 처 공부는 안 하세요?

교수 공부?

처 아, 번역 말이에요.

교수 좀 쉬어야겠어.

30 처 그럼 좀 쉬다가 일어나세요. 전 옆방에 좀 갔다 오겠어요. 참, 당신두 옷 좀 갈아입으세요.

전번 모양 철쇄를 바꾸어 맨다. 이어 퇴장.

교수 아이, 피곤해.

이때 고요한 음악이 들린다. 눈을 감고 자는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돈다. 잠시 후 응접실 불이 서서히 꺼지고 플랫폼 방이 다시 나타난다. 소파 앞에 초라하게 앉아 있는 처와 소파에 자리 잡고 있는 장남, 장녀.

5

장녀 (처에게 명령조로) 양말, 하이힐!

장남 (처에게 명령조로) 잠바, 머플러!

처는 말이 떨어질 때마다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며 순응한다.

장녀 용돈, 교과서, 과자!

장남 떡국, 만둣국, 설렁탕!

10

장녀 영화 값, 연극 값, 다방 값!

장남 교재비, 차비, 동창회비!

장남 장녀 같이 손을 내밀면서

장녀 돈!

장남 돈!

15

장녀 자식에 대한 책임!

장남 자식에 대한 책임!

플랫폼 방의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철쇄마저 어느 사이에 풀 어헤치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아홉 시를 친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하였 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흥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 넣더니 잠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20

❓ '감독관' 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이 작품에는 '천사' 도 등장한다. '천사' 는 어떤 역할을 할까?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굴러 있던 가방을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가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꺼집어내고 책을 펼친다.

5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후략)

전체 줄거리 장녀와 장남이 나와 인물과 집안을 소개한다. 이들의 아버지이자 대학교수인 주인공은 삼 년 전의 신문을 무심코 읽다가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비슷한 내용의 오늘 신문을 읽는다. 교수는 아내의 돈타령과 원고 독촉을 듣다가 저녁 여덟 시를 아침인 줄 알고 출근하려고 한다. 게다가 장남과 장녀는 갖가지 용도의 용돈을 요구하고, 감독관은 번역 원고 쓰기를 독촉한다. 천사가 나타나 과거를 회상시키다가 곧 사라지고, 감독관이 또다시 번역을 독촉하자 교수는 영자 신문을 기계적으로 번역한다. 그의 처는 장남, 장녀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고, 감독관은 계속 번역을 재촉한다.

내용 학습

1 가족들이 '교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 | |
|--------|--|
| 처 | |
| 장녀, 장남 | |

내용 학습

2 '교수'의 복장이 상징하는 의미를 말해 보자.

목표 학습

3 '교수'의 가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현대인의 삶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목표 학습

4 '교수'의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여 그의 입장을 변호하여 보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해 보자.

• 내가 선택한 인물:

• 변호 내용:

• 친구들의 평가:

• 친구들이 변호한 사람과 내용

| 발표자 | 선택한 인물 | 변호한 내용 | 나의 평가 |
|-----|--------|--------|-------|
| | | | |
| | | | |
| | | | |
| | | | |

5 다음 작품의 화자의 관점에서 ‘교수’의 삶을 비판해 보고, ‘교수’의 삶이 바람직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충고하는 편지를 써 보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 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서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올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어느 사구(沙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

○○○ 교수님께

02 규중칠우쟁론기(閨中七友爭論記)

지은이 모름

이 작품은 바느질에 쓰이는 도구들을 의인화하여 쓴 내간체 작품이다. 작가의 표현 의도를 살펴 가며,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해 보자.

내간체(內簡體)

조선 시대에 부녀자들이 쓰던 산문 문체. 일상어를 바탕으로 말하듯이 써 내려간 것이 특징이다. 내간체로 된 작품에는 '계축일기(癸丑日記)', '한중록(閑中錄)', '산성일기(山城日記)' 등이 있다. '규중칠우쟁론기'는 '조침문(弔針文)'과 함께 의인화를 활용한, 독특한 형식의 내간체 작품이다.

이른바 규중 칠우(閨中七友)는 부인네 방 가운데 일곱 벗이니, 글하는 선비는 필묵(筆墨)과 종이, 벼루로 문방사우(文房四友)를 삼았나니 규중 여자인들 홀로 어찌 벗이 없으리오. 이리므로 침선(針線)♦ 돕는 것에 각각 이름을 정하여 벗을 삼을 새, 비늘로 세요 각시(細腰閨氏)라 하고, 지를 척 부인(戚夫人)이라 하고, 가위로 교두 각시(交頭閨氏)라 하고, 실로 청홍 각시라 하고, 다리미로 올낭자라 하고, 인두로 인화 부인(引火夫人)이라 하고, 골무로 감토 할미라 하여, 칠우를 삼아 규중 부인이 아침 세수를 마치매, 칠우가 일제히 모여 한가지로 의논하여 각각 소임을 말하는지라.

하루는 칠우가 모여 침선의 공을 의논하더니 척 부인이 긴 허리를 재며 이르되, “제우(諸友)는 들으라. 나는 가는 명주 굵은 명주 백저포(白紵布) 세승포(細升布)와, 청홍 녹라(靑紅綠羅) 자라(紫羅) 홍단(紅緞)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男女衣)를 마련할 새, 장단 광협(長短廣狹)♦이며 수품 제도(手品制度)♦를 나 아니면 어찌 이루리오. 이리므로 옷 만드는 공이 내가 으뜸 되리라.”

교두 각시 양각(兩脚)을 빨리 돌려 내달아 이르되, “척 부인아,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들 버혀♦ 내지 아니하면 모양 제대로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 마라.”

세요 각시 가는 허리 구부리며 날랜 부리 두루혀♦ 이르되, “양우(兩友)의 말이 불가(不可)하다. 진주(眞珠) 열 그릇이라도 펜 후에야 보배라 할 것이니, 자유자재로 재단할 수 있다 하나 나 곧 아니면 옷을 어찌 지어내리오. 잔누비 미누비♦ 짧은 솔 긴 옷을 이름에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어찌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의 재어 내고 교두 각시 버혀낸다 하나, 나 아니면 공이 없거니, 두 벗이 무슨 공이라 자랑하느냐.”

청홍 각시 얼굴이 붉으락프르락 하여 노하여 이르되,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무리 잘난 체하나 한 솔 반 솔인들 나 아니면 네 어찌 성공하리오.”

- ♦ 침선 바느질.
- ♦ 장단 광협 길고 짧고 넓고 좁음.
- ♦ 수품 제도 솜씨와 격식.
- ♦ 버혀 잘라.
- ♦ 두루혀 돌려.
- ♦ 미누비 중누비. 누빈 줄의 간격이 중간 정도로 등성등성한 누비.



감토 할미 웃고 이르되,

“각시님네, 웬만하면 자랑 마소. 이 늙은이 수말[◆] 적기로 아가씨네 손부리[◆] 아프지 않게 바느질 도와 드리나니, 옛말에 이르기를, ‘용의 꼬리보다 닭의 머리가 낫다.’ 하였으니, 청홍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 하시느뇨. 실로 얼굴이 아깝도다.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찢리었으되 낮가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고 아무 말도 아니하노라.”

인화 부인이 이르되,

“그대들은 다투지 말라. 나도 잠깐 공을 말하리라. 미누비, 세누비 누구로 하여 젓가락같이 고우며, 혼술[◆]이 나 아니면 어찌 풀로 붙인 듯이 고우리오. 바느질 솜씨가 그다지 좋지 못하여 들락날락 바르지 못한 것도 나의 손바닥을 한번 씻으면 잘못된 흔적이 감추어져 세요의 공이 나로 하여 광채 나니라.”

올 남자 크나큰 입을 벌리고 너털웃음으로 이르되,

“인화야, 너와 나는 소임 같다. 그러나 인화는 침선뿐이라. 나는 천만 가지 의복에 아니 참여하는 곳이 없고, 가증한 여자들은 하루에 할 일도 열흘이나 구기여 살이 주역주역한[◆] 것을 나의 광둔(廣臀)[◆]으로 한번 스치면 굵은 살 날 날이 퍼며 제도와 모양이 고와지고, 더욱이 여름이 되면 손님이 많고 바빠 하루도 한가하지 못한지라. 의복이 나 아니면 어찌 고우며 더욱 빨래하는 여자들이 게을러 풀 먹여 넣어 두고 잠만 자면 부딪혀 말린 것을 나의 광둔 아니면 어찌 곱게 하며 세상 남녀 어찌 반반한 것을 입으리오. 이리므로 옷 만드는 공이 내 제일이 되나니라.”

규중 부인이 이르되,

“칠우의 공으로 의복을 다스리나, 그 공이 사람의 쓰기에 있나니, 어찌 칠우의 공이라 하리오.”

하고 말을 마치매 칠우를 밀치고 베개를 돋우어 잠을 깊이 드니, 척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매정한 건 사람이오,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 마를 제는 먼저 찾다가 이루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중 잠 깨우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엽지 않으리오.”

교두 각시 이어 가로대,

“그대 말이 가하다. 옷 말라 버힐 때는 나 아니면 못 하련마는, 잘 드니 안 드느니 하고 내어던지며 양각을 각기 잡아 흔들 제는 불쾌하고 노엽기 어찌 측량하리오. 세요 각시 잠깐이나 쉬랴 하고 달아나면 매양 내 탓만 여겨 트집하니, 마

❓ 등장인물들의 말과 태도를 평가하며 읽어 보자.

- ◆ 수말(首末) 머리와 끝을 이룰러 이르는 말.
- ◆ 손부리 손가락의 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혼술 흠질로 꿰맨 옷의 솔기.
- ◆ 주역주역한 구깃구깃한.
- ◆ 광둔 넓은 볼기.

치 내가 감춘 듯이 문고리에 거꾸로 달아 놓고 좌우로 돌아보며 앞뒤로 시험하여 얻어 내기 몇 번인 줄 알리오. 그 공을 모르니 어찌 애원하지 않으리오.”

세요 각시 한숨지으며 이르되,

“내 일찍이 무슨 일로 사람 손에 보채이며 요악지성(妖惡之聲)을 듣고, 각골통한(刻骨痛恨)하며, 더욱 나의 악한 허리 휘두르며 날랜 부리 두루혀 힘껏 침선을 돕는 줄은 모르고 마음 맞지 않으면 나의 허리 부러뜨려 화로에 넣으니 어찌 통원하지 않으리오. 사람과는 극한 원수라. 갓을 길 없어 이따금 손톱 밑을 질러 피를 내어 한을 풀면 조금 시원하나, 간혹한 감토 할미 밀어 내어 만류하니 더욱 애달프고 못 견디리로다.”

인화가 눈물지어 이르되,

“나는 무슨 죄로 포락지형(炮烙之刑)을 입어 붉은 불 가운데 낮을 지지며 굳은 것을 깨치기는 나를 다 시키니 싫고 괴롭기 측량하지 못할레라.”

올 남자 근심스런 얼굴로 이르되,

- ◆ 요악지성 요망하고 간악한 말.
- ◆ 각골통한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
- ◆ 포락지형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



“그대와 소임(所任)이 같고 욕되기 한가지라. 제 옷을 문지르고 먹을 잡아 들
까부르며, 우겨 누르니 황천(皇天)이 덮치는 듯 심신이 아득하야 나의 목이
따로 날 적이 몇 번인 줄 알리오.”

5 칠우 이렇듯 담론하여 회포를 이르더니, 자던 여자 문득 깨쳐 칠우에게 말하
기를,

“칠우는 내 허물을 그토록 말하느냐.”

감토 할미 머리를 조아리며 이르되,

10 “젊은 것들이 망령되어 생각이 없는지라. 저희들이 재주 있으나 공이 많음을
자랑하여 원망을 하여 대니 마땅히 곤장을 칠 만하되, 평소의 깊은 정과 저희
조그만 공을 생각하여 용서하심이 옳을까 하나이다.”

여자 답하여 이르기를,

“할미 말을 좇아 용서하리니, 내 손부리 성한 것이 할미 공이라. 꺾어 차고
다니며 은혜를 잊지 아니하리니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그 가운데 넣고 몸
에서 떠나지 않게 하리라.”

15 하니, 할미는 머리를 조아려 사례를 표하고 칠우는 부끄러워하며 물러나니라.

? '감토 할미'는 어떤 사람?



내용 학습

1 전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

| | |
|-----------|--|
| 처음 ~ 쪽 짜줄 | |
| ~ 쪽 짜줄 | |
| ~ 끝 | |

내용 학습

2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고려하여 ‘여자’와 ‘규중 칠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지 토의해 보자.

목표 학습

3 자신의 관점에 따라 ‘감토 할미’의 처신을 평가하여 발표해 보고, 발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자.

- ‘감토 할미’에 대한 나의 평가:
- 나와 생각이 다른 발표자의 평가

| 발표자 | 감토 할미에 대한 평가 | 나의 생각 |
|-----|--------------|-------|
| | | |
| | | |

목표 학습

4 이 작품의 형식에 대해 토의해 보고 형식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 구분 | 형식상의 특징 | 형식의 적절성 |
|-----------|---------|---------|
| 수필로 보는 관점 | | |
| 소설로 보는 관점 | | |

5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를 읽고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짝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 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날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1969)

(1) 1, 2연과 3연의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고, 이 작품의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자.

(2) 이 작품 속의 삶의 모습과 한 세대가 지난 현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보고, '비둘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보자.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보자.

| | |
|---------------|---|
| 내용·형식을 고려한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은 언어 예술 작품으로서 (ㄴ ㅇ)과 (ㅎ ㅅ)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 문학 작품의 내용은 (ㄱ ㄹ)과 구체적인 언어 (ㅍ ㅎ)을 통해 (ㅎ ㅅ ㅎ)됨으로써 형식과 한 몸이 된다. |
| 맥락을 고려한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평가할 때는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ㅁ ㄹ)을 고려해야 한다. • (ㄱ ㅈ ㄹ)적 관점은 작품의 내부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재적 관점이라고 한다. •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는 (ㅅ ㅎ ㅁ ㅎ)적, (ㅁ ㅎ ㅅ)적, (ㅅ ㅎ ㅌ ㅌ)적 맥락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 주체적 수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을 수용한다는 것은 작가와의 끊임없는 (ㄷ ㅎ)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ㅂ ㅍ)적·(ㅈ ㅇ)적으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는 (ㄱ ㅅ)적인 안목과 (ㄱ ㅂ)적이고 (ㅍ ㅇ)적인 자세가 함께 필요하다. |

확인하기

2 작품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 | |
|----------|---|
| 청노루 |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은 무엇인가? |
| 메밀꽃 필 무렵 | 시공간적 배경이 사건의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
| 광야 | 작가의 생애와 시대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은 어떠한 상황인가? |
| 허생전 |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때 '허생전'이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 |
| 원고지 |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
| 규중칠우쟁론기 | 다양한 맥락을 고려할 때, '여자'와 '규중 칠우'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가?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내용·형식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가? | | | |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할 수 있는가? | | | |
|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할 수 있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2 문학의 생산

이 단원에서 우리는

- 내용과 형식,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생각 열기



약에 체한 데는 약도 없습니다

위 광고는 _____ 을 _____ 에 빗대어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표현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01 꽃 | 김춘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장정일

• 한림별곡 | 한림제유

02 소나기는 그쳤나요? | 장진



(2) 작품의 창작

01 차마설 | 이곡

• 이옥설 | 이규보

• 흙탕물설 | 학생 작품

02 고향 | 백석

• 화랑의 후예 | 김동리

• 설렁탕 한 그릇 | 학생 작품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독자는 작가가 의도한 그대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지는 않는다. 독자는 자신의 미적 취향과 가치관, 상상력 등을 통해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의 수용은 기본적으로 독자가 작품을 그의 의식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문학 작품을 재구성할 때 독자는 작품 속에 형상화된 삶을 비판적으로 또는 새롭게 해석하기도 하고,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고려하여 형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더욱 적극적인 독자는 자신의 해석과 평가에 따라 특정 대목의 내용을 바꾸어 본다든지, 작품의 내용 전개나 인물, 소재 등을 바꾸어 본다든지 하면서 원작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작품으로 생산해 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창조적 재구성 활동은 수용 활동과 생산 활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함으로써 독자의 문학 활동 능력을 기르게 하고, 아울러 상호 텍스트성에 바탕을 둔 문학적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증진하여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 그 자체에 대한 독자의 개인적인 성향과 인식은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아울러 맥락을 바꾸어 작품을 보는 방법도 문학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 속에 다루어진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작품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맥락을 바꾸어 보면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또는 표현 매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신분 질서가 엄격한 조선 시대의 삶을 다룬 작품을 현대인의 관점으로 재구성한다든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보자. 원작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바뀌게 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형식도 달라질 것이다. 현대인들이 시각 매체에 익숙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화나 만화로 매체를 바꾸어 원작을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내용 바꾸기이다. 이는 원작의 형식을 그대로 두고 내용만을 바꾸는 방법이다. 다음은 형식이나 매체 바꾸기이다. 이는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이나 매체로 바꾸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내용과 형식(또는 매체) 함께 바꾸기이다. 이는 원작의 주제나 소재와 관련지으면서 내용과 형식(또는 매체)을 함께 바꾸는 방법이다. 문학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원작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내용을 바꾸든, 형식을 바꾸든, 그 둘을 함께 바꾸든 창조적 재구성 활동은, 원작에 대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수용을 통해 원작과는 또 다른 문학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패러디

패러디는 한 작가의 스타일이나 기법 등을 흉내 내어 원작을 우스꽝스럽게 개작하거나 변형하는 방법이다. 즉, 조롱하거나 우습게 만들려는 의도로 하나의 작품을 재편집하고 재구성하고 전도시키는 방법이 패러디이다. 그러므로 패러디는 특정 작품의 모방이되 원작과는 차이를 지닌 모방으로서, 원작을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재기능화하는 방법인 것이다.

-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국어 교육학 사전

이 작품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꽃에 비유하여 표현한 시이다.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5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10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15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1922~2004)

경남 통영 출생. 시인. 사물의 이면에 내재하는 본질을 파악하는 시를 써 '인식의 시인'으로 일컬어진다. 주요 작품으로 '꽃을 위한 서시', '처용 단장' 등이 있다.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장정일

이 작품은 김춘수의 '꽃'이란 시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시이다. 원작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5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10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15



장정일(1962~)

대구 달성 출생. 시인, 소설가. 소비 사회에서 인간의 삶을 개성적으로 형상화하는 작품 경향을 보여 주었다. 주요 시집으로 "햄거버에 대한 명상"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꽃' 에서 '꽃' 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내용 학습

2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에서 '전파' 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목표 학습

3 다음의 표현들을 비교하여 '꽃' 을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으로 재구성한 과정을 설명해 보자.

(1) 작품 비교

| 꽃 |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
|-------------------|--------|---|--------|
| 표현 | 함축적 의미 | 표현 | 함축적 의미 |
| 나의 이 빛깔과 향기 | |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 | |
|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 |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 는 라디오 | |

(2) 작가가 재구성의 과정에서 고려한 점

| | |
|---------|--|
| 형식 | |
| 내용 | |
| 재구성의 효과 | |

4 가정, 친구, 학급, 학교 등을 소재로 내용을 바꾸어 다음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보자.

원순문 ◆ 인노시 ◆ 공노소륙 ◆
 元淳文 仁老詩 公老四六
 니정언 ◆ 단한림 ◆ 상운주필 ◆
 李正言 陳翰林 雙韻走筆
 통기덕척 ◆ 광균경의 ◆ 량경시부 ◆
 沖基對策 光鈞經義 良經詩賦
 위 시당시경 괴 엇더하니잇고 ◆
 試場 景
 엽 금혹스 ◆의 옥순 ◆문싱 금혹스의 옥순문싱
 葉 琴學士 玉筍文生 琴學士 玉筍文生
 위 날조차 몇 부니잇고 ◆

- 한림제유, '한림별곡'에서

- ◆ 원순문 유원순의 문장.
- ◆ 인노시 이인로의 시.
- ◆ 공노소륙 이공로의 사륙변려문.
- ◆ 니정언 정언 벼슬을 한 이규보.
- ◆ 단한림 한림 진화.
- ◆ 상운주필 상운자의 시문을 거침없이 써 내려감.
- ◆ 통기덕척 유충기의 책문.
- ◆ 광균경의 민광균의 경전 해석.
- ◆ 량경시부 김양경의 시와 부.
- ◆ 위 시당시경 괴 엇더하니잇고 시험장의 광경, 그것이 어떠합니까?
- ◆ 금혹스 학사 금의.
- ◆ 옥순 옥으로 된 죽순처럼 쟁쟁한.
- ◆ 날조차 몇 부니잇고 나까지 몇 분입니까?



02 소나기는 그쳤나요?

장진

이 작품은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의 뒷이야기를 다룬 시나리오이다. 원작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여 작가가 창조적으로 재구성하였는지 살펴 가며 읽어 보자.

장면 1. 소설 '소나기'의 마지막 장면 - 소년의 집 마당

5 엄마가 마당에서 말린 고추를 펼쳐 놓고 다듬고 있다.
 그때, 아빠가 들어온다.

엄마 이제 오세요?

아빠 응. 예고 더워. 가을 더위가 안 가네. 고집이야 이놈의 날씨도.....

엄마 그러게 일찍 오시지, 왜 이리 늦으셨대?

10 아빠 아, 윤 초시택에 들렀다 왔어. 이따가 저녁 먹기 전에 한 번 더 가 볼 참이야.

엄마 에휴. 안 그래도 얘기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 갔다고요?

아빠 허, 참 세상일도...... 윤 초시택도 말이 아니야 그 많던 전답 다 팔아 버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고, 또 악상(惡喪)까지 당하는 걸 보면......

15 엄마 증손이라곤 계집애 그 애 하나뿐이었지요?

아빠 그렇지 사내애 둘 있던 건 어려서 잃어버리고......

엄마 어찌면 그렇게 자식복도 없을까?

아빠 글썄 말이지. 이번엔 꽤 여러 날 앓는 걸 약도 변변히 못 써 봤다는군. 지금 같아선 윤 초시네도 대가 끊긴 셈이지.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애 어린 것이
20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윤 초시네 증손녀가 죽었다는 얘길 나누는 엄마와 아빠.

아빠와 엄마의 얘기를 타고 카메라는 소년의 방으로 다가간다.

소년의 방, 문고리에서

25 페이드아웃(F.O) ◆



영화 '소나기는 그쳤나요?' 포스터

'소나기'와 '소나기는 그쳤나요?'

황순원의 '소나기'는 1978년에 영화, 1995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바 있으며, 텔레비전 드라마로도 수차례 방영되었다. '소나기는 그쳤나요?'는 원작 '소나기' 이후의 소년의 삶을 그림으로써 '소나기'를 원작으로 한 이전의 영화나 드라마와는 또 다른 창조적 재구성의 양상을 보인다. 이 점에 주목하여 원작과 시나리오와 영화를 함께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 악상 수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젊어서 죽은 사람의 상사. 흔히 젊어서 부모보다 먼저 자식이 죽는 경우를 이른다.

◆ 페이드아웃(F.O) 화면이 차차 어두워짐. (→ F.I.)



장진(1971~)

서울 출생. 극작가 겸 영화감독. 풍부한 상상력과 기발한 착상으로 풍자와 위트가 넘치는 작품이 많다. 희곡으로 '택시 드리벌', '웰컴 투 동막골' 등이 있고, 시나리오로 '간첩 리철진', '박수칠 때 떠나라' 등이 있다.

타이틀 — 소나기는 그쳤나요?

화면, 위로 오르고

장면 2. 소년의 방

소년 얼굴에 진득이 올라오는 땀방울들.

밖에서 들리는 엄마 아빠의 이어지는 대화.

5

엄마 얼른 씻으세요.

아빠 그래.

엄마 그럼, 갔다 와서 저녁 드실래요?

아빠 거기 정신없어 음식이고 뭐고 없고 상갓집 같지가 않아.

엄마 그럼 대강 드시고 가지지.

10

아빠 뒤. 밥 핑계 대고 얼른 오게. 밤새워 줄 상도 아니지. 어린아 죽은 걸 뭘 어른들이 밤새워 자릴 편대?

엄마 하긴. 옷 벗고 씻어요. 다 젖네.

힘겹게 몰아쉬는 소년의 숨.

이내, 이불을 획 덮어쓴다.

15

(스치는 인서트)

소녀와의 몇몇 마주침. 소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소년의 모습 위주로.

개울가. 소녀가 돌을 던지고 “바보”라고 말한 뒤 뛰어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소년의 모습.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소녀를 보던 소년의 얼굴.

20

소나기가 오는 속에서 수수 더미 밑에서 소녀 옆에 앉아 있는 젖은 소년의 얼굴.

소녀의 무릎 상처에 입술을 대고 빨아 빨는 소년의 얼굴.

소녀를 업고 뛰어가는 소년의 얼굴.

장면 3. 소년의 집 - 마당

다음 날 아침.

25

❓ 소설 ‘소나기’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자.

- ◆ 타이틀(Title) 영화에서 각종 정보를 문자로 표시한 자막. 제목을 알려 주는 표제 자막, 제작진이나 출연진을 소개하는 인물 자막, 영화의 끝을 알리는 종영 자막, 외국 영화의 대사를 적은 대사 자막 따위이다.
- ◆ 인서트(Ins) 화면의 특정 동작이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한 화면. 또는 화면을 삽입하는 것.

소년, 일찍 일어나 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다.

저 앞 나무에서 울고 있는 새 한 마리. 소년, 그 새를 멍하게 본다.

장면 4. 소녀의 집

조등[◆]이 걸려 있고, 소년, 알 수 없는 어떤 처연함으로 소녀의 집 앞, 그 조등을 바라본다.

5 장면 5. 소년의 집으로 가는 길

소년, 뛰어간다. 뭔가를 잊으려고. 소년의 손엔 조등이 들려있다.

장면 6. 소녀의 집

사람들 몇몇이 얘기한다.

“아니, 어떤 미친놈들이 이걸 훔쳐갔대.”

10 “어디 다른 데다 걸어 놓 거 아냐?”

“새가 물어 갔나?”

장면 7. 소년의 집

소년, 조등을 들고 헉헉대며 서 있고 그 모습을 어이없이 바라보는 소년의 부모.

장면 8. 소년의 집 - 마루

15 저녁을 먹고 있다. 소년, 땀을 흘린다.

엄마 아니, 고추 맵냐? (하나 먹어 보고) 안 매운데, 무슨 땀을 이렇게 흘린대?

아빠 날 서늘해지면 보약이라도 한 첵 해 먹여. 여름날에도 땀이 없던 놈이 속
불날 일 있냐?

◆ 조등(弔燈) 장례를 치른다는
것을 알리는 등.



소년, 그대로 폭 자빠진다. 손가락을 든 채로 바닥에 고개를 박고 누워 버린다.

엄마 너 뭐하냐? 아파?

아빠 내일 당장에 약 해 먹어.

소년 가슴이, 어째 이렇게 저미나. 쿡쿡 뭐가 뭉쳐있는 게…….

엄마 담 길렀나.

5

아빠 앉혔네. 누워 처먹응게 그렇지. 일어나 좀 뛰고 와.

장면 9. 소년의 집에서 소녀의 집으로 가는 길

❓ 소년의 행동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소년, 또 뛰다. 뭉가를 잊으려고, 혹은 체한 길 내리려고

장면 10. 소녀의 무덤

아빠와 소년이 그 아래 길로 지나간다. 아빠는 소를 끌고 가고 있다. 소년, 그 무덤을 바라본다. 초라한 무덤. 10

소년 저기엔 왜 비석이 없어?

아빠 부모보다 먼저 죽은 애들은 비석이 없지.

소년 왜?

아빠 비석에다가 쓸 말도 없거든. 죽은 것도 슬픈데, 거기다가 뭐라 써 놓으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냐? 태울 줄 알았더니 묻었네. 철마다 풀갈이는 누가 할라고. 노인네, 괜한 짓 한 거 아닌가 몰라. 15

소년 나 죽어도 비석을 안 세워줄 거야?

아빠 왜? 죽게? 아버지보다 일찍?

◆ 풀갈이 벌초.

소년 난 비석 세워주라. 20



아빠 싫어 입마.

사이.

아빠 비석에 뭐 쓰고 싶은 말 있냐?

소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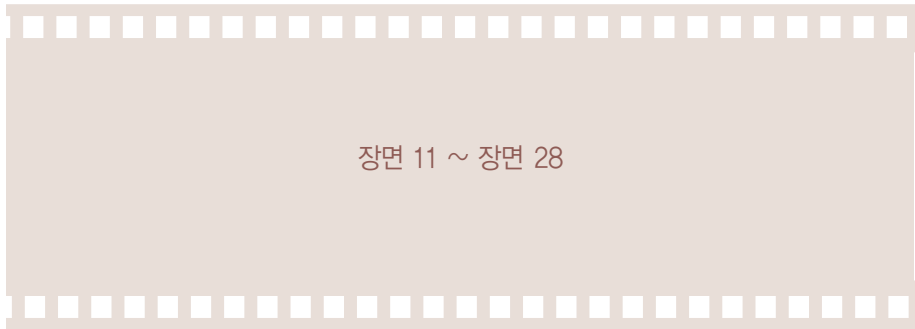
5 아빠 있냐?

소년 죽도록 사랑했다고…… 죽도록 사랑해서, 그래서 죽었다고…….

멀리 보이는 아빠와 소년. 아빠, 죽도록 소년을 껴고 있다.

아빠 이런, 쓸개 빠진 놈. 죽도록 어디 맞아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에라이 후 레아들 놈의 자식.

10



🔍 장면 11~장면 28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자.

장면 29. 멀리 보이는 소녀의 무덤

소년, 열심히 뭔가를 나른다. 큼지막한 돌이다. 어느새인가 무덤 앞에 수북이 쌓인 돌들. 얼추 비석 모양이다. 그리고 그 앞면에는 흰 돌로 그어 새겨 놓은 글씨가 보인다. ‘또 봐’ 소년, 그리고 소녀의 베개를 무덤 위쪽에 올려놓는다. 소년, 무덤 앞에 앉아 있다.

15

소년 가을 올 텐데……. 거기 안엔 춥겠다. 베개 가져왔으니까 베고 자.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 니 방에도 갔다 와 봤어. 너 여기서 태어났다면? 난 서울엔 줄 알았지. 이름이 어째……. 아픈 거, 서울 가서 그런 거래. 서울 가서 공기 안 좋은 데서 살아서……. 여기 일찍 올걸 그랬다.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거나…… 그랬으면 (조금씩 훌쩍인다.) 좋았을걸……. 나, 미안한데, 니 일기장 봤는데, 너, 글씨 진짜 예쁘게 쓰더라. 난 만날 뻘뻘인데……. (조금씩 운다.) 그리

20

고, 니 친구, 머리 수술한……. 내가 가서 생일 축하해 주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노래도 불러 주고 다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자.

소년 울다가, 고개를 돌린다. 옆에 누가 있는 것처럼 그 옆을 바라보고.

소년 안 울어……. 우는 거 아니……하긴 너 죽은 날 곡소리도 안 나더라……. 아무도 안 울어 주니, 그게 참 불쌍해…….

5

카메라 조금 빠지면 소녀가 옆에 있다.

소년 내가 너 비석 만들었는데……. 맘에 안 들어도 이렇게 있어. 바람 세게 불 땐 내가 와서 들리게. 그리고 참 미안해. 그날, 나랑 그 비만 안 맞았어도…….

소녀, 손을 내민다. 소년 수줍게 그 손을 잡는다. 소녀 조용히 그 옆에 눕는다. 소년도 그 옆에 수줍게 눕는다. 둘, 그렇게 누워서 있다. 사랑이다.

10

멀리서 바라보는 카메라. 무덤 앞에 소년 혼자 마치 누군가가 옆에 같이 누워있는 듯한 모습으로 평화롭게 누워 있다.

하늘 묵색으로 변하더니 작은 방울들이 떨어진다.

그 물방울이 소년도 소녀의 무덤도 모두 적신다.

많은 것들이 씻겨 나가는 모습이다.

15

(후략)



뒷부분 줄거리 소년의 학급에 여자아이가 새로 전학을 온다. 그 여자아이는 냇가에서 소년에게 조개 이름을 묻는다. 소년은 여자아이를 냇물에 떠밀고 불쾌한 표정으로 달려간다. 달려가는 중에 불쾌한 표정은 점차 연한 미소로 바뀌고 미소 속에서 죽은 소녀의 웃는 얼굴들이 함께 보인다.

내용 학습

1 소녀의 죽음을 알고 난 후 보인 소년의 행동을 정리하고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말해 보자.

목표 학습

2 원작인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고 두 작품을 관련지어, 이 작품의 제목인 '소나기는 그쳤나요?'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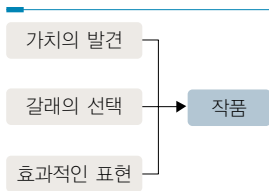
3 장면 1과 장면 3은 원작 소설의 내용을 시나리오로 표현한 부분들이다. 이 부분을 삽입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를 통해 작가가 원작의 어떤 부분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려 하였는지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4 앞뒤 내용의 전개 양상과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여 본문의 **장면 11~장면 28**을 다섯 장면 정도로 나누어 직접 써 보자.

(2) 작품의 창작

대부분의 독자는 전문 작가들처럼 타고난 재능이 있어야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문학 창작은 전문 작가들만의 고유한 영역은 아니다. 과거 인류의 삶 속에서 문학은 늘 일상의 삶과 결부되어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과 글 속에서도 문학적인 표현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은 가치 있는 삶의 경험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이 말 속에는 문학 창작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할 만한 ‘가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그 경험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에 적합한 갈래, 표현 방법 등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주제)’를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작품의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 주제와 소재를 정할 때는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구체적인 경험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문학 작품으로 표현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문학적으로 표현할 가치가 있는 경험을 선택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시, 소설, 수필, 희곡 등의 문학 갈래 중에서 어떤 갈래의 형식을 취할 것인지 결정한 후에, 갈래별 구성 요소, 내용 전개 방식, 화법, 수사법, 문체 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별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표현하고자 하는 경험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또한 표현할 때 지나치게 문학적 기교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지나친 기교는 문학의 중요한 미덕인 문학적 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창작자는 문학 작품에 사용된 기교가 가치 있는 체험을 표현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 작품은 말을 빌려 탄 경험을 바탕으로 쓴 설(說)이다. 경험에서 발견한 가치와 표현 방법을 함께 살펴 가며 읽어 보자.

내가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으므로 혹 빌려서 타는데, 여위고 둔하여 걸음이 느린 말이면 비록 급한 일이 있어도 감히 채찍질을 가하지 못하고 조심조심하여 곧 넘어질 것같이 여기다가, 개울이나 구렁을 만나면 내려서 걸어가므로 후회하였으나, 발이 높고 귀가 날카로운 준마[◆]로서 잘 달리는 말에 올라타면 의기양양하게 마음대로 채찍질하여 고삐를 놓으면 언덕과 골짜기가 평지처럼 보이니 심히 장쾌하였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위태로워서 떨어지는 근심을 면치 못하였다.

아! 사람의 마음이 옮겨지고 바뀌는 것이 이와 같을까? 남의 물건을 빌려서 하루아침 소용에 대비하는 것도 이와 같거든, 하물며 참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느 것이나 빌리지 아니한 것이 없다.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높고 부귀한 자리를 가졌고,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 은총과 귀함을 누리며, 아들은 아버로부터, 지어미는 지아버로부터, 비복(婢僕)[◆]은 상전으로부터 힘과 권세를 빌려서 가지고 있다.

그 빌린 바가 또한 깊고 많아서 대개는 자기 소유로 하고 끝내 반성할 줄 모르고 있으니, 어찌 미혹(迷惑)[◆]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도 혹 잠깐 사이에 그 빌린 것이 도로 돌아가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외톨이가 되고, 백승(百乘)[◆]을 가졌던 집도 외로운 신하가 되니, 하물며 그보다 더 미약한 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맹자가 일컫기를 “남의 것을 오랫동안 빌려 쓰고 있으면서 돌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줄 알겠는가?” 하였다.

내가 여기에 느낀 바가 있어서 차마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노라.

(김규성 옮김.)

설

‘설’은 이치에 따라 사물을 해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한문 양식이다. ‘설’이란 명칭은 원래 “주역(周易)”의 ‘설괘(設卦)’에서 유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 이규보의 ‘경설(鏡說)’, ‘슬견설(蝸犬說)’, 조선 시대 강희맹의 ‘훈자 오설(訓子五說)’ 등이 있다.

- ◆ 준마 빠르게 잘 달리는 말.
- ◆ 장쾌하다 가슴이 벅차도록 장하고 통쾌하다.
- ◆ 비복 계집종과 사내종을 이울러 이르는 말.
- ◆ 미혹한 무언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 ◆ 만방 만국(萬國).
- ◆ 백승 백 대의 수레.

이곡(1298~1351)

고려 말의 학자. 뛰어난 문장가로서 백이정(白頤正)·우탁(禹倬)·정몽주(鄭夢周) 등과 함께 경학(經學)의 대가로 꼽힌다. 문집으로 “가정집(稼亭集)”이 있고, “동문선(東文選)”에 ‘죽부인전(竹夫人傳)’ 등 100여 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내용 학습

1 화자가 겪은 일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 |
|-------------------|--|
| 걸음이 느린 말을 빌려 봤을 때 | |
| 잘 달리는 말을 빌려 봤을 때 | |

목표 학습

2 '소유'에 대한 작가의 경험과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 | |
|--------|--|
| 경험 | |
| 경험의 확대 | |
| 깨달음 | |

목표 학습

3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을 비교하여 '설'의 형식이 지니는 장점을 설명해 보자.

집에 허물어진 행랑채가 제대로 버티지 못하게 된 것이 세 칸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모두 수리하였다. 이에 앞서 그 중 두 칸이 장맛비에 썩 지가 오래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으나 어물어물하다가 손을 대지 못하였다.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새어 들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기와를 갈아 넣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썩 지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어 그 경비가 많이 들었고, 그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재목들은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가 나쁘게 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며, 잘못을 하고 곧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옥의 재목을 다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될 것이다. 나라의 정치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다. 모든 일에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아니하다가, 백성이 못 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불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4 다음 학생의 작품과 같이 ‘설’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경험을 문학 작품으로 창작하여 보자.

나는 평소에는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 다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버스를 탄다. 그날도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학교를 마치고 친구 재혁이와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 주변에는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었는데 그 커다란 플라타너스 잎들이 떨어져 하수구 구멍을 막는 바람에 도로는 흙탕물로 가득 차서 바다와 같았다.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지나가면서 고인 흙탕물을 친구 재혁이에게 뿌린 것이다. 물에 젖은 생쥐 꼬를 한 녀석을 보자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나에게 녀석은 화를 벌컥 냈다. 하지만 나의 이 즐거움과 통쾌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내 웃음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뒤따르던 또 다른 버스가 이번엔 나에게 흙탕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재혁이는 웃음을 터뜨렸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함께 웃었다.

아! 무릇 세상의 일이 이러하구나. 서로 같은 처지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재혁이의 모습을 보고 웃을 때는 그 웃음이 비웃음이었고 재혁이에게는 기분 나쁜 웃음이었으나 내가 흙탕물을 뒤집어씌웠을 때 우리가 웃은 웃음은 서로의 처지가 같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웃음인 것이다.

일찍이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는 속담이 있다. 서로 입장이 같을 때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 나는 이 설을 지어 그 뜻을 넓히고자 한다.

- 학생 작품, ‘흙탕물설’

| | ‘흙탕물설’ | 내가 쓸 작품 |
|---------|--------|---------|
| 경험 | | |
| 경험의 확대 | | |
| 깨달음(가치) | | |



02 고향

백석

이 작품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가가 작품을 창작할 때 고려했을 점들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백석과 고향

백석은 어린 시절 자신의 눈에 비쳤던 고향의 자연과 삶의 모습을 재현한 시를 많이 썼다. '여우난골죽', '국수', '마을은 맨천 구신이 돼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작품들은 일제에 의해 왜곡된 근대화와 식민 정책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던 때에 민족의 삶의 원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크다.

- ◆ 북관 '함경도'의 다른 이름, 북도(北道).
- ◆ 여래 진리로부터 진리를 따라서 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처'를 달리 이르는 말.
- ◆ 관공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무장 관우(?~219)의 이름.

나는 북관(北關)에 혼자 앉아누워서
 어느 아침 의원(醫員)을 뵈이었다.
 의원은 여래(如來) 같은 상을 하고 관공(關公)의 수염을 드리워서
 먼 옛적 어느 나라 신선 같은데
 새끼손톱 길게 돋은 손을 내어
 묵묵하니 한참 맥을 짚더니
 문득 물어 고향이 어데냐 한다.
 평안도 정주라는 곳이라 한즉
 그러면 아무개 씨 고향이란다.
 그러면 아무개 씨 어느나 한즉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막역지간이라며 수염을 쓸는다.
 나는 아버지로 섬기는 이라 한즉
 의원은 또다시 넋지시 웃고
 말없이 팔을 잡아 맥을 보는데
 손길은 따스하고 부드러워
 고향도 아버지도 아버지의 친구도 다 있었다.

5

10

15



백석(1912~1996)

평북 정주(定州) 출생. 시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삶과 문화의 원형을 토착어로 형상화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주요 시집으로 "사슴"(1936)이 있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화자가 겪은 일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그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를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2 이 작품의 주제 형성에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보고, '의원'을 형상화한 방법을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3 '고향'과 다음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비교해 보자.

눈에 핀 물이 눈물이라면 황 진사의 두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있었다. 그는 가끔 나에게 그의 혈육 없음을 한탄하였다. '친구' 집 회갑 잔치 같은 데서 떡국 그릇이나 배불리 얻어먹고 주기라도 얼근해서 돌아오는 날은,

“아, 구가 직손으로 혈육 한 점이 없다니, 천도가 무심하지그랴.”
이렇게 개탄하곤 했다.

(중략)

그날 저녁때 황 진사가 온 것을 보고, 숙부님이,
“일재, 여기 젊고 돈 있는 색시가 있는데 장가 안 들라우?”
하고 물어보았다.

“아, 들면야 좋지만 선생도 아시다시피 천량이 있어야지.”
하는 그의 얼굴에는 완전히 희색이 넘쳤다.

그의 얼굴에 희색이 넘침을 보신 숙모님은 돈이 없어도 장가를 들 수 있다는 것과, 장가만 들게 되면 깨끗한 의복에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을 일러 주신즉,

“아, 그럼야 여복 좋았수, 규수 나인 몇 살이구…… 집안도 이름 있구…….”

그는 연방 입이 벌어져 침을 흘리며 두 눈에 난데없는 광채를 띠고 숙모님께로 대어 드는 판이었다.

“과부래야 이름 아깝지 뭐, 이제 나이 삼십밖에 안 된걸…….”

숙모님도 신명이 나는 모양으로 이렇게 자랑삼아 말한즉, 황 진사는 갑자기 낮 빛이 훗 변해지며,

“아 규, 규수가, 시방 말씀한 그 규수가, 과, 과부란 말씀유?”

이렇게 물었다.

“왜 그류.”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황 진사의 달힌 입 가장자리에 미미한 경련이 일어나며, 힘없이 두 무릎팍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은 불뼉뼉 떨리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푹푹푹 하고 들리었다. 그는 조용히 고갯짓부터 좌우로 돌렸다.

“당찮은 말씀유……. 흥, 과, 과부라니 당하지 않은 말씀유…….”

그는 곧 호령이라도 내릴 듯이 누렇게 부은 두 볼이 꿈적꿈적하며 노기 띤 눈을 부라리곤 하더니, 엄숙한 목소리로,

“황후암(黃厚庵) 육대 직손이유.”

하고 다시,

“황후암 육대 직손이 그래 남의 가문에 출가했던 여자한테 장가들다니 당하기나 한 소리요……. 선생도 너무나 과도한 말씀이유.”

그는 분함을 누르노라고 목소리에 강한 굴곡이 울리었고 낮에는 비통한 오뇌의 경련이 일어나 있었다.

- 김동리, '화랑의 후예'에서

(1) 작가의 표현 의도에 따라 형상화된 인물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2) 갈래에 따라 인물을 형상화한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4 다음 학생의 작품과 같이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을 소재로 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해 보자.

일요일이 되면
 아버지랑 형이랑 나랑 설렁탕집으로 간다
 날마다 같은 식당에서 설렁탕을 먹는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다닌
 이 골목길과 주위의 나무
 근처의 가게
 전부 사라지고 없는데

남은 건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설렁탕집인데
 이 집마저 없어진다면
 슬플 것 같다
 그래서 일요일만 되면
 아버지랑 형이랑 나의 추억을 쌓으러 간다



- 양준희, '설렁탕 한 그릇'

| | | |
|-------------------|--|--|
| 01 가치 발견 | 표현 대상 (인물 또는 사물) | |
| | 발견한 가치 (주제) | |
| 02 갈래 정하기 | 주제와 표현 의도에 알맞은 갈래 | |
| 03 내용 구성 하기 |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도록 내용 전개 과정 구성하기 | |
| 04 표현하기 | 갈래별 구성 요소, 내용별로 적절한 표현 방법 구상하여 표현하기 | |
| | 제목 정하기 | |
| 05 다듬기 | 표현 의도가 잘 표현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초고 다듬기 | |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보자.

| | |
|----------------|---|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적 재구성 활동은 수용 활동이 자연스럽게 생산 활동으로 이어짐으로써 독자의 문학 활동 능력을 기르게 한다. • (㉢ ㉣)을 바꾸어 원작을 봄으로써 내용 바꾸기, 형식 또는 매체 바꾸기, 내용과 형식(또는 매체) 함께 바꾸기 등과 같은 방법으로 원작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
| 작품의 창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할 만한 (㉤ ㉥) 있는 경험에서 내용을 생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 문학 작품으로 표현할 내용을 생성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시, 소설, 수필, 희곡 중에서 적절한 (㉦ ㉧)를 선택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

확인하기

2 작품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 | |
|----------------------|---|
| 꽃 | 꽃이 상징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모방 대상인 '꽃' 과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
| 소나기는 그쳤나요? | 원작인 '소나기'를 함께 고려할 때, 제목에 쓰인 소나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
| 차마설 | 말을 빌려 탄 경험에서 화자가 발견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
| 고향 | '의원'을 형상화한 방법과 화자의 정서 변화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내용과 형식,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 | | |
|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3 문화와 문학 활동

이 단원에서 우리는

- 문학이 인문·사회, 예술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매체의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생각 열기



- 홍승우, '돌하르방'

위 만화에서 작가는 _____ (라)는 인식을 그림과 글을 통해 이야기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처럼 문학이 다른 학문 분야나 예술 갈래, 매체와 소통하는 양상에는 어떤 것들이 더 있을까?



(1) 문학과 인문·사회

- 01 오렌지 | 신동집
• 새 1 | 박남수
- 02 나의 열정, 나의 시 | 문정희
- 03 광장 | 최인훈
• 타는 목마름으로 | 김지하



(2) 문학과 예술

- 01 나목 | 박완서
•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김혜순
- 02 해 | 박두진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 03 느낌, 극락 같은 | 이강백
• 선학동 나그네 | 이청준



(3) 문학과 매체

- 01 오발탄 | 나소운·이종기 각색
• 뽀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 이세룡
- 02 토지(소설) | 박경리
토지(만화) | 오세영
• 복덕방(소설) | 이태준
• 복덕방(만화) | 오세영
- 03 아무리 봐도 | 이철수
• 빈집이지만 | 이철수

(1) 문학과 인문·사회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등은 이 세계와 사람의 삶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양식화한 고차원적인 문화이다. 문학 또한 문화의 일부로서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 활동은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과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진다.

인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을 논리적으로 탐구한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언어 자체에 대해 성찰하기도 하고, 인간과 신에 관한 존재론적 물음을 탐구하기도 한다. 진리가 존재하는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와 같은 인식의 문제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가와 같은 윤리의 문제, 무엇이 아름다운가와 같은 미학적 물음에 이르기까지 실로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라 할 수 있다. 문학은 예술의 한 가지라는 점에서 이미 인문학의 한 분야이며, 인간의 언어와 삶을 다룬다는 점에서 철학, 윤리 등 인접한 인문학 분야와 본질적으로 관련된다.

비교 문학(比較文學)

문학과 철학, 종교, 역사, 사회학, 과학 등 인접 학문과의 관련 양상을 통해 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을 비교 문학이라 한다. 이외에도 서로 다른 문화권의 문학 사이의 관련 양상이나, 같은 문학사 내의 과거와 현재의 관련 양상도 비교 문학의 대상이 된다.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은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의 이치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들이다. 이들 학문들의 성과는 사회에 반영되어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자연 과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을 중시하는 정치, 경제의 원리가 구현되어 인간의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인간의 인간다움이 위협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 속에서도 계층적 갈등과 소외 등의 사회 병리적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학은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심미적으로 형상화하여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인접한 학문 분야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예로부터 문학과 역사와 철학을 일러 문사철(文史哲)이라 했듯이, 문학은 삶에 대한 관념적인 탐구인 철학과 사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역사를 함께 아우른다. 다시 말해, 인문학적 성찰과 인식이 사회적인 삶의 현실과 소통하는 장이 바로 문학인 것이다. 요컨대, 문학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객관화하고 인문학적인 인식을 구체화하여 참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는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이요, 이를 언어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예술 활동이다. 문학이 이처럼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는 양상을 살피 가며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심화해 나가도록 하자.

01 오렌지

신동집

이 작품은 오렌지를 소재로 하여 철학적 인식을 형상화한 시이다. '오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5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오렌지는 여기 있는 이대로의 오렌지다.
더도 덜도 아닌 오렌지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10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15 마음만 낸다면 나도
오렌지의 찹잘한 속살을 깔 수 있다.
마땅히 그런 오렌지
만이 문제가 된다.

20 그러나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순 없다.
대는 순간
오렌지는 오렌지가 아니 되고 만다.
내가 보는 오렌지가 나를 보고 있다.

25 나는 지금 위험한 상태다.
오렌지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상태다.
시간이 푹푹
배암의 또아리를 틀고 있다.

30 그러나 다음 순간
오렌지의 포들한 껍질에
한없이 어진 그림자가 비치고 있다.
누구인지 잘은 아직 몰라도.



신동집(1924~2003)

대구 출생. 시인. 다양한 소재를 실험적인 문체로 표현하여 인간의 존재 의식을 추구하는 시를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 '목숨', '오렌지'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오렌지’와 ‘나’ 사이의 관계를 간략히 요약해 보자.

목표 학습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오렌지’의 함축적 의미와 손을 대는 순간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 되고 만다고 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도가도 비상도(道可道 非常道)’라는 말은 “노자(老子)”의 유명한 첫 구절이다. 노장사상은 이 짧은 구절 속에 그 진수가 요약되어 있다 한다. 위의 구절은 ‘도(道)’라는 개념이 지칭한 궁극적 존재는 ‘도(道)’라는 말로 불렸을 때는 이미 있는 그대로의 도는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것은 달리 말해 ‘도(道)’라고 불리는 존재에 대한 서술이 되지만,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언어에 대한 이론, 더 나아가서는 존재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위의 유명한 구절은 결국 하나의 언어에 대한 철학적 견해를 나타낸다.

- 박이문, ‘노장사상’에서

목표 학습

3 다음 글을 참고하여 ‘한없이 어진 그림자’의 함축적 의미에 대해 토의해 보자.

진실은 참으로 멀고 먼 곳에 있었으며 언어는 덧없는 허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가 있다. 마찬가지로 진실은 내 심장 속 깊은 곳에 윤패되어 영원히 침묵한다는 얘기도 되겠다. 칠팔 년 전에 나는 어느 책에다 언어가 지닌 숙명적인 마성(魔性)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진실이 머문 강물 저편을 향해 한 치도 헤어나갈 수 없는 허수아비의 언어, 그럼에도 언어에 사로잡혀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은 그것만이 강을 건널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나는 전율(戰慄) 없이 그 말을 되풀이할 수 없다.

- 박경리, ‘토지’ 자서(自序)에서

4 이 작품과 목표 학습에 제시된 박이문, 박경리의 글을 참고하여 다음 작품의 의미를 토의해 보자.

1

하늘에 깔아 놓
바람의 여울티에서나
속삭이듯 서걱이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쪽지에 파묻고
다스한 체온(體溫)을 나누어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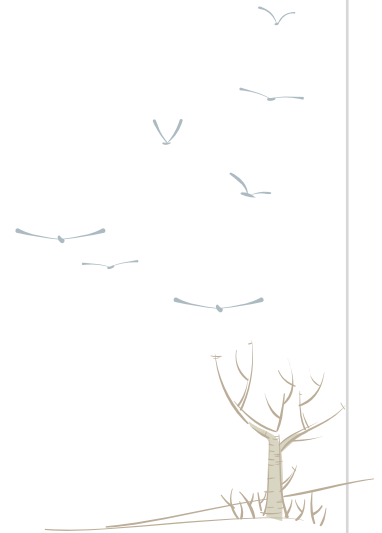
2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假飾)하지 않는다.

3

— 포수는 한 텅이 낚으로
그 순수(純粹)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傷)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 박남수, '새 1'



02 나의 열정, 나의 시

문정희

이 글은 시인이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원의 문학 강좌 '금요일의 문학 이야기'에서 강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강연 내용에 포함된 시와 시인의 인식을 관련지어 문학과 인접 학문의 소통 양상을 살펴보자.

(전략)

여성학

여성학에서는 인간은 생물학적 성을 타고나지만 성에 따른 특성은 사회·문화적 영향에 의해 후천적으로 형성된다고 본다. 이러한 시각에서 여성학은 그동안 남성 중심적 사회·문화에 의해 고정된 여성성과 남성성의 틀을 깨고, 사회 전반에 걸쳐 성(性)에 기초한 불평등(不平等)·부정의(不正義)·소외(疏外) 등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땅의 여성으로 사는 삶이 불합리하고 제한된 삶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뉴욕에 있을 때 케이트 밀레트[◆]라든가 하는 여성학 작품을 몇 편 읽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여성학이 때마침 크게 붐을 이루고 있더군요. 여성학이 마르크스 이론과 닿아 있는 측면이 있어서 판금서[◆]가 참 많았지요. 저는 이런저런 여성학 책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여성학은 휴머니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선 “당당한 여자”라는 수필집으로 내고, 여성 문제를 제 문학의 울타리 안으로 껴안으려 애썼습니다. 그중에 ‘작은 부엌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언제나 술 피는 냄새가 나오.
한 여자의
젊음이 삭아 가는 냄새
한 여자의 설움이
찌개를 끓이고
한 여자의 애모가
간을 맞추는 냄새
부엌에서는
언제나 바삭바삭 무언가
타는 소리가 나오.
세상이 열린 이래
똑같은 하늘 아래 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 ◆ 케이트 밀레트(Kate Millet) 1960~70년대 미국에서 형성된 급진적 여성 운동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인물. “성의 정치학”을 집필하여 이데올로기가 여성 억압의 주된 원인을 주장하였다.
- ◆ 판금서 판매가 금지된 서적.



문정희(1947~)

전남 보성 출생. 시인. 여성성과 일상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시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집으로 “새 떼”, “남자를 위하여”, “사랑의 기쁨”, “다산의 처녀” 등이 있다.

5 큰방에서 큰소리치고
 한 사람은
 종신 동침 계약자, 외눈박이 하녀로
 부엌에 서서
 뜨거운 찻농을 제 발등에 붓는 소리.
 부엌에서는 한 여자의 피가 식은
 빙초산 냄새가 나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어요.
 찻불과 같이
 10 나를 태워 너를 밝히는
 저 천형[◆]의 덜미를 푸는
 소름 끼치는 마고 할멈[◆]의 도마 소리가
 푹푹히 들려요.
 수줍은 새악시가 홀로
 15 허물 벗는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 부엌에서는…….

- '작은 부엌 노래'

이런 작품으로 여성학적인 시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으로는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를 썼지요.

20 학창 시절 공부도 잘하고
 특별 활동에도 뛰어나던 그녀
 여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시에도 무난히
 합격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가

 감젓국을 끓이고 있을까
 25 사골을 넣고 세 시간 동안 가스불 앞에서
 더운 김을 쏘이며 감젓국을 끓여
 퇴근한 남편이 그 감젓국을 15분 동안 맛있게
 먹어치우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을까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들 숙제를 봐 주고 있을까

◆ 천형(天刑) 천벌

◆ 마고 할멈 마고할미. 전설에 나오는 창조신으로 태초에 땅의 모양을 만든 거인 여신. 몸집이 크며 힘이 세고 새의 발톱처럼 긴 손톱을 지녔다고 함.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들고
추운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

당 후보를 뽑는 체육관에서
한복을 입고 리본을 달아 주고 있을까
꽃다발 증정을 하고 있을까

다행히 취직을 해 큰 사무실 한 칸에
의지를 두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고
가끔 찻잔을 나르겠지

의사 부인 교수 부인 간호원도 됐을 거야
문화 센터에서 노래를 배우고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는 남편이 귀가하기 전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갈지도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 높은 빌딩의 숲, 국회 의원도 장관도 의사도
교수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되지 못하고
개밥에 도토리처럼 이리저리 밀쳐져서
아직도 생것[◆]으로 굴러다닐까
크고 넓은 세상에 끼지 못하고
부엌과 안방에 갇혀 있을까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 시는 미국 콜럼비아대 동아시아 연구지에도 실렸습니다. 시적 기법이 좋
다기보다 메시지를 담은 시이기 때문에 의미 전달이 아주 쉬울 것입니다. 이런
시들을 쓰면서 저는 새로운 페미니즘에 눈을 떠 가고 있었습니다. 80년대, 90
년대에 대단히 유행했던 페미니즘의 이론을 그대로 문학에 반영해, 대결하고
성토하는 공격적인 시각을 담았지요. 하지만, 뭔가 나만의 독자적인 시각과 새
로움이 있지 않은 한 페미니즘만으로는 이 시대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적이고 대결적인 태도보다는 좀 더 열
린 마음으로 남성을 끌어안고 화해하고 사랑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

- ◆ 생것 익히지 아니한 것 또는 살아 있는 것
- ◆ 페미니즘 사회·정치·법률 면에서 여성에 대한 권리의 확장을 주장하는 주의.

는 시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시대의 여성 시인으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연애편지를 보내는 마음으로 시를 쓰는 게 한 걸음 더 앞선 페미니즘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근을 거세당하고도 훌륭한 역사서인 “사기(史記)”를 쓴 사마천의 이야기를 시로 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여성들은 패션과 미용에만 관심이 있고, 남성들은 정력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땅은 정글이지 사람이 살 만한 좋은 사회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독재 정권 앞에서 ‘노(NO)’ 라는 깃발을 들었듯이, 이런 사회 현실도 좌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색의 결과 ‘사랑하는 사마천 당신에게’ 등 일련의 작품들을 시집 “남자를 위하여”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마천뿐만 아니라 반 고흐, 옹혼한 포효자였던 전봉건, 고산자 김정호, 선덕 여왕을 지순하게 사랑했던 지귀 청년 등 내가 사랑하는 남성들에 대한 연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녔던, 사랑할 수 있는 남성의 요소가 지금의 한국 남성들에게는 없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남성들 가운데 숨어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캐내어 아름답다고 노래해 주는 것이야말로 한 시대의 공기를 함께 호흡하고 있는 당대의 한 여성 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시로 ‘오빠’를 소개해 봅니다.

이제부터 세상의 남자들을
모두 오빠라 부르기로 했다.

집안에서 용돈을 제일 많이 쓰고
유산도 고스란히 제 몫으로 차지한
우리 집의 아들들만 오빠가 아니다.

오빠!
이 자지러질 듯 상큼하고 든든한 이름을
이제 모든 남자를 향해
다정히 불러 주기로 했다.

오빠라는 말로 한 방 먹이면

◆ 좌시(坐視)하다 참견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보기만 하다.

어느 남자인들 가벼이 무너지지 않으리
꽃이 되지 않으리.

모처럼 물안개 걷혀
길도 하늘도 보이기 시작한
불혹의 기념으로
세상 남자들은
이제 모두 나의 오빠가 되었다.

나를 어지럽히던 그 거칠던 숨소리
으쓱거리며 휘파람을 불러 주던 그 현신을
어찌 오빠라 불러 주지 않을 수 있으랴

오빠로 불리워지고 싶어 안달이던
그 마음을
어찌 나물 캐듯 캐내어 주지 않을 수 있으랴

오빠!
이렇게 불러 주고 나면
세상엔 모든 짐승이 사라지고
혈떡임이 사라지고

오히려 두둑한 지갑을 송두리째 들고 와
비단 구두 사 주고 싶어 가슴 설레이는
오빠들이 사방에 있음을
나 이제 용케도 알아버렸다.



- '오빠'

(후략)

내용 학습

1 '작은 부엌 노래'와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에 드러난 여성의 삶과 표현 방법을 비교해 보자.

| | 작은 부엌 노래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
| 여성의 삶 | | |
| 형상화 방법 | | |
| 어조 | | |

목표 학습

2 여성 문제에 대한 시인의 인식 변화를 인용된 세 작품을 통해 설명해 보자.

• 여성 문제에 대한 시인의 인식 변화

• 시인의 인식 변화가 작품에 반영된 양상

적용 학습

3 문학과 인접한 학문 분야의 인식이 잘 드러난 문학 작품을 한 편 소개하고, 그와 같은 인식이 어떻게 심미적으로 형상화되었는지 설명해 보자.

이 작품은 남북의 이데올로기 대립 속에서 방황하는 주인공의 고뇌를 다룬 장면 소설이다. 주인공이 지향한 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광장' 표지

'광장'의 의의

4·19 혁명 직후 1960년 10월에 발표된 작품. 이 작품은 이전까지 금기시되어 온 이데올로기 문제와 남북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문학과 사회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전략)

방 안 생김새는, 통로보다 조금 높게 설득자들이 앉아 있고, 포로는 왼편에서 들어와서 바른편으로 빠지게 돼 있다. 네 사람의 공산군 장교와, 국민복을 입은 중공 대표가 한 사람, 합쳐서 다섯 명. 그들 앞에 가서, 걸음을 멈춘다.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동무, 앉으시오.”

명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 앉으라고 하던 장교가, 윗몸을 테이블 위로 바싹 내밀면서, 말한다.

“동무, 중립국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나라요. 굶주림과 범죄가 우글대는 낯선 곳에 가서 어찌자는 거요?”

“중립국.”

“다시 한 번 생각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정이란 말요. 자랑스러운 권리를 왜 포기하는 거요?”

“중립국.”

이번에는, 그 옆에 앉은 장교가 나섰는다.

“동무, 지금 인민 공화국에서는, 참전 용사들을 위한 연금 법령을 냈소. 동무는 누구보다도 먼저 일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영웅으로 존경받을 것이요. 전체 인민은 동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소. 고향의 초목도 동무의 개선을 반길 거요.”

“중립국.”

그들은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상의를 한다.



최인훈(1936~)

함북 회령 출생. 소설가. 주로, 사회와의 대결에서 좌절하여 소외된 자아의 고뇌와 방황을 다채로운 기법으로 형상화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광장', '회색인', '소설가 구보씨의 1일', '총독의 소리' 등이 있다.

처음에 말하던 장교가, 다시 입을 연다.

“동무의 심정도 잘 알겠소. 오랜 포로 생활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사한 꾀
임수에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도 용서할 수 있소. 그런 염려는 하
지 마시오. 공화국은 동무의 하찮은 잘못을 탓하기보다도, 동무가 조국과 인
민에게 바친 충성을 더 높이 평가하오. 일체의 보복 행위는 없을 것을 약속하
오. 동무는…….”

“중립국.”

중공 대표가, 날카롭게 무어라 외쳤다. 설득하던 장교는, 증오에 찬 눈초리로
명준을 노려보면서, 내뱉었다.

“좋아.”

눈길을, 방금 도어를 열고 들어서는 다음 포로에게 옮겨 버렸다.

아까부터 그는 설득자들에게 간단한 한마디만을 되풀이 대꾸하면서, 지금 다
른 천막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광경을 그려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
에도 자기를 세워 보고 있었다.

“자넨 어디 출신인가?”

“…….”

“음, 서울이군.”

설득자는, 앞에 놓인 서류를 뒤적이면서,

“중립국이라지만 막연한 얘지요. 제 나라보다 나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외
국에 가 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지만, 밖에 나가 봐야 조국이 소중하
다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가슴에 품은 울분은 나도 압니다. 대
한민국이 과도기적인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걸 누가 부인합니까? 그
러나 대한민국엔 자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자유가 소중한 것입니
다. 당신은 북한 생활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중으로 그걸 느꼈을 겁니다.
인간은…….”

“중립국.”

(중략)

자꾸 뒤로 뽑아내는 물이랑은, 이윽고, 크낙한 바다의 무게 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바다의 아물심[◆]은 견줄 데 없이 세다. 그는 상
처를 줄 수 없는 불가사리다. 그 속에 파묻힌다. 자꾸 몸이 풀린다.

꼬꾸라질 듯 앞으로 숙인 몸을, 황망히 끌어들인다. 손잡이에서 떨어져, 갑판
에 주저앉는다. 눈에서는 아직도, 소용돌이쳐 뻗어 나는 물결의 그림자가 아물

❓ 명준이 중립국만 반복해 말하는 이유는?

◆ 아물심 아무는 힘.

① 중립국으로 가는 명준이 '자기 안에 빈 데'가 있다고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린다. 그것마저 사라져 버렸을 때 막막한 그림자가 등에 업혀 온다. 또 일어서서, 손잡이를 잡는다. 물결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 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5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짝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는다. 그

10

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복도로 나선다. 복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15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흥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밟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참 장난

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는 사실을 처음 안다.

20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②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 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지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25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30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



하고 있다. 운에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꼴호즈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치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돌이 안고 뒹굴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북[◆] 자리에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 광장이 의미하는 바는?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북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 가라앉을 듯, 탁 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잇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 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밤중.

- ◆ 사북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들찌귀처럼 쓰이는 물건. 가장 중요한 곳의 비유.
- ◆ 마스트(mast) 돛대.
- ◆ 씨우다 (귀신에) 접하다.
- ◆ 신 내림 무당 등 주술사(呪術師)에게 신이 내림. 신과의 교통이 가능해짐.

선장은 도어를 두드리는 소리에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얼른 손목에 찬 야광 시계를 보았다. 마카오[◆]에 닿자면 아직 일렀다.

“무슨 일이야?”

“석방자가 한 사람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5 “응?”

“지금, 같은 방에 있는 사람이 신고해 와서, 인원을 파악해 봤습니다만, 배 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선장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물었다.

“누구야 없다는 게?”

10 “미스터 리 말입니다.”

이튿날.

타고르 호는, 흰 페인트로 말쑥하게[◆] 칠한 삼천 톤의 몸을 떨면서, 한 사람의 손님을 잃어버린 채 물체처럼 뺨곡이[◆] 들어찬 남중국 바다의 훈김을 헤치며 미끄러져 간다.

15 흰 바닷새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마스트에도, 그 언저리 바다에도.

아마, 마카오에서, 다른 데로 가 버린 모양이다.

◆ 마카오(Macao) 중국 동남부의 홍콩 건너편에 있는 상업적 항구 도시.

◆ 말쑥하다 말끔하고 깨끗하다.

◆ 뺨곡이 ‘뺨뺨히’ 정도의 뜻을 지닌 사투리.

전체 줄거리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는 이명준은 아버지가 월북하여 북한에서 고위 관리가 된 탓으로 경찰에 호출되어 심한 취조를 받는다. 이 충격으로 남한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 그는 월북하여 노동 신문 기자 생활을 한다. 그러나 그가 알게 된 것은 북한이 혁명은 없고 혁명의 화석만이 남아 있는 곳이며, 진실하고 개성적인 삶은 불가능한 잿빛 공화국이라는 사실이었다. 북한에서도 환멸을 느끼던 명준은 무용수인 은혜를 만나게 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으로 참전한다. 낙동강 전선에서 간호원이 된 은혜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지만 은혜는 전사하고 명준은 포로가 된다. 휴전이 성립되고 포로 교환이 있을 때, 그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의 나라인 중립국을 선택한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인도행 배에서 바다에 투신하여 자살하고 만다.

내용 학습

1 주인공이 '중립국'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광장'이 의미하는 바를 중심으로 말해 보자.

내용 학습

2 '갈매기'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결말 부분에 드러난 주인공의 죽음을 바탕으로,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바라던 공동체의 모습을 발표해 보자.

적용 학습

4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욱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 소리
신음 소리 통곡 소리 탄식 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깊이 새겨지는 네 이름 위에
네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 김지하, '타는 목마름으로'

- (1) '광장'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이 시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해 보자.
- (2) 이 시의 화자가 문제 상황과 자신의 열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2) 문학과 예술

아주 이른 시기의 문학은 지금도 몇몇 지역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원시 종합 예술의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이 시기의 문학은 미술, 음악, 무용 등 다른 예술 갈래와 분화되지 않은 채 창작되고 수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학은 문자로 된 예술이라는 의미로 다른 예술 갈래와 구별되어 독립적 갈래로 인식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문학은 미술이나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예술과 소통할 수 있는 요소를 지니고 있어 여전히 다른 예술 갈래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산·수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학과 음악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근대 이전에는 문학이 주로 입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산문도 운율에 의한 리듬감을 지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문학에서 음악성을 강조하는 시의 경우 그 발생 자체가 음악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시는 운율과 함축성이 있다는 면에서 노랫말과 비슷하다. 또, 노랫말 역시 비유나 상징 등 기교면에서 시 작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문학성을 보이기도 한다.

미술은 선, 면, 색, 형태 등을 이용한 시각 예술이다. 문학은 종종 미술 작품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고대의 신화는 회화나 조각의 좋은 소재이다. 반대로 화가의 생애나 예술 행위, 미술 작품 자체가 문학 작품의 소재나 내용이 되기도 한다. 특히, 건축물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조형물이면서 인간의 삶의 역사가 깃드는 공간이라 문학 작품 속의 소재나 배경으로 중요하게 활용된다.

무용도 문학과 영향을 주고받는 예술 갈래이다. 무용은 압축된 행위를 통해 삶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예술로 종종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무용은 삶의 이야기를 품고 있어 이야기하기 문학과 소통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는 갈래이다.

인접한 예술 분야와 영향을 주고받은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 작품이 다른 예술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살펴보자. 아울러 다양한 예술 갈래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 보며 일상생활 속에서 삶을 심미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문학과 음악

- '북' (김영랑)
- '서편제' (이청준)
- ∴

문학과 미술

- '내가 만난 이중섭' (김춘수)
- '망화문' (서정주)
- '독 짓는 늙은이' (황순원)
- ∴

문학과 무용

- '승무' (조지훈)
- '나는 춤이다' (김선우)
- ∴

01 나목(裸木)

박완서

이 작품은 화가 박수근과 그의 그림을 소재로 하여 전쟁 중의 삶과 예술을 표현한 소설이다. 그림과 삶, 문학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 테레빈유(terebene油) 송진을 수증기로 증류하여 얻는 정제 기름으로 유화 물감 등을 용해할 때 씀.

❓ 화가가 고목을 '참담'하게 그린 이유는 무엇일까?

무릎에 앉았던 막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윗방으로 난 장지를 열었다. 나는 그 5
제야 오늘 부인이 애들을 윗방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전등이 없는
지, 있는데도 안 켜는지 윗방은 어둑한데 80호 정도의 캔버스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고 넓지 않은 방바닥은 온통 빈틈없이 어지러져 있었다. 테레빈유[◆]의
냄새가 확 끼쳤다.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 10
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枯木)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тол도톨한 질감을 주는



박완서(1931~2011)

경기 개풍 출생. 소설가. 전쟁으로 인한 고통, 억압 받는 여성의 삶, 소시민의 허위적
의식 등 현실 문제를 다양하게 작품화하였다. 작품집으로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엄마의 말뚝", "꿈꾸는 인큐베이터" 등이 있다.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

한발(旱魃)에 고사한 나무 -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이 없는 한발 -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한발……

5 무채색의 오통도통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왜 그런 잔인한 한발이 고사시킨 고목을 나는 그의 캔버스에서 보았을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꼬마는 잼싸게 장지문을 닫아 버렸다. 향긋한 생강차가 식어 가는데 나는 마실 구미를 잃었다. 나는 그림에 대한 전문적인 감상안이 거의 없지만 그림을 단순하게 사랑하고 즐겨 왔다. 국민학교 교실 벽을 장식한 그림에서부터 화랑에 전시된 유명 무명 화가의 그림들, 또 인쇄 잘된 화첩의 대가의 그림들을 사랑했다.

나는 그런 그림들에서 어떤 언어를 시각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빛과 빛깔을 즐겼다. 삶의 기쁨이 여러 형태의 풍성한 빛깔로 나타난 그림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의 그림에 대한 눈은 오색 풍선을 동경하는 아이들처럼, 포목점 앞에서 아름다운 천을 선망하는 여인처럼 소박하고 단순했다. 내 이런 소박한 감상안은 그의 그림에 적잖이 당혹해하고 있었다.

(중략)

에스(S) 회관 화랑은 3층이었다. 숨차게 계단을 오르자마자 화랑 입구였고 나는 미처 화랑을 들어서기도 전에 입구를 통해 한 그루의 커다란 나목(裸木)을 보았다.

나는 좌우에 걸린 그림들을 제쳐 놓고 빨려들듯이 곧장 나목 앞으로 다가갔다.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제 고목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소리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십엔 봄의 향기가 애닦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보채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枝)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목, 그 옆을 지나는 चु디추운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목에겐 아직 멀지만 봄에의 믿음이다.

봄에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毅然)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라.

❓ '나' 에게 '고목' 과 '나목' 의 차이는?

◆ 한발 가뭄을 말고 있다는 귀신, 또는 심한 가뭄. '가뭄'으로 순화.

◆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전 용어.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뭇이였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뭇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뭇 곁을 잠깐 스쳐 간 여인이었을 뿐임을,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나무와 두 여인’. 그 그림은 벌써 한 외국인의 소장으로 돼 있었다.

나는 에스(S) 회관을 나와 잠깐 망연했다. 오랜 여행 끝에 낯선 역에 내린 듯한 피곤인지 절망인지 모를 망연함, 그런 망연함에서 남편이 나를 구했다.

“어디서 차라도 한잔하고 쉬었다 갈까?”

“저기가 어때요?”

나는 턱으로 바로 눈앞에 보이는 덕수궁을 가리켰다.

덕수궁 속에 은행의 낙엽은 한층 더 찬란했다. 우리는 은행나무 밑 벤치에 앉아서 황금빛 세례에 몸을 맡겼다.



‘나무와 두 여인’ 1962년, 캔버스에 유채

아이들이 뛰고, 연인들이 거닐고, 퇴색한 잔디에 쏟아지는 가을의 양광(陽光)은 차라리 봄보다 따스다.

“아이들을 데려올걸.”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인다.

빨간 풍선을 놓친 계집아이가 자지러지게 운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빠져들 듯이 풍선이 떨어져 간다. 드디어 빨간 점을 놓치고 만 나는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르름이 눈부시다.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찻힌 채 눈이 함빡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뿐, 이미 그의 눈엔 십 년 전의 옛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라.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여 보지 않은 눈. 부수수

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저만치서 고등학생들이 배드민턴을 친다. 록이 나비처럼 경쾌하게 날아와 라켓에 부딪치는 소리가 마치 젊은 연인들의 찰나적인 키스의 파열음처럼 감각적으로 들린다.

나는 충동적으로 그의 이마의 주름진 곳에 그런 키스를 퍼부었다.

그가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그가 아주 타인처럼 낯선 게 견딜 수 없어서였다.

나무들의 그림자가 길어지고 우수수 바람이 온다.

이미 낙엽을 끝낸 분수가의 어린나무들이 별거숭이 몸을 애처롭게 떨며 서로의 가지를 비빈다.

그러나 그뿐, 어린나무들은 서로의 거리를 조금도 좁히지 못한 채 바람이 간후에도 마냥 떨고 있었다.

② '나'가 남편을 낯설게 느낀 이유는?

박수근(1914~1965)의 삶과 그림

박수근은 강원도 양구 출생으로 독학으로 서양화가 되었다. 전쟁 중이었던 1952년에 월남하여 부산에서 부두 노동자로 일하거나 미군 부대에서 초상화를 그리는 등 가난과 싸우며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붓과 나이프를 사용하여 자잘하고 갈갈한 물감의 층을 미묘하게 거듭 고착시켜 마치 화강암 표면 같은 바탕을 창조하였다. 그 위에 독특한 감흥을 주는 굵고 우직한 검은 선으로 형태를 단순화해 가난한 농가와 서민들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오늘날 가장 한국적인 독창성을 발휘한 화가로 평가 받고 있다.

전체 줄거리

한국 전쟁 중 서울 명동의 미군 기지 내 매점 초상부에 근무하는 이경은 미군에게 초상화를 그려 주는 화가들 속에서 옥희도를 만난다. 두 오빠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죄의식과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넋을 잃은 채 살고 있는 어머니의 실의 등 암울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경은 화가 옥희도에게 마음이 끌린다. 두 사람은 명동 성당과 장난감 침팬지가 술을 따라 마시는 완구점 사이를 거닐며 사랑을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매점에 나오지 않는 옥희도를 찾아 그의 집에 갔다가 이경은 캔버스에 고목(枯木)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이경은 역시 매점에서 일하는 황태수라는 청년과 결혼한다. 세월이 흐른 뒤 이경은 옥희도의 유작전(遺作展)에 가서 지난날 옥희도가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고목(枯木)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음을 알게 된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고목(枯木)’과 ‘나목(裸木)’의 의미 차이를 정리하고, 그것을 ‘나’와 ‘옥희도’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내용 학습

2 ‘나’가 ‘남편’을 낯설게 느낀 이유를 ‘옥희도’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소설 ‘나목’, 그림 ‘나무와 두 여인’을 다음 그림, 시와 비교해 보자.



‘세 여인’ 1960년, 캔버스에 유채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 내어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푸르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놀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레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 김혜순,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 나목 |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
| 박수근 화법에 대한 화자의 설명 | | |
| 그림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생각 | | |

적용 학습

4 박수근의 두 그림 ‘나무와 두 여인’, ‘세 여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심미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자.

이 작품은 해를 소재로 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노래로도 만들어져 불리고 있다. 문학과 음악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펴 가며 읽어 보자.

5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갭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 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 먹고, 이글이글 앓
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싫여, 달밤이 싫여,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싫여, 아무도 없는 뜰
에 달밤이 나는 싫여…….

10 해야, 고운 해야, 니가 오면 니가사 오면, 나는 나는 청산이 좋아라. 훨훨
것을 치는 청산이 좋아라. 청산이 있으면 홀로래도 좋아라.

사슴을 따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침범을 따라 침범을 따라 침범을 만나면 침범과 놀고, …….

15 해야, 고운 해야. 해야 솟아라. 꿈이 아니래도 너를 만나면,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 앉아, 위어이 위어이 모두 불러 한자리 앉아 앓되고 고운 날을 누려 보
리라.



시집 "해" 표지

박두진의 시집 "해"

1949년 발행된 시집 "해"에는 '해', '묘지송', '청산도', '향현', '도봉', '하늘' 등 31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광복 후의 혼탁한 시대상을 부정적·비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산', '하늘', '바다' 등의 소재를 통해 낙원 회복의 꿈과 밝은 미래에 대한 기다림을 함께 표현하고 있다. '해'의 감상과 관련하여 이 시집의 작품을 더 읽어 보자.



박두진(1916~1998)

경기 안성 출생. 시인. 초기에는 청록파 시인으로 자연 친화적 시를 썼으며, 광복 후에는 구도자적 갈망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비판을 시로 담아내었다. 주요 시집으로 "해", "거미와 성좌", "고산 식물"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 속의 표현을 활용하여 설명해 보자.

내용 학습

2 '청산'은 어떤 공간인지 시 속의 표현을 활용하여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이 작품에서 리듬감을 살린 방법을 찾고, 시 속의 리듬이 노래 '해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보자.

해 야

조하문 · 김관현 곡


어둠속에 묻혀있는 - 고운 해야 - 아침을 기다리는 - 햇된 얼굴 -
 어둠이 걷히고 - - 햇별이 번지면 - 깃들지리라 -
 앞 - 간 해야 - 내 - 가 웃음 지면 - 흠로라도 나는 좋아 라
 어둠속에 묻혀있는 - 고운 해야 - 아침을 기다리는 -
 햇된 얼굴 -
 고운 - 해 - 아 모든어둠 - 먹 - 고 - 햇된얼굴 - 솟아 - 더 -

| 이 작품에서 리듬감을 살린 방법 | 이 작품의 리듬감이 노래 '해야'에 반영된 모습 |
|-------------------|----------------------------|
| | |

4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을 통해 시와 다른 예술 분야와의 관련 양상을 비교해 보자.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숙도에서 일정한 군(群)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 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렬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 해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
| 다른 예술 분야와의 관련 양상 | | |
| 표현 대상 | | |
| 표현 의도 | | |

03 느낌, 극락 같은

이강백

이 작품은 예술관이 서로 다른 불상 제작자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희곡이다. 참된 예술과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 왜 '두 분 아버지' 일까?

(전략)
조승인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함이정 처음부터……?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몹시 화가 난 아버님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 이 부분에서 조명이 하는 역할은?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져 있던 천막이 접히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함묘진의 집. 함묘진이 성난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이정과 조승인은 서연의 관, 촛대, 향로 등을 무대 밖으로 갖고 나간다.)



1998년 서울 국제 연극제에서 '느낌, 극락 같은' (이운택 연출)은 희곡상, 연출상 등을 수상하였다. 이 연극에서 연출가는 희곡의 대사를 상당 부분 줄여 각색하고, 연기자들을 살아 있는 불상으로 분장시켜 춤, 음악, 대사가 어우러지도록 함으로써 참된 예술과 삶의 길을 원작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함묘진 여기 집 안에도 없다……?

함이정 (무대 밖에서) 내가 나가서 찾아올까요?

함묘진 넌 가만있거라. (다시 외쳐 부른다.) 동연아! 서연아!



이강백(1947~)

전북 전주 출생. 극작가. 억압적인 정치·사회 상황 속에서 제도적인 폭압 체계를 상징적으로 잘 풀어내었다. 주요 작품으로 '파수꾼', '들판에서', '칠산리' 등이 있다.

(상복을 벗고 밝은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무대 안으로 나온다.)

조승인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함묘진 동연아! 서연아!

❓ '함이정' 과 '조승인' 은 극의 전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5 (동연과 서연, 등장한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으로 함묘진 앞에 선다.)

동연, 서연 부르셨습니까?

함묘진 작업장에 너희가 없더구나!

동연 죄송합니다. 잠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함묘진 밖에는 왜?

10 **동연** 말다툼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함묘진 서연아, 네가 다툼 이유를 말해 봐라.

서연 송구스럽습니다…….

15 **함묘진** 너희 생각도 행동도 똑같았다. 그런 너희가 말다툼을 하다니, 도대체 다르다면 뭐가 달랐더냐?

서연 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 인물들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함묘진 그런데, 너는?

20 **서연** 그런데 저는…… 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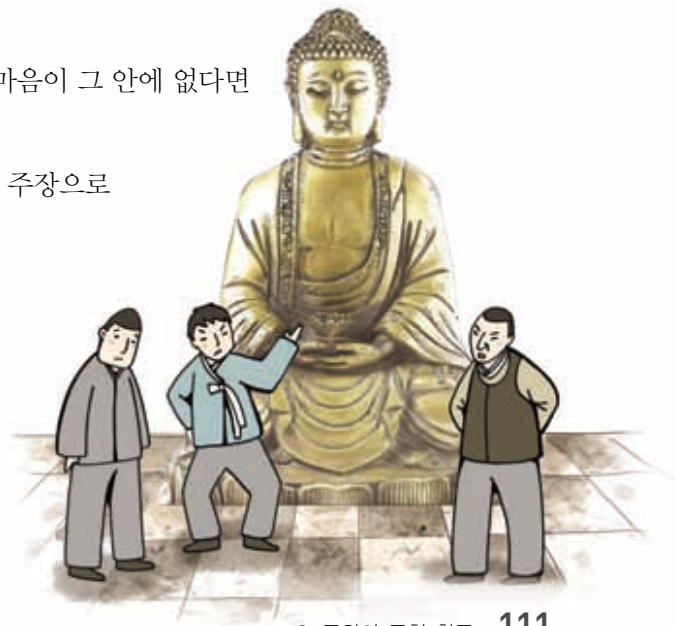
함묘진 너희 둘 다 만들던 불상을 가져와라!

25 (중략)

함묘진 둘 다 참 잘 만들었구나!

동연 미륵보살 반가상입니다.

함묘진 그렇다. 미륵보살 반가상은 불상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다. 동연아, 네가 먼저 이 불상의 특



징에 대해 말해 봐라.

동연 사부님은 저희에게, 미륵보살 반가상의 특징은 완벽한 균형미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선 전체 무게를 지탱하는 하반신을 만들 때,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누이고, 왼쪽 다린 아래로 수직이 되도록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가 수직과 수평의 절묘한 균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5

함묘진 아주 명확한 대답이다! 서연아, 다음은 상반신에 대해 말하여라!

서연 미륵보살 반가상의 상반신은 두 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오른손은 또 하나의 상승하는 수직이 되도록 얼굴을 향해 들어 올려야 하고, 왼손은 그 반대로 하강하듯이 누인 다리의 발목을 향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반신의 수직과 수평, 상반신의 상승과 하강이 서로 어우러져 불상 전체가 아름다운 균형미를 갖게 됩니다. 10

함묘진 너의 대답 역시 명확하다! 동연아, 서연아, 너희는 벌써 완벽한 형태를 터득하였구나!

동연 감사합니다, 사부님. 15

함이정 아버지는 칭찬에 인색하셔. 그런데 오늘은 두 오빠를 모두 칭찬하시는구나.

조승인 하지만 두 분의 반응이 다른데요? 동연이란 분은 칭찬 듣고 좋아하는데, 서연이란 분은 침통한 표정이네요.

함묘진 서연아. 20

서연 예, 사부님.

함묘진 어째서 너는 기뻐하질 않느냐?

서연 (침묵한다.)

동연 (서연을 향해) 어서 솔직히 말씀드려.

서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이제 사부님의 칭찬을 들을 만큼 형태는 잘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불상은 그저 부처의 모습일 뿐, 부처의 마음은 아닙니다. 25

함묘진 그러니까 네 말은 뭐냐? 네가 만든 불상에는 부처의 마음이 없다, 그 뜻이냐?

서연 네. 제 고민은 그것입니다. 30

동연 서연을 야단쳐 주십시오, 사부님. 부처의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

❓ 이 작품의 제목을 '서연'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자.

함모진 (손을 들어 동연의 항의를 제지하며) 가만있거라, 너는. (서연에게) 네 말을 좀 더 들어 보자. 여기 두 개의 불상이 있다. 하나는 네가 만든 것, 다른 하나는 동연이가 만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네가 만든 불상에 대해서 말하기를, 부처의 형태일 뿐 부처의 마음은 없다고 했다. 그 까닭이 뭐냐?

5 **서연** 저는 부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한 채 형태만 만들었으니, 그건 무엇일까요…….

함모진 그렇다면 동연의 불상에 대해서는? 동연이가 만든 불상에는 부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서연 (침묵한다.)

10 **함모진** 대답하라!

서연 동연의 불상은 감탄할 만큼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함모진 그러니까 동연의 불상 역시 형태뿐이다, 그것이나?

서연 네. 부처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동연 부처의 마음이 없다, 내가 만든 불상에? 여봐, 서연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 (함모진에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부처의 형태를 미숙하게 만들면 그 속엔 부처의 마음이 없겠지요. 그러나 부처의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면, 반드시 그 완벽한 형태 속에는 부처의 마음도 있기 마련입니다. 서연은 미숙합니다. 아직 만드는 솜씨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동료인 저를 괴롭히며, 스승인 사부님의 심기마저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어서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완벽한 솜씨를 터득하는 데 **진력**[◆] 하라고, 열심히 공부나 하도록 야단쳐 주십시오!

15
20

함모진 나는 너희에게 불상 제작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이 세상에 나만큼 불상의 형태에 대해 잘 아는 자는 없다! 하지만 마음은 모르겠다. 서연아, 부처의 마음을 알려거든 다른 자에게 물어라!

25 (후략)

◆ **진력** 있는 힘을 다함. 또는 낼 수 있는 모든 힘.

전체 줄거리 동연과 서연은 불상 제작자인 함모진의 제자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불상 제작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서연은 진정한 부처의 마음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 후 동연은 불상 제작자로서 명성을 얻고, 스승의 딸인 함이정과 결혼하여 조송인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던 중 사고로 함모진이 세상을 떠나자, 함이정은 서연을 찾아 떠난다. 그녀는 서연을 만나 함께 돌부처를 만들며 들판을 헤매다가 서연의 임종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함이정은 서연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조송인에게 지난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표시해 보자.

대립 ←
우호 =



동연



함묘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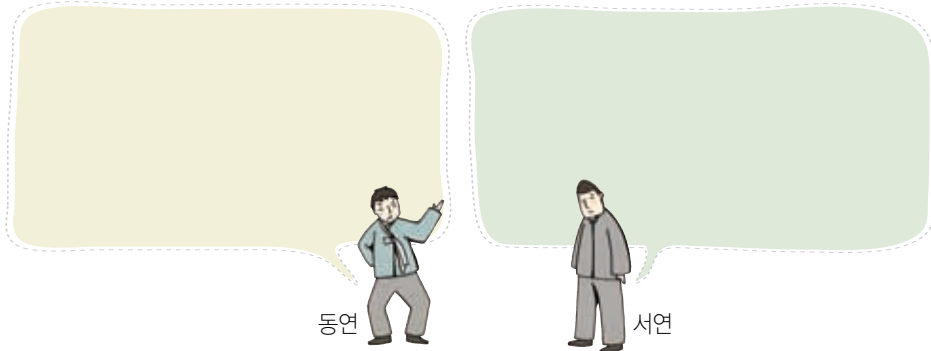
서연



함이정

목표 학습

2 불상 제작에 대한 ‘동연’과 ‘서연’의 견해 차이를 정리해 보고, 그를 제목과 관련지어 이 작품의 주제를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이 작품의 ‘부처의 마음’과 ‘불상의 형태’에 해당하는 대상을 다음 작품에서 찾아보고, 이들을 예로 들어 문학을 포함한 예술의 창작 원리를 설명해 보자.

“..... 포구에 물이 차오르고 선학동 뒷산 관음봉이 물을 타고 한 마리 비상학으로 모습을 떠올리기 시작할 때면, 노인은 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 비상학을 벗 삼아 혼자 소리를 하곤 했어요. 해 질 녘 포구에 물이 차오르고 부녀가 그 비상학과 더불어 소리를 시작하면 선학이 소리를 불러낸 것인지 소리가 선학을 날게 한 것인지 분간을 짓기 어려울 지경이었지요. 험디 그렇게 한 서너 달쯤 지났을까요. 노인넨 그동안 맘속으로 깊이 목격한 일이 따로 있었던 거드구만요. 무어라 할까..... 노인넨 그냥 비상학을 상대로 소리만 즐긴 게 아니라 어린 딸아이의 소리에 선학이 떠오르는 이 포구의 풍정을 심어 주려 했다고나 할까..... 하여튼지 한 서너 달 그렇게 소리를 하고 나니 노인네 뜻이 그새 어느 만큼은 채워졌던가 봅디다. 계집아이의 소리가 처음 주막을 찾아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도도하고 장중스러워지는구나 싶었을 때였어요. 부녀가 홀연 주막을 떠나가고 말았어요.”

-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에서

(3) 문학과 매체

오랜 세월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으며, 인쇄술이 발달한 이후로는 주로 인쇄 매체를 통해 생산되고 수용되어 왔다. 최근 들어 전자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이 확대되면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는 물론 음악, 그림, 사진, 동영상 등이 결합된 문학적 표현이 늘어나고 있다. 문학이 다양한 매체와 관련되는 최근의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영상 매체는 문학을 영상화한다. 이 과정에서 문자 언어로 표현된 내용들이 음성 언어나 음악, 행위 등이 어우러진 시청각적 장면으로 바뀌게 된다. 만화의 경우는 인쇄 매체로 문학을 시각화한다. 문학의 영상화나 시각화는 대중들이 문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하여 작품의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광고는 공익적 목적이나 상품, 서비스를 판매할 목적 등으로 대상을 짚고 강렬하게 알리는 표현물이다. 영상 매체나 인쇄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광고들은 리듬감을 살린다든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야기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등의 다양한 문학적 표현 방법들을 활용한다.

컴퓨터 게임은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갈래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컴퓨터 게임은 화려한 그래픽과 음악 그리고 서사적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종합 예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시나 소설, 수필과 같은 본격적인 문학 작품들도 인터넷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산·수용되기도 한다. 인터넷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활발하게 의사소통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은 문학의 생산과 수용을 일상적 생활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다. 작가와 독자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작품 창작에 함께 참여한다든지, 각종 인터넷 문학 동호회를 통해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비평하며 즐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좋은 사례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문학 활동은 문학을 생활화하여 수준 높은 문학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문학 작품이 다양한 매체로 재생산되었거나 다양한 매체에 활용된 문학적 표현들을 두루 살펴보고, 각 매체가 지닌 심미적 가치와 표현 방법을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하여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심화해 나가도록 하자.

이 작품은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원작으로 한 영화의 대본이다. 소설과 영화의 관련성과 차이점을 함께 살피며 읽어 보자.

영화 '오발탄'의 표현 기법

영화는 다양한 촬영 기법과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이야기 속의 시간과 공간을 선택하고 조직한다. 또, 대사와 행위, 효과음과 배경 음악 등을 활용하여 인물의 갈등과 심리를 표현하며 사건을 전개해 간다.

영화 '오발탄'은 이러한 영화의 표현 원리를 활용하여 원작의 주제 의식을 더욱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이 영화는 흑백의 화면을 대비하고 길게 찍은 화면을 많이 활용하며, 상징적인 대사와 음향 효과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국 전쟁 후 인물들의 심리와 시대적 분위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 '가자' 소리의 역할에 주목해 보자.

등장인물(수록 부분 중심)

송철호 계리사 사무실 서기

송명숙 철호의 누이동생

철호의 어머니

철호의 아내

송영호 철호의 동생, 상이군인

기타 (치과 의사, 간호원, 운전수와 조수 등)

5

(전략)

장면 100. 경찰서 앞

허탈해서 나온 철호가 허공을 쳐다보고 섰다가 힘없이 걷는다.

장면 101. 빌딩 앞

여기까지 걸어온 철호. 사무실로 들어가려다 다시 걷는다.

10

장면 102. 철호의 집 앞

철호가 휘청거리고 골목으로 접어드는데 어머니의 날카로운 "가자!" 소리.

그 소릴 듣자 철호의 눈에 눈물이 왈칵 솟으며 껍 소리 지른다.

철호 가세요. 갈 수만 있다면…….

15

장면 103. 철호의 방 안

철호가 아랫방에 들어서자 윗방 구석에서 고리짝을 뒤지고 있던 명숙이가 원망스럽게

명숙 오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슈.

철호는 들은 척도 않고 아랫목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이범선(1920~1981)

평남 신안주 출생. 소설가. 전후의 암담한 시대 현실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다. 작품집으로 "학마을 사람들", "오발탄" 등이 있다.

명숙 어서 병원에 가 보세요.

철호 병원에라니?

명숙 언니가 위독해요.

철호 …….

5 명숙 점심때부터 진통이 시작되어 죽을 애를 다 쓰고 그
만 어린애가 걸렸어요.

철호 …….

명숙 지금쯤은 아마 애길 낳았는지.

철호가 부시시 일어나 담배를 붙여 물고 문을 연다.

10 명숙 오빠!

철호 …… (돌아본다.)

명숙 어딜 가세요?

철호 …… 병원에.

명숙 (답답해서)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15 철호 …… 참.

명숙 동대문 부인 병원 419호실.

명숙 오빠!

철호 …… (돌아선다.)

명숙 그냥 가기만 함 무슨 소용 있어요? 돈을 가져가셔야죠.

20 철호 …… 돈?

명숙은 벽에 걸린 핸드백을 집어 든다.

철호는 얻어맞은 사람처럼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섰다. 뒤통치가 계란만큼이나 뚫어진 명
숙의 나일론 양말.

명숙이가 만 환 뭉치를 내밀며

20 명숙 옛소요. 나 기저귀감 챙겨서 곧 갈게요.

철호도 돈뭉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받아 놓는다.

- 오버랩(O. L) -

장면 104. 동대문 산부인과 복도

철호가 419호실 앞으로 휘청거리고 와서 조용히 노크한다.

30 이윽고 문이 열리면 텅-빈 실내를 간호원이 소독하고, 한 간호원이 철호의 위아래를 훑어
보며



◆ 오버랩(O. L, Over Lap) 하나
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장면 전환
기법.

간호원 혹시 이 방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철호 …… 네.

간호원 …….

철호 …….

간호원 한 시간 좀 지났어요.

5

철호 ……? …….

간호원 부인과 과장실에 가 보세요.

하고 문을 닫는다.

화석(化石) 같은 철호.

장면 105. 시체 안치실 앞

10

철호가 유령처럼 걸어온다.

문 앞에 와서 손잡이를 잡다가 힘없이 놓고 돌아선다.

눈앞에 뽀얗게 흐린 채 거기 우두커니 서 있을 뿐…….

- 오버랩(O. L.) -

장면 106. 병원 정문 앞

15

❓ 철호는 왜 갈피를 잡지 못하는가?

철호가 나와서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정처 없이 걸어 본다.

장면 107. 거리

허탈한 상태로 걸어가는 철호.

여기서 자신의 소리가 겹친다.

소리 (벽력 같은 소리로) 영호야! 그렇게나 살자면 이 형도 벌써 잘 살 수 있었던 말이다.

20

입은 찢어지고 눈에선 눈물이 사정없이 솟고 그러면서도 눈만은 정기(精氣)가 차서 앞을 정시(正視)하며…….

장면 108. 경찰서 앞

철호는 멍하니 서(署)를 바라보다가 다시 걷는다.

장면 109. 거리

25

철호의 사무실.

철호가 휘청거리고 와서 빌딩을 멍하니 올려보다가 또다시 걷는다.

장면 110. 다른 거리

문방구점, 라디오상, 사진관, 제과점. 그는 길옆에 늘어선 가게의 진열장을 하나하나 기웃거리며 걷고 있다. 하나 철호의 눈에는 무엇인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어느 문 앞에 걸린 간판 앞에 우뚝 선다. ‘치과’ 그것을 쳐다보는 철호의 얼굴이 점
5 점 찌푸러지며 손으로 볼을 움켜쥐는다. 철호가 주머니에서 만 환을 꺼내 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안으로 들어간다.

장면 111. 동 치과 안

앗! 하는 비명과 함께 의사가 집계를 들고 철호의 이를 뽑아낸다.

의사 좀 아팠지요. 뿌리가 구부러져서…….

10 하며 뽑아 든 이를 보인다.

철호가 침을 타구에 뱉는다. 나오는 피.

의사가 계속해서 뽑은 자리를 치료하고 나서

의사 됐습니다. 한 삼십 분 후에 숨을 빼 버리슈.

철호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보고 나서

15 **철호** 이쪽을 마저 뽑아 주실까요?

의사 어금니를 한 번에 두 개씩 빼면 출혈이 심해서 안 됩니다.

철호 몽땅 뽑았으면 좋겠는데요.

의사 한쪽을 치료해 가면서 뽑아야지 안 됩니다.

철호 그럴 새가 없습니다. 마약 쏘시는 걸요.

20 의사가 주사기에 약을 넣으며 빙그레 웃는다.

의사 안 됩니다. 빈혈증이 일어나면 큰일이 나니까요. 자 벗으실까요.

하자 철호는 하는 수 없이 의자에서 일어선다.

❓ 철호가 진짜 뽑아 버리고 싶은 것은?

장면 112. 치과 앞

치과에서 나온 철호가 볼을 손끝으로 눌러 보면서 걸어간다.

25 장면 113. 거리

철호가 볼을 만지며 걸어온다.

그는 또 우뚝 선다. 다른 치과 앞이다. 그가 한참 생각다 들어가면

- 오버랩(O. L) -

철호가 이번에는 양쪽 볼을 손으로 누르며 나온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 입안의 피를 뺏는다.

장면 114. 서울역 부근

여기까지 온 철호가 또 휴지를 꺼내서 피를 뺏는다. 오싹 몸을 떠는 철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이때, 거리에 전등이 들어온다. 눈앞이 환하게 밝아진다. 점점 흐려진다.

5

그는 또 한 번 오싹 몸을 떤다.

장면 115. 설령탕집 안

휘청거리고 들어온 철호가

철호 설령탕!

하고 의자에 쓰러진다.

10

철호가 또 휴지를 꺼내다가 힘없이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장면 116. 그 집 앞

그 집 옆 골목으로 비틀거리고 나온 철호가 시궁창에 가서 쭈그리고 앉는다.

“왈칵” 쏟아져 나오는 피.

그는 저고리 소매로 입술을 닦으며 일어선다.

15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그는 휘청거리고 나가서는 지나가는 자동차를 세우고 던져지듯 털썩 차 안에 쓰러지자 택시는 구르기 시작한다.

장면 117. 자동차 안

조수 어디로 가시죠?

20

철호 해방촌!

자동차가 원을 그리며 돌자

철호 아냐. 동대문 부인 병원으로.

이번엔 반대로 커브를 돌리자

철호 아냐. 종로서로 가야!

25

운전수와 조수가 못마땅해서 힐끗 돌아본다.

장면 118. 동대문 부인과 산실

아이는 몇 번 앙! 앙! 거리더니 이내 그친다.

그 옆에 허탈한 상태에 빠진 명숙이가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며 앉아 있다.

여기에 겹치는 명숙의 소리.

5 **명숙** 오빠 돌아오세요, 빨리. 오빠는 늘 아이들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서 젤 좋으시다고 하셨죠? 이 애도 곧 웃을 거예요. 방긋방긋 웃어야죠. 웃어야 하구 말구요. 또, 웃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장면 119. 경찰서 앞

택시가 와 신다.

장면 120. 자동차 안

10 조수가 뒤를 보며

조수 경찰섭니다.

혼수상태의 철호가 눈을 뜨고 경찰서를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뒤로 쓰러지며

철호 아니야. 가!

조수 손님 종로 경찰선데요.

15 **철호** 아니야. 가!

조수 어디로 갑니까?

철호 글썸 가재두…….

조수 참 딱한 아저씨네.

철호 …….

20 운전수가 자동차를 몰며 조수에게

운전수 취했나?

조수 그런가 봐요.

운전수 어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철호가 그 소리에 눈을 떴다가 스르르 감는다.

25 밤거리의 풍경이 설 새 없이 뒤로 흘러간다.

여기에 들리는 철호의 소리.

30 **철호** - 효과음(E) -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딘지 가긴 가야 하는데…….

❓ 어머니의 '가자'와 철호의 '가!' 그리고 '오발탄'의 공통점은?

◆ 효과음(E, Effect) 주로 화면 밖에서의 음향이나 대사에 의한 효과를 말함.



이때, 네거리에 자동차가 벨 소리와 함께 선다.

조수 (돌아보며) 어딜 가지죠?

철호가 의식이 몽롱해진 소리로

철호 가자…….

장면 121. 하늘

도시의 소음이 번져 가는 초저녁 하늘. 유성(流星)이 하나 길게 5
꼬리를 문다.

장면 122. 교차로

때르릉 벨이 울리자 신호가 켜진다.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행렬에 끼어서 멀리멀리 사라져
간다. 10

전체 줄거리 송철호는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는 현실에 순응하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성실한 사람이지만, 병든 노모를 모시고 운전치 못한 동생들을 건사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젊은 가장이다. 노모는 전쟁의 충격으로 “가재”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병자며, 누이동생 명숙은 미군 병사를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다. 부상으로 제대한 아우 영호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양심이나 윤리 따위는 아랑곳없이 살다 결국 은행 강도가 되어 수감된다. 철호는 동생의 일로 경찰서를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만삭인 그의 아내가 출산을 하다 죽고 만다. 아내의 죽음을 접하고 병원을 나온 철호는 낮이 나간 채 걷다 우연히 치과를 보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충치를 모두 뽑아 버린다. 택시를 탄 철호는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의식이 흐려진다.

내용 학습

1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제목의 의미를 말해 보자.

목표 학습

2 ‘오발탄’에서, 주인공의 심리가 잘 드러나도록 장면 117에서 장면 122까지를 소설로 바꾸어 써 보고, 원작과 비교해 보자.

적용 학습

3 인상 깊게 본 영화나 광고, 컴퓨터 게임 등을 소재로 다음 시와 같이 심미적으로 표현해 보자. (갈래, 분량 제한 없음.)

민중 병원 의사가 말씀하시기를 —
귀하의 감정을 무기처럼 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상을,
잠수함에 태워서 가라앉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
새들은
비늘을 달고 물속으로 날아갑니다
물고기들은
날개를 달고 공중에서 헤엄치구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혀 위에 시멘트를 바르고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감사합니다

— 이세룡, ‘빠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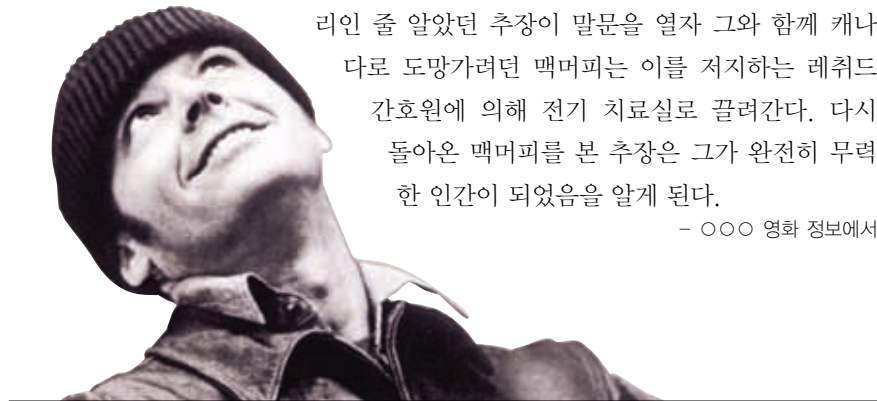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범죄자인 맥머피는 교도소에서 정신 병원으로 후송된다. 정신 병원이 감옥보다는 자유로울 것으로 생각했던 맥머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신 병원에 수감되어 있는 하딩, 마티니, 체스워, 빌리, 데버, 시멜로, 추장, 프레데릭슨 등과 생활하면서 맥머피는 그들이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병원 내의 압력에 의해 짓눌려 사는 죽은 인간들임을 간파한다. 그리고 그러한 압력의 주범이 레취드 간호원임을 알게 된다.

맥머피는 환자들을 끌고 병원을 빠져나가 낚시를 다녀오거나 파티를 여는 등 의도적인 반항을 시도하지만 레취드 간호원으로 대표되는 병원 내의 시스템이 너무나 막강하다는 것을 깨닫고 탈출을 결심하게 된다. 병어린 줄 알았던 추장이 말문을 열자 그와 함께 캐나다로 도망가려던 맥머피는 이를 저지하는 레취드 간호원에 의해 전기 치료실로 끌려간다. 다시 돌아온 맥머피를 본 추장은 그가 완전히 무력한 인간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 ○○○ 영화 정보에서



…… 우리 뇌리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감동적인 영화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를 되새기며 이세룡의 시와 비교해 보자. 이 시를 읽어 본다면 한 편의 영화가 어떻게 다른 시각에서 읽혀질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독자는 이 시에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차단하고 제약해 온 정치·사회적 현실 상황에 대한 우화적인 재구성을 눈치챘을 것이다. 실제 영화 내용하고는 무관하다 할 만큼 교묘한 현실 인식의 변용이다. 이 시는 사고의 회로나 행동의 자유를 감금한 정신 병원의 시멘트 콘크리트와 같은 상황을 알레고리로 삼아,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지어 주고 있는 현실적 요인에 대한 혐악할 정도의 절망감과 깊은 자조감을 드러내고 있다.

- 조정권, '가난한 현실 위에 짓는 꿈의 공장'에서

02 토지(소설)

박경리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삶을 다룬 장편 소설이다. 만화로 표현한다면 어디를 강조할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연못가에 무릎 꿇고 앉아 있던 서희는

“봉순아.”

5 하고 불렀다.

“예, 애기씨.”

“너 또 울었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으며 봉순이는 대답을 않는다. 무릎 사이로 눈을 치뜨고 보는데 연못 위에 버들가지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연두색 버들가지에
10 질푸른 하늘, 구름도 없는 푸른 하늘 역시 출렁이고 있었다. 울었던 것은 간밤의 일이다. 아침나절을 마을 소식이라, 읍내 월선 아지매 일이라 이 부사댁 애기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것도 여러 번 되풀이하여 했던 이야기였으므로 봉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 지껄여 주기를 바라고 있는 서희의 마음을 봉순이는 알고 있었다.

15 “울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 올라꼬 하지마는.”

얼굴을 들고 봉순이는 무릎 위에 깎지를 낀다. 깎지 낀 손 위에 턱을 얹는다.

“자꾸자꾸 눈물이 납니다. 생각수록 서럽고 오마가 보고 저버서 그만 죽어부
렸으면 싶습니다.”

20 “너마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니?”

“그러기 말입니다. 와 그렇기 애는 먹있는고 싶으니 오마가 다시 살아만 온
다믄, 다시는.”

“우리 할머니께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눈물을 아니 보이셨다.”

어른스럽게 가르치는 것 같다. 그 의젓한 투에는 김 훈장 훈도의 영향도 있었
25 고 범절을 지키려는 강한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다.

‘토지’의 문학사적 의의

‘토지’는 한말의 몰락으로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최씨 일가의 4대에 걸친 가족사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고난사를 생생하게 형상화하였다. 이런 점에서 ‘토지’는 우리 문학사에서 기념비적인 대하소설이다.

한편 ‘토지’는 인간 삶의 근원적이고 보편적인 면을 탐구한 작품으로서 의의가 크다. 재물과 애욕으로 갈등하며 저마다 한(恨)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그 한을 원동력으로 더욱 강인하게 생명을 이어 나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그려내었다.

언어 예술의 차원에서도 ‘토지’는 사투리와 속담·격언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한국어가 지닌 미적 특질을 최대한으로 살림으로써 한국 소설사에서 역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애기씨 ‘애기씨’의 방언



박경리(1926~2008)

경남 통영 출생. 소설가. 초기에는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그리는 작품들을 주로 썼으며, 1969년부터 25년에 걸쳐 ‘토지’를 집필하여 한국 대하 역사 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로 평가 받는다. 주요 작품으로 ‘불신 시대’, ‘김 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쟁’, ‘토지’ 등이 있다.

“하지마는 애기씨도 전에는 많이 우셨습니다.”

서희의 의젓한 품을 무심하게 깨뜨려 버린다.

“언제?”

금세 썰쭉해져서 서희는 묻는다.

“전에 어릴 적에 말입니다. 막 어머니님 데리고 오라 감서.”

“.....”

“한분 울음을 잡혔다 싶으면 온 집안의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오마는 아이구 우짜꼬 아이구 우짜꼬 함시로. 애기씨는 생각 안 나십니까?”

서희는 얼굴빛이 변하고 깎은 듯 둥근 이마에 푸른 줄이 뻗는다.

“그건 철없을 때 얘기야!”

쇠된 목소리가 사방에 깨어져서 울린다. 비로소 봉순이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는다.

“그거사 며, 어릴 때사 며, 누구나 다.....”

하다가

“오만 가지 보는 것마다 죽은 오마를 생각나게 하고 말입니다. 잊어부릴라꼬 하지마는.”

가까스로 말머리를 돌렸으나 어머니님 데려오라 하면서 울었다는 그 쓰라린 시절을 끄집어낸 뒤끝이어서 어미를 생각나게 한다는 말은 자극이 되었다.

“안 올라꼬 하지마는 생각해 보시이소. 울 엄마가 살았이든 저기 저 마리[◆]에서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있일 긴데 말입니다. 양주댁인가 그 쪽제비 걸은 서울내기, 지가 뉘데 사람을 팔시하겠습니까. 참말이지 객식구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 주제에 울 오마 방에 떡 뻘치고 앉아서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참말이지 눈에 쌍심지가 돌아서 아무래도 못 살겠습니다. 지가 며 서울서 우똥 대가택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마는, 흥 울 오마 바느질 솜씨 따라올라 카문, 신 벗어 놓은 데나 올기라고요? 얼런도 없지. 그뿐이겠습니까. 울 오마가 있었이든 갸히 마님 장롱을 열었겠습니까? 장롱 쇳때[◆]도 울 오마가 딱 갈미하고 저승 차사가 와도 안 내놨을 긴데.”

수시로 듣는 얘기였다. 봉순이만 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런 비슷한 말을 길상[◆]이도 하고 수동이는 더더군다나 머릿속에 못이라도 박아 넣듯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희 귀에 넣어서 적개심을 풀지 못하게 하였다. 조준구 내외와 그에게 추종하는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마음속으로는 서희에 대한 동정에 가득 차 있는 삼월이나 복이까지 싸잡아서, 그러니까 자신과 길상이 봉

❓ 서희가 얼굴빛이 변한 까닭은?

- ◆ 쇳때다 목소리가 높고 날카롭다. '새되다'로 순화.
- ◆ 마리 마루의 방언.
- ◆ 쇳때 열쇠의 방언.

순이를 빼놓은 나머지는 모조리 원수로 알아야 할 것이며, 일각 일순인들 마음을 놓아서 안 된다는 것이며 조씨 네 권술은 최 참판댁 살림을 들어먹으려 하는 도둑놈들이요 집안의 노비들과 마을의 농사꾼들 대부분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로서 후일 반드시 벼락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애기씨는 도둑놈들과 배신자

5 자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용서해도 안 되고 항상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며, 할머니의 기상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어서어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참말이지, 애기씨 자라시는 기이 여삼추[◆] 만 같습니다. 애기씨만 자라서 살림채를 잡으시든 소인은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수동이는 눈물을 떨어뜨리기 일췌였다. 그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연하고 아직은 미숙한 머릿속에 거둑거둑 못을 박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숙하고 영민하며 기승하고[◆] 오만한 서희가 그동안 어려운 일들을 겪어내면서 굳힌 것은 경계심과 주어진 모든 것을 지켜 나가리라는 결심뿐이었다. 앞으로 자신의 신상에 변화가 있으리라는 예측도 과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터이어서 마음의 무장은 밤낮으로 불경처럼 외어 대는 세 사람의 기대 이상으로 강인한 것이었다.

15 ‘어디 두고 보아라. 내 나이 어리다고, 내 처지가 적막강산이라고, 지금은 나를 얹잡아 보지만 어디 두고 보아라.’

그런 앙심은 이미 아이가 가지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역시 조준구다. 아침이면 봉순이를 거느리고 서희는 윤 씨 부인 상청[◆]에 나가 상식[◆]을 올리고 곡을 하는데 조준구는 그 곡소리가 질색이었다. 온갖 저주와 최씨 가문을 마지막까지 지키어 나갈 것을 맹세하는 것 같은, 저주와 다짐을 하기 위해 해가 지고 다음 날이 새어 상청에 나가기 기다린 듯, 처절한 울음이었다. 날로 새롭게 날로 결심을 굳히는 듯, 곡성을 들을 때마다 조준구는 한기를 느끼곤 했다.

봉순이의 말을 들으면서도 전혀 판생각 때문에 서희 가슴은 터지는 듯하였다. 어머님 데려오라 하며 울었던 어릴 적 일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차서 슬픈 시절, 어미가 보고 싶어 울었던 나날이 선명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어미에 대한 그리움은 아직도 그에게는 떨어 버릴 수 없는 집념이다. 그 끈질긴 감정 속에는 그리움뿐만 아니라 원망과 증오가 함께 있었다. 남의 사내를 따라 어린 자식을 버리고 간 어미, 그것은 자식에 대한 배반이며, 하인 놈을 따라간 어미,

30 그것은 서희 마음에 씻지 못할 오욕을 심어준 죄악이었다. 희미하게 희미하게 그러다가 확실하게 알아 버린 사실들, 주로 주착없는[◆] 김 서방댁 말에서 알게 된 일이지만 절대적인 권위 의식 속에 자란 그에게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② 서희의 성격과 내면 심리에 초점을 두고 읽어 보자.

- ◆ 여삼추(如三秋) 3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뜻. 몹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이르는 말.
- ◆ 기승(氣勝)하다 성미가 억척스럽고 굳세어 좀처럼 굽히지 않다.
- ◆ 상청(喪廳) ‘궤연(几筵)’을 속되게 이르는 말. 죽은 사람의 신위(神位)와 그에 딸린 모든 것을 차려 놓는 곳.
- ◆ 상식(上食) 상가(喪家)에서 아침저녁으로 궤연 앞에 올리는 음식.
- ◆ 주착없다 일정한 뜻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었다. ‘주책없다’가 바른 표현.

그리움과 마찬가지로 그 오욕 또한 잊을 수 없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상처를 무심하게 봉순이가 들쭉서 놓은 것이다. 서희는 어머니, 별당 아씨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데리고 달아난 사내 구천이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었다.

“아까 수동이 아제도 말했지마는 마을에 곡식을 나누 줌시로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구별을 짓는 거는 무슨 심청[◆]인지 모르겠습니다.”

봉순이는 계속 지껄이고 있었던 것이다.

“길상이가 그러는데 그 양반이 당을 맨들 속심으로 그런다는 겁니다. 인심 써 가지고 저저 사람들 맨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 써먹을라꼬, 길상이 말이 맞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사 배가 고프니께 주는 거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니께 그 양반한테 굽실거리면서 애기씨를 대수로 안 여기게 할라꼬, 아무튼 지 간에 우짜든지 간에 애기씨만 따돌리 부리자는 심사 아니고 머졌습니까.”

서희는 허리를 굽혀 연못가에 얼굴을 비춰 본다. 옥같이 맑은 조그마한 얼굴이 물 위에 뜬다. 한 송이 연꽃같이 보인다. 그러나 서희는 어머니의 얼굴로 본다.

‘서희야?’

빙긋이 어머니는 웃는다.

‘머리가 뜨겁구면. 방에서 놀지 않고 어디 갔었지? 감기 들면 할머니께서 꾸중하실 텐데.’

‘.....’

‘꽃을 실에 꿰어 달라구? 그러지. 석류꽃이 많이 떨어진 모양이구나. 간밤에 바람이 불더니만.....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족두리가 될까? 어디 머리에 올려 보자.’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간 곳이 없고 사나이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랐다.

‘애기씨, 이러심 안 됩니다.’

지친 듯한 구천이의 눈이었다.

‘일질에 넘어지십니다.’

‘.....’

‘마님께서 보시면 꾸중하시지요.’

‘나 할머니 무섭지 않다!’

서희는 어느덧 저도 모르게 연못가 흙모래를 쓸어다가 연못 속에 던지고 있었다. 산산이 부서지는 얼굴, 그것은 서희 자신의 얼굴이었다.

❓ 이 부분을 만화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지 상상하며 읽어 보자.

◆ 심청 마음보, 심보.

“나쁜 놈, 죽일 놈! 바보, 등신, 중놈!”

“애기씨, 와 그럽니까?”

“나쁜 계집애!”

서희는 빨딱 일어서며 주먹에 쥔 모래를 봉순이의 얼굴에다 던진다.

5 “나쁜 계집애! 너만 엄마가 죽었니! 너만 엄마가 죽었냐 말이야!”

“애, 애기씨 잘못했습니다. 인자부텨 다시는 안 그라겼습니다.”

했으나 서희는 땅바닥에 주질러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애, 애기씨!”

10 봉순이는 옛날 봉순네처럼 서희를 안으려 했다. 서희는 봉순이 가슴을 두 주먹으로 떠다밀었다. 울부짖고 새파랗게 질리고 눈을 까집으며 까무러칠 지경이다.

어릴 적 그대로의 패악이었다.

◆ 주질러앉다 ‘주저앉다’가 바른 표현.

전체 줄거리

구한말 하동 평사리. 최 참판댁 윤 씨 부인이 남편과 사별 후 동학당 김개주에게 겁탈을 당해 낳은 아들 환이 구천이란 이름으로 최 참판댁 머슴이 된다. 구천은 이복형 최치수의 부인인 별당 아씨를 사랑하여 그녀와 지리산으로 도망치나 별당 아씨는 죽고 만다. 이어 귀녀의 음모로 최치수가 살해되고 윤 씨 부인마저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이러한 틈을 타 최치수의 먼 친척뻘 되는 조준구는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최치수의 어린 딸 서희와 자신의 아들을 결혼시키려는 음모를 꾸민다. 한편 평사리 농민 용이는 부모의 반대로 무당의 딸 월선과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본부인 강청덕과 사별 후 임이네와 관계를 맺어 아들 흥이를 얻는다. 고아가 된 서희는 최 참판댁 심부름꾼인 고아 김길상과 몸종 봉순이, 머슴 수동이 등의 보살핌을 받으며 조준구에게 맞서 보지만 역부족이다. 흉년이 들고 조준구의 횡포가 심해지자 마을 사람들이 야밤에 최 참판댁으로 쳐들어가고 그 틈을 타 서희는 길상과 용이 등과 함께 간도로 도망친다. 간도 용정에 정착한 서희는 빼앗긴 재산을 되찾고 집안을 일으키려는 집념으로 장사에 전념한다. 길상과 공 노인의 도움으로 서희는 큰 재산을 모으고 길상과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는다. 봉순은 기생이 되어 이름을 날리게 되고, 용이는 월선과 용정에서 국밥집을 하지만 실패한다. 용이가 죽은 후 월선은 흥이와 함께 살다가 암으로 죽는다. 서희는 길상과 공 노인 등의 도움으로 조준구로부터 빼앗긴 재산과 토지 문서를 되찾고 귀향하지만, 간도에 남아 독립운동을 하던 길상은 계명회 사건으로 구속된다. 서희의 두 아들 중 환국은 와세다 대학에 유학하고 은국은 3·1 운동에 참가하여 정학 처분을 받는다. 출옥한 길상은 암자에서 관음 탱화를 그리고 동학을 재건하려 하다 다시 투옥된다. 소련의 참전 소식을 접한 서희가 길상을 걱정하며 서울로 가려할 때, 일본이 항복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토지’

소설 ‘토지’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만화 등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어 문학과 매체의 관련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화 ‘토지’ (1974) 포스터



드라마 ‘토지’ (2004~2005) 속 ‘서희’와 ‘봉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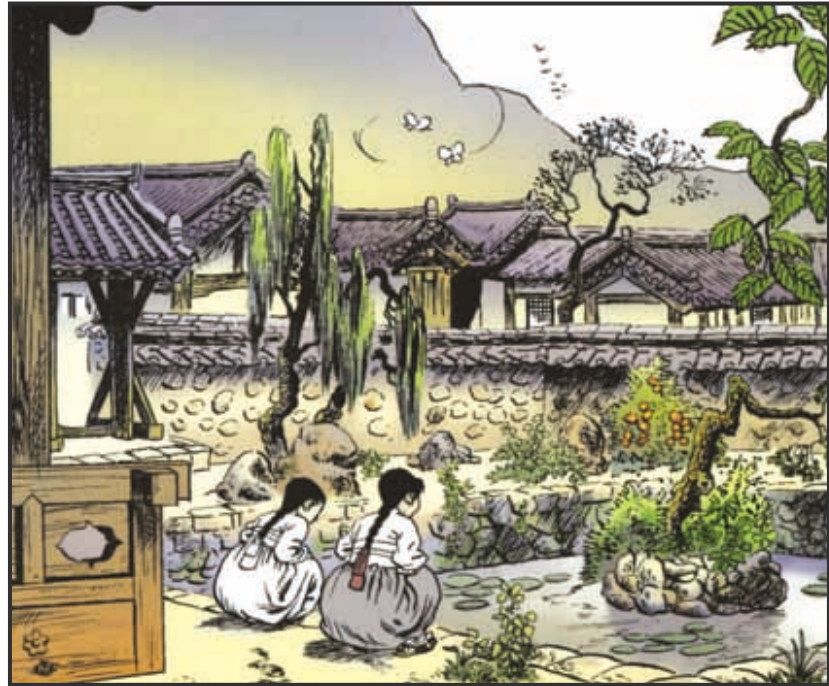


이 작품은 박경리의 장편 소설 '토지'를 만화로 그린 것이다. 앞서 본 소설과 비교하여 언어 사용 방식과 이야기 표현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만화의 언어 표현 요소

- 대사: 대화, 혼잣말(독백)-주로 말풍선(word balloon)에 담아 표현함.
- 속말: 마음속의 말(방백)-주로 말풍선의 일종인 '생각 구름(thought cloud)'에 담아 표현함.
- 해설: 서술자의 말, 주로 칸의 여백 등에 표현함.
- 외부 글: 시나 노래 가사, 편지 등-주로 액자 속에 담아 인용함.
- 효과어: 의태어, 의성어-주로 행위나 소리가 발생하는 위치에 강조하여 적음.



애기씨 지금 마을에는 흉년이 들어 농사치기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 씨 양반이 시키서 한 거졌지마는 삼수 놈이 고방에서 쌀을 내어 돌리는데 주는 사람 안 주는 사람 구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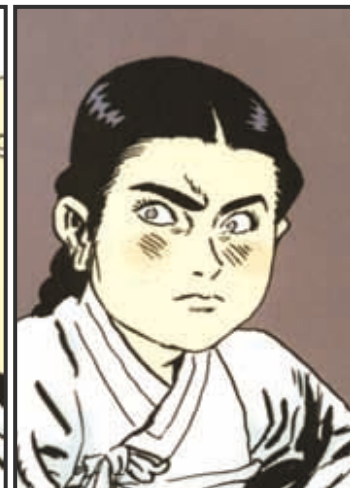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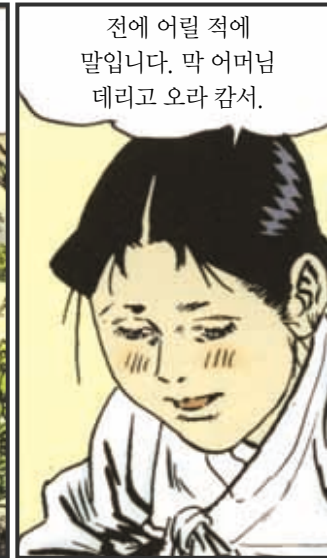
당을 멘들 속셈입니다. 조 씨가 인심 써서 당을 멘들어 애기씨를 따돌릴라카는 속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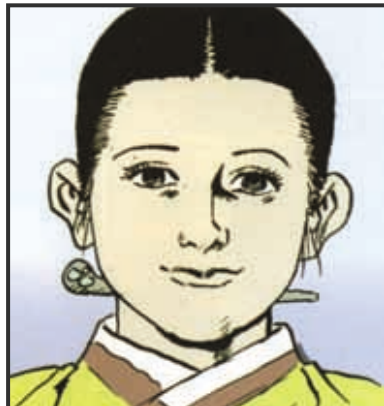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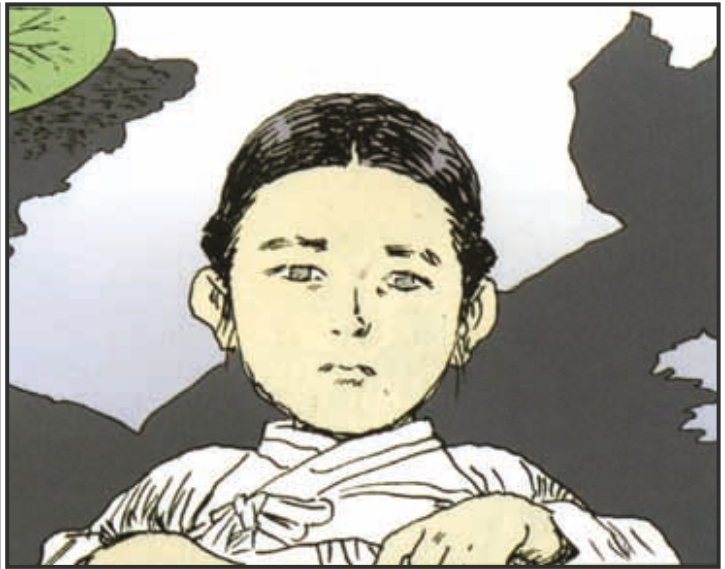


오세영(1955~)

충남 공주 출생. 만화가. 사회성이 짙은 만화를 창작하는 한편, 서정성이 강한 문학 작품을 만화로 그리는 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주요 작품집으로 “부자의 그림일기”, “오세영-한국 단편 소설과 만남”, “토지” 등이 있다.









구천이 나쁜 놈,
죽일 놈!



바보, 등신,
중놈!

애기씨,
와 그럽니까?



나쁜 계집애!



나쁜 계집애!
너만 엄마가
죽었니! 너만
엄마가 죽었난
말이야!



아래 사진은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 평사리와 섬진강



내용 학습

1 다음 중심 사건들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바를 정리해 보자.

| 중심 사건 | 사건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 |
|---------------|------------------|
| 서희의 울음 | |
| 조 씨 일파의 곡식 배분 | |

목표 학습

2 만화와 소설에서 내용과 표현, 내용 전개 순서 등이 달라진 점을 찾고, 만화가가 소설과 다르게 표현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 | 소설 '토지' | 만화 '토지' | 달리 표현한 까닭 |
|----------------|---|---------|-----------|
| 조 씨 일파에 대한 경계 | 봉순, 수동, 길상의 경계가 봉순과 서희의 대화 중에 봉순의 말이나 서희의 회상을 통해 산발적으로 제시됨. | | |
| 봉순과 서희의 어머니 회상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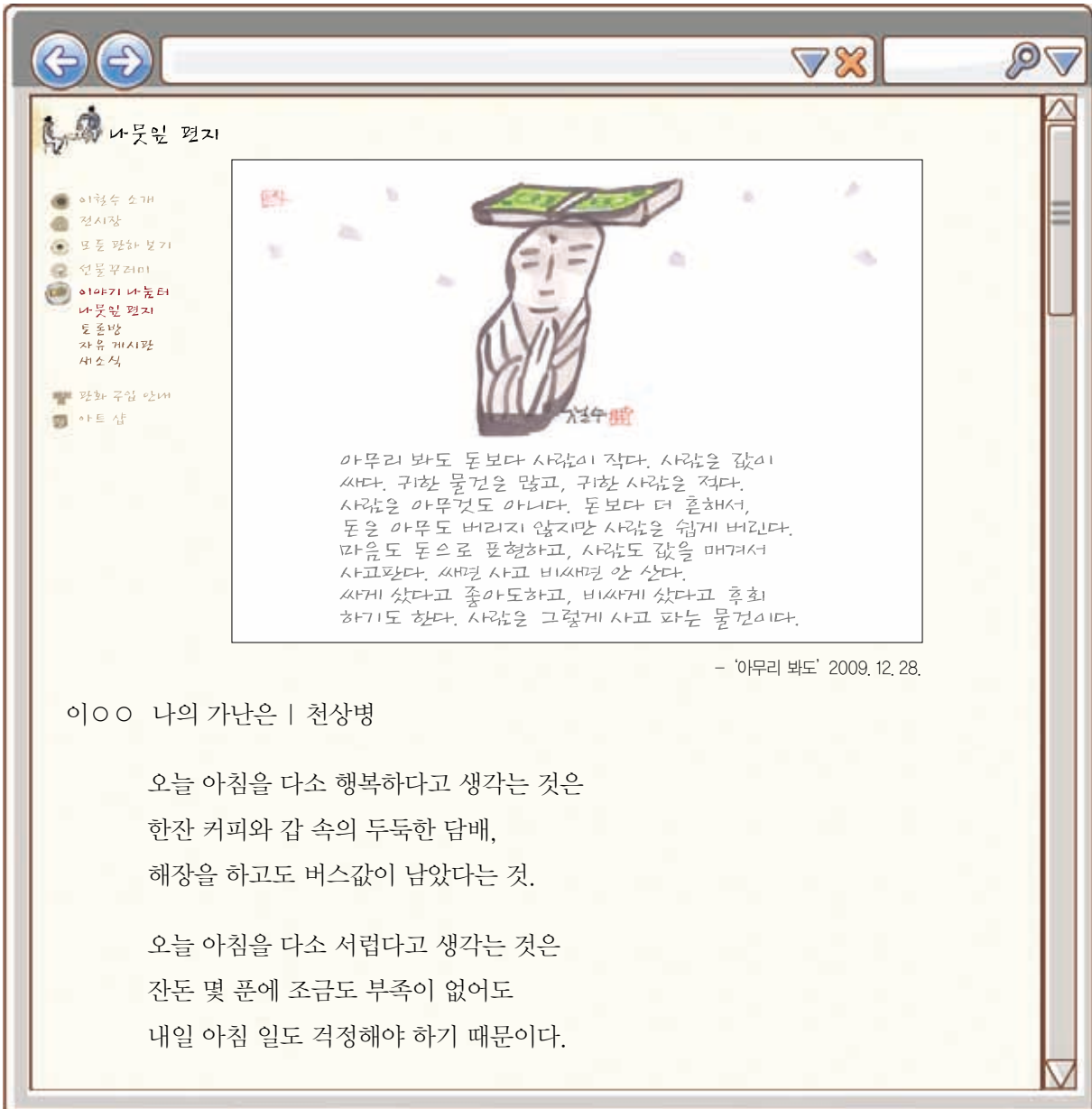
- 3 다음은 이태준의 '복덕방'의 일부를 만화로 그린 작품이다. 원작을 참고하여 만화의 대화와 속말, 해설 등을 채워 넣어 보자.



“왜 안경다린 안 고치셨어요?”
 딸이 그날 저녁으로 물었다.
 “흥…….”
 초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은 며칠 뒤에 또 오십 전을 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아버지 보험료만 해두 한 달에 삼 원 팔십 전씩 나가요.”
 하였다. 보험료나 타 먹게 어서 죽어 달라는 소리로도 들리었다.
 “그게 내게 상관있니?”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구 위해 들었게요 그럼?”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문 살아서 한 푼이라두 다투. 죽은 뒤에 내가 알게 뭐냐.’ 소리가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 이태준, '복덕방' 에서

이 작품은 판화가 이철수가 누리꾼들에게 보내는 인터넷 메일을 그의 홈페이지(http://www.mokpan.com)에 동시 게재한 것이다. 그림과 글, 그리고 누리꾼들의 반응을 살펴 인터넷 매체와 문학이 어떻게 소통하는지 살펴보자.



아무리 봐도 돈보다 사람이 작다. 사람을 값이 싸다. 귀한 물건을 많고, 귀한 사람을 적다.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다. 돈보다 더 흔해서, 돈을 아무도 버리지 않지만 사람을 쉽게 버린다. 마음도 돈으로 표현하고, 사람도 값을 매겨서 사고판다. 싸게 사고 비싸게 안 산다. 싸게 샀다고 좋아도하고, 비싸게 샀다고 후회 하기도 한다. 사람을 그렇게 사고 파는 물건이다.

- '아무리 봐도' 2009. 12. 28.

이○○ 나의 가난은 | 천상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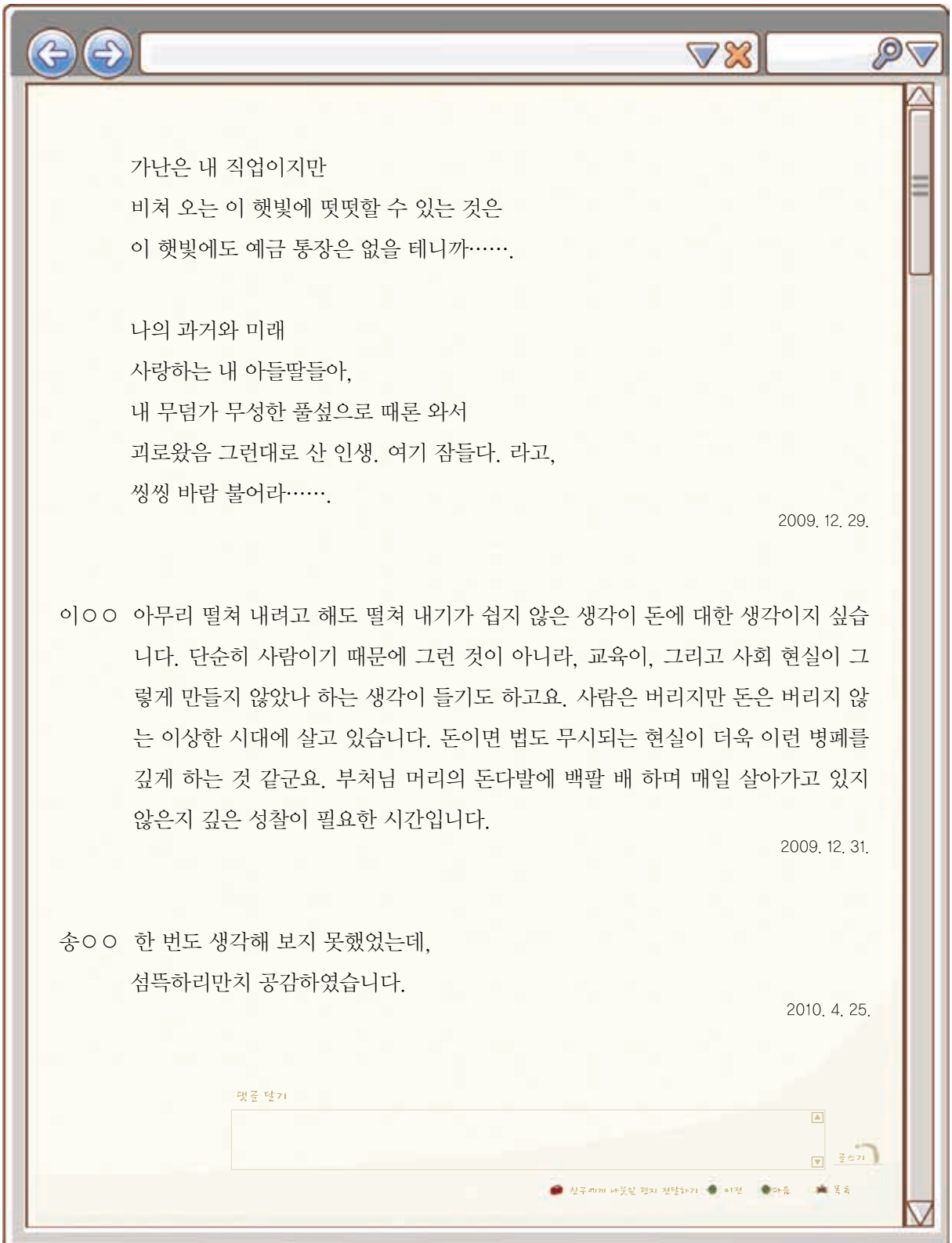
오늘 아침을 다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잔 커피와 갑 속의 두둑한 담배,
해장을 하고도 버스값이 남았다는 것.

오늘 아침을 다소 서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잔돈 몇 푼에 조금도 부족이 없어도
내일 아침 일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철수(1954~)

서울 출생. 판화가. 간결한 판화와 단아한 글을 곁들인 서정적인 작품이 많다. 작품집으로 "배꽃 하얗게 지던 밤에", "밥 한 그릇의 행복 물 한 그릇의 기쁨" 등이 있다.



가난은 내 직업이지만
비쳐 오는 이 햇빛에 떳떳할 수 있는 것은
이 햇빛에도 예금 통장은 없을 테니까…….

나의 과거와 미래
사랑하는 내 아들딸들아,
내 무덤가 무성한 풀섬으로 때론 와서
괴로웠음 그런대로 산 인생. 여기 잠들다. 라고,
씽씽 바람 불어라…….

2009. 12. 29.

이○○ 아무리 떨쳐 내려고 해도 떨쳐 내기가 쉽지 않은 생각이 돈에 대한 생각이 싫습
니다. 단순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이, 그리고 사회 현실이 그
렇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람은 버리지만 돈은 버리지 않
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법도 무시되는 현실이 더욱 이런 병폐를
깊게 하는 것 같군요. 부처님 머리의 돈다발에 백팔 배 하며 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2009. 12. 31.

송○○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섬뜩하리만치 공감하였습니다.

2010. 4. 25.

댓글 달기

친구에게 나뭇잎 링크 전달하기 이전 다음 목록

내용 학습

- 1 '아무리 봐도'에 표현된 삶의 모습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 주제를 부각하는 데 글과 그림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 | |
|-------|--|
| 삶의 모습 | |
| 그림 | |
| 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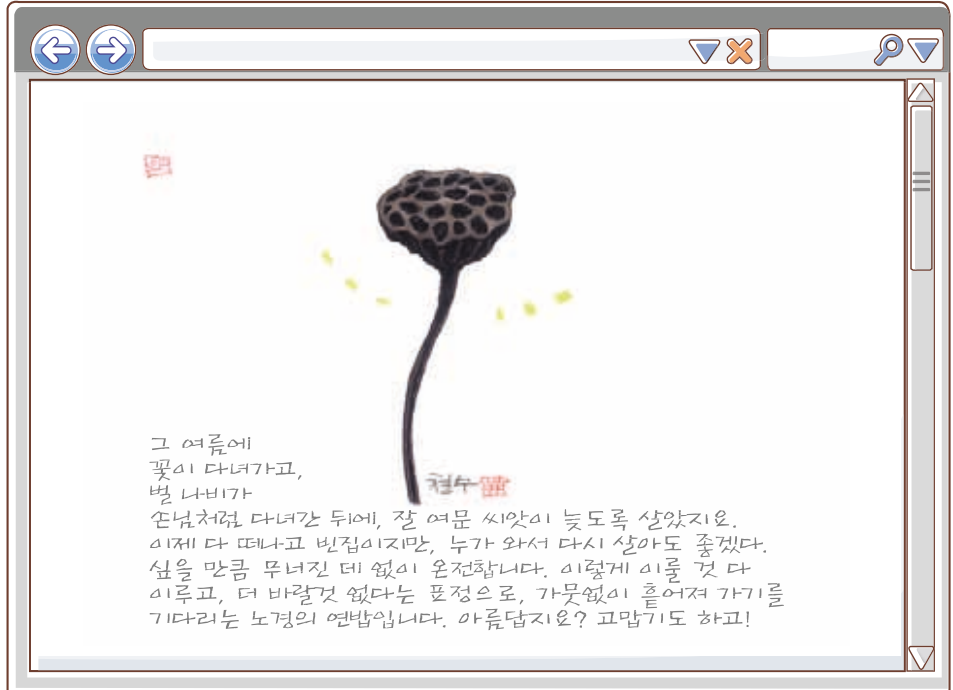
목표 학습

- 2 '아무리 봐도'의 작가는 희망하는 사람에게 인터넷 메일을 날마다 보내 준다. 그가 인터넷 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작품을 소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목표 학습

- 3 이○○ 씨가 '아무리 봐도'를 보고 '나의 가난은'을 댓글로 소개한 까닭을 토의해 보자.

4 다음은 이철수의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빈집이지만' 이다. 이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심미적으로 표현해 보고, 홈페이지에 댓글로 달아 보자.



- 이철수, '빈집이지만' 2010. 1. 30.

•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였나?

▶ 그림

▶ 글

▶ 그림과 글의 역할

• 나의 생각과 느낌

• 나의 댓글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보자.

| | |
|--------------|---|
| 문학과 인문·사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은 ()적 인식을 구체화하여 ()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성찰하는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이요, 예술 활동이다. •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가 문학 활동을 통해 소통되는 과정에서 건 강한 ()가 형성될 수 있다. |
| 문학과 예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은 (), (), () 등 다른 예술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산되고 수용되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
| 문학과 매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 작품이 () 매체, () 등의 전자 매체로 재생산되거나 다양한 매체에서 문학적 표현을 활용하기도 하면서 문학의 소통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

확인하기

2 작품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 | |
|-------------|--|
| 오렌지 | 오렌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인문학적 인식은 무엇인가? |
| 나의 열정, 나의 시 | 여성의 삶에 대한 시인의 인문학적, 사회학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
| 광장 | '광장'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광장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
| 나목 | 화가의 생애와 그림을 문학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 |
| 해 | 문학 작품인 '해' 를 노래로 만들면서 창작자가 고려한 점은 무엇인가? |
| 느낌, 극락 같은 | 불상 제작에 대한 인물들의 견해 차이를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내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 |
| 오발탄 | 소설 '오발탄' 을 영화화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
| 토지 | 소설을 만화로 바꾸어 표현했을 때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
| 아무리 봐도 | 이철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문학적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문학과 인문·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가? | | | |
| 문학과 인접 예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를 활용하여 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할 수 있는가? | | | |
| 다양한 매체의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문학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문학의 수용



(1) 내용·형식을 고려한 수용

- 01 청노루 | 박목월
 • 신록 예찬 | 이상하
 • 도요새에 관한 명상 | 김원일
 • 빈집 | 기형도

- 02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 사라촌 | 김정환



(2) 맥락을 고려한 수용

- 01 쟁야 | 이육사
 • 혼망 | 두보 / • 봄 | 김소월

- 02 허생전 | 박지원
 • 농무 | 신경림



(3) 주제적 수용

- 01 원고지 | 이근삼
 • 생명의 서 | 유지환

- 02 규중칠우쟁론기 | 지은이 모음
 • 성복동 비둘기 | 김광섭

학습 내용

-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한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을 활용하여 전자 우편이나 휴대 전화 문자 보내기.
- 맥락을 고려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평가하여 문학 블로그 운영하기.
- 관점을 바꾸어 보거나, 상황을 달리 설정하여 작품을 비판적·창의적으로 수용하여 문학 감상 동아리에서 토론하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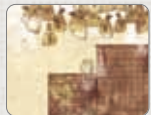
문학의 생산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01 꽃 | 김춘수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장정일
 • 한림별곡 | 한림계유

- 02 소나기는 그쳤나요? | 장진



(2) 작품의 창작

- 01 차마실 | 이곡

- 이육사 | 이규보
 • 흥망물설 | 학생 작품

- 02 고향 | 백석

- 화랑의 후예 | 김동리
 • 실명당 한 그곳 | 학생 작품

학습 내용

- 내용과 형식,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한다.
-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문학 작품에서 발견한 독창적, 창의적인 표현 방법, 참신한 생각 등을 메모하는 습관 기르기.
-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과 공유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여 메모하는 습관 기르기.
- 창작 노트, 창작 폴더(컴퓨터) 등을 마련하여 수시로 습작하고, 좋은 작품을 선별하여 다양한 매체에 투고하거나, 청소년 문학상 등에 응모하기.

3

문화와 문학 활동



(1) 문화와 인문·사회

- 01 오렌지 | 신동집
 • 새 | 박남수

- 02 나의 열정, 나의 시 | 문정희

- 03 광장 | 최인훈
 • 타는 목마름으로 | 김지하



(2) 문화와 예술

- 01 나목 | 박완서

- 남작남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김혜순

- 02 해 | 박두진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 03 노검, 극락 같은 | 이강백

- 선화동 나그네 | 이정준



(3) 문화와 매체

- 01 오발탄 | 나소운 · 이종기 각색

- 배뚜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 이세룡

- 02 토지(소설) | 박경리

- 토지(만화) | 오세영

- 북덕방(소설) | 이태준

- 03 아무리 봐도 | 이철수

- 빈집이지만 | 이철수

학습 내용

- 문학이 인문·사회, 예술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능동적으로 활용한다.
- 다양한 매체의 표현 방식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작품의 수용과 생산에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인문학 서적을 수시로 읽고 삶에 대해 성찰한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 기르기.
-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접하고 분석해 보기.
- 인문·사회와 관련한 생각을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에 수시로 활용하기.
- 다양한 갈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의 관점에서 활용 방법 구상해 보기
- 다양한 매체의 표현 방식과 기존의 문학 표현 방식의 차이 비교해 보기.
- 다양한 매체의 창의적 표현 방식에 유의하며 문학 작품 생산하기.



문학의 고장 통영을 찾아서

<http://art.tongyeong.go.kr>

찾아가는 길



현장 스케치



탐방 보고서

Blank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report.

유치환, 김춘수, 박경리 작품 찾아 읽기

Blank area for reading and discussing literary works.

II 문학과 삶



- 1 나와 문학
- 2 사람들과 문학
- 3 삶의 터전과 문학

단원의 길잡이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모습이나 품성이 다르다. 또 사람은 태어난 처지나 자라면서 겪게 되는 일, 인생의 목표도 다 다르다. 그래서 사람의 삶은 천차만별이다. 우리는 모두 그 많은 삶 가운데 꼭 하나의 삶을 단 한 번 살아갈 뿐이다. 그래서 나의 삶이 두려울 수도 있고 남의 삶이 궁금할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 본다든지 대신 살아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문학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다룬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을 경험하고, 삶의 터전이 되는 공동체와 자연에서 발생하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과 소통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도 있다.

이 단원에서는 개인적인 삶에 대한 내용을 '나와 문학'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사람들과 문학'으로, 공동체와 자연에 대한 내용을 '삶의 터전과 문학'으로 나누어 엮었다. 아울러 '나와 문학'에서는 수필을, '사람들과 문학'에서는 시를, '삶의 터전과 문학'에서는 소설과 영상물을 생산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단원에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수용하고 생산해 봄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심미적으로 표현하는 안목을 기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삶 속에서 문학을 생활화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풍요롭고 가치 있는 삶, 수준 높은 문학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학습 목표

-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다.
- * 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할 수 있다.
-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
-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삶의 터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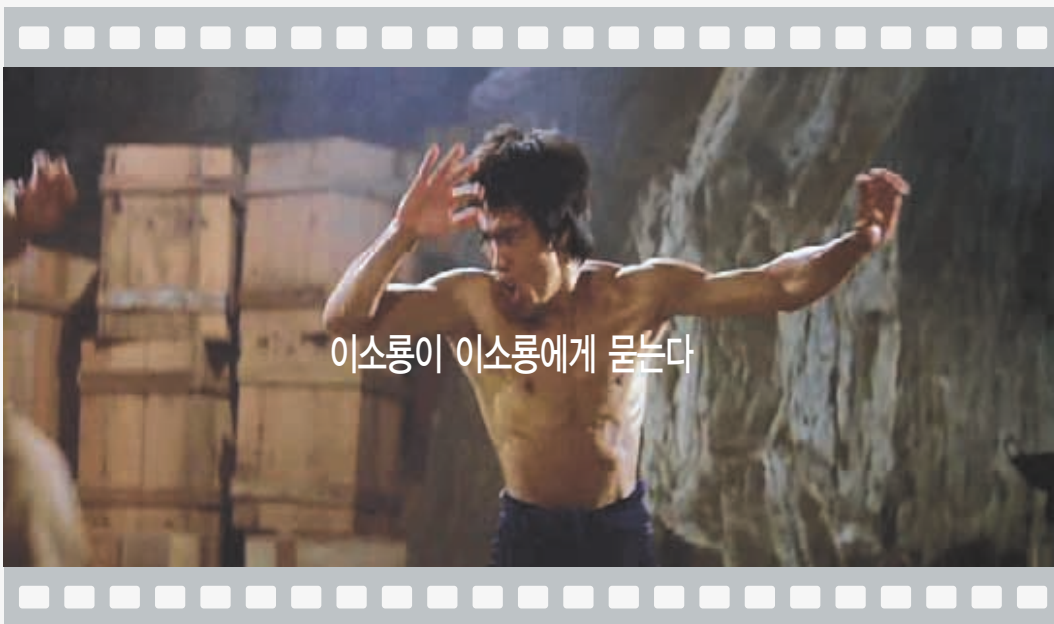
1

나와 문학

이 단원에서 우리는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며 내면세계를 확충한다.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한다.

생각 열기  (영상 보기)



영화배우 이소룡은 무예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매우 성숙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의 무예가 뛰어난 것도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최악이 된다.”라고. 자신에 대한 물음은 문학의 출발점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걸까? 오늘 나 _____도 _____에게 묻는다. “너는 누구인가?”



(1) 내 안의 풍경

01 별 헤는 밤 | 운동주

02 외딴 방 | 신경숙

• 나의 열여덟은 아름다다 | 이현희



(2) 내 삶의 길

01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권정생

• 자화상 | 서정주

02 수오재기 | 정약용

● 생산 활동

나와 문학 - 수필 쓰기

(1) 내 안의 풍경

문학의 기능

- 인식적 기능: 자아와 인간, 세계에 대한 발견과 이해.
- 윤리적 기능: 바람직한 삶을 위한 반성과 성찰.
- 미적 기능: 아름다움을 느끼는 데서 비롯되는 정서적 고양.

문학 작품이란 작가의 인식과 윤리적 판단이 미적으로 구조화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은 인식적, 윤리적, 미적 가치를 지니는 구조물이다. 이때 인식적 가치란 작가가 자아와 인간, 세계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과 현실의 이면에 숨은 사회 구조를 밝혀낸 것,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깨닫게 된 것 등과 관련된다. 그리고 윤리적 가치는 관습이나 이념 등에 바탕을 두고 작가가 작품을 통해 바람직한 삶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며, 삶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과 관련된다. 미적 가치는 미적 구조와 표현을 통해 문학 작품이 예술품으로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는 것과 관련된다.

독자가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가 생산한 작품의 이러한 인식적, 윤리적, 미적 가치를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독자 또한 자신을 비롯한 인간과 세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자신의 지평을 넓혀 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작품이 주는 미적 쾌감을 통해 정서를 고양함으로써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문학 작품을 매개로 한 문학 활동은 인식적, 윤리적, 미적 가치에 대한 작가와 독자의 소통 과정이다.

카타르시스(catharsis)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함으로써 마음속에 솟아오른 슬픔이나 공포의 기분을 토해 내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이 관객에 미치는 중요 작용의 하나로 든 것.

사람은 누구나 타인들과는 다른 내면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내면의 모습은 타고난 외모와 기질, 성격과 욕망,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형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내면에 대한 자기 인식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또는 자신의 내면을 타인의 내면에 투영해 보지 못할 때 삶은 성장을 멈추고 불화와 고통 속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참되고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문학의 정신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고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아 성찰은 참되고 성숙한 삶의 출발점이며,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자아의 내면을 성찰한 작품들의 인식적, 윤리적, 미적 가치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여 문학 작품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을 고양해 가려는 자세를 갖도록 하자.

01 별 헤는 밤

윤동주

이 작품은 화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현실과 관련지어 성찰하고 있는 시이다. 자신이 마음속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5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10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15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20 어머니,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佩), 경(鏡), 옥(玉)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 봅니다.

- ◆ 프랑시스 잠(Jammes, Francis) 프랑스의 시인(1868~1938). 상징주의 말기의 퇴폐성에 반발, 자연의 풍물을 종교적 감정에 찬 애정으로 순박하게 노래하였다.
- ◆ 라이너 마리아 릴케(Rilke, Rainer Maria) 보헤미아 태생의 독일 시인(1875~1926). 인상주의와 신비주의를 혼합한 근대 언어 예술의 거장으로, 인간 존재를 추구하고 종교성이 강한 독자적 경지를 개척하였다.



윤동주(1917~1945)

북간도(北間島) 출생. 시인. 일제 강점기의 시대상을 부끄러워하며, 참된 삶의 길에 대한 고뇌와 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1943년에 항일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후쿠오카 교도소에 투옥되었다가 1945년에 옥사했다. 유고 시집으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있다.

운동주의 시 세계

운동주의 시는 청년기의 고독감과 정신적 방황, 조국을 잃은 상실감 등이 그 원천을 이룬다. 초기 시에서는 부정적인 현실 인식 속에서 유년의 평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태도가 잘 드러난다. 후기 시에서는 일제 말기의 암흑기를 살아간 지식인의 자아 성찰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운동주의 자아 성찰은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도 인간의 본성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내면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시는 양심과 박애와 평화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었다.

‘서시’, ‘자화상’, ‘또 다른 고향’, ‘별 헤는 밤’, ‘쉽게 씌어진 시’ 등이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 아슬히 어슴푸레하게.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히*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 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딴은 밤을 새워 우는 별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게외다.

5

10



내용 학습

1 이 작품의 내용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 | |
|----|--|
| 과거 | |
| 현재 | |
| 미래 | |

내용 학습

2 다음 표현들을 참고하여 '별'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해 보자.

가을 속의 별들, 가슴속에 새겨지는 별,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목표 학습

3 화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지닌 공통점을 설명해 보자. 아울러 이를 자신의 경우와 비교해 보자.

| |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 공통점 |
|----|-------------|-----|
| 화자 | | |
| 나 | | |

적용 학습

4 화자가 스스로를 '뜨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로 인식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자신을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자.

• '뜨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로 표현한 이유:

• 나는:

▶ 이렇게 표현한 이유:

이 작품은 힘들고 괴로웠던 과거의 삶을 성찰하며 쓴 소설이다. '나'의 내면세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보자.

'외판 방' 과 성장 소설
 이 작품은 작가의 자전적 체험을 바탕으로, 열여섯의 소녀가 어른이 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 소설이다. 글쓰기를 매개로 현재 모습과 과거의 기억을 빈번하게 교차하며 서술한 방식이 독특하다.

❓ 그녀의 죽음 이후 '나'의 내면세계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우물 속의 어둠이 눈에 익자 검은 물이 보였다. 검은 물이 눈에 익자 물 위에 어른거리는 무수한 별들이 보였다. 별들은 무슨 말씀같이 우물 속에 떠 있다. 어느 순간 하늘에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물 속의 별들이 출렁거렸다.

내가 산문집이 인쇄되기 직전에 쫓아가서 지우고 온 문장들은 이런 것들이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개입해버린, 그녀의 죽음이 내게 남긴 상처는 나를 한없이 멍하게 했다. 아직까지도 내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녀의 흔적들. 나는 그녀 이후에 관계 맺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쉽게 친해지거나 더 깊이 친해지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녀는 내 마음의 폐허였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그 방문을 내가 잠갔노라고 말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그 관계는 나에게 뭘 선택할 여지도 없이 나도 이해 못 할 역할을 내게 시킬 것만 같았다. 그때 생각했다. 내가 간직한 비밀이 내가 죽은 후에 알려질 때를, 알려지는 건 괜찮은데 왜곡되는 것은 두려웠다. 비밀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발설하는 자의 삶보다 내 삶이 더 두껍거나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 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러려면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을 것. 원망과 사무침과 그리움에 시달리느라 십 년 동안 입을 다물었다. 십 년 후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글 속에서 그 방문의 열쇠를 내가 채웠노라고 써 보았다. 이제 그 위로 세월이 더 쌓여 갔다. 오랫동안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굴굴리다* 보니 이제는 꿈결이었던 것 같기도 하다. 꿈이었는데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 꿈이었는데도 몰라……. 내 마음이 우기면 손이 비웃는다. 손이 기억했다. 열쇠통을 잠글 때의 감각이며 문이 잠기며 났던 딸깍, 소리들을. 나는 손을 내려다본다.

* 굴굴리다 '굴리다'의 방언.



신경숙(1963~)

전북 정읍 출생. 소설가. 서정적 문체와 섬세한 묘사로 인물들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소설들을 다수 창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풍금이 있던 자리', '깊은 슬픔', '엄마를 부탁해' 등이 있다.



몸의 기억력은 마음의 기억보다 온화하고 차갑고 세밀하고 질기다. 마음보다
정직해서겠지.

이십여 년 전에 이 집에서 자전거 타기를 배웠다. 페달을 밟고 언덕길을 내려
갈 수 있게 되기까지 코가 깨지고 수도 없이 무릎이 까졌다. 그렇게 익힌 자전
거를 타고 처음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 내리막길에서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5
그만 브레이크 잡는 걸 잊어버렸다. 자전거는 손살같이 내리막길 끝에 있는 눈
에다가 흰 교복을 입은 채로 핸들을 잡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끌어박았다.
그날 가방에 넣어간 교과서에 눈물이 배어 일 년 내내 누르스름한 책으로 수업
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론 적절한 때에 브레이크를 잡고서 삼 년 동안
자전거 뒤에 책가방을 싣고 중학교를 다녔다. 나중엔 핸들에서 손을 놓고 바람 10
에 얼굴을 맡기고서 페달을 굴리기도 했다. 도시로 떠난 후 자전거 탈 기회가
없었다. 자전거를 볼 기회조차도. 자전거는 내 정신 속에서 잊혀지는 듯했다.
자전거를 잊지 않았던 건 자전거 타기를 익힐 적에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내 몸
이었다. 일 년, 길어질 때는 이 년씩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자전거 위에 올라가 페달을 밟기만 하면 자전거는 앞으로 뽕뽕 달려 나갔다. 15

끈질기게 생각해왔다. 열쇠를 채우기 전에 문을 한 번 열어 봤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그랬을까?

우물 속으로 밤바람이 불고 하늘이 잠겼다. 셋별인가. 무슨 싱그러운 냄새가
내 속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내가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내 몸속으로 흘러들어 오고 있는 냄새의 근원을 알아내려고 우물 주위를 두리 20
번거렸다. 웬지 지금 내 몸에 흘러들어 오고 있는 이 냄새의 실체를 지금 알아
내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후회할 것만 같았다. 물 냄새다, 이끼 냄새다. 아, 나
는 다시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오랫동안 슬레이트[◆]로 덮어 놓아서 습한 냄새
를 풍기던 물과 이끼가 뚜껑을 열어 주자 새로운 공기와 셋별을 빨아 먹은
모양이다. 우물 속의 바람이 건헐었다. 별이 건헐었다. 말간 우물 속엔 그녀의 얼굴 25
이 무슨 말씀처럼 떠 있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적이면 몹시도 수줍어
지던 때의 표정으로.

나를 가없이 여기지 마. 네 가슴속에서 오래 살았잖아.

마음을 열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지난 이야기의 열쇠는 내 손에 쥐어

◆ 끌어박았다 '채박았다'의 방언.
◆ 슬레이트 시멘트와 석면을 물
로 개어 센 압력으로 눌러서
만든 얇은 판.

진 게 아니라 너의 손에 쥐어져 있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들을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퍼뜨리렴. 그 사람들의 진실이 너를 변화시킬 거야.

바람이 부는지 우물이 출렁였다. 그녀가 신선한 냄새를 풍기는 물 속에서 두리번거렸다.

5 “뭘 찾아?”

“내가 빠뜨린 쇠스랑.”

“뭘 하려고?”

“내가 끌어내 주려고…… 그러면 더 이상 네 발바닥이 안 아플 거야.”

그녀가 우물 속 가장 외진 협곡 속에 잠겨 있는 쇠스랑을 일으켜 세운다. 물
10 길 속엔 또 얼마나 많은 물길이 있는지. 그녀 손에 쥐어진 쇠스랑이 질질 끌린다. 물보라. 우물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회오리 진다. 이제 내 가슴속을 떠나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소용돌이나 퇴적물이나 정적 속은 아닐 것이다. 내 가슴에 소망스런 다른 이야기들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으니.

15 딱 한 번 희재 언니의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 명동의 변화한 거리였고 밤이었고 나는 버스 안에 있었다. 버스 손잡이를 잡고 흔들리며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창 밖의 가로수 밑 차도에 내려와 있었다. 모두들 버스를 타려고 한편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도심의 밤거리에 어울리지 않게 가로수 밑 차도에 내려와 있는 그 사람은 금방 눈에 띄었다. 그래서 나도 무심코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었다. 그는 그렇게 서 있었다. 버스를 타려고도 하지 않고 걸어가
20 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차도에 내려서서 등을 가로수에 기대고 서 있었다. 택시가 지나갈 때마다 불빛이 시린지 눈을 찡그리면서.

찬바람이 휘익, 불었다. 여름밤인데 얼굴이 차가워졌다. 오소소[◆] 떨리기까지 했다. 우물을 열어 놓은 채 우물가를 걸어 나왔다. 마당을 지나와 마루에 올라
25 방문을 열 때 돌아다보니 우물 속으로 소복이 별빛이 빠지고 있다. 별빛을 받아먹은 물과 이끼는 더 신선한 냄새를 품으리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 내 베개 위에 얼굴을 묻었다. 서로 가까이 누워 잠자리에 드신 엄마와 아버지의 숨소리가 방 안 가득했다.

(중략)

30 해 저물녘의 흰 개펄에선 어린아이들과 그 애들의 엄마가 조개를 잡고 있었다. 바다를 빠져나가는 물을 한없이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돌아다

❓ '쇠스랑'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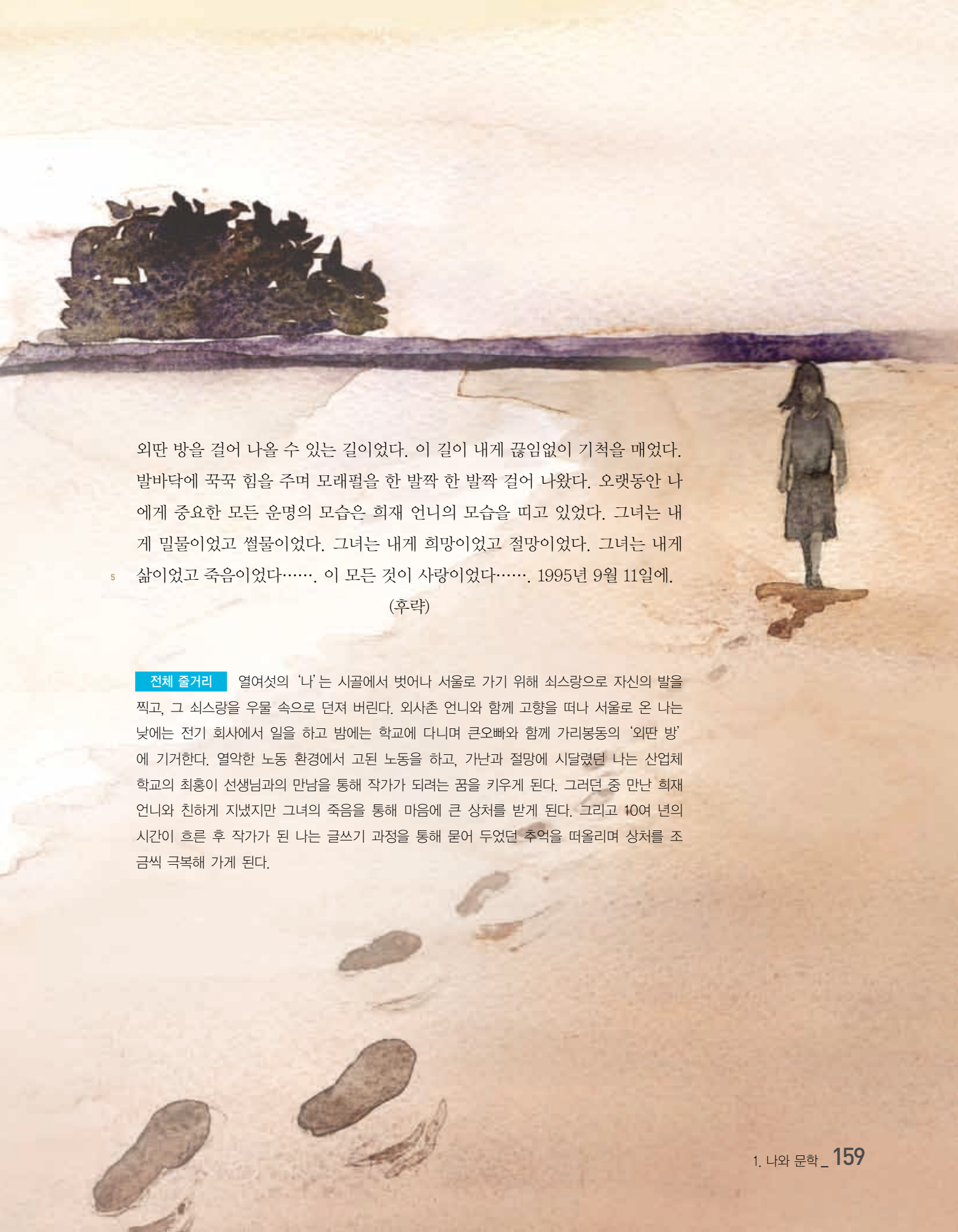
◆ 오소소 오소소. 차거나 싫은 것이 몸에 닿았을 때 꽤 소름이 돋는 모양.

보니 새벽에처럼 모래톱[◆]에 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나는 정신없이 흰 개펄을 뛰었다. 내 발자국도 정신없이 따라와 내 등 뒤에 찍혔다. 빠져나가는 물을 따라잡고 따라잡아 침범침범 물속으로 들어가 주저앉았다. 물이 가슴까지 차다. 흰 개펄에서 엄마를 따라 조개를 파내던 남자아이가 내가 이상했는지 허리를 펴고 내 쪽을 바라보았다. 썰물은 서서히 빠져나갔다. 처음엔 내 가슴을 허리를 엉덩이를 발등을. 물은 나를 흰 개펄에 홀로 남겨두고 점점 멀어져 갔다. 물이 아주 멀어졌을 때 뒤돌아보니 모래펄에 내 발자국만이 선명하다. 물은 아침과는 달리 내 발자국을 모래펄에 새겨두기 위해 바다를 빠져나간 듯싶다. 그랬다. 나는 침묵으로 내 소녀 시절을 묵살해 버렸다. 스스로 사랑하지 못했던 시절이었으므로 나는 열다섯에서 갑자기 스물이 되어야 했다. 나의 발자국은 과거로부터 걸어 나가 봐도 현재로부터 걸어 들어가 봐도 늘 같은 장소에서 끊겼다. 열다섯에서 갑자기 스물이 되거나 스물에서 갑자기 열다섯이 되곤 했다. 과거로부터는 열여섯을 열일곱을 열여덟을 열아홉을 묵살하고 곧장 스물로, 현재로부터는 열아홉을 열여덟을 열일곱을 열여섯을 묵살하고 곧장 열다섯으로 건너뛰어야 했으므로 그 시간들은 내게 늘 완전히 드러난 햇빛이나 바닥을 완전히 숨긴 우물 같은 공동으로 남았다. 오랫동안 나의 소녀 시절이 나에게 남긴 가족 이외의 타인과의 관계는 무(無)였다. 나는 그녀들을, 희재 언니를 기억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너무나 선명한 관계들 앞에서 나는 상실증에 걸린 환자처럼 행동했다.

모래펄에 남겨진 내 발자국의 자취는 끝도 없이 이어진다. 지금은 그녀들, 어디서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오랫동안 그녀들을 생각하면 삶이란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독을 느껴왔다. 나도 모르는 사이 그녀들은 내 속에서 늘 현재로 작용했다. 그녀들은 내가 스무 살 이후로 만났던 삶의 누추함을 꺼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얼토당토않은 욕망의 자리에서 내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성찰이 되어주기도 했다. 모래펄에서 몸을 일으켜 내 발쪽에 내 발쪽을 대보며 모래펄을 걸어 나왔다. 오늘, 이 해변에 찍힌 나의 발자국은 외딴 방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도망치듯 빠져나와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장소로. 오늘, 나에게 가장 뚜렷한 현재인 오늘, 여기에 찍힌 내 발자국을 따라가면 스물에서 더 이상 멈칫대지 않고 곧바로 열아홉으로 들어갈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다시 열다섯에서 열여섯으로 되돌아 나올 수도 있으리라. 이 길이 온전히

❓ '발자국' 이 의미하는 바는?

◆ 모래톱 모래사장.



외딴 방을 걸어 나올 수 있는 길이었다. 이 길이 내게 끊임없이 기척을 매었다. 발바닥에 꺾꺾 힘을 주며 모래펄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왔다. 오랫동안 나에게 중요한 모든 운명의 모습은 희재 언니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밑물이었고 썰물이었다. 그녀는 내게 희망이었고 절망이었다. 그녀는 내게 삶이었고 죽음이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 1995년 9월 11일에.

(후략)

전체 줄거리 열여섯의 '나'는 시골에서 벗어나 서울로 가기 위해 쇠스랑으로 자신의 발을 찌고, 그 쇠스랑을 우물 속으로 던져 버린다. 외사촌 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온 나는 낮에는 전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니며 큰오빠와 함께 가리봉동의 '외딴 방'에 기거한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가난과 절망에 시달렸던 나는 산업체 학교의 최홍이 선생님과 만남을 통해 작가가 되려는 꿈을 키우게 된다. 그러던 중 만난 희재 언니와 친하게 지냈지만 그녀의 죽음을 통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다.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작가가 된 나는 글쓰기 과정을 통해 묻어 두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상처를 조금씩 극복해 가게 된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우물'과 '쇠스랑'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말해보자.

내용 학습

2 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딴 방'과 '글쓰기'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나'의 내면세계가 변화하는 계기와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4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을 참고하여 자신의 '열여덟'을 글로 써 보자.

5. 평범함에 절여진 행주

점심을 먹고 이를 닦으면서 거울을 본다. 물에서 방금 건져낸 늘어진 행주처럼 오전 시간을 보냈다. 4, 5, 6교시 수업을 듣고 청소를 하고 7교시 수업을 듣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율 학습을 하고 집에 가면 하루가 끝날 터였다. 어제와 그랬으니까, 내일도 그럴 테지. 지나치게 단조롭다. 오늘은 차라리 귀신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특별한 날이 되도록.

요란스레 행복하지도, 소란스레 불행하지도 않은 나는 평범함에 절여진 채 질식할 것만 같다. '공간의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연극 같은, 그러나 연극처럼 '극적인 사건'은 전혀 없는 나의 열여덟. 무색, 무취의 물풀 같은 나의 열여덟.

갑자기 너무 힘들다. 열여덟은 참 버겁다. 칫솔을 낀 손에 힘이 들어가 잇몸이 아프다. 대체 사랑니 따위는 왜 생기는 걸까, 어금니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대체 열여덟 살 따위는 왜 존재하는 걸까. 열다섯 살에서 스무 살로 건너뛰 수는 없을까? 난 분명 성장해야 하는데, 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 많은 교과서들도, 그 두꺼운 문제집들도 날 자라게 하지는 못한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을 믿어야 하나? 사랑니 자라듯 나도 서서히 자랄까? 이렇게 심심하게 살다 보면 나는 어느 샌가 자라 있을까? 어린애 취급받는 것도 싫고, 단조롭고 평범한 열여덟에 머무르는 것도 싫고, 어른이 되어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싫고, 어쩐다?

괜찮을 거야. 물기를 닦아내며 증얼거린다. 물에서 건져낸 늘어진 행주 같던 나는 어느새 고온에서 삶아 낸 건조한 행주가 되어 있다. 가끔 "괜찮아"라는 말이 더 안 괜찮을 때가 있지만, 아직은 괜찮아. 어떻게든 어른이 되어 넓은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겠지.

- 이현희, '나의 열여덟은 아름답다'에서

(2) 내 삶의 길

사람의 삶이란 결국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그 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 사회, 자연 등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오직 한 번 이 세계에 자신을 실현해 나간다.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얻으며 때로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며 남은 삶을 향해 두벅두벅 걸어가는 것이 삶인 것이다.

옛사람은 눈 내린 들판을 가거든 뒤따라올 사람을 위해 모름지기 어지러이 가지 말라고 하였다. 모든 이에게 삶의 길이란 오직 한 번 주어진 것이므로 꼭 뒤따라올 사람을 생각지 않더라도 함부로 걸을 수 없는 소중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어떻게 걸어야 어지럽지 않게 걷는 것인가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다. 삶을 무엇이라 보아야 하는지, 삶의 길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결말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일이란 역시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살아온 길, 위대한 인물들이 살아온 길을 보고 따라 걷기도 하고,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앞으로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 가기도 한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뒤를 따라오는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온 길을 보여 주기도 하는 것이니, 그러한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지러이 내디딜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삶의 길에 대한 고민을 언어로 아름답게 형상화한 것이 곧 문학이다. 문학은 앞서 살아간 사람이 그의 삶의 길에서 얻은 소중한 체험들을 아름답고 진지하게 형상화하여 동시대인이나 뒤따라올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타인의 삶을 다룬 문학 작품을 수용하거나 자신의 삶을 문학 작품으로 생산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삶의 길을 잃지 않을 나침반을 발견하기도 하며, 다른 이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여 삶을 더욱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01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권정생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한 수필이다. 자서전을 쓴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읽어 보자.

- ◆ 식모살이 남의 집에 고용되어 주로 부엌일을 맡아 하는 생활이나 일, 또는 그런 직업.
- ◆ 오테다마 오자미의 일본말. 형 겹 주머니에 콩 따위를 넣고 봉하여서 공 모양으로 만든 것.

1937년 9월에 나는 일본 도쿄 혼마치[本町]의 현 옷 장수 집 뒷방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함께 동무했던 아이들과 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늘 외톨이로 골목길에서 지내야 했다. 샅바느질을 하시던 어머니는 저녁때면 오 전짜리 동전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켰다. 이때 나는 따뜻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키도 작고 손도 조그만 히데코 누나는 항상 말이 없고 외로워 보였다. 함께 극장에 가면 고구마튀김을 수건에다 겹겹이 싸서 식지 않도록 품속에 넣어 뒀다가, 영화가 중간쯤 진행될 때 꺼내서 내 손을 더듬어 쥐여 주던 그 따뜻한 촉감은 평생을 잊을 수 없다.

아무렇게나 흘러들어 와 모여 사는 빈민가 사람들의 가족 구성도 정상적이지 않았다. 골목길 꼬트머리 노리코네 아버지는 조선 사람, 어머니는 일본 사람, 노리코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딸이었다. 건너편 집의 미치코는 주워다 키운 아이고, 동생 기미코는 조선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고, 우리 앞집 일본인 부부도 양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한 집 건너 경순이는 관동 지진 때 부모를 잃고, 거기서 식모살이 처럼 얹혀살고 있었다.

경순이는 가끔 얻어맞아 통통 부어오른 얼굴로 우리 집으로 쫓겨 왔다. 어머니는 어루만져 달래 주고, 밥을 먹이고, 재워 줬다. 경순이에 대한 추억은 이따금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한다. 스무 살이 넘었을 것이라 했지만, 경순이는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몰랐다. 오테다마를 만들자면 보통 팔알을 넣는데, 경순이는 그럴 수 없어 우리 집 추녀 밑에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자잘한 돌맹이를 골라 만들곤 했다. 소설 '몽실 언니'의 몽실이는 혼마치에 살았던 히데코 누나이기도 하고, 경순이 누나이기도 하고, 그 외의 가엾은 아이들의 모습이다.

1946년 해방 이듬해, 우리는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때 '조선인 연맹'에 가입



'몽실 언니' 표지

권정생, '몽실 언니'

주인공 몽실이의 삶의 과정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고통스러웠던 세월을 잘 보여주는 작품. 부모를 모두 잃고 배다른 동생 난남이를 키우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센 의지를 보여주는 몽실이를 통해 삶의 희망을 느끼게 한다.



권정생(1937~2007)

일본 도쿄 출생. 아동 문학가. 주요 작품으로 '강아지 똥', '몽실 언니' 등이 있다. 자신이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거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유언을 남겼다.

했던 형님 두 분은 다음에 돌아오기로 했으나,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울타리의 동백꽃이 피던 3월에 후지오카의 버스 정류장에서 나는 차에 오르지 않으려 애를 썼지만, 끝내 떼밀려 태워졌고, 차는 떠나고 말았다. 만 8년 6개월 동안 어렵지만 정들어 자라 온 땅을 떠난다는 것은 가슴이 쓰리고 서러운 일이었다.

5 1946년 4월은 보릿고개가 심했다. 거둬진 흉년으로 웬만한 집 모두가 썩과 송피로 죽을 끓여 먹고 있었다. 그것도 하루 세끼 먹는 집은 드물었다.

만주와 일본에 갔다가 돌아온 동포들의 생활은 말이 아니었다. 당장 거처할 집이 없는 우리 식구는 뿔뿔이 흩어졌다. 어머니와 동생과 나는 외가가 있는 청송으로 갔고, 아버지와 누나는 안동으로 갔다. 함께 모인 것은 1947년 12월

10 이었다.
나는 초등학교를 네 군데 다녔다. 도쿄의 혼마치에서 8개월, 군마켄에서 8개월, 조선에 와서 청송에서 5개월, 그리고 나머지는 안동에서 다니다가 졸업을 했다. 그것도 잇따라 다닌 것이 아니라, 몇 달씩 몇 년씩 쉬었다가 다니는 바람에 1953년 3월에야 겨우 졸업을 했다.

15 아버지는 소작 농사만으로는 월사금[◆]을 못 내어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다. 한 달에 여섯 번씩 가시는데, 장날 갔다가 다음 장날 돌아왔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밥 짓는 일은 내가 맡아야 했다. 아침밥을 지어 먹고 설거지하고 학교 가자면 바쁘게 달려가야 했다. 그때 열 살 때부터 밥을 짓는 것을 배웠으니, 훗날 혼자서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처음 시작한 것이

25 나무장수였고, 다음이 고구마 장수, 담배 장수, 그리고 점원 노릇.
결핵을 앓은 것은 열아홉 살 때부터였다. 처음엔 숨이 차고, 몹시 피곤했지만, 그런대로 두 해를 더 버티다가 결국 1957년, 고향으로 돌아와 버렸다. 마을에는 객지에 갔다가 결핵으로 돌아온 아이들이 나 말고도 십여 명이나 되었다. 식모살이 갔던 성애와 철도 기관사 조수로 일하던 태호, 산판[◆]에서 일하던 청수, 기덕이, 옥이, 성란이. 우리는 이따금 나오는 항생제를 배급받기 위해 읍내 보건소를 찾아갔다. 그러나 허탕치고 돌아오는 날이 많았다. 약이 필요한 만큼 공급되지 않아서였다.

30 하나둘씩 차례로 죽어 갔다. 열일곱 살의 기덕이는 빨간 피를 토하다 죽고, 열다섯 살의 옥이는 주일 학교 동무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다 죽고, 마지막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늑막염과 폐결핵에서 신장 결핵, 방광 결핵으로 온몸이 망가져 갔다. 병을 앓는 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식구들의 고통은 더 심했을 게다. 어머니는 내가 아니었으면 좀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자식

◆ 월사금 다달이 내던 수업료.

◆ 산판 나무를 찍어 내는 일판.

병구완[◆] 하시느라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첫아들을 장티푸스를 앓으면서 사산(死産)[◆] 하시고, 셋째는 열일곱 살 때 잃고, 둘째와 넷째는 해방 이듬해 헤어진 뒤 결국 다시 만나 보지 못하셨다. 그런 어머니는 1964년 가을에 세상을 뜨셨다. 몸져누우시기 전날까지 병든 자식 걱정하며, 헤어진 자식 기다리며 사셨다.

5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자, 나는 세상이 싫어졌다. 그래서 이 무렵 나는 동생을 결혼시켜야 하니 어디 좀 나갔다 오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여 무작정 집을 나왔다.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포스터

1965년 4월에 나갔다가 8월에 돌아왔다. 그때 대구에서는 이윤복 군의 일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가 영화화되어 거리마다 극장 포스터가 나붙어 있었다. 나는 대구에서 김천으로, 상주로, 점촌, 문경, 예천으로 3개월을 떠돌아다녔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인 걸식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병 한 가지만 더 얻었다. 그때부터 앓기 시작한 부고환 결핵으로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올랐다. 산길에 쓰러져 누워 있다 보면, 누군가가 지나다 보고 간첩으로 오해를 하기도 했다. 그 사이 아버지도 돌아가셨다.

10

15

이곳 교회 문간방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1967년이였다. 전에 살던 집은 소작하던 농막이어서 비워 주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한평생 당신들의 집이 없었다. 가없는 분들이다. 서향으로 지어진 예배당 부속 건물의 토담집은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웠다. 외풍이 심해 겨울엔 귀가 동상에 걸렸다가 봄이 되면 낫곤 했다. 그래도 그 조그만 방은 글을 쓸 수 있고, 아이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 여름에 소나기가 쏟아지면 창호지 문에 빗발이 쳐서 구멍이 뚫리고 개구리들이 그 구멍으로 뛰어들어 와 짹짹 울었다. 겨울이면 아랫목에 생쥐들이 와서 이불 속에 들어와 잤다. 자다 보면 발가락을 깨물기도 하고, 옷 속으로 비집고 겨드랑이까지 파고들어 오기도 했다. 처음 몇 번은 놀라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지내다 보니 그것들과 정이 들어 버려 아예 발치에다 먹을 것을 놓아두고 기다렸다. 개구리든 생쥐든 메뚜기든 굼벵이든 같은 햇빛 아래 같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고통도 슬픔도 겪으면서 살다 죽는 게 아닌가? 나는 그래서 황금 덩이보다 강아지 똥이 더 귀한 것을 알고, 외롭지 않게 되었다.

20

25

지금 우리 집엔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심성이 착해서 좋다. 이름을 '뽕덕이'라 지었더니 아이들이 왜 하필이면 뽕덕이라고 하느냐고 하지만, 나는 심청 전에 나오는 뽕덕 어미가 훨씬 인간적인 가없는 여인이어서 좋기 때문이다.

30

- ◆ 병구완 앓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일.
- ◆ 사산 임신한 지 4개월 이상 지난 후 이미 죽은 태아를 분만하는 일.

예배당 문간방에서 십육 년 살다가 지금은 이곳 산 밑에 그 문간방과 비슷한
흙담집에서 산다.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그것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
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5 식민지와 분단과 전쟁과 굶주림, 그 속에서도 과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
을까? 앞서 간다는 선진국은 한층 더하다. 그들은 침략과 약탈과 파괴와 살인
을 한 대가로 얻은 풍요를 누리는, 천사처럼 보이는 악마일 따름이다. 우리 인
간이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선진과 후진이 없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
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분단도 하루속히 무너뜨려야 한다. 경제적 후진만으
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10 기름진 고깃국을 먹은 뱃속과 보리밥 먹은 뱃속의 차이로 인간의 위아래가
구분 지어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다. 약탈과 살인으로 살찐 육체보다,
성실하게 거둔 곡식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정신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의 길이
아닐까?

❓ 참다운 인간의 길이란?

누가 이렇게 물었다.

15 “장가는 못 가 봤는가요?”

“예, 못 가 봤습니다.”

“그럼, 연애도 못 해 봤나요?”

“연애는 수없이 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아이들하고도, 강아지하고
도, 생쥐하고도, 개구리하고도, 개똥하고도…….”



작가 살던 집

내용 학습

1 '나'의 삶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2 '나'의 삶을 다음 작품의 화자와 비교해 보자.

애비는 종이였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파뿌리같이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어머는 달을 두고 풋살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흠으로 바람벽
 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에미의 아들.
 갑오년(甲午年)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할아버지의 술
 많은 머리털과
 그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스물세 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 할(八割)이 바람이다.
 세상은 가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이는 내 눈에서 죄인(罪人)을 읽고 가고
 어떤 이는 내 입에서 천치(天痴)를 읽고 가나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진 않으려다.

찬란히 띄어 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 위에 얹힌 시(詩)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어
 별이거나 그늘이거나 햇바닥 늘어뜨린
 병든 수캐마냥 혈떡거리며 나는 왔다.

- 서정주, '자화상(自畫像)'

| |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자화상 |
|----------------|--------------|-----|
| '나'의 삶의 과정 | | |
| 삶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 | | |

적용 학습

3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겪은 일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시기별로 가려보고, 그 일들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리해 보자.

02 수오재기(守吾齋記)

정약용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는 한문 수필이다. '수오(守吾)'의 의미를 찾아보고, 자신이 평생토록 꼭 지키며 살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며 읽어 보자.

수오재(守吾齋)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아
5 하며 말하기를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으로는
나[吾]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이상한
이름이다.”라고 했다.

내가 장기(長鬢)로 귀양 온 이후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해 보았더니,
하루는 갑자기 이런 의문점에 대해 환히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별떡 일어나
10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대체로 천하의 만물이란 모두 지킬 것이 없고, 오직 나[吾]만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내 밭을 지고 도망갈 자가 있겠는가. 따라서 밭은 지킬 것이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겠는가. 따라서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나무·과실나무 등 여러 나무들을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에 깊
15 이 박혔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 버릴 자가 있는가. 성현(聖賢)의 경전(經傳)
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세상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
이며, 세상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 간다 하더
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세상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20 그런즉 세상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유독 이른바 나[吾]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듦에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
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
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협과 재앙으로 겁을
주어도 떠나가며,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25 눈썹에 흰 이빨을 한 미인의 요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번 가면 돌아
올 줄을 몰라 붙잡아 만류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吾]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

한문 수필

한문 양식 서(序), 발(跋), 전(傳), 기(記), 설(說), 논(論) 등은 고전 수필로 분류한다. 서(序)는 시문이나 책의 머리에 그 저술의 취지 따위를 적은 문장이며, 발(跋)은 책의 본문 끝에 그 내용의 대강이나 그에 관련된 일을 간략하게 적은 글이다. 전(傳)은 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이며, 기(記)는 사적이나 풍경 따위를 적은 글이다. 논(論)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여 주장하는 글이다.

❓ '나'와 '나[吾]'의 차이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 장기 경상북도 포항 지역의 옛 지명.



정약용(1762~1836)

조선 시대 문신, 실학자. 실학을 집대성하여 사회 전반에 관한 개혁적 생각을 방대한 저술로 남겼으며, 시대 현실을 고발하는 시문을 많이 썼다. 주요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등이 있다.

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품]를 잃은 자이다. 어렸을 때 과거(科擧)의 명에가 좋게 보여서 과거 공부에 빠져들어 간 것이 십 년이었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 하여 조정(朝廷)에 나아가 검은 사모(紗帽)에 비단 도포(緞袍)를 입고 미친 듯이 대낮(大낮)에 큰길을 뛰어다녔는데, 이와 같이 십이 년을 하였다. 또 굴러떨어져 귀양길(歸陽路)에 올라 한 강(江)을 건너고 조령(朝陵)을 넘고, 친척(親戚)과 조상(宗上)의 산소(山所)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巴)의 대나무 숲(大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품]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허둥지둥 갈팡질팡 나의 발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나는 나[품]에게 말하기를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바야흐로 여우나 도깨비(도깨비)에게 홀려서 끌려온 것인가? 아니면 해신(海神)이 부른 것인가? 자네의 가정(家庭)과 고향(故鄕)이 모두 초천(苧川)에 있는데, 어찌 그 본고장(本故場)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라고 했다.

끝끝내 나[품]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엽매(葉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 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佐郎公)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해(南海)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품]를 붙잡아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유독 나의 큰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오재(守吾齋)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큰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수오재(守吾齋)라고 이름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太玄)이라고 자(字)를 지어 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현(太玄)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써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은 핑계(平) 대는 말씀이다. 맹자(孟)가 “지킴은 무엇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하다. 드디어 나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오재(守吾齋)의 기(記)로 삼는다.

(박석무, 정해렴 옮김)

- ◆ 사모 고려 말기에서 조선 시대에 걸쳐 벼슬아치들이 관복을 입을 때에 쓰던 모자.
- ◆ 초천 작가의 고향.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 ◆ 태현 태초의 우주. 우주의 본질.
- ◆ 자 (보통 장가든 뒤에)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다산 초당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나'의 의미를 두 가지로 구별하여 정리해 보자.

내용 학습

2 작가의 삶을 정리해 보고, 그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까닭을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다음 글을 참고하여 작가가 '지키고 싶어 하는 나(守吾)'는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대개 영리를 추구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 누구나 바빠 쫓아가는 길이요, 그걸 얻으면 즐겁게 생각하고 얻지 못하면 근심으로 여기는 것 또한 사람이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생께서는 산림에 묻혀 살면서도 무슨 일을 스스로 세워 놓았기에 저 영리의 길을 잇을 수 있던 말입니까?

무엇인가 반드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무엇인가 반드시 얻는 바가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 반드시 지킴으로써 편안함을 얻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가슴속에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겠지요.

- 이황, '남명 조식 선생께'에서

적용 학습

4 자신의 모습(기질, 성격, 취향, 가치관, 꿈 등) 가운데 평생토록 꼭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자신의 됴됨이, 살아온 삶 등을 마음 지도로 그려 보고, 글로 표현할 만한 내용을 찾아 수필로 써 보자.



01
쓸 내용 찾기

지금까지 살펴본 자신의 모습 가운데 어떤 면을 부각하여 쓸지 정해 보자.

- 글로 쓰고 싶은 내용
- 글로 쓰고 싶은 까닭

02
수필 쓰기

1 쓰고 싶은 내용에 적절한 글의 형식을 정해 보자.

2 선택한 글의 형식에 따라 쓸 내용을 조직하며, 특별한 표현 방법이 있으면 메모해 두자.

3 계획한 대로 글을 쓰되 앞서 계획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계획을 수정하며 글을 써 나가자.

03
고쳐쓰기

1 완성된 글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서로 논평해 보자.

2 친구들의 논평을 고려하여 수필을 다듬어 보자.

04
발표하기

다듬어 쓴 수필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발표해 보자.

확인하기

1 다음 작품의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성찰한 내용을 비교해 보자.

| | 자기에 대한 인식 | 살아온 삶 정리 | 삶에서 발견한 깨달음 |
|--------------|-----------|----------|-------------|
| 별 헤는 밤 | | | |
| 외딴 방 | | | |
|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 | |
| 수오재기 | | | |

확인하기

2 자신에 대해 쓴 수필을 정리해 보자.

| | |
|-----------------|--|
| 제목 | |
| 소재 | |
| 내용 소개 | |
| 인터넷에서의 반응 | |
| 마지막으로 다듬고 싶은 부분 |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삶의 의미에 대하여 질문하며 내면 세계를 확충하였는가? | | | |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하였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2 사람들

사람들과 문학

이 단원에서 우리는

-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한다.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한다.

생각 열기



- 박광수, '이제 어머니 가슴에 박힌 못을 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러진 않았을까

동굴 밖
_____ 다 열어 놓은
고목나무 한 그루

그 한가운데
저렇게 큰 구멍을
뚫어 놓고서

모른 척 돌아선 뒤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아예, 베어버리진 않았을까

- 김시천, '어머니 3'

위 만화와 시의 빈 부분을 각각 채워 보자.

나 이외의 사람들 중에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일 것이다. 위 만화와 시는 이러한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문학 작품을 통해 가족, 연인, 친구 등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이해해 보자.



(1) 만남

- 01 심생전 | 이옥
- 02 헬로우 고스트 | 김영탁
 - 성탄제 | 김종길



(2) 이별

- 01 속미인곡 | 정철
 - 규원가 | 허난설헌
- 02 님의 침묵 | 한용운
 - 아리랑 | 지은이 모름

● 생산 활동

사람들과 문학 - 시 쓰기

(1) 만남

독일의 작가 한스 카로사(Hans Carossa)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인간의 삶이 만남의 연속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다양한 만남을 계속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의 만남, 스승과 제자의 만남, 학창 시절 친구들과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 그 외의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심지어는 사람이 아닌 대상들과의 만남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만남이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인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모든 종류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소중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만남이 주는 다양한 자극과 깨우침을 통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종류의 만남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크게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고통 자체가 인생의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

인간의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남은 문학 작품의 중요한 소재가 된다. 문학 작품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만남을 통해 웃고, 울고, 다투고, 깨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이러한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직접 체험하지 못한 다양한 종류의 만남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타인을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01 심생전(沈生傳)

이옥

이 작품은 남녀의 애뜻한 사랑을 다룬 고소설이다. 심생과 여인의 심리 변화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심생은 서울에 사는 스무 살 된 선비다. 얼굴이 잘생겼고 성격은 쾌활하다.

5 하루는 심생이 종로에서 임금님 거동을 구경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덩치 좋은 어떤 여종이 자줏빛 비단 보자기로 여자를 씌워서 업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뒤로는 계집아이 하나가 붉은 비단신을 들고 따라가고 있었다.

10 심생이 여자의 몸집을 어림짐작해 보니 어린애가 아니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뒤를 따라갔다. 뒤따르기도 하고 소매로 스치며 지나가기도 하면서 눈을 보자기에서 떼지 않았다. 그렇게 작은 광통교에 도달했는데 문득 회오리바람이 앞에서 일어났다. 그 바람에 자줏빛 보자기가 반쯤 벗겨졌다. 모습이 드러난 여자는, 발그레한 뺨과 선명한 눈썹에 녹색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곱게 하였으니, 잠깐 보았는데도 매우 아름다웠다.

15 여자도 보자기 속에서 어렴풋하게 미소녀를 보고 있었다. 남색 옷을 입고 초립을 쓰고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따라오기에 보자기 사이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보자기가 벗겨지니, 반짝이는 네 눈동자가 서로 부딪치게 되었다. 여자는 놀라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보자기를 추스르고는 다시 나아갔다.

25 심생이 이를 놓치겠는가? 곧장 따라가니, 소공동 홍살문 근처에서 여자는 어떤 집 문으로 들어갔다. 심생은 멍하니 오랫동안 머뭇거리다가 이웃 노파에게 그 집에 대하여 자세히 물었다. 그곳은 호조의 회계사였다가 나이 들어 퇴임한 사람의 집이었다. 딸만 하나 있는데 나이는 열예닐곱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여자가 있는 곳을 묻자 노파가 가리키며 말하였다.



❓ 광통교에서 처음 만난 심생과 여인의 심리는?

- ◆ 거동 임금의 나들이.
- ◆ 초립(草笠) 예전에, 주로 어린 나이에 관례를 한 사람이 쓰던 것.
- ◆ 홍살문 능(陵), 원(園), 모(廟), 대궐, 관아(官衙) 따위의 정면에 세우는 붉은 칠을 한 문(門).

이옥(1760~1812)

조선 후기의 문인. 그가 남긴 산문과 시는 조선 후기 문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을 대변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담정총서(潭庭叢書)”와 “예림잡패”에 시와 산문이 전한다.

“이 좁은 길을 따라가면 회칠한 담장이 있어요. 담장 안에 작은 방이 있고요. 거기가 바로 처녀가 있는 곳이라오.”

심생은 이 말을 듣고는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 집에다가 거짓말을 하였다.

“친구가 밤에 같이 있자고 하네요. 오늘 밤부터 가야겠어요.”

그리하여 저녁 여덟 시쯤 그 집으로 가서 담장을 뛰어넘어 들어갔다. 초승달은 은은하고 창 옆으로 꽃과 나무가 아담하게 보이고 등불이 창문에 밝게 비쳤다. 심생은 벽에 기대거나 처마 밑에 앉아 숨을 죽인 채 방 안을 살폈다.

방 안에는 두 여종이 있고, 여자는 낮은 목소리로 소설책을 읽고 있었다. 책 읽는 소리가 푼소리 소리처럼 맑았다. 밤 열두 시경이 되어서 여종들은 벌써 깊이 잠들었지만, 여자는 그제야 등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고는 오래도록 잠을 못 이루고 몸을 뒤척였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듯했다. 심생은 잠을 잘 수 없었고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러다가 새벽종이 울려서 다시 담장을 넘어 나왔다. 이후로 항상 그렇게 저녁때 가서 새벽에 돌아왔다.

이렇게 이십여 일이 지났다. 심생은 여전히 거르지 않고 계속하였다. 여자는 처음엔 소설을 읽거나 바느질을 하다가 한밤중이 되면 등불을 끄고 잠을 자거나 잠 못 들기도 하였다. 육칠 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여자는 문득 몸이 불편하다며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잠을 못 이루고 자주 벽을 치면서 한숨을 내쉬곤 하였다. 그 소리가 창문 밖까지 들렸다.

❓ 여인이 한숨을 쉰 까닭은?

날이 갈수록 여자의 그런 행동이 심해졌다. 이십 일째 되어서는 여자가 문득 마루로 나와서는 벽을 따라 심생이 앉아 있는 곳까지 나왔다.

심생은 어둠 속에서 후다닥 일어나서 여자를 붙들었다. 여자는 조금도 놀라지 않고 소리를 낮추어 말하였다.

“그대는 작은 광통교에서 만난 분이 아닌가요? 저는 그대가 여기 온 지 벌써 이십 일이나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붙잡지 마세요. 한번 소리치면 그대는 다시 나가지 못해요. 저를 놓아주시면 문을 열어 주겠어요. 빨리 놔주세요.”

심생이 그 말을 믿고는 물러나 기다렸다.

여자는 다시 빙 돌아 들어갔다. 자기 방에 도착해서는 여종을 불러 말하였다.

“어머니 계신 곳에 가서 큰 자물쇠를 가져오너라. 밤이 어두워 무섭구나.”

여종이 윗방으로 가더니 얼마 안 있어 자물쇠를 가져왔다. 여자는 열어 준다고 약속한 뒷문을 확실하게 잠갔다. 그리고 손으로 자물쇠를 만지며 일부러 잠

그는 소리를 내었다. 여자는 방에 들어가 등불을 끄고 소리 없이 잠자는 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잠들지 못했다.

심생은 속은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도 얼굴 한번 본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렇게 걸어 잠근 문밖에서 다시 밤을 지새우고 새벽에 돌아왔다. 다음 날도
5 가고 그다음 날에 또 갔다. 심생은 문이 잠겼다고 해서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비가 내릴 때는 우비를 쓰고 갔다. 비에 젖는 것도 꺼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다시 십여 일이 지난 어느 날이다. 온 집안이 모두 잠에 빠지고 여자 역시 등불을 끈지 오래된 한밤중. 여자가 별안간 벌떡 일어나 여종을 불러서는 등불을 밝히라고 하였다.

10 “너희는 오늘 밤 윗방에 가서 자거라.”

두 여종이 문을 나서자 여자는 벽 위에서 열쇠를 꺼내어 자물쇠를 끌렀다. 그리고 뒷문을 활짝 열고는 심생을 불렀다.

“방으로 드시지요.”

심생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벌써 몸이 방에 들어와 있었다. 여자는 다시
15 문을 잠그고 심생에게 말하였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그러고는 윗방으로 가서 부모를 모셔 왔다. 여자의 부모는 심생을 보고 매우 놀랐다. 여자가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제 나이 열일곱에 여태껏 문을 나가 본
20 적이 없어요. 한 달 전 우연히 임금님 거동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작은 광통교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보자기가 날리는 통에, 마침 선비와 눈이 마주쳤지요. 그날 저녁부터 선비는 밤마다 오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 문 아래 숨어 기다린 지 벌써 삼십 일이 된답니다. 비 오는 날도 오고 추워도 오고, 문을 잠그고 거절해도 계속 왔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25 있었어요. 만일 저녁때 들어와서 새벽에 나가는 것을 이웃들이 알게 되면, 창문 밖에서 홀로 있었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비난을 받게 테지요. 저분은 양반 자제로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해서 벌이 꽃을 탐하는 것만 알아요.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 며칠 안 가서 병이 나지 않겠
30 어요? 병이 나서 일어나지 못하면 내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 내가 죽인 것이나 다름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 해도 반드시 하늘이 보복할 거예요. 게다가 저는 중인 집의 딸에 불과하고, 꽃을 부끄럽게 할 만큼 미모도 뛰어나지 않은데, 선비께서 제게 정성을 들이는군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선비

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이 미워하셔서 벌을 내리시겠지요. 저는 결정했어요. 부모님께서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고 형제가 없어서, 데릴사위를 얻으려고 했어요. 살아 계실 때 봉양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제사를 받드는 것이 제 바람인데, 일이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이것은 운명이니 말한들 어찌겠어요?”

5

부모는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심생 역시 할 말이 없었다. 이윽고 여자와 같이 자게 되었으니 그 기쁨이 어떨겠는가?

⑦ 여인과 심생의 태도의 차이는?

이날 저녁 처음으로 방에 들어간 후부터 날마다 저녁이면 가서 새벽에 돌아오곤 하였다. 여자 집은 본래 부자라서 심생에게 좋은 의복을 많이 주었다. 하지만 심생은 집에서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옷을 입지 못하고 깊이 숨겨 두었다.

10

심생의 집에서는 심생이 밖에서 자는 날이 길어지자 의심하고는 산사로 가서 공부하라고 하였다. 심생은 속으로 원망하였으나 집에서 재촉하고 친구들에게 이끌려 북한산성으로 책을 싸서 올라가 선방[◆]에 머물렀다.

한 달이 될 즈음 여자의 편지가 도착하였다. 펼쳐보니, 영영 이별을 고하는 유서였다. 여자는 이미 죽은 것이다. 편지는 이러하다.

15

봄추위가 아직 매치운레 산사에서 공부하시면서 안녕하신지요. 사모하는 마음을 하루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컸는 낭군이 나가신 뒤 우연히 병이 들었어요. 병은 점점 깊어져 약을 먹어도 소용없으니,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컸처럼 북 없는 사람이 산다고 또 뭐하겠어요? 다만 세 가지 큰 한이 가슴에 맺혀, 죽어도 눈을 감기 어려울 것 같아요.

20

컸는 무남독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장차 데릴사위를 얻어 부모님이 늙으셨을 때 의지하려고 하였는데, 뜻하지 않게 나쁜 인연이 얹힌 거죠. 녀굴이 외람되이 큰 소나무에 의탁하였으나 결혼의 계획은 어그러졌습니다. 그 래서 우울하여 병이 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요, 늙으신 부모는 의지할 곳이 없어진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한입니다.

25

여자가 시집가면 종이래 하더라도 기생이 아니라면 남편이 있고 시부모가 계시죠. 시부모가 모르는 며느리는 세상에 없습니다. 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몇 달이 되도록 낭군의 늙은 여종 한 명 보지 못하였어요. 살아서는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죽어서는 돌아갈 곳 없는 혼백이 되겠죠. 이것이 두 번째 한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섬기는 것은 음식을 만들어서 받들고 옷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낭군을 만난 시간이 짧지만은 않고 손수 지은 의복 또한 적지 않죠. 그런데

30

◆ 선방(禪房) 참선하는 방.

도 낭군께 집에서 밥 한 그릇 드시게 하지 못하고 옷 한 벌 입혀 드리지 못하였
어요. 낭군을 모신 것은 잠자리뿐이니, 이것이 세 번째 한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이별하게 되어 병들고 죽게 되는군요. 얼굴을
5 볼 수 없는 것은 저의 슬픔일 뿐이지 어찌 낭군께 말씀드리겠어요? 생각이 이
에 미치니 애가 끊어지고 뼈가 녹으려 하네요. 약한 풀이 바람에 눕고 떨어진
꽃이 진흙이 되어도 깊고 깊은 이 한은 어느 때 사라지겠습니까? 아아! 만남은
이로써 끝이군요. 낭군께서는 못한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여 성공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 성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몸 성히 계세요.

10 심생은 편지를 보고 울음과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통곡한다 한들 어
쩔 수 없었다.

그 후 심생은 공부를 그만두고 무과에 응시하여 금오랑[◆]이 되었는데, 그 또한
일찍 죽었다.

매화외사[◆]가 말한다.

15 내가 서당에서 공부하던 열두 살 때 날마다 친구들과 옛날이야기 듣기를 좋
아하였다. 하루는 선생님이 심생의 일을 자세히 말씀하셨다.

“심생은 내 어릴 적 동무란다. 산사에서 편지를 보고 통곡할 때 내가 보고는
그 일을 듣게 되었구나. 지금도 잊을 수 없단다. 너희보고 이런 풍류남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라. 사람이 반드시 얻고자 하면 방 안에 있는 여자
20 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야. 하물며 공부나 시험은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새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였는데, 후에 “정사”[◆]를 읽
어 보니 이와 같은 이야기가 많았다. 이제 기록하여 “정사”의 보충으로 삼는다.

(이대형 옮김.)

❓ 편지를 주고받을 때의 심
생과 여인의 심정은?

- ◆ 금오랑(金吾郎) 주로 재판을 담당하던 기관인 의금부에서 관리를 감찰하던 관직.
- ◆ 매화외사(梅花外史) 이 글을 지은 이옥의 호.
- ◆ “정사(情史)”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중국 작품집.

연정 소설과 ‘심생전’

연정 소설은 조선 후기에 등장한 고소설의 한 갈래로 남녀 주인공이 난관과 장애를 뛰어 넘어 사랑을 성취하는 유형의 소설을 일컫는다. 연정 소설은 남녀 주인공의 자연스러운 만남, 장애 요인, 사랑의 성취 등을 구성 요소로 하는, 남녀의 연애가 서사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연정 소설은 중세적 질서를 거부하고 사랑을 택하지만, 비극적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다.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등은 인간과 귀신의 사랑을, ‘운영전’, ‘옥단춘전’, ‘채봉갑별곡’, ‘춘향전’ 등은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을 다루었다. ‘심생전’도 양반과 중인의 사랑을 다루어 신분을 초월한 인간 본연의 애정을 부각하고 있는 작품이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써 보자.

목표 학습

2 핵심 사건에 따른 '심생'과 '여인'의 심리 변화를 정리해 보자.

| 핵심 사건 | 심생의 마음 | 여인의 마음 |
|------------|--------|--------|
| 광통교에서 첫 만남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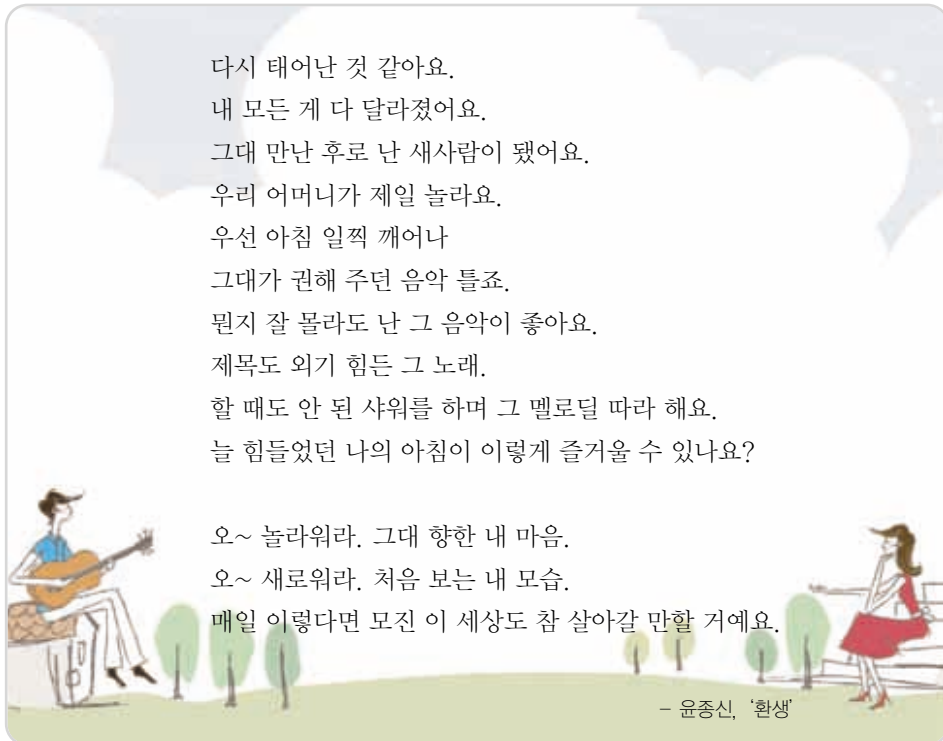
적용 학습

3 누군가와와의 만남을 떠올려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다음 노랫말을 바꾸어 써 보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사람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 주던 음악 틀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 따라 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오~ 놀라워라. 그대 향한 내 마음.
오~ 새로워라. 처음 보는 내 모습.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 윤종신, '환생'



02 헬로우 고스트

김영탁

이 작품은 귀신을 볼 수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시나리오이다. 가족과의 만남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장면 21. 박수무당, 희창의 점집/낮

묘한 표정의 박수(남자 무당), 희창이 먼저 보인다. 보면, 희창 앞엔 상만과 ‘꼴초’, ‘할배’, ‘올보’, ‘초딩’이 떼거리로 앉아 있다. 희창의 눈엔 귀신들이 다 보인다. 귀신들, 제각각 따로따로 논다.

희창 (귀신들을 신기한 듯 보다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보이더라 말이지?

상만 (고개를 끄덕인다.)

희창 ……무불 통신 했네.

10 상만 네?

희창 내림굿 없이 신이 내렸다고. 너처럼 죽다가 살아나면, 근처에 있던 신들이랑 통하는 경우가 있어.

상만 그럼, 계속 이렇게 같이 다녀야 하나요?

15 희창 귀신들 맘이지. 니가 간다고 꼭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못가지도 않아.

상만 그래도 그, 제 몸을 같이 쓴다고 하던데요?

희창 니 몸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야. 이승의 음식을 먹을 때나 이승 사람과 말을 할 때나, 귀신이 술 먹고 싶으면, 니가 먹게 되는 거고, 담배를 피우면, 너도 피우는 거고. 귀신이 들락날락하게 되면, 귀신 따라, 식성, 성격, 건강 다 바뀌는 거야.

20 상만 ……근데, 이동할 때는 꼭 그렇게 제 몸에 붙어서 ……?

희창 몸에 붙어?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 (귀신들을 보다가, 은근히) 좀 유별나네. 그럼 몸이 상할 텐데. 그래도 무겁진 않잖아? 귀신들인데…….

상만 귀신들인데 이상하게 많이 무거운 것도 같고…….

희창 기분 탓이야. 신경을 쓰니까. 묵직하고 답답하고. 뭐 그렇긴 할 거야.

25 상만 그럼, 저는 어떻게…….



김영탁

시나리오 작가 겸 영화감독. 가족을 소재로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었다. 대표작으로 '바보', '간 큰 가족'이 있다.

❓ 상만에게 귀신들은 어떤 존재인가?

희창 너는 뭘?

상만 저는 그냥 죽고 싶거든요.

희창 (의미심장) …… 너, 무당 될 팔자야. 정식으로 내림굿하고 무당 해.

상만 (놀랍긴 한데 별 관심 없이) 그냥 죽으면 안 될까요?

희창 (노려보다, 다짐받 듯) 너, 재들 보내기 전에는 못 죽어. 알겠어?

상만 그럼, 저분들만 사라지시면, 죽을 수 있는 거죠?

희창 근데, 저분들이 안 사라지신다니까?

상만 왜요?

희창 (다시 노려보다) 넌 뭐하던 앤데, 말귀를 이렇게 못 알아듣니?

상만 뭐 하던 앤데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희창 (은근히) 기껏 이승이랑 통할 몸뚱이 하나 건졌는데, 재들이 너 죽게 놔둘 거 같아?

상만 …….

장면 22. 희창의 점집 앞, 미아리의 어느 골목길/낮

점집을 나와 걷는 상만. 여전히 어정쩡하고 힘든 걸음걸이. 멀리, 점집 앞에 희창이 나와 본다. 상만의 뒷모습을 보면, 상만의 몸에 귀신 냇이 매달려 있다. ‘할배’는 업혔고 ‘초딩’은 다리에 달려 있고 ‘꼴초’는 어깨동무, ‘올보’는 팔짱을 끼고 있다. 한참 걷던 상만, 짜증을 낸다.

상만 저기 근데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안 다니신다던데, 꼭 이렇게 다니셔야 해요?

꼴초 다른 애들? 너 내가 제일 편하게 해준 거야. 머리 위에 타는 애들도 있다 너.

할배 머리 위에 타면 어떻게 되겠냐?

초딩 한 달 안에 그냥, 목 디스크지.



상만 내가 말을 말지.

(중략)

장면 123. 호스피스, 산책로/낮

긴 의자에 앉아 있는 연수. 지친 얼굴에 눈물이 고인다. 연수, 눈물을 덤뎠하게 닦는다.

5 하지만 다시 눈물이 흐른다. 연수, 그 눈물을 다시 닦는다.

상만 오에스(O.S) 점심 전이면, 나랑 밥 먹을래요?

연수, 고개를 든다. 눈물로 시야가 흐릿하다. 그 흐릿한 시야 너머에 상만이 보일 듯 말 듯하다. 상만, 어색하게 웃는 얼굴로, 손에는 울보가 싸준 김밥을 들었다. 귀신들 없이 상만 혼자다.

상만 점심 안 먹었으면, 이거, 같이 먹어요.

10 긴 의자에 앉은 상만과 연수. 서먹서먹한 두 사람. 연수가 먼저 입을 연다.

연수 사람이 충격이 심하면, 기억이 사라지기도 한대요. 정원이가,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안 후론, 가족들도 기억 못하곤 했어요. ……엄마 아빠를 끝까지 기억 못했어요.

다시 말이 없는 두 사람. 이번엔 상만이 입을 연다.

15 상만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주변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너무 오래, 혼자였어요.

연수 …….

상만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연수 …….

20 상만 근데, 연수 씨를 좋아하는 사람인 건, 분명한 거 같아요. …… 저, 연수 씨 좋아합니다. 그 마음은 저 맞아요. 여기, 연수 씨가 반했던 건강한 심장도 제 것 맞고요.

말이 없는 연수. 초조한 상만, 싸운 김밥을 펼쳐놓는다. 하지만 아무도 안 먹는다.

◆ 오에스(O.S) 한 배우의 어깨너머로 상대 배우의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는 기법.

연수 저두, 상만 씨 좋아하는데요.

그 고백에 크게 당황하는 상만. 좋지만, 그다음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서 긴장하는 상만.
쉽게 말을 잊지 못하는 연수, 생각에 빠져있다. 이미 낙담하는 상만.

연수 상만 씨랑 살면, 내가 누구랑 사는지 계속 의심할 거 같아요.

피식 웃는 연수. 상만도 무안한 듯 웃는다.

5

연수 여기선 거의 매일 누군가가 죽어요. 그 사람들 마음,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늘 최선을 다해요. 죽으면 끝이니깐.

상만 (묵묵히 듣고 있다.)

연수 근데, 상만 씨는 죽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말을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정말 힘들어도 진심으로 대하는데, 죽은 후에도 말할 수 있고, 죽은 후에도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 너무 힘들어요.

10

상만 ……!

연수 미안해요.

한동안 말이 없는 두 사람. 생각에 잠겨있던 상만.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15

상만 그 사람들, 아니, 그 귀신들, 이제 가요.

연수 ?

상만 아휴, 저도 개들 딱 싫거든요. 담배에 술에 눈물에, 생각만 해도 싫어요. 이제 개들 떠날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뭐, 이미 떠났을 수도 있겠네. 저 이제 그런 일 안 해요. 개들 보내려고, 그런 거지,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귀신들 없으면요, 그런 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 이제 그런 사람 아네요.

20

연수 정말, 그런 게, 가능해요?

대답 없이 긍정하는 상만. 잠깐, 말이 없는 두 사람.

상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 다 믿을 건 못 되나 봐요.

연수 (무슨 말인가, 분다.)

상만 술을 더 마셨어야 했는지. 가스가 차오르는데, 이상하게 말뚱말뚱 정신
이 들더라구요. 뿌연 연기 속에서 자꾸 보이더라구요. 연수 씨 얼굴, 보였어
5 요. 저도, 보고 싶어서 보인 거겠죠?

연수 ……!

상만 죽었다 싶으면 누가 깨워요. 깨고 나면 못 죽은 거 때문에 화나고 그랬어
요. 근데, 이번엔 내가 깬어요. 한번, 살아보려고요.

연수 ……?

10 **상만** 한번, 살아보려고요. 연수 씨랑.

연수 !

상만 나, 살게 해줄래요?

❓ 상만에게 연수는 어떤 존재인가?

당황스러운 듯 부끄러운 듯 말을 못하는 연수. 애꿎은 김밥을 집어서 먹는다. 상만도 부끄
러운지 김밥을 입에 넣는다. 몇 개를 연이어 쭉서 넣는다. 꾸역꾸역 김밥을 씹으며 계속 피
15 하기만 하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다. 시선이 마주치자 웃음이 난다. 사랑이다.

연수 어제부터, 신기했는데.

입안에 김밥을 가득 넣은 채 연수의 말을 듣고 있는 상만.

연수 보통은 김밥에 시금치를 넣잖아요. 근데, 상만 씨는 미나리를 넣네요.

여전히 입안 한 가득인 김밥 때문에 말도 잘 못하는 상만이 당연하다는 듯, 말한다.



상만 아, 그거요? 그거, 우리 엄마가 미나리가 피에 좋다고 늘 시금치 대신 미나리를 넣었거든요.

그렇게 말해 놓고, 순간, 말을 멈추는 상만. 입속에 가득 든 김밥. 갑자기 할 말을 잃은 상만. 멍해 지는 상만. 한참을, 멍해 있는 상만.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는 영상.

다섯 살 정도 된 사내아이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울고 있다.

5

그리고 현실. 한참을 멍해 있던 상만, 눈물이 핑, 돈다.

영상 없이 들려오는 목소리들. 엄마의 목소리.

엄마 오에스(O.S) 아유, 당신은 담배 좀 그만 피워요. 애들 닦을까 봐 겁나요.

상만, 입안에 가득한 김밥, 씹지도 못한다. 점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형 오에스(O.S) 아이참, 엄마! 시금치 넣어달라니까!

10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영상. 먼저, 김밥을 싸는 여자의 뒷모습.

엄마 미나리가 피를 맑게 해줘서 좋다니까. 동생은 잘 먹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싫어?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어린 상만의 볼을 만져 주며,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앞모습. 엄마다. 엄마는, '올보 귀신' 이다.

15

엄마/올보 우리 상만이는 엄마가 해준 김밥 맛있지?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는 어린 상만(사고 현장의 아이와 동일)이 있다.
그리고 현실.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달리기 시작하는 상만.
연수, 그런 상만을 불러보지만, 상만, 듣지 못한 듯 멀어진다.

장면 124. 거리/오후, 상만 집/회상, 거리/오후

5 입안에 가득한 김밥을 씹으며, 한편으로는 울며, 무작정 달리고 있는 상만.
이어지는 회상들, 영상들.
엄마에게 안겨 있는 어린 상만의 머리를 툭 치고 도망치는 형.
형이 달려가다 한 곳을 보고 멈춰 선다.

형 이게 다 아빠가 골초라서 그런 거 아냐! 우리도 아빠 닮아서 골초 될까 봐,
10 엄마가 맛대가리 없는 미나리, 피에 좋다고 자꾸 주는 거 아니냐고!

이제 형의 모습도 보인다. 형은, '초딩 귀신' 이다.

아빠 (형에게 늘 그러듯, 꿀밤을 먹이며) 맛대가리가 뭐냐, 맛대가리가.

퐁해 있는 형을 지나 아빠에게 달려가 안기는 어린 상만. 담배 연기 너머로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는 상만의 아빠는, '꿀초 사내 귀신' 이다.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코를 후비기 시작
15 하는 '초딩 형'의 머리에 꿀밤을 한 대 더 놓는 남자, '변태 할배' 다. 들고 있는 신문 사이에
'썬데이 서울' 류의 잡지가 끼여 있는 게 보인다. '초딩 형', 퐁해서 '변태 할배' 를 노려본다.

형/초딩 아, 진짜, 할아버지!

그리고 현실. 이제야, 그 모든 것들이 떠오른 듯, 울면서 달리고 있는 상만이 있다.

(후략)

전체 줄거리 30대인 상만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그때부터 귀신을 보기 시작한다. 담배가 손에서 떠나질 않는 '꿀초 귀신', 늘 울기만 하는 '울보 귀신', 술과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변태 할배 귀신',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음식을 먹어대는 '초딩 귀신' 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상만은 자신의 곁을 맴도는 그들을 떼어내기 위해 그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상만은 그 귀신들이 어린 시절 자동차 사고로 잃어버린 가족들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내용 학습

1 '상만' 이 가족을 떠올리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찾아보자.

목표 학습

2 작품 전체 내용을 고려할 때 아래 장면에서 '울보' 가 계속해서 울며, 미안해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장면 110. 상만의 아파트/낮

방이며 거실을 돌며, 누군가를 찾는 상만. '할배' 는 침대 밑에서 야한 잡지를 보며 즐기고 있고, '초딩' 은 베란다에서 아래로 침을 뱉고 있고, 냉장고를 열면, '꼴초' 는 그 안에서 뭔가를 또 먹고 있다. 상만, 옷장 속에서 울먹이고 있는 '울보' 를 찾아낸다.

상만 눈에 띄지 말라 했다고 여기 있는 겁니까? (울먹이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울보) 왜 또 울어요?

울보 너무 미안해서요.

상만 늘 뭐가 그렇게 미안합니까?

울보 그냥 다, 미안해요.

상만감시다. 저녁 하려면 장 봐야죠.



목표 학습

3 다음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상만' 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설명해 보자.

| | |
|-----|--|
| 연수 | |
| 귀신들 | |

4 이 작품과 다음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족'의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어두운 방 안엔
바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 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느린 옷자락에
열(熱)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란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느린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 김종길, '성탄제'

(2) 이별

‘회자정리(會者定離)’

이 말은 ‘만남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유한한 것이기에 인간의 만남도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다. 만남 뒤에는 반드시 이별이 따르기 마련이다. 인간의 삶에서 이별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만남과 마찬가지로 이별 또한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친구와의 이별,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슴 아픈 이별,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 그리고 사람이 아닌 대상과의 이별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이별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를 눈물짓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별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대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도 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 나은 만남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의미하기에 전적으로 불행한 일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즐겨 듣는 대중가요의 가사를 보면 이별을 소재로 한 것들이 많다. 그것은 이별에서 느끼는 감정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우리가 즐겨 읽는 문학 작품 속에서도 이별은 자주 등장한다. 이별로 인한 아픔, 상처, 아쉬움, 그리움, 그리고 이별의 극복 등은 문학의 중요한 표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적인 경험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고, 자신의 삶을 풍요롭고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01 속미인곡(續美人曲)

정철

이 작품은 이별의 상황을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의 정서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5 데 가는 데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믄 날의 늬을 보라 가시노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암즉[◆] 흥가마논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10 나도 님을 미더 군쁘디 전혀 업서
 이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 엇디 다르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하니[◆]
 내 몸의 지은 죄 뵈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롭이라 허물하라.
 15 설위 플터 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뵈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믈 7튼 얼굴이 편혹실 적 몇 날일고,
 춘한 고열(春寒苦熱)은 엇디하야 디내시며
 20 츨일 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뵈섯노고,
 죽조반(粥早飯)[◆] 조석(朝夕) 뵈[◆] 네와 7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줌은 엇디 자시노고,
 님 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롭 올라,
 25 내 막음 둘 더 업다. 어드러로 가쟈t 말고[◆].

‘속미인곡’과 ‘서포만필’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과 전후(前後) ‘사미인가’는 곧 우리나라의 ‘이소(離騷)’다. (총략)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참 문장은 이 세 편뿐이다. 그런데 세 편을 가지고 다시 따져 본다면, ‘속미인곡’의 수준이 가장 높다. ‘관동별곡’과 ‘전미인곡’은 여전히 한자어를 빌려서 운색한 것이므로 자연스럽지 못하다.

-김만중, “서포만필”에서

- ◆ 백옥경 도가(道家)에서 이르는 옥황상제가 산다는 곳. 여기서는 임금이 있는 서울이나 대궐을 가리킴.
- ◆ 괴암즉 사랑받았음직.
- ◆ 녀기실시 생각하시기에, 생각하시므로.
- ◆ 이러야 어리광이며.
- ◆ 흥똥디 굴었던지.
- ◆ 헤여하니 헤아리니. 곰곰 생각하니.
- ◆ 죽조반 아침밥 전에 먹는 죽.
- ◆ 조석 뵈 아침저녁으로 먹는 밥.
- ◆ 세시논가 잠수시는가. 올리시는가.
- ◆ 님 다히 임이 계시는 곳. ‘다히’는 방향, 쪽, 편이 뜻.
- ◆ 가쟈t 말고 가자는 말인가?



정철(1536~1593)

조선 시대 문신. 시인.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린 가사 작품을 많이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 ‘관동별곡’, ‘사미인곡’, ‘훈민가’ 등이 있다.

잡거니 밀거니 눕픈 뫼히 올라가니
 구름은 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랴,
 5 출하리 물궂의 가 비길히나 보랴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둥정 뉘던이이고,
 샴공은 어디 가고 뵤 비만 걸렷느고,
 강텨(江天)의 혼자 셔셔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 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흔던이이고,
 10 모침(茅簷) 춘 자리의 밤둥만 도라오니
 반벽 청등(半壁靑燈) 은 놀 위하야 불갓느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뎡 녁진(力盡)하야 꺾음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썸의 님을 보니
 옥(玉) 궂톤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셰라,
 15 마옴의 머근 말슴 슬궂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슴인들 어이 흥며
 정(情)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뉘 계성(鷄聲)의 줌은 엇디 씨뎡던고,
 20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썸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25 각시님 돌이야 쿠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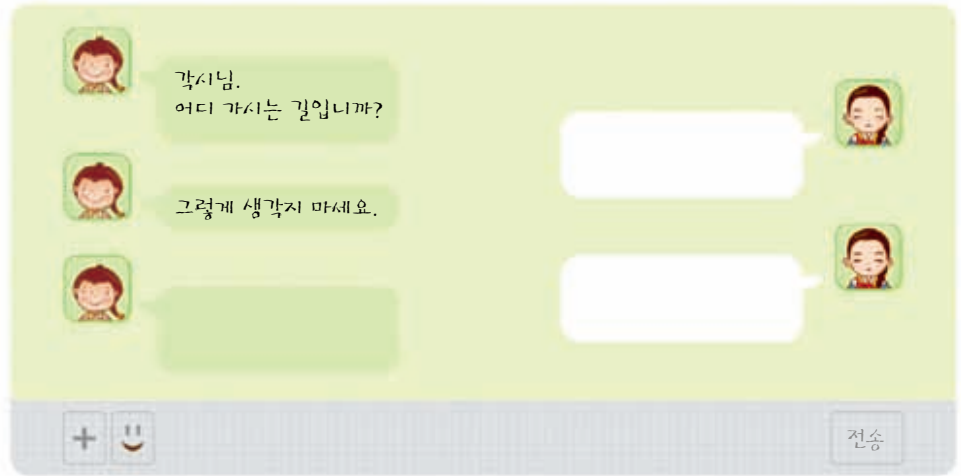
- ◆ 쿠니와 물론이거니와.
- ◆ 어둥정 어리둥절. 어수선하게.
- ◆ 모침 초가집 처마. 초가집.
- ◆ 반벽 청등 벽 가운데 달린 등불.
- ◆ 헤쓰며 헤매며. 산란한 마음으
로 오가며.
- ◆ 바자니니 바장이니. 방황하니.
부질없이 오락가락 거닐며.
- ◆ 녁진하야 기운이 지쳐서.
- ◆ 숲자 사뢰려. 아뢰려.
- ◆ 오던뉘 방정맞은. 경망한.
- ◆ 식여디여 죽어져서.

(“송강가사(松江歌辭)” 이선본(李選本))



내용 학습

1 이 작품의 내용은 대화를 통해 전개된다. 아래 빈칸을 채워 대화를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2 이 작품에서 화자가 '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구체적인 구절을 찾아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이 작품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지은 작품이다. 이를 고려하여 작가가 화자를 '여성'으로 설정한 이유를 토의해 보자.

적용 학습

4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의 화자가 이별을 대하는 태도를 비교해 보자.

출하리 잠을 드러 솜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디는 님과 풀 속의 우는 즘생, 무스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오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혀셔도, 칠월 칠석(七月七夕) 일년 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 치 아니커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렛관디,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쓰쳤는고. 난간(欄干)의 비겨 셔서 님 계신 디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쳐 잇고 모운(暮雲) 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프른 고덕 새 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업다 흐려니와, 박명(薄命) 혼 홍안(紅顏) 이야 날 곧타니 또 이실가. 아마도 이 님의 지 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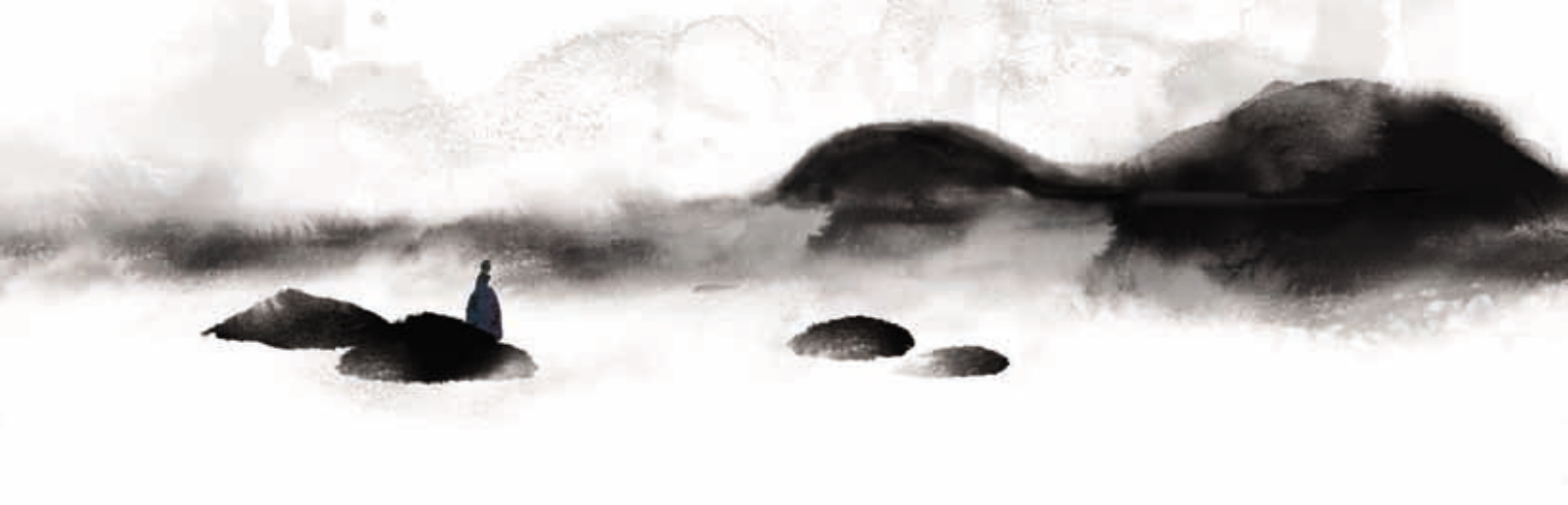
- 허난설헌, '규원가'에서

- ◆ 실기 시기를 놓침.
- ◆ 약수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길이가 3,000리나 되며 부력이 매우 약하여 기러기의 털도 가라앉는다고 한다.
- ◆ 박명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움.
- ◆ 홍안 붉은 얼굴이라는 뜻으로,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을 이르는 말.

02 님의 침묵

한용운

이 작품은 산문적 울격을 지니고 있는 시이다. '님'의 의미와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시집 "님의 침묵" 표지

시집 "님의 침묵"의 구성

시집 "님의 침묵"의 구성은 앞에 '군말'과 뒤에 '독자에 게'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군말'에는 창작 동기가 제시되어 있다. 본문은 '님의 침묵'을 비롯하여 '알 수 없어요', '자유정조(自由貞操)', '복종' 등 모두 88편의 시가 기승 전결의 극적 구성을 취한 연작시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즉, 88편의 시가 대체로 '기-이별'의 시편, 승-슬픔과 고통의 시편, 전-희망으로의 전환시편, 결-만남을 향한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표제시인 '님의 침묵'의 구조와도 대응된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5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
졌습니다. 10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
뜨리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견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
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15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한용운(1879~1944)

충남 홍성 출생. 승려, 시인, 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다. 불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연가풍의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 '나룻배와 행인', '복종', '알 수 없어요'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중심 내용과 화자의 정서를 정리해 보자.

| | 중심 내용 | 화자의 정서 |
|------|-------|--------|
| 행~ 행 | | |
| 행~ 행 | | |
| 행~ 행 | | |
| 행~ 행 | | |

내용 학습

2 이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가 바뀌는 까닭을 토의해 보자.

목표 학습

3 이 작품과 다음 작품에서 이별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십 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 지은이 모름, '아리랑'

적용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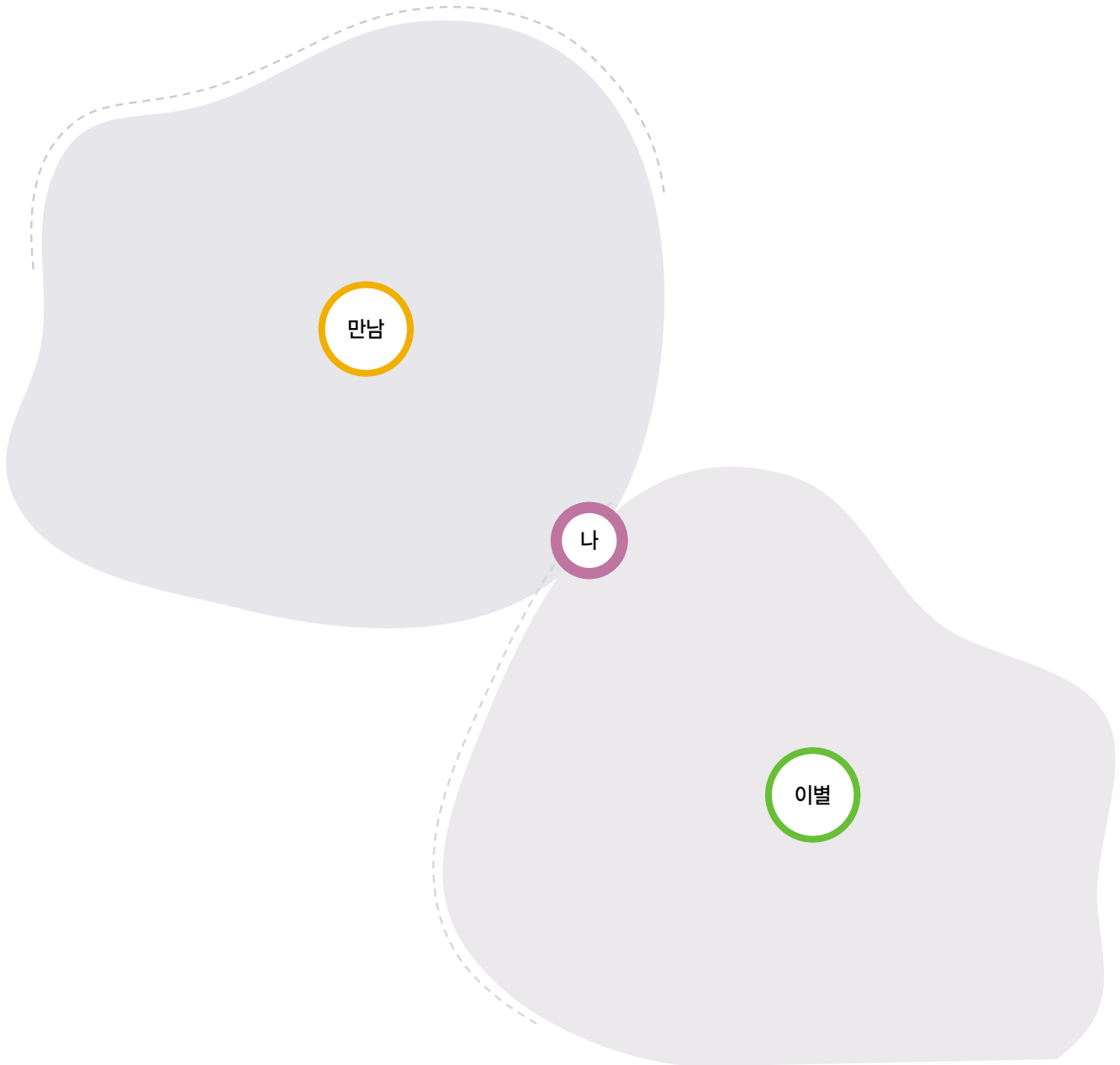
4 자신이 경험한 이별의 상황을 떠올려 보고, 이 작품에 사용된 발상과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표현해 보자.



생산 활동

사람들과 문학 - 시 쓰기

-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나고, 이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그때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시를 써 보자.



01

쓸 내용 찾기

- 1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상상하여 마음 지도를 그려 보자.
- 2 마음 지도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궁극적인 깨달음이나 감정을 정리해 보자.

02

시 쓰기

- 1 정리된 내용을 글로 써 보자.
- 2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리고 연결하여 압축해 보자.
- 3 음악성, 형상성, 함축성 등을 고려하여 시적 표현으로 만들어 보자.

03

고쳐쓰기

- 1 완성된 시를 친구들과 돌려 읽고 서로 논평해 보자.
- 2 친구들의 논평을 고려하여 시를 다듬어 보자.

04

발표하기

다듬어 쓴 시를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발표해 보자.

확인하기

1 다음 작품을 통해 발견한 만남과 이별의 모습들을 정리해 보자.

| | 만남과 이별의 모습들 |
|---------|-------------|
| 심생전 | |
| 헬로우 고스트 | |
| 속미인곡 | |
| 님의 침묵 | |

확인하기

2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자신이 쓴 시를 정리해 보자.

| | |
|-----------------|--|
| 제목 | |
| 소재 | |
| 내용 소개 | |
| 인터넷에서의 반응 | |
| 마지막으로 다듬고 싶은 부분 |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문학을 통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삶의 다양성을 수용하였는가? | | | |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하였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3

삶의 터전과 문학

이 단원에서 우리는

- 문학을 통하여 삶의 터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한다.

 생각 열기



‘별별 이야기 2 - 여섯 빛깔 무지개’는 국가 인권 위원회가 기획, 제작한 옴니버스 애니메이션 영화이다. 이 영화는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소홀하게 여겨 왔던 일상 속 크고 작은 인권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써 보자.

문학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공동체와 문학

- 01 성에꽃 | 최두석
• 슬픔이 기쁨에게 | 정호승
- 02 완득이 | 김려령
• 빨래 | 추민주
- 03 성묘 | 고은
• 쇠찌르레기 | 림종상
• 우주 비행 | 홍명진



(2) 자연과 문학

- 01 누이와 늑대 | 한승원
•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 조식
- 02 생태학적 상상력과 우리 시의 방향 | 이승원
• 양계장집 딸 | 나희덕

● 생산 활동

삶의 터전과 문학 - 소설 쓰기 / 영상물 만들기

(1) 공동체와 문학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 이념과 경제 체제가 필요하며, 그러한 이념과 체제가 제도와 법률, 관습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에 구현되어야 한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고대 사회는 엄격한 신분 제도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배 권력이 다수의 공동체 구성원을 통치하는 사회였으며, 그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불평등한 사회였다. 근대에 들어 시민 혁명과 산업화에 따른 시장 경제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인류는 더 자유롭고 평등하며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화합하며 사회를 발전시켜 왔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역사는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존중 받으며,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역사라고 볼 수 있다.

문학의 공동체 통합의 기능

문학은 하나의 교양이나 제도로서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 즉, 문학은 그것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이들에게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존재하며 문학을 통해 개인은 문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춘향전'의 경우 오랫동안 민족 공동체, 언어 공동체, 문화 공동체의 사상과 의식이 반영되어 끊임 없이 재해석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춘향전'은 민족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였다.

문학은 이러한 공동체의 발전 과정에서 빛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통로가 된다. 문학은 본질적으로 삶의 의미를 다각도로 질문한다. 문학 작품은 다양한 인물이 보여 주는 갈등을 통해 개개인에게 구현되는 공동체의 정치 이념이나 경제 체제, 관습과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나 모순을 보여 주며, 과연 그러한 삶이나 공동체가 참다운 것인지 질문한다. 이처럼 문학은 공동체의 지배적인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그 가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같은 문제 제기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때로는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만 참다운 삶의 조건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고 마침내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문학은 과거로부터 이어 온 문화적 정체성과 참다운 삶에 대한 성찰과 소통의 과정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케 함으로써 공동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요컨대,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소통하는 과정은 공동체의 다양한 가치와 그들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학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존재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극복하여 역동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삶의 가치를 상호 존중하며 풍성하고 관용적인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의 이러한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활동을 심화한다면 사회적 약자의 문제, 다문화의 문제 등과 같은 최근 우리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서민들의 삶을 형상화한 현대시이다. 공동체에 대한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5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10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15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20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최두석(1956~)

전남 나주 출생. 시인. 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예리한 감각으로 삶과 현실을 성찰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주요 시집으로 “대꽃”, “임진강”, “사람들 사이에 꽃이 필 때”, “꽃에게 길을 묻는다” 등이 있다.

내용 학습

- 1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찾아서 그것이 뜻하는 바를 말해 보자.

| | |
|--------|--|
| 시간적 배경 | |
| 공간적 배경 | |

목표 학습

- 2 '성애꽃'을 뜻하는 표현들을 찾아서 공통점을 말해 보자.

목표 학습

- 3 '성애꽃'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가 공동체와 소통하고자 한 바를 말해 보자.

적용 학습

- 4 다음 작품에 드러난 공동체의 문제를 찾아보고, 소통의 양상을 '성애꽃'과 비교해 보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꿀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꿀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이 작품은 다문화 가정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다문화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을 성찰하며 읽어 보자.

(전략)

5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내 어머니라는 그분이다. 확실하다.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내 가슴이 그렇게 말했다. 가슴이 또다시 쿵쾅거린다. 똥주 이 인간.
“잘 지냈어요?”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나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방을 방에 휙 던지고 냄비
10 에 물을 받았다.
딱 딱 딱.
가스레인은 손잡이를 세 번이나 돌린 뒤에야 불이 붙었다.
“잘 커 줘서 고마워요.”
그분이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라면 드실래요?”
15 “…….”
나는 컵에 물을 받아 냄비에 더 넣었다. 그분을 똑바로 볼 수가 없다.
“아버지는…….”
“계란은 없어요.”
나는 라면을 미리 뜯어 놓았다. 딱히 할 일이 없었다.
20 “나는…… 그냥, 한 번만…….”
“끓여서 들어갈 테니까, 방에 계세요.”
그분은 잠시 주춤하더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촌스럽게 꽃분홍색
술이 앞에 몽텅이로 달린 낡은 단화였다.
나는 라면을 끓여 방으로 들어갔다. 생전 처음 그릇에 라면을 옮겨 담아서.
25 그분은 자기 그릇에 있는 라면을 내게 덜어 주었다. 배고팠는데 잘됐다.
“김치 없어요?”

영화 '완득이' 포스터



이 작품은 영화와 연극, 뮤지컬 등으로 다양하게 각색되어 널리 사랑을 받았다.



김려령(1971~)

서울 출생. 소설가. 아동, 청소년 문학 작품을 주로 썼으며, 주요 작품으로 '내 가슴에 해마가 산다', '기억을 가져온 아이' 등이 있다.

“다 떨어졌어요.”

“매일 이렇게 먹어요?”

“거의요.”

“라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던데…….”

“한국말 잘하시네요.”

“한국 온 지 오래됐으니까요.”

“라면 불어요.”

할 일은 없고 시간은 많은데 너무 빨리 먹어 버렸다.

그분은 벌 받는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밤늦은 시간인데 골목에서 여자애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들리다 사라졌다.

“내일 학교 가야지요.”

“이제 자려고요.”

그분은 축축 늘어지는 천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다.

“이거…….”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나 줄 돈 있으면 신발이나 새로 사 신으세요. 요즘은 애들도 저런 거 안 신어요.

“말로는 잘 못하겠어서…… 너무 미안해서…….”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분은 기어이 봉투를 내려놓고 방을 나갔다. 교회로 가는 걸까.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나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른 냄새다. 화장도 안 했는데 무슨 냄새일까. 이런 게 어머니 냄새라는 걸까. 그분이 먹었던 라면 그릇이 전과 달라 보였다. 나는 그분이 두고 간 봉투를 뜯었다. 돈인 줄 알았는데 편지였다.

❓ 편지를 읽고 ‘완득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편지를 읽은 자신의 느낌은?

미안해요.
 잊고 살지 않았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혹시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해 주세요.
 000-000-0000
 안 해도 돼요.
 옆에 있어 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 혼한 아들이니 어머니 하는 말은 없었다. 옆에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라고 불러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머니라는 말 대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걸지도 모른다. 다른 건 있다. 그분은 나를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다. 하긴, 그분은 내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편지를 봉투에 도로 넣고 방바닥
5에 휙 던졌다. 무슨 모자 상봉이 이렇게 허무한지. 그분이든 나든 눈물 한 방울은 흘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삼팔선만 안 그어졌지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고 뭐가 달라. 십칠 년 만에 나타난 어머니라는 분하고 고작 라면이나 끓여 먹고 헤어지다니. 어머니라는 존재 별거 아니군. 그나저나 똥주, 두고 보자.

“베트남 사람이데요.”

10 가방에서 번쩍거리는 의상을 꺼내던 아버지 손이 멈췄다.

“왔었어요.”

“잘 지낸대?”

아버지는 의상에 맞는 벵타이를 골랐다.

“금방 갔어요.”

15 “.....”

“전화번호 두고 갔어요.”

“이거 나중에 드라이 좀 맡겨라.”

아버지는 전에 입었던 의상을 돌돌 말아 문 앞에 놓았다.

“시장에 춤출 곳이 있어요?”

20 “수레 앞에서 추지. 민구 춤이 좋아서 제법 사람들이 모여.”

“가, 각설이들도 자, 잘 취요.”

민구 삼촌이 씨익 웃었다.

“그 사람,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거기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가, 가, 각설이들도, 춤 배웠구나.”

25 삼촌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도 아니던데요.”

“보내 줬지.”

“왜요?”

“카바레에서 춤추는 걸 이해 못 했어.”

30 “그게 다예요? 그랬다고 보내 줘요?”

“숙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려 온 하녀 취급하는 게 싫었다. 내 아내가 아니라, 자기들 뒷일이나 해 주는 사람으로 알더라. 가는 모습 봤는데, 못 잡았다.”

❓ 완득이 아버지가 떠나는 부인을 잡지 못한 이유는?

“세탁소 다녀올게요.”

“천천히 맡겨도 되는데.”

후련하다.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었고 듣게 될 말이었다.

(중략)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식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 잘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나라가 그분 나라보다 조금 더 잘산다는 이유로 큰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도 다른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는 그분이, 내가 버렸는지 먹었는지 모를 음식만 해놓고 가는 그분이, 개천 길을 내려간다. 몸이 움직인다. 내 몸이 미쳐서 움직인다. 저 꽃분홍색 술이 달린 낡은 단화 때문이다. 나는 내려가는 그분에게 달려갔다.

“주세요.”

나는 반찬 통을 획 낚아챘다.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았다.

“따라오세요.”

나는 앞장서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시장 속으로 들어갔다. 폼 나게 백화점은 가줘야 하는데 내 월급으로 체육관비까지 내야 하니 할 수 없다. 나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신발 가게로 들어갔다.

“들어오세요.”

“.....”

“들어오시라고요.”

그분이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며 들어왔다.

“신발 몇 신어요?”

“난 괜찮아요.”

“몇 신냐고요.”

그분이 머뭇거리자 주인아주머니가 거들었다.

“240은 되겠네.”

“그럼 240짜리 구두 보여 주세요.”

“아니! 나 235 신어요.”

그분이 어색하게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굽 좀 있는 걸로 보여 주세요. 저렇게 납작한 거 말고.”

❓ ‘나’와 ‘그분’ 사이에서 ‘신발’이 하는 역할은?



“저짜 사람 같은데, 학생하고 많이 닮았네.”

주인아주머니는 그분을 저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반짝거리는 작은 리본이 달린 검정 구두를 집었다. 굽도 7센티미터는 될 것 같다.

5 “신어 보세요.”

그분은 머뭇거렸다.

“사준다고 할 때 신어. 좋은 걸로 골랐네. 근데 둘이 무슨 사이야?”

주인아주머니가 묻자 그분이 당황한 얼굴로 열린 구두를 신었다.

“꼭 맞네.”

10 주인아주머니가 말했다. 그분이 신발을 벗었다.

“그냥 신고 가세요.”

그분은 다시 신발을 신었다.

“아니, 무슨 사인데 이 양반이 이렇게 찢찢매?”

주인아주머니가 그분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그냥…….”

그분은 그냥이라고 했다.

“얼마예요?”

5

나는 서둘러 가격을 물었다.

“이만 오천 원인데 이만 삼천 원만 내.”

나는 얼른 이만 오천 원을 주인아주머니 손에 쥐여 주고 가게를 나왔다. 이천 원은 팁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천 원을 들고 나왔다. 낡은 꽃분홍색 단화까지 들고.

10

“가지고 가.”

그분이 내 손에 이천 원을 쥐여 주었다. 나는 그분 손에 반찬 통을 쥐여 주었다.

“고마워…….”

그분 턱이 파르르 떨렸다. 턱까지 흘러내린 눈물이 덜렁거렸다.

15

“음식이 좀 짜요. 저 그렇게 짜게 안 먹어요.”

그분이 활짝 웃었다. 그분은 울면서 웃는 능력이 있다.

아버지가 짜게 먹는 걸 기억하고 나까지 짜게 먹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 그분의 음식을 먹지 못했다. 대신 똥주가 먹었다. 아버지와 똑 떨어져 있는 그분의 거리. 그 거리 속에 존재하는 나. 지금 이곳이 내 자리인 모양이다. 나는 그분이 버스에 올라타는 걸 보고 체육관으로 달려갔다.

20

(후략)

전체 줄거리 완득이는 어머니 얼굴도 모른 채, 카바레에서 춤추는 일을 하다가 보따리 장사꾼으로 나서게 된 난쟁이 아버지와 가짜 삼촌 남민구와 옥탑방에서 산다.

별명이 '똥주'인 피자 담임 선생님은 이웃에 살면서 완득이를 괴롭히는 듯하지만, 그에게 속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남몰래 불법 체류 노동자를 돕는 일을 하던 똥주 선생님은 베트남 출신인 완득이의 어머니를 찾아내어 만나게 한다.

킥복싱을 배우면서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 완득이는 진 횡수만큼 이기겠다는 목표도 세운다. 완득이의 아버지도 똥주 선생님의 도움으로 삼촌과 함께 댄스 교습소를 열어 생활의 활력을 되찾는다.

내용 학습

1 완득이 부모님이 헤어진 이유를 말해 보자.

목표 학습

2 다음은 이 작품에 나오는 ‘똥주 선생’ 부자간의 대화이다. ‘할아버지’(똥주 선생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자.

“곰팡이 잔뜩 핀 숙소, 매번 툭툭 분 라면, 허술한 안전장치…….”
 “그것마저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다.”
 “그것보다 나은 걸 제공하는 곳도 많아요.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이노오옴…….”
 할아버지는 활체어 바퀴를 짝 잡았다.
 “베트남에서 온 티로 누나 기억하시죠?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집안일까지 시켰던 누나요. 아 왜, 필통 판금하다가 절단기에 손가락 잘려서 귀국시켰던. 저요, 그때부터 철로 된 필통 안 썼어요.”
 “자원봉사도 아니고, 노동이 안 되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있을 순 없었다.”

적용 학습

3 다음은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의 사랑을 다룬 뮤지컬의 일부이다. 이 장면의 뒷부분에 이어질 솔롱고의 노래 가사를 자유롭게 창작하여 보자.

늦은 밤. 동네 슈퍼 앞. 솔롱고와 마이클이 공장장과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있다.

공장장 너희 열심히 해야 돼. 월급 밀린 건 내가 사장한테 이야기 잘 해 뒀으니까 담달에 한꺼번에 줄 거야. 경기가 나빠. 공장 문 닫는 데가 어디 한두 군데라야 말이지. 여기만 한 데 없어. 너희도 알지? 힘들다고 피피우면 안 돼, 이 자식들아. 너희들 돈 벌어 고향 가려면 여기서 죽었다 생각하고 꼭 참아, 알아듣지? 어머니 있어야 되잖아. 어머니. 그래야 고향 계신 부모 형제 먹고살지. 안 그래?

나영 등장. 퇴근길, 나영의 손에 만화책이 여러 권.

솔롱고 안녕하세요?

나영 네.

나영, 슈퍼로 들어간다. 마이클, 솔롱고를 보면서 웃는다. 솔롱고, 닛 놓고 나영의 뒷 모습을 바라본다.

공장장 (솔롱고의 표정을 살피며) 이 자식 너, 누구야?

솔롱고 옆집 사는 여자요.

공장장 한국 여자 좋아했다간 둘 다 맘고생이야. 불법 체류자 신세로는 혼인 신고 하기도 어려워.

마이클 안산에서 일하는 내 친구 하심, 같은 공장 일하는 한국 여자랑 결혼해 딸 있어요.

공장장 고향에 돈 부쳐 주고 나면 자기들 먹고살기도 힘들 텐데, 애들은 낳아서 어찌자는 거야!

솔롱고 하심 아이 좋아해요. 하심 돈 많이 벌어 카트만두 돌아가요. 그땐 아이 더 많을 거예요.

공장장 카트만두고 찢만두고 간에 단속 조심해. 단속반이 공장까지 쳐들어오는 판 인데 괜히 니들끼리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그나저나 너희 둘 다 연수 기한도 지났는데 어찌냐?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일도 꽤 쓸 만한데 내보내라니…….

나영이 슈퍼에서 물건을 사서 나온다. 나영과 솔롱고 인사를 나눈다.

슈퍼 주인 아가씨, 만화책 두고 갔네.

나영 고맙습니다.

마이클 (나영이 쪽을 보며) 예쁘다.

(솔롱고의 노래)

- 추민주, '빨래'에서

03 성묘(省墓)

고은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소재로 한 시이다. 화자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5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10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15 때로는 서도(西道)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20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25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고은 시집, “문의마을에가서”(1974)

이 시집은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태도와 인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초기 시와 변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남한에서’, ‘성묘’, ‘두만강으로 부치는 편지’ 등에서는 남북의 분단 문제를 다루면서 그를 극복해야 한다는 뚜렷한 역사의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은(1933~)

전북 군산 출생. 시인. 초기에는 허무, 절망, 죽음에 대한 심미적인 탐닉이 주를 이루는 반면, 후기에는 현실에 대한 참여 의지를 드러낸 시를 주로 썼다. 시집으로 “피안감성”, “문의 마을에 가서”, “만인보” 등이 있으며, 20여 개국에 그의 작품이 번역 소개되었다.



이 작품은 조류학자를 통해 분단 문제를 다룬 북한의 소설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분단 문학과 '쇠찌르레기'

분단 문학이란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의 현실을 다루면서 분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적 가치와 힘을 담고 있는 문학을 이른다. 분단 문학은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통일을 추구해 나가는 문화적 소명을 다양하게 진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황순원의 '목숨', 김동리의 '귀환장정', 최인훈의 '광장', 전상국의 '아베의 가족', 윤홍길의 '장마' 등이 있다. 림종상의 '쇠찌르레기'도 월남한 조류학자가 새를 통해 북녘의 가족과 교신하는 극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낸 분단 문학 작품이다.

- ◆ 림종 '임종(臨終)'의 북한식 표기.
- ◆ '것이었습니다. '것이었습니다.'의 북한식 표기.
- ◆ '흔연하다' 기쁘거나 반가워 기분이 좋다.
- ◆ '육실거리다' 한데 많이 모여서 몹시 우글우글하다.
- ◆ '되어야' '되어야'의 북한식 표기.
- ◆ '돌러보시었습니다' '돌러보시었습니다'의 북한식 표기.

(전략)

림종[◆]의 시각이 다가왔습니다. 5

아들 없는 자리에 손자 여덟 명이 꿰어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부축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신 할아버님께서는 마치 점점이나 하듯 손자들을 근엄한 눈길로 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마 할아버님께서는 우리들의 얼굴에서 아들들의 모습을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10

이윽고 '점점'을 마친 할아버님께서는 뒤 번 힘겨운 기침을 하시더니 "울지 마라! 생물체가 생을 마치는 것은 자연의 범상한 법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울음을 삼키던 우리들은 너무도 혼연한[◆] 자세로 림종을 맞으시려는 할아버님을 홀린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현 군자의 형상으로 돋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씀이 유언이라고 짐작하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군요. 15

"우리 원씨 가문은 조류가 집안이다. 그니 이 땅의 모든 숲에 새가 육실거리도록[◆] 만드는 것으로 나라를 떠받드는 기둥이 되어야[◆] 한다. 그걸 명심 하거라!" 20

숨쉬기가 가쁘신지 할아버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또다시 저희들을 둘러보시었습니다.[◆]

흐느낌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할아버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애비 없는 손자들 사이에 이어져 있는 마지막 정을 소중히 간직하시려는지……. 25

침묵을 지키던 할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서야 할머니를 돌아보시며 말



림종상(1933~)

강원 인제 출생. 소설가. 주요 작품으로 '해돋이', '불우한 열사', '부루나의 밤' 등이 있다.

씀을 이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제 새끼를 버리고 달아난 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러나 그것은 외세로 인하여 나라의 분단이 빚어낸 비극이 아니겠소. 그러니 자식들이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 주오. 그 애들이 보고 싶구려. 그 애들이…….”

5 갑자기 튀어나온 기침이 할아버님의 유언을 중단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안타까와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연사흘[◆] 우리와 함께 밤을 지새운 의사 선생이 급히 주사를 놓았습니다. 만약 이때 의사 선생이 없었더라면 유언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주사의 덕으로 할아버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벌써
10 심히 갈려 겨우 가려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애들이 부모를 찾아올 땐 거저 와서는 안 된다고 이르오…….”

그때 할아버님은 식어 가는 손으로 저의 손을 더듬어 잡았습니다.

“창운아! 네가 삼촌들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막내, 기둥으로 믿어 왔던 그놈 병후에게는 조류가의 자식답게 남쪽의 새들을 모조리 연구해야 한다고 해라.
15 너에게는 내가 다하지 못한 북의 새를 맡긴다. 내가 쓴 책은 60년대 전반기 까지에 불과하지 않느냐……. 통일이 되는 날 너와 나 그리고 삼촌이 연구한 것을 합치면 그게 완성된 “조선 조류지”가 될 게다. 이것이 민족 분단의 고통을 몸으로 체험한 우리 원씨 가문의 3대가 통일의 제단에 올릴 가장 귀한 선물로 되지 않겠느냐. 내 생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나라가 동강나다 보니 다하지 못하고 가는구나. 제일 큰 한이 그것이다. 내 이 소원을 너희들이…….”

20 유언을 마치신 할아버님은 방안의 모든 박제품들과도 정을 나누시듯 둘러보신 다음 편히 누우시더니 이윽고 조용히 눈을 감으시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이렇게 운명하시었습니다.

슬하에 둔 자식 다섯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앞에 놓지 못하고 말입니다.

25 장대하던 체구가 시신으로 변하자 갑자기 좋아든 듯 작아 보였습니다. 피부에 남아 있던 마지막 윤기마저 사라졌으나 입 언저리에만은 약간의 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던 말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가신 듯 입은 약간 벌려져 있었습니다.

30 세상을 버리시게 되는 이 마당에서 할아버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왜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분명 단 한 명의 자식이라도 앞에 두지

❓ 조류학자로서 할아버지의 궁극적 소망은 무엇인가?

- ◆ 튀어나온 ‘튀어나온’의 북한식 표기.
- ◆ 연사흘 ‘연사흘’의 북한식 표기.
- ◆ 감으시었습니다 ‘감으시었습니다’의 북한식 표기.
- ◆ 운명하시었습니다 ‘운명하시었습니다’의 북한식 표기.
- ◆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것뿐이었겠습니까’의 북한식 표기.

못하고 떠나가시게 된 그 분단의 슬픔일 것이며 원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분계선이 가로막혀 레성강[◆]을 건느시려다가 건너가지 못하신 할아버님이시기에 그 강을 건너올 길 없는 아들들을 기다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아마 그 절박한 기대만은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 앞에 남길 유언과 손자에게 할 유언이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할아버님은 끝내 아들 앞에 할 유언만은 남기시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가셨습니다.

(후략)

- ◆ 레성강 예성강(禮成江). 황해도 동남쪽에 있는 강. 황해도 연진산에서 시작하여 신계, 남천을 거쳐 황해로 흘러들어 간다. 길이는 174km.
- ◆ 허나 '하나'가 바른 표현.

5

전체 줄거리 원병후는 할아버지 원흥길 교수가 자신의 조류학의 학풍을 이을 후손으로 여기고 가장 총애하던 막내아들이다. 그러나 그는 전쟁 중인 51년 초에 월남한다. 어느 날 창운은 일본 농림성 표식 가락지를 끼고 있는 쇠찌르레기를 발견하고 일본 조류 연구소에 회답 서한을 보낸다. 그런데 일본에서 보내온 회신을 통해 그 새를 원병후가 남한에서 날려 보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쇠찌르레기

쇠찌르레기는 자바 군도에서 겨울을 나고 한반도를 거쳐 시베리아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북방 쇠찌르레기', '시베리아 쇠찌르레기'로 불리고 있었다. 그런데 원흥길 박사가 우연히 발견하여 관찰한 결과 북반부 지역에서 여름을 보낸다는 사실을 밝혀 '북조선 쇠찌르레기'라는 이름을 고쳐 붙이고 국제 조류 학회의 공인을 받았다.

원흥길 박사는 쇠찌르레기가 온 강토에 서식하게 되었다는 점, 남한에 간 아들이 자신과 같이 쇠찌르레기에 깊은 애착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 학자로서의 큰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결국 쇠찌르레기가 민족 분단으로 인해 한 맺힌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나 원흥길 교수는 새도 남북한을 자유로이 넘나드는데 사람은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세상을 떠난다.

내용 학습

1 '성묘'에서 '소금'이 지니는 의미를 말해 보자.

내용 학습

2 '쇠찌르레기'에서 '쇠찌르레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목표 학습

3 '성묘'의 시적 화자와 '쇠찌르레기'의 '원흥길'을 중심으로 남북 분단에 대한 두 작가의 시각을 정리해 보자.

4 다음은 새터민을 소재로 한 작품의 일부이다. 이를 참고로 하여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 민족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삶의 태도와 모습에 대해 토의해 보자.

쉼터에서 같이 지낸 아이들은 대부분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머리에 먹물이 많이 들었다는 푹푹한 아이도 이쪽의 교과 공부는 힘들어했다. “백지에다 새로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다.” 쉼터에 봉사를 와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늘 그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내가 고향에서 학교를 다니며 배웠던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었다.

완룡이는 나이를 낮춰 일반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중략) 완룡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쉼터 아이들은 그를 빙 둘러싸고 이것저것 물어 대기 바빴다. 완룡이도 쉼터 식구들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다.

완룡이는 공부는 재미있어서 그러저럭 따라갈 수 있는데 친구를 사귀는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아이들이 하는 대화를 알아들을 수 없으니 걸 수도 없고,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말을 걸 때도 실수를 할까 봐 진땀이 난다고 했다. 처음엔 잘 대해주던 애들도 호기심이 사라지자 차츰 멀어지더라고 했다. 완룡이는 그럴수록 책만 붙들고 열심히 공부했다. (중략)

의욕을 가지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와 달리 완룡이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피곤하다며 대답조차 안 할 때도 있었다. 쉼터 아이들은 누군가 완룡이를 계획적으로 따돌리거나 못살게 군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중략) ‘남과 북’을 대놓고 비교하며 완룡이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수도 있었다. 한번은 완룡이가 밥을 먹다 말고 불쑥 물었다.

“니네들은 여기 왜 왔니?”

그 소리에 수저질이 멈췄다. (중략) 한참 만에 완룡이가 픽 웃으며 말했다.

“딱 끼 놓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왔어. 근데 왜 왔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네. 살려고 왔다 기러지.”

(중략)

그날 이후 한동안 학교를 잘 다니는 것 같던 완룡이는 교복을 벗어 버렸다. 학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 홍명진, ‘우주 비행’에서



(2) 자연과 문학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인간 자체가 하나의 자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연과 인간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을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환경 오염이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환경오염과 관련한 다양한 질병들이 생겨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자연의 파괴와 오염은 인간의 정서까지도 메마르게 하여 비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드러나기도 한다.

물론 이에 반하여 다양한 자연 되살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양한 환경 단체들이 결성되어 병들어 가고 있는 자연을 되살리는 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관심과 실천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문학사를 통해 볼 때 자연은 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자연에서 느낀 감흥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기를 즐겼다. 그들의 작품 속에서 주로 언급되는 ‘강호한정(江湖閑情), 물아일체(物我一體), 유유자적(悠悠自適)’ 등의 말은 자연을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의 대상, 상생의 대상으로 여겼던 선조들의 자연관을 잘 보여 주는 것들이다.

현대 문학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주제로 하는 문학 작품이 많이 창작되고 있다. 우선 청록파 시인들이나 신석정 시인 등은 아름답고 순정한 이상향으로 자연을 그렸다. 그리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파괴되어 가는 농촌의 현실을 그린 작품들도 다수 창작되었다. 최근에는 공해·핵 문제 등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반자연적 문명에 관한 비판을 다루는 생태 환경 문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터전이다. 이러한 자연이 최근 급속하게 황폐화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런 작품들을 접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자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선과 보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공동체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생태 환경 문학

공해, 핵 문제 등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이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문명 등에 관한 비판을 다룬 문학. 생태 환경 문학은 아름다운 삶을 이루는 기초가 바로 살아 있는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으며, 시와 소설 등의 작품이 다수 창작되고 있다.

이 작품은 농약 중독으로 파괴되어 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생태 소설

산업화 이후에 발생한 과학 기술 문명의 환경 파괴적 양상을 인식하고, 인류가 직면해 있는 환경 위기의 실상을 알리며, 이의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의 소설.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최성각,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 이문구, '장천리 소태나무' 등이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이다.

1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염병에 걸렸다고 저희들끼리 속닥거리기 시작한 것은 이해 늦은 가을부터였다.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한 달가량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5

병원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앓고 있는 병이 결코 염병이 아니라고 했다.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한 병이라고 얼뚱설뚱한 소리를 했다.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였다.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도 몰랐었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었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남이 전혀 배어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서만 배고 있더라도 하는 양,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는 말이 소문의 꼬리에 붙어 다녔던 것이었다. 적어도 그 소문은 아침 안개가 앞 강의 물 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 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 온 마을 안에 퍼졌었는데, 그것은 어느 해던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다. 미치도록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꺾끄러운 베 조각 같은 것으로 비비거나 긁어놓으면, 활활 타는 듯 아프면서 시원하고, 쓰린 듯 아리고 쑤시면서 콧물 같은 진물을 눈물처럼 뿜어 내 놓던 습진같이, 그것은 우리 식구들을 괴롭혔다. 10 15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은 어머니였다. 둘만 있으면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내가 이를 물고 가려운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대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며 악다구니를 써대곤 했다. 20

“자네 눈으로 봤는가, 봤어? 다리 나왔다고 하면 뒷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뒷이 어찌고 어쨌다고? 도둑 때는 벗어도 비늘 때는 못 벗는다는 말 모른다? 칼부림 날 소리 하지 말어.”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에서는 뻗뻗한 베 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 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말들이 계속 새어나오곤 했다. 진물이 25



한승원(1939~)

전남 장흥 출생. 소설가. 고향인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한 토속적 세계와 원초적인 생명력을 풍부한 토착어로 그려낸 작품이 많다. 주요 작품으로 '해산 가는 길', '사랑' 등이 있다.

말라붙어 뻗뻗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 놓곤 하듯이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불 안 땀 굴뚝에서는 연기 안 나는 법이여. 무슨 요다구가 있든지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났을 것 아니여?”

5 “백 사람이 백 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굶을 치고 다녀? 원래 방구* 뽕 놈이 구린내 난다고 외치고 다니는 법이라구만.”

처녀가 아기를 배면 다 그러는지 모를 일이지만, 누님은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며 아프다고 이마에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다니는가 하면 뒤란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오다가 배를 움켜쥐고 쪼그려 앉기도 하고, 변소에 가서는 여
10 느 때와 달리 오래 앉아 있곤 했다. 누님이 나온 뒤에 가보면 뚝뚝 위아래 코피를 흘린 듯 검붉은 피가 쏟아져 있곤 했다. 나는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 누님이 정말로 아기를 뱃을까.

이 무렵, 나는 잠자리에 들면 자꾸 누님의 뱃속에 들어 있을 아기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곤 했다. 누님 뱃속에 들어 있을 아기는 아무래도 만석이의 아기
15 일 것만 같았고, 그렇다면 그 아기는 여우나 늑대처럼 털이 돋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참 어이없고, 누님에게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어쩌면 악마의 피가 내 가슴에 흐르고 있는지 몰랐다. 죄스러운 생각을 안은 채 나는 자꾸 그것을 그려보곤 했다. 그 아기의 모습이
20 내 머릿속에 그려지는 순서는 대개 정해져 있었다. 먼저 누님의 몸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은 발가숭이가 된 채 드러누워 있었다. 수북한 억새 숲과 싸리나무 숲 속에 누워 있었다. 무지갯빛을 내면서 솜뎅이같이 부풀어난 비누 거품에 싸여 있었다. 이때 누님의 뱃가죽은 유리처럼 투명해지고, 그 속에 허리를 꼬부리고 두 주먹을 턱 속에 묻은 늑대 새끼가 들어 있는 게 보이곤 하는 것이었다.

25 누님의 발가벗은 몸과 늑대 새끼를 생각하다 보면, 나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충동이 내 가슴속에 일어나곤 했다. 그것은 내가 하늘을 훨훨 날고 싶어지는 것이었다. 어떤 때는 실제로 내 겨드랑이에 황새같이 흰 날개가 돋아나고 있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이때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면서 마구 두근거리려지곤 했다.

30 여느 때, 나는 하늘을 둥둥 떠가는 게 소원이었다. 초여름, 정씨네 문중 산에 사는 황새가 나락밭 위로 키 같은 날개 두 짝을 저으면서 마치 구름자락이라도 탄 듯 천천히 날아왔다가 우렁이를 주워 먹은 다음 꺾충 날아올라서 여유

* 방구 '방귀'의 방언.

있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나는 멍해지곤 했다. 밤이면 그 황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기도 했었다. 겨울철이면 연을 많이 날렸다. 만석이에게 연을 만들어 달라고 졸랐다. 그가 만들어준 문짝만 한 방패연을 날리면서 나는 그 연이 되어 하늘을 나는 환각 속에 잠기기도 했었다.

두 해 전,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늦은 봄부터 나는 늙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황새나 왜가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 뒷골 산밭엘 늘 가고는 했다. 그 황새들을 보면서 나는 기막힌 꾀를 하나 생각했다. 큰 닭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황새를 스무 마리 정도만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그 황새들의 다리에 끈을 매고, 끈 끝에 큰 그물자루를 단 다음에 내가 그것을 탄다면, 나는 그 황새들과 함께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을 게 아닌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만석이는 웃기만 했었다.

❓ 황새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두 해 전의 여름 들면서부터 정씨네 문중 산에 사는 황새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꿩을 잡듯 약을 놓아 잡거나 덫을 놓아 잡거나 공기총이나 엽총으로 쏘아 잡는 것도 아닌데, 가끔 날개나 다리가 부러진 듯한 황새가 소나무 밑에 한 마리씩 떨어져 고개를 모로 비튼 채 버리적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듬해 봄여름부터는 그렇게 많던 황새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어디로 날아간 채 돌아오지 않기도 하여 겨우 한 쌍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해 봄에, 나는 묘한 사람을 하나 보았다. 주둥이가 한 뼘 정도는 되게 긴 까만 사진기를 목에 건 남자였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뒷골 소나무 숲에 숨어서 황새를 기다리곤 했었다. 내가 그를 처음 본 것은 들판의 모내기가 거의 끝났을 무렵이었다. 학교에 갔다가 와서 소를 뜯기러 갔더니 그는 정씨네 문중인 입구의 납작 바위 위에서 큰년이네 아버지하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큰년이네 아버지는 자쫓빛 나는 줄기가 비늘을 빛내면서 외틀어져 올라간 소나무의 넓은 잎사귀들을 가리키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숲 속에는 자쫓빛 그늘이

“이상하게도 해마다 황새 수가 줄어져 가요. 작년에도 어떤 늙은 남자가 한번 다녀갔는데, 그 사람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저 짐박이 황새가 우리 동네밖에 없다고 하데요. 자기는 새만 연구하는 사람인데, 이 새를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동네 이장님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갔어요. 그 양반 말이 아니라도 우리 동네서는 아무도 황새를 쫓는 사람이 없어요. 정씨들이 저 새들을 업같이 여겨요. 잡거나 쫓아 날리거나 하는 사람은 가만두지를 안 해요.

자기네 선산이 명당인게 저 새들이 이 근처의 다른 숲을 다 버리고 하필 여기 와서 산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황새들이 왜 자꾸 죽어갈까. 나는 안타까웠다. 그 황새들이 더 이상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는 그 황새 한 마리를 잡아다가 키우고 닭처럼 번식을 시켜가지고 꼭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한데, 이상스러운 것은, 황새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씨네 문중 산에 이상스런 일이 또 하나 일어난 것이었다. 늑대 울음소리였다.

(중략)

15

누님의 관을 뒷골 산밭의 허리 너머에 있는 우묵한 싸리 숲 속에 묻은 날 밤의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자주에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 놓은 듯했고, 거기 달린 별들은 5월 들 논의 자운영 꽃들이 마파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송알거리고 있었다. 싸리 숲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나 앞 강둑에 어우러진 개망초 꽃들같이 야들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 듯 끙끙 앓으면서 별경게 된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느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는 흰 수건을 질끈 동인 채 부엌방에서 두 발을 뺀고 주저앉아 방바닥을 때리며 울어대고 있었다. 나는 멍해지면서 육신거리는 머리를 낮게 하기 위해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누님의 관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누님을 담아 간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 꽃으로 싸고 덮였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버지의 말로는 누님이 죽어가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다던 것이었다.

“아부지, 팔도 사방 돌아다녀 보시오.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머슴같이 부리고 안 살았소? 두엄 여 나를 만큼 여 날랐고, 비료 푸대 이고 다니면서 뿌릴 만큼 뿌렸소. 가물 때면 밤새워가면서 물도 댔소. 멸구 일었다, 이화명충 생겼다, 희새병 한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거지 일었다, 깨밭에 뜨물 졌다, 도둑벌레가 고추나무 잘라 버린다……. 그래서 농약 뿌릴 만큼은 뿌렸소. 김매고, 풀 베고, 외양간의 두엄 끌어내고……. 나 시집갈 때, 똥을 얼마나 잘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디여? 다 버리고 흰 꽃으로만 싸다가 물어주시오. 뒷골, 우리 산밭 옆 당가지”

❓ 누님이 죽은 이유를 추리해 보자.

◆ 당가지 '고추'의 방언.

에 우묵해 가지고 반반한 잔디밭이 있어요. 가장자리 싸릿대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 속에다가 묻어 주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어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찢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 관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듯했었다. 이웃집 큰년이네 아버지를 시켜 꽃 관과 더불어 눈같이 흰 주검 옷까지도 사오게 한 것이었다.

읍으로 나간 큰년이네 아버지가 바지계에 지고 오던 꽃 관을 생각하며, 나는 시봉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씨네 문중 산 중턱을 쳐다보았다.

“독살스럽고 모진 에미 밑에서, 소 가는 데 말 가는 데 다 가고, 오빠 동생들 옷 학교 보낸다고 못 입고 못 먹고, 아이고!”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울어대는 소리가 가슴을 쥐어질렀다.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 알같이 작은 별 하나와 싸라기만큼 한 별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느 해의 여름날 밤이던가, 평상 위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쬐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하던 것이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은 큰 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은 기껏 먼지나 싸라기만 한 별이 된다고 했었다. 그때 송알거리는 별 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주먹만 한 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호르호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정씨네 문중 산 중턱에서 들려왔다.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런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것은 봄날 밤에 앞 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소쩍새 울음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찬바람이 옷자락 속으로 파고들었다. 나는 소름을 쳤다.

“만석이가 미쳤다고 하더라.”

아침나절에 누님의 관 내가는 곳을 보러 온 영철이가 한 말이 생각났다. 지금 늑대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게 만석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방바닥을 치며 울어대는 부엌방으로 가려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불 맞은 송충이같이 꿈틀거리던 누님을 생각하고 안방으로 갔다. 아버지 옆으로 가서 드러누웠다. 호르호 하는 소리가 안방으로 흘러 들어왔다. 팔 하나를 이마 위로 올려놓은 채 누워 있던 아버지가 안간힘을 쓰며 옆으로 돌아누웠다.

눈을 감은 내 머릿속에 밤하늘의 별들이 그려졌다. 얼핏 아찔한 현기가 일어났다. 귀가 웅 하고 울면서 내 몸이 검은 허공으로 붕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어서 개망초 꽃들처럼 야들거리는 별들을 향해 키처럼 커다란 날개를 황새갈

이 저으며 날아가고 있는 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

나는 숨을 죽이면서 날개를 쳤다. 검은 날개를 치면서 내 눈앞을 어지럽게 날아가고 있는 게 있었다.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나 자운영 꽃들처럼 송알거리는 별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고 있었다. 여름밤에 먹을 감고 찬물 냄새를 풍기면서 통치맛바람으로 들어와 내 코끝을 스쳐 가던 그 치맛자락 같은 날갯짓이었다. 누님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그 누님을 따라잡고 싶었다. 힘껏 날갯짓을 했지만 누님은 그림자처럼 정씨네 문중 산의 검은 숲숲 위에서 초롱처럼 빛나는 북극성 옆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는 머리가 아파 오는 것을 느끼면서 눈을 떴다. 뒤란의 나무청에 숨겨 놓은 황새가 생각났다. 살그머니 몸을 일으켰다. 마루로 나왔다. 뒤란으로 갔다. 나무청은 먹물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발대 틈으로 손을 넣었다. 황새의 미끄러운 털이 만져졌다. 황새가 접은 날개를 한 번 푸드득 했다. 날갯짓 속으로 손가



락을 밀어 넣었다.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병원에서 가져온 약 한 봉지를 더 먹이리라 했다. 가마니로 덮어 주고 마당으로 나왔다. 호르호 하고 늑대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나는 마당 가장자리로 가서 흙담을 짚고 정씨네 문중 산의 소나무 숲에 앉은 새까만 어둠을 바라보았다.

16

다음날은 더럽게도 재수 없는 날이었다. 황새를 빼앗긴 것이었다.

동네 이장인 영철이네 아버지를 앞세우고 온 순경과 가죽점퍼 입은 남자는 아버지를 불러내더니, 황새를 가져가야 되겠다고 말을 했다.

“택에서 가지고 있는 황새 종류는 지금 멸종 위기에 있어요. 나라에서 적극 보호를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멀거니 건너다보다가 “저 아이보고 어디 뒀는가 물어봐서 가져가시오.”하고 나를 턱으로 가리켜 주고 방으로 들어갔다. 가죽점퍼 입은 남자는 나를 따라 뒤란으로 갔다. 나무청에서 고개를 모로 젖힌 채 주저앉아 있는 황새를 보고는 재빨리 가방을 열었다. 하얀 철사들이 나란히 박힌 판을 꺼내더니, 그걸 이리저리 맞추어서 네모반듯한 새장 하나를 만들었다. 큼지막 해서 황새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갈 수 있을 듯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주사기를 꺼냈다. 약병을 한 개 꺼내더니, 그것의 뽕쪽한 목 부분을 감았다. 그 약을 주사기 속에 담았다. 황새의 허벅다리예다가 주삿바늘을 쑤셨다. 황새가 눈을 크게 벌려 뜨면서 날개를 한두 번 푸드덕거렸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점퍼 입은 남자는 다른 주사기를 꺼내서 다른 약병의 약을 담아 황새의 다른 쪽 허벅다리에 주사를 또 놓았다. 가방에 주사기를 챙겨 넣은 뒤에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고 황새가 건강해진 다음에 나를 한 번 부르겠다고 하면서, 황새를 조립한 큰 새장 속에 넣었다.

그가 그걸 들고 나갈 때, 내 가슴엔 울음이 가득 차 있었다. 누님의 주검을 보고도 나오지 않던 울음이었다. 남자가 곰재 쪽으로 가는 것을 보던 나는 어머니가 몸져누워 있는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거기서 나는 방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가 울지 말라고 하면서 나를 끌어안았다. 누님은 벌써 극락세계엘 가 있을 거라고 했다.

이틀 뒤의 해 저물녘에, 영철이가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네가 키우던 황새 사진이 크게 나왔다고 말을 했다. 과연 그랬다. 그것은 천연색 사진으로, 신문 반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빼앗긴 황새를 다시 찾아온 것만 같이 가슴

이 울렁거렸다. 코가 시큰해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한 채 그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나는 사진 밑에 박혀 있는 잔글씨를 읽었다.

‘농약 중독으로 다리와 날개를 쓰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있는 점박이 황새. 이 황새는 한 소년이 삼 개월 동안이나 키워온 것을 동물원에서 가까스로 입수
5 한 것이다. 앞으로 한 열흘쯤 치료를 하면 중독 증세가 어느 정도 가시게 되고 건강해질 것이라고, 동물원 수의사 정진동 씨는 말한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던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모로 틀어 숙이면서 거꾸러지듯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머리가 아파 오고 뺨속이 끓었다. 한
10 손으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짚으며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깨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눈을 허영게 뒹굴리며 뒷걸음질을 치는 영철이의 모습이 둘로 보였다. 어찌면 셋으로 보였다.

이때 내 귀에 호르호 하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날 밤 늑대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가 나는 황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들 산에 어우러진 개망초의 꽃망울들같이 송알거리는 별들 사이를 날아다녔
15 다. 누님의 아기별이 떠 있는 북극성 근처에도 가보았다. 이상하게도 누님 별 옆에 이르렀을 때 호르호 하고 늑대 울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 황새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말해 보자.

전체 줄거리 두 해 전부터 정씨네 문중 산에 사는 황새들이 한 마리씩 줄어들고 있었고, 그때부터 그곳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얼마 후 만석이는 황새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다주고 나는 그것을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다. 그로부터 며칠 뒤 누님이 아프기 시작했다. 동네에는 시집도 안 간 누님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나기까지 한다. 이에 아버지는 만석을 불러 혼을 내는데, 곧이어 어머니도 누님과 비슷한 증세로 쓰러진다. 약방에 약을 사러 갔던 아버지마저 쓰러지고 나의 가족들은 모두 남도의 큰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병원에서의 시간을 지켜워하던 나의 가족들은 열흘 동안 먹을 약을 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한다. 하지만 얼마 후 누님은 세상을 떠나고, 애지중지했던 황새마저 동물원에 빼앗기게 된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누님’이 죽음을 맞이한 원인을 찾아보자.

내용 학습

2 이 작품에 등장하는 ‘황새’의 상징적 의미를 말해 보자.

목표 학습

3 이 작품과 다음 작품을 비교하여 물음에 답해 보자.

두류산(頭流山) 양단수(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쓴 말근 물에 산영(山影)조초 잠겨세라.
아희야, 무릉(武陵)이 어디미오 나는 옌가 흐노라.

- 조식

(1) 두 작품에 드러난 자연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

(2) 두 작품을 통하여 현대인과 선조들의 자연관의 차이를 말해 보자.

적용 학습

4 이 작품과 다음 신문 기사를 참고하여 자연과 인간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토의해 보자.

환경 지상주의에 멩드는 국책 사업

2003년 고속 철도 천성산 터널 구간 건설 공사가 추진될 때 인근에 위치한 천성산 내원사에 거쳐하던 00스님과 환경 단체들은 ‘도룡농 살리기’라는 명분을 앞세워 3차례에 걸쳐 단식 농성을 벌이며 공사에 반대했다. 환경 영향 평가가 수차례 실시된 가운데 천성산 자연 습지는 터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반대 의견도 제시됐다. 공사가 6개월 지연되면서 상당한 금액의 손실이 초래됐다.

2001년 완공된 인천 국제공항도 환경 단체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은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다. 사업 계획 발표 당시 00연합, 0000연구회 등 17개 단체는 ‘개펄 훼손,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실종 등 환경적인 이유와 지반 침하로 인한 부실 공사 우려’ 등을 주장하면서 공사에 반대했다. 하지만 인천 국제공항은 2005년 이후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면서 국제적인 명소가 됐다.

- 00일보, 2011. 6. 7.

02 생태학적 상상력과 우리 시의 방향

이승원

이 작품은 자연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문학 비평문이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환경이 오염되고 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실상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환경 오염과 생태 파괴 문제는 생명의 무게를 어떻게 보느냐,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자연과 생명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시로 표현한 사례들은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것을 단순히 시적인 상상력의 소산으로 일축해 버릴 것이 아니라 생태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 활용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는 시편들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중략)

얼음 풀린 냇가
세찬 여울물 차고 오르는
15 은피라미 떼 보아라
산란기 맞아
얼마나 좋으면
혼인색[◆]으로 몸단장까지 하고서
좀 더 맑고 푸른 상류로
20 발딱발딱 배 뒤집어 차고 오르는
저 날씬한 은백의 유탄에
봄 햇살 튀는구나

오호, 흐린 세월의 늪 헤쳐
깨끗한 사랑 하나 닦아 세울
25 날랜 연인이아 연인들아

- 고재중, '날랜 사랑'

◆ 혼인색 일부 동물의 번식기에 다른 성의 개체를 끌기 위하여 보통 때와는 달리 나타나는 색이나 무늬. 주로 어류, 양서류, 조류, 파충류 따위에서 볼 수 있다.



이승원(1955~)

서울 출생. 문학 평론가. "백석을 만나다", "영랑을 만나다" 등의 저서가 있다.

이 시는 봄날 냇물에서 뛰어오르는 피라미 떼를 노래한 것이다. 산란기를 맞
아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서 세찬 여울물들을 차고 오르는 피라미 떼의 움직임
에서 시인은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을 본다. 생명의 움직임을 보는 시인의 시선
은 외부의 방관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혼연일체가 된 동화의 상태
에 있다. 시인은 자연 대상을 자신과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수용하고 있다. 5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생명의 힘과 생명의 아름다움을 동질적으로 인식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찬 여울물을 ‘발딱발딱 배 뒤집어 차고 오르는’ 피라미
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그 안에 생명의 힘이 약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힘을
잃은 생명은 아름답지 않다. 자신의 힘으로 몸단장을 하고 여울을 차고 오를
때 비로소 그것은 눈부시고 날씬한 은백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10
이 피라미들은 겨울 동안 얼음 밑에서 숨을 죽이고 잿빛으로 잿아들어 있었을
것이다. 얼음이 풀리고 햇살이 따스해지자 피라미는 제철을 만난 듯 사랑의 번
식을 시작한다. 말하자면 시인은 피라미들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도 좌절과 시
련의 늪을 헤치고 나가 언젠가는 저러한 생명의 기쁜 축제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염원과 기대를 행간에 함축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이 시에 15
담긴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은 자연 풍광의 묘사라는 단선적 차원에 머물러 있
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삶의 보편적 국면과 연결되어 있다. 이 시를 통하여 우
리는 산업 사회의 굴레 속에 잇고 있었던 진정한 생명의 움직임과 그 조화로운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된다. 20

자연 풍광을 대하면서 생명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일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생명은 어떤 가치를 지녔는가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자연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정립되고 생태계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힌다. 이런 점에서 나희덕의 시집 “그 말이 있을 물들었다”에 수록된 몇 편의 시들은 깊이 음미해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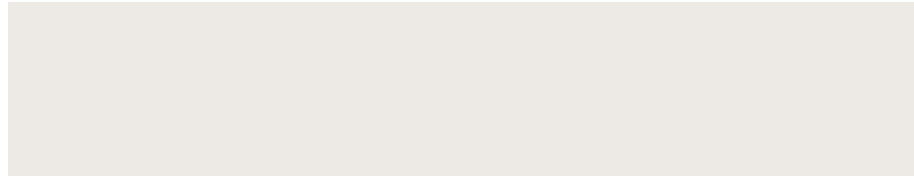
5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헛일일 것 같더니
여름내 발독 지나며 잊지 않았던 말
10 - 나는 너희로 하여 기쁠 것 같아
- 잘 자라 기쁠 것 같아

늦가을 배추 포기 묶어 주며 보니
그래도 튼실하게 자라 속이 꽤 찼다
- 혹시 배추벌레 한 마리
15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꼭 동여매지도 못하는 사람 마음이나
배추벌레에게 반 넘어 먹히고도
속은 점점 순결한 것으로 차오르는
배추의 마음이 뭐가 다를까
20 배추 풀물이 사람 소매에도 들었나 보다
- 나희덕, '배추의 마음'



이 시는 배추와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마음의 교류가 의미의 중심을 이룬다. 화자는 배추에게 잘 자라서 기쁨을 달라는 자신의 소망을 전하였고 배추는 마치 그 마음을 알아차린 듯 가을에 튼실한 성장을 보여 주었다.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라는 첫 행은 자연물에 인간적 의미를 부여하여 자연물에도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명하였다. 배추의 성장을 지켜보는 화자의 마음은 생명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배추 포기를 묶으면서도 배추벌레가 이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을 한다. 그러한 생명 사랑의 정신으로 자연물을 대하기 때문에 배추도 그것을 이해하여 푸르른 ‘순결한 잎’을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인다.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배추벌레가 잎을 많이 뜯어 먹었지만, 배추는 그것이 자기 잎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속이 찬 모습으로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나희덕의 시 ‘양계장집 딸’ 역시 자연과 인간의 교류에 중심을 두고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를 잘 표현하였다.



그의 또 다른 시 ‘흔들리는 것들’ 역시 가을 언덕을 장식하는 작은 자연물들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무게와 속도를 감지하면서 그 자연의 풍광에 동참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시들은 생명의 본질을 파악하는 시인의 직관과, 그것을 시로 형상화하는 생태학적 상상력이 크게 돋보인다. 특히 자연을 단순한 관조의 대상이나 이해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적 존재로 파악한 것은 생태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 인용된 두 편의 시에서 활용한 소재와 표현 방법을 정리해 보자.

| | 날랜 사랑 | 배추의 마음 |
|-------|-------|--------|
| 소재 | | |
| 표현 방법 | | |

목표 학습

2 이 작품에 인용된 두 편의 시에 드러난 생명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 보자.

| | 날랜 사랑 | 배추의 마음 |
|-----------|-------|--------|
| 생명에 대한 인식 | | |

적용 학습

3 234쪽의 ' ' 부분은 다음 작품에 담긴 시인의 인식을 설명한 부분이다. 그 부분을 직접 써 보자.

일어나자마자 닭장으로 달려가면
아버지가 손에 쥐어 주던 갓 낳은 달걀로부터
나는 따뜻함을 배웠다.

분노를 배운 것도 닭장에서였다
부리로 상대의 눈을 쪼아 대며
어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물러나지 않는.

건넌마을 아파트에 달걀을 팔러 가던 날
친구를 만날까 봐 언니 뒤에 비비 숨던 어느 대낮
숨을수록 햇빛은 더 크게 소리쳤다.
그러나 닭도 달걀도 별로 돈이 되지는 못했다.

텃밭의 채소 몇 뿌리와 더불어
무언가 기른다는 것이 아버지를 살게 하는 힘이였다.
그 손에서 길러짐으로써 닭들은 아버지를 살렸다.
종종거리며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양계장집 어린 딸의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결국 닭은 닭장 속에서 견디며
우리 이 대(二代)를 견디게 한 셈이다.

- 나희덕, '양계장집 딸'



● 다음 활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삶이 잘 드러나도록 소설을 써 보자.

○ 아래 사진은 '태평양 전쟁' 당시 징용에 끌려간 조선인들의 삶을 담은 것이다. 그들 중 동그라미로 표시한 인물의 삶에 대한 물음에 답해 보자.



북해도 토목 공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



일본 규슈 탄광 벽에 새겨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의 글씨

1 이 사람의 나이를 30세라고 가정하고 그의 삶에 대해 말해 보자.

- (1) 징용에 끌려오지 않았을 때
- (2) 징용에 끌려온 지금
- (3) 징용이 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해 보자.

2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의 의도를 말해 보자.

3 이 사람의 삶을 소설로 쓰기 위해 알아야 할 역사적 현실에 대해 조사해 보자.

01
쓸 내용 찾기

겨레의 삶이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 소재를 정리하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구성해 보자.

- 이야기 소재
- 이야기 내용 소개
- 소재와 관련된 정보

한다는 이야기.

02
소설 쓰기

1 주제, 인물, 사건, 배경, 서술자를 설정해 보자.

- 주제
- 배경
- 인물
- 사건 구성
- 서술자

2 소설의 구성 요소별 설정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써 보자.

3 줄거리를 심화하여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되 앞서 계획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계획을 수정하며 써 나가자.

03
고쳐쓰기

1 완성된 소설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서로 논평해 보자.

2 친구들의 논평을 고려하여 소설을 다듬어 보자.

04
발표하기

다듬어 쓴 소설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발표해 보자.



- 다음 영상물과 활동을 참고하여 자연과 관련한 삶의 문제를 영상 매체로 표현해 보자.



- 1 이 영상물에 담긴 삶의 문제를 정리해 보자.
- 2 제작자가 이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어떤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찾아보자.
- 3 표현 의도를 잘 드러내기 위해 어떤 시청각적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설명해 보자.
- 4 이 영상물에 사용된 문학적 표현을 찾아 그 효과를 설명해 보자.

01
표현할 내용
찾기

- 1 자연과 관련한 다양한 삶의 문제 가운데 영상 매체로 다루고 싶은 소재를 정해 보자.
- 2 소재와 관련된 도서 정보,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고, 그 소재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주제를 설정해 보자.
- 3 주제를 드러내기에 적절한 시각 자료, 영상 자료, 인터뷰 자료, 문학 자료 등을 찾거나 만들어 보자.

02
영상물
만들기

- 1 각종 자료를 제시할 순서와 방법을 구상해 보자.
- 2 각 자료에 맞게 설명하는 글을 심미적으로 표현해 배치하고, 어울려 음악도 설정하여 보자.
- 3 구상한 대로 자료들과 글과 음악을 편집하여 완성물을 만들되 앞서 구상한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면 계획을 수정하며 만들어 나가자.

03
고쳐쓰기

- 1 완성된 영상물을 친구들과 돌려 보며 서로 논평해 보자.
- 2 친구들의 논평을 고려하여 영상물을 다듬어 보자.

04
발표하기

다듬은 영상물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발표해 보자.

확인하기

1 다음 작품을 통해 발견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소통의 모습들을 정리해 보자.

| | 소통의 모습들 |
|-----------------------|---------|
| 성애꽃 | |
| 완득이 | |
| 성묘 | |
| 쇠씨르레기 | |
| 누이와 늑대 | |
| 생태학적 상상력과 우리 시의 방향 | |

확인하기

2 삶의 터전에 대해 자신이 만든 소설 및 영상물을 정리해 보자.

| | |
|--------------------|--|
| 제목 | |
| 소재 | |
| 내용 소개 | |
| 인터넷에서의 반응 | |
| 마지막으로 다듬고 싶은 부분 |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문학을 통하여 삶의 터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였는가? | | | |
| 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현하였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나와 문학



- (1) 내 안의 풍경
01 별 헤는 밤 | 윤동주
02 외판방 | 신경숙
• 나의 열어놓은 아름답다 | 이현희



- (2) 내 삶의 길
01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권정생
• 자화상 | 서경주
02 수오재기 | 정약용

- 생산 활동
나와 문학 - 수필 쓰기

학습 내용

- 문학 작품 속에 그려진 인간상과 삶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 작가가 문제 삼고 있는 삶의 의미를 생각하며 문학 작품을 읽는다.
- 자신의 삶을 수필로 쓴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자아 성찰을 다룬 문학 작품을 즐겨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작중 인물의 개성을 자신과 견주어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에 작품평 써 보기.
- 자신을 성찰한 결과를 수필로 표현하고, 이를 학교 신문이나 교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발표하기.

2

사람들과 문학



- (1) 만남
01 심생전 | 이육사
02 웰로우 고스트 | 김영탁
• 정탄재 | 김홍길



- (2) 이별
01 속미인곡 | 정철
• 규원가 | 허난설헌
02 님의 침묵 | 한용운
• 아리랑 | 지은이 모름

- 생산 활동
사람들과 문학 - 시 쓰기

학습 내용

- 문학을 통하여 타자와 삶의 다양성을 수용한다.
- 문학을 통해 다른 존재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개성적인 삶을 영위한다.
-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질 때 느꼈던 감정을 시로 표현한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담긴 문학 작품을 즐겨 찾아 읽고 이를 내면화하는 태도 기르기.
- 작품 감상문이나 소개문을 인터넷 서점 등에 써서 다른 사람과 의견 교환해 보기.
-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시로 써서 다양한 매체에 표현해 보기.

3

삶의 터전과 문학



- (1) 공동체와 문학
01 성애꽃 | 최두석
• 슬픔이 기쁨에게 | 정효승
02 완득이 | 김려령
• 팻대 | 추민주
03 성묘 | 고은
• 쇠찌르레기 | 림종상
• 우주 비행 | 홍명진



- (2) 자연과 인간
01 누이와 늑대 | 한승원
• 두류산 양단수물 | 조식
02 생태학적 상상력과 우리 시의 방향 | 이승원
• 양계장집 딸 | 나희덕

- 생산 활동
삶의 터전과 문학 - 소설 쓰기
삶의 터전과 문학 - 영상물 만들기

학습 내용

- 문학을 통하여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 문학을 통해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삶을 성찰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한다.
- 공동체, 자연과 관련하여 소설과 영상물을 생산한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자신의 삶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짐을 자각하고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연대 의식을 가지는 태도 기르기.
- 자연과 공동체의 삶을 다룬 문학 작품을 즐겨 읽고 독서 토론 등 다양한 소통 활동에 참여하기.
- 자신이 생산한 소설과 영상물을 친구들과 돌려 읽으면서 의견 교환해 보기.



한국 가사 문학관 탐방

 www.gasa.go.kr

찾아가는 길



현장 스케치



탐방 보고서

Blank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report.

가사 작품 찾아 읽기

Blank area for finding and reading Gasa works.

III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1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징
- 2 한국 문학의 역사
- 3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단원의 길잡이

한국 문학을 제대로 수용·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 문학이 무엇인지, 한국 문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한국 문학의 전통과 미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 한국 문학 전반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문학 작품들이 다양한 역사적 갈래로 구현된 양상과 전개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한국 문학은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문학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되어 온 작품을 통해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문학으로 표현했는지, 문학이 그들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한국 문학은 고유한 전통을 지니고 외국 문학과 끊임없이 교섭하면서 이어져 왔다. 다른 나라의 문학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서 발전해 온 한국 문학의 양상을 살펴 한국 문학이 세계 문학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단원은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세 단원으로 구성하였다.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징'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 그리고 그 전통과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 문학의 역사' 단원에서는 역사 시간에 배운 시기 구분을 바탕으로 하되, 문학의 내적 속성인 표현 언어, 주요한 문학 담당층, 대표적인 갈래 등의 변화를 중심으로 '원시·고대 문학', '중세 문학', '근대 태동기 문학', '근대 문학', '현대 문학'으로 나누어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단원에서는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관계와 교섭 양상, 그리고 한국 문학의 세계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 목표

- * 한국 문학의 개념, 범위, 갈래를 이해할 수 있다.
- * 대표적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을 이해할 수 있다.
- *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 *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점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할 수 있다.



1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징

이 단원에서 우리는

- 작가·언어·내용 등을 기준으로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를 이해한다.
- 한국 문학사에 등장한 다양한 갈래를 이해한다.
-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징을 이해한다.

생각 열기

한국 문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을 선으로 연결해 보자.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

01 격황소서 | 최치원

바리데기 | 지은이 모름

• 압록강은 흐른다 | 이미륵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01 시집살이 노래 | 지은이 모름

봄 봄 | 김유정

• 강령 탈출 | 지은이 모름

• 태평천하 | 채만식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

입말 문학

구비 문학이라고도 하며, 민요, 설화, 무가, 판소리, 민속극 등이 있다.

한국 문학은 작가, 언어,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인이 우리말과 우리글로 우리의 생활 체험과 사상,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영역은 크게 입말 문학과 글말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입말 문학은 한자 전래 이전 문자가 없던 시대에 또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문학 담당층에 의해, 말로 전승된 문학으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등을 포함한다. 글말 문학은 사용하는 문자에 따라 한글 문학과 한문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한문으로 표현된 문학뿐 아니라 향찰로 표기된 향가도 한국 문학의 영역에 포함된다.

한때는 한문 문학을 한국 문학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한국인이 쓴 한문 문학을 한국 문학에 포함하는 것은 한자가 동아시아에서는 유럽의 라틴어와 같은 중세 공동 문어(共同文語)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한자 이외의 표현 문자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민족은 한문으로 정서와 사상을 표현했다. 한글 문학은 한글 창제 이후에 한글로 표기된 문학으로 현대로 올수록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근대 이래 해외로 이주한 우리 동포들이 해외 생활의 체험을 모국어로 표현한 문학 역시 한국 문학이다.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해외의 한민족 문학을 이해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와 세계 및 모국어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북한 문학 역시 한국 문학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다가올 통일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나가기 위해 민족 문학으로서 북한 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학 갈래는 크게 서정, 서사, 극, 교술의 4대 갈래로 분류되며 이는 입말 문학, 한문 문학, 한글 문학의 세 영역 아래 나라, 민족, 시대에 따라 다양한 역사적 갈래로 전개되어 왔다. 역사적 갈래 혹은 하위 갈래는 민족과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교체·소멸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문학의 역사를 이루는 주요한 내용이 된다.

한국 문학의 경우 고대 가요, 향가, 고려 속요, 한시, 시조, 신체시, 현대시 등이 서정 갈래에 포함되며, 한문 소설, 한글 소설, 고소설, 신소설, 현대 소설 등이 서사 갈래에 포함된다. 가면극, 인형극, 창극, 신파극, 희곡, 시나리오 등이 극 갈래에 포함되며, 한문 수필, 서간문, 일기, 기행문, 현대 수필 등이 교술 갈래에 포함된다. 관념 갈래는 문학사의 각 시대마다 항상 존재하였지만, 특정한 시대에는 특정한 갈래가 더욱 활발하게 생산·소통되면서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01 격황소서(檄黃巢書)

최치원

이 작품은 신라 사람인 작자가 당나라 관원으로 지낼 때, 난을 일으킨 '황소'에게 한문으로 써 보낸 격문이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한문으로 쓴 글이 한국 문학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5 햇빛이 활짝 펴니, 어찌 요망한 기운을 그대로 두겠으며, 하늘 그물이 높이
 베풀어져서 반드시 흉한 족속들을 없애고 마는 것이다. 하물며 너는 평민의 천
 한 것으로 태어났고, 농민으로 일어나서 불 지르고 겁탈하는 것을 좋은 피라
 하며, 살상(殺傷)하는 것을 급한 임무로 생각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죄만 있고
 10 속죄될 조그마한 착함은 없었으니, 천하 사람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만 아니라 아마도 땅 가운데 귀신까지도 가만히 죽이려고 의논하리라. 비록
 잠깐 동안 숨이 붙어 있으나, 벌써 정신이 죽었고, 녀이 빠졌으리라.

격문(檄文)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격서(檄書).

◆ 천하 사람이~죽이려고 의논하리라 황소가 격문을 보다가 이 구절에 이르러 놀라 앉았던 의자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최치원(857~?)

신라 시대 학자.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벼슬을 하다가 황소(黃巢)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글을 써 보내면서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다. 저서로 "계원필경(桂苑筆耕)" 등이 있다.

(중략)

❓ 작가가 '황소'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나라의 도적을 정복하는 이는 사사로운 분(分)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어두운 길에 헤매는 자를 일깨우는 데는 진실로 바른말을 하여 주어야 한다. 나의 한 장 편지로서 너의 거꾸로 매달린 듯한 다급한 것을 풀어 주려는 것이니, 고집을 하지 말고 일의 기회를 잘 알아서 스스로 계책을 잘하여 허물을 짓다가도 고치라. 만일 땅을 떼어 봉해 줌을 원한다면, 나라를 세우고, 집을 계승하여 몸과 머리가 두 동강으로 되는 것을 면하며, 공명(功名)의 높음을 얻을 것이다. 길으로 한 도당(徒黨)의 말을 믿지 말고 영화로움을 후세에까지 전할 것이다. 이는 아녀자의 알 바가 아니라, 실로 대장부의 일인 것이다. 일찍이 회보(回報)하여 의심 둘 것 없나니라.

5
10

나의 명령은 천자를 머리에 이고 있고, 믿음은 강물에 맹세하여 반드시 말이 떨어지면 그대로 하는 것이요, 원만만 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미처 덤비는 도당(徒黨)에 견제(牽制)되어 취한 잠이 깨지 못하고 여전히 당랑(螳螂)이 수레바퀴를 향거하기를 고집한다면, 그제는 꿈을 잡고 표범을 잡는 군사로 한번 휘둘러 없애버릴 것이니, 까마귀처럼 모여 술개같이 덤비던 군중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갈 것이다. 몸은 도끼에 기름 바르게 될 것이요, 뼈는 용거(戎車) 밑에 가루가 되며, 처자도 잡혀 죽으려니와 종족들도 베임을 당할 것이다. 생각하건대, 동탁(董卓)의 배를 불로 태울 때에 반드시 배꼽을 물어뜯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너는 모름지기 진퇴(進退)를 참작하고 잘된 일인가 못된 일인가 분별하라. 배반하여 멸망되기보다 어찌 귀순하여 영화롭게 됨과 같으랴. 다만 바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 장사(壯士)가 하는 짓을 택하여 갑자기 변할 것을 결정할 것이요,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여우처럼 의심만 하지 말라.

15
20

(이가원 옮김.)

- ◆ 도당 불순한 사람들의 무리.
- ◆ 이는 아녀자의~일인 것이다 황소가 귀순하려고 하자 그의 처첩(妻妾)들이 말렸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을 듣지 말라는 뜻이다.
- ◆ 당랑이~고집한다면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당랑거칠(螳螂拒輻).
- ◆ 용거 전투용 수레.
- ◆ 동탁의 배를~될 것이다 동탁이 죽음을 당한 뒤에 그의 배꼽에 불을 붙였더니 살에 기름이 많아서 3일 동안이나 탔다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곳에서 구연되는 서사 무가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서사 무가의 갈래적 특징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말(言)

(전략)

5

눈을 떠서 살펴보니

“죽으라고 버린 자식 말도 초면이고 얼굴도 초면이건마는 갑자 사월 초파일
날 꿈속에서 보던 선녀가 바로 네 얼굴이었구나.”

그럴 때

10

“내 딸이야 내 공주야. 이제는 역역히 네 얼굴을 봤이니 내가 죽어도 한이 없
고 살아도 한이 없고.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이제는 떠나지 말고 이별 두 글
자를 내지 말고 내 곁에 있어다오.”

손길을 잡고 얼마만침 울었던지.

15

산 사람일랑은 죽지도 않고 살아 있으면 천년만년을 가도 만날 날이 있지만
는 죽은 사람은 역역히 떠나가면 만날 날이 전혀 없다. 그 죽세는 오늘같이

“아부지요. 걱정하지 마옵소서. 서천 서역 약물 질어서루[◆] 아버님 병을 고쳐
드릴테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야야 그런 말을 말어라. 심찬[◆] 너의 언니들이 약물 지르러 못 가는데 나이
어린 네가 약물 지르러 보낸단 말이가?”

20

“아부지요 그 말하지 마옵소서. 자식의 도리로서 약물 질어 부모한테 봉양하
옵는 것은 떳떳한 일이옵고, 부모가 자식한테 떳떳이 효를 받는 것은 떳떳한
일이옵고, 옛날에 곽가[◆]라 하는 사람도 찬수[◆] 공경하려고 눈비 오는 날에 죽
순을 얻어다가 부모 공경한 일[◆]도 있어옵고 옛날에 제정이[◆]는 아버님 옥에
간혀 있는데 제 몸을 팔아 속죄한 일도 있어온데, 옛 효자만치 못할망정 불효
소녀 자식을 말리지나 마옵소서. 약물 질러 가겠니더.”[◆]

25

“오냐 그러면 네 맘이 뜻이 정 그렇다 하게 되면 내가 붙잡을 도리가 있겠
느냐마는 그렇지마는 이별 두 글자가 또다시 생겼구나.”

길대 부인의 거동 보소.

30

“야야 바리텍아 야야 바리텍아. 너를 지금까지 이별하구서 살았드니마는, 아
부님 살릴라구 약물 지르러 약수 삼천리 먼먼 길에 약물이 어디 있다구 네가
간단 말이가? 아이구 내 딸이야 내 딸이야. 이별 두 글자가 또 생기고 너와
나와 또다시 이별한단 말이가?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눈먼 자식이 효자질한

◆ 질어서루 ‘질어서’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

◆ 심찬 ‘힘찬’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 힘이 있고 씩씩한.

◆ 곽가 ‘곽거(郭巨)’의 와음. 중국 후한(後漢) 시대의 효자. 철 모르는 자식 때문에 부모님이 드실 반찬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겨 산 자식을 매장하기로 하고 땅을 파자 땅에서 금으로 된 술이 나왔다고 함.

◆ 찬수 반찬거리. 반찬의 종류.

◆ 죽순~공경한 일 ‘맹종 읍죽(孟宗泣竹)’ ‘맹종’은 중국 삼국 시대의 효자. 그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어 하였으나 한 겨울이라 대밭에 들어가 울며 하소연하였더니 죽순이 솟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함.

◆ 제정이 ‘제영이’의 와음. 중국 한(漢)나라의 효녀. 아버지가 죄를 지어 처형 당하게 되자 자신이 관비가 되어 그 죄를 대속하기를 청함.

◆ 가겠니더 ‘가겠습니다’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

‘바리데기’

주인공 ‘바리데기’가 무조신(巫祖神)이 된 사연을 노래하는 서사 무가이자 무속 신화(巫俗神話)이다. 이 작품은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오구풀이, 바리공주, 칠공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노래와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이 작품은 신에게 소원을 빌고 재앙을 막는 주술적 기능과 굿판에 모인 청중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오락적, 문학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바리데기’의 전통을 계승한 다양한 작품

- 동화: ‘바리공주’ (김승희)
- 만화: ‘바리데기’ (방학기)
- 소설: ‘바리데기’ (황석영)
- 시: ‘바리데기의 여행 노래’ (강은교)
- 연극: ‘바람의 딸’
- 모노드라마: ‘바리데기 바리공주’

- ◆ 가진 ‘갖은’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 온갖.
- ◆ 새면 ‘삼현(三絃)’의 와음. 거문고·가야금·당비파의 세 가지 현악기.
- ◆ 오시(午時) 십이시의 일곱째 시. 오전 열한 시부터 오후 한 시까지.
- ◆ 딸애기 ‘딸아이’가 바른 표현.
- ◆ 얼워 ‘얼러’가 바른 표현. 몸을 움직여 주거나 또는 무엇을 보여 주거나 들려주어서, 어린 아이를 달래거나 기쁘게 하여 주어.
- ◆ 옥녀(玉女) 선녀.
- ◆ 청대 ‘청태(靑苔)’의 와음. 푸른 이끼.
- ◆ 심줄 ‘힘줄’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

다고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노? 여봐라 가진 풍악에 가진 새면[◆]을 올려서루 바리데기 약속 삼천리 가는 길에 맘이라도 위로해 가지고 목욕이라도 시키시고 좋은 옷을 입혀 갖은 음식을 장만해 가지구 맘을 대우를 해서 보내야 안 되겠나?”

이리하여 삼천 궁녀 꽃밭 속에 가진 풍악 속에 가진 새면 속에 바리데기 앞에 가만 앉혀 놓고 살펴보니, 하늘에서 내려 왔는 무슨 선녀 같고 날아가는 기러기 같고, 날아가는 두견새 같고, 얼마나 자식에 사랑이라 하는 부모 마음은 말할 길이 전혀 없는데, 내일 오시[◆]가 되면 약물 질러 간다 하는 바리데기 얼굴을 살펴보니 처량하기 짝이 없고 구슬프기 한이 없어, 가진 풍악에 새면에 해놓고 눈물로, 흘리는 눈물을 머금고 딸애기[◆]를 한 번 들고 한 번 얼워[◆] 본다.

창(昌)

두두우 두두 두두두두 동계 동동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내 딸이야. 두우 두두 내 딸이야.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땅에 불끈 솟았드냐?
어디를 갔다가 예 왔느냐? 두우 두두 내 딸이야.
죽으라고 버렸디마는 십오 년만에 병든 부모 찾아서
날 찾아 올 줄도 누가 아나?
내 딸이야 내 공주야. 두우 동동 내 딸이야.
업어 볼가 안어 볼가? 둥기 동동 내 딸이야.
솟아 오르는 반달 으느 기미나 끼여서 곱기나 하고
둥글 안에 옥녀[◆] 씨들은 청대[◆]나 띠여 곱기나 하고
부뚜막에 금생미 안에 금자리 속에 금생미 같네.
두우 두우 내 딸이야.
둥글 안에 옥녀 씨들은 청띠나 띠여 곱기나 하고
둥글 둥글 두리 동동 동동…….

(관중들 “잘한다.” “좋다.”하는 함성을 지른다. 무녀는 춤을 추며 도느라고 무가가 잠시 중단된다.)

(중략)

창(昌)

아부지요 뼈 생겨나소. 아부지요 살 생겨나소.
아부지요 심줄[◆] 생기고 아부지요 일신이 생기소.

삼훈은 칠백[◆]이나 칠백은 흩어지고 삼훈은 모아 주소,
이리 씨 담고 저리 씨 담고
아부지 만 일신이 생겨나는구나.

말(言)

5 오색동화꽃[◆]을 놔 놓게 되면 죽은 사람인 아버지도 살리고 가장도 살리고 자
식도 살리고 형제간도 살리고.

불쌍코 가련하네. 애초에 초목 같은 사람 다 살릴까 싶어 가지고 서천 서역국
에 팔금강 지장보살님네가 굽어보시고 그 꽃을 놔 놓게 되면 사람마다 살리게
10 되면 인간 추밀어 못 살까 싶어 가지고 꽃은 다 시들어지고 꽃부리만 남도록
마련한다.

이리하여 오귀 대왕님 한 분밖에 못 살리는가 보더라.

아부지 자는 듯이 누웠구나.

가슴 속에 거북뺑[◆]이를 내여서루 방울방울 일곱 방울을 찌꺼 넣고서루[◆] 아버
지 입안에다가 시 방울[◆]을 씨끼니,

15 숨 터지는 소리가 발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맥이 오기 시작한다. 매기가 퍼떡퍼
떡 사방을 돌아다니며 맥을 전할 적에 매기가 궁구렁궁 도는구나. 빙글빙글 도
터니마는 숨 터지는 저 소리가 대천 저 한바다 황황 나불치던[◆] 소리던가? 대명
천지 밝은 날에 노수 벽락[◆] 치든 소리던가? 만학천봉 밑에 폭포 치던 소리던가?
대포 치던 소리던가? 총 쏘던 소리던가? 팡 하드니마는 숨이 터지는구나.

20 숨이가 터질 적에 그 즉시는 수천 명 자든 사람들이 뻘덕뻘덕 일어난다.

(김복순 구술, 최정여·서대석 채록)

- ◆ 삼훈(三魂)과 칠백(七魄) 사람의 마음에 있는 세 가지 영혼과 사람의 몸에 있는 일곱 가지 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오색동화꽃 무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꽃.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꽃으로 다부사리꽃, 살잡이꽃 등으로 불리기도 함.
- ◆ 거북뺑 거북뺑, 편병(扁瓶). 자라 모양으로 만든 병.
- ◆ 찌꺼 넣고서루 '부려 넣어서'의 경상도 방언.
- ◆ 시 방울 '세 방울'에 해당하는 경상도 방언.
- ◆ 나불치던 파도치던.
- ◆ 노수 벽락 '뇌성벽력'의 경상도 방언. 천둥소리와 벼락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이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전체 줄거리

블라국의 오귀 대왕은 길대 부인과 혼인하여 연이어 여섯 명의 딸을 낳는다. 아들을 원했던 오귀 대왕은 일곱 번째에도 딸이 태어나자 그녀를 내다 버린다. 세월이 흘러 오귀 대왕은 병을 얻어 앓게 된다. 대왕의 병을 고치려면 서천 서역에서 약물을 구해 와야 한다는 노승의 말에 여섯 딸은 모두 가기를 거부하고 바리데기만 홀로 서역으로 떠난다. 온갖 고난 끝에 서역에 도착한 바리데기는 약물을 구해 돌아오지만 이미 오귀 대왕은 죽어 상여가 나가고 있다. 구해 온 약물로 아버지를 살린 바리데기는 서역에서 본 죽은 이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을 돕는 무조신(巫祖神)이 된다.

내용 학습

1 '격황소서' 에서 작가가 '황소' 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써 보자.

내용 학습

2 '바리데기' 에서 '꽃' 과 '약물' 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격황소서' 를 한국 문학이라 할 수 있을지 '표현 언어', '내용', '작가' 의 측면에서 말해 보자.

| | |
|-------|--|
| 표현 언어 | |
| 내용 | |
| 작가 | |

목표 학습

4 '격황소서'와 비교하여 '바리데기'의 창작 과정과 구성상 특징을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5 '바리데기'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 중 어디에 속할지 토의해 보자.

적용 학습

6 다음을 참고하여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그 나라의 언어로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압록강은 흐른다'(이미륵)의 줄거리

나는 어린 시절 한학을 공부하다가 새 학교에 다녔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학교를 그만둔다. 그 후 의학 전문학교에 다니던 중 3·1 운동에 동참하였다가 일본군에게 쫓기게 된 나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국경인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게 된다.



작품 소개 1946년 독일 뮌헨 피퍼 출판사가 출판한 이 소설은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독일어로 쓰인 가장 빼어난 문장'이란 평가를 들으며 독일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한국의 풍습과 산하, 그리고 인정을 서정적인 독일어 문장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모두 24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근대 이후 한국 문학은 서구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문학의 전통이 단절된 것은 아니다. 전통은 이전 시대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문학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외래적인 요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다. 고전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음보율이나 문체, 해학적인 요소 등은 현대 문학에 계승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과 비교되는 한국 문학의 특질은 한국 문학의 주제 의식, 가치관, 표현 양식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나타난다. 한(恨)과 신명, 풍자와 해학, 멋, 은근과 끈기, 자연 친화 의식 등이 그것이다.

한은 아픔의 내면적 승화이고 신명은 정서의 외면적 표출로서, 판소리나 탈춤과 같은 연행물(演行物)에서 잘 드러난다. 풍자와 해학은 평민들의 낙천적인 의식이나 활력과 관련된 미의식으로, 판소리나 사설시조와 같은 조선 후기 평민 문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멋은 자유로운 변형을 선호하는 미의식이며, 은근과 끈기는 온화한 균형과 조화를 존중하는 미의식을 말한다. 자연 친화 의식은 조화와 귀의에 주안점을 둔 동양의 전통적 자연관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는 특히 조선 시대의 강호가도(江湖歌道)[◆]를 노래한 작품 속에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우리 문학은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이며,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그래서 현실적인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인간이 지닐 수밖에 없는 정서를 중심으로 시가 문학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문학이 전개되어 온 것은 우리 민족이 인간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미적 특질을 이해하는 일은 오늘날 한국 문학을 생산하고 수용하여 새로운 한국 문학의 전통을 창조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한국 문학의 특질은 한국 문학의 어떤 측면에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설정될 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자질이 더해지거나 빠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과 특질의 양상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 강호가도 조선 시대에, 은자(隱者)나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이 현실을 도피하여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면서 일으킨 시가 창작의 한 경향.

01 시집살이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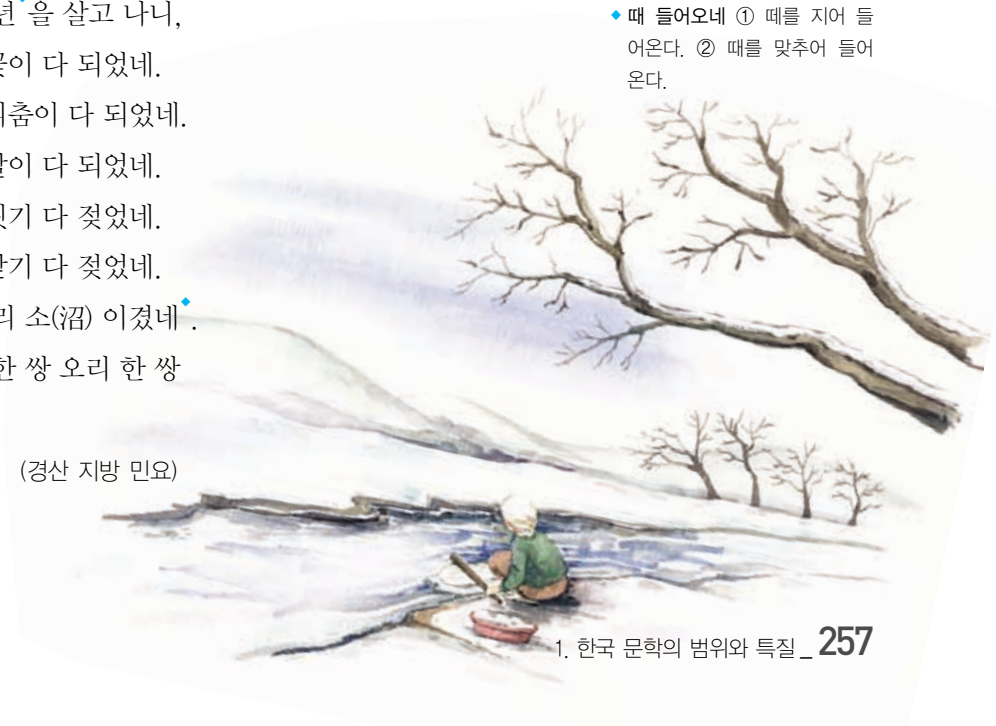
지은이 모름

이 작품은 오래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노래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5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춘 형님 시집살이 어떡데까?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밭에는 당추* 심고 뒷밭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10 둥글둥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짱어다가,
 아홉 술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15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뽀죽새요,
 시아지비* 뽀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새.
 20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 해서 삼 년이요 석삼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은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은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은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25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젖었네.
 두 폭불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젖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겼네*.
 그것도 소(沼)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 ◆ 분고개로 이 부분은 '보고 저 존'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음.
- ◆ 당추 고추.
- ◆ 수박 식기 그릇이 수박처럼 둥글다는 것을 표현함.
- ◆ 도리소반 둥글고 작은 밥상, 둘러앉아 먹는 데서 나온 이름.
- ◆ 동세 동서.
- ◆ 할림새 남의 허물을 잘 고해바치는 새. '할림'은 '할리다'(참소하다)에서 온 말.
- ◆ 시아지비 시아주비, 남편의 동생.
- ◆ 석삼년 세 번 거듭되는 삼 년 곧 아홉 해라는 뜻으로, 여러 해를 이르는 말.
- ◆ 소 이겼네 연못을 이루었네.
- ◆ 때 들어오네 ① 때를 지어 들어온다. ② 때를 맞추어 들어온다.

(경산 지방 민요)





이 작품은 농촌을 배경으로 데릴사위와 장인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 ◆ 툭툭하게 생김새가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 ◆ 혈없이 '영락없이'의 강원도 방언.
- ◆ 감참외 참외의 하나. 속이 잘 익은 감같이 붉고 맛이 좋다.
- ◆ 파(破) 사람의 결점.
- ◆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몸가짐이나 행동을 몹시 경망스럽게 한다고.
- ◆ 깨빱을 쳐서 되게 메어쳐서, 세게 집어던져서.
- ◆ 제소리 본심에서 나오는 말.
- ◆ 성례(成禮) 혼인의 예식을 지낸.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구 또 개떡이나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십 년이 아래니까, 올해 열여섯인데 몸은 남보다 두 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흰칠히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혈없이 감참외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단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툭툭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그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파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장인님은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 없이 풀밭에서 깨빱을 쳐서 흙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해 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앓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그러나 이날은 웬일인지 성한 밥째로 발머리에 곱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또 내외를 해야 하니까 저만큼 떨어져 이쪽으로 등을 향하고 웅크리고 앉아서 그릇 나기를 기다린다.

❓ '점순이'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생각해 보자.

내가 다 먹고 물러섰을 때, 그릇을 와서 챙기는데, 그런데 난 깜짝 놀라지 않았느냐. 고개를 푹 숙이고 밥함지에 그릇을 포개면서 날더러 들으라는지 혹은 제소린 지,

“밤낮 일만 하다 말 텐가!”
하고 혼자서 종알거린다. 고대 잘 내외하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난 정신이 얼떨떨했다. 그러면서도 한편 무슨 좋은 수가 있는가 싶어서 나도 공중을 대고 혼잣말로,

“그럼 어떡해?”
하니까,
“성례 시켜 달라지 뭘 어떡해…….”



김유정(1908~1937)

강원 춘천 출생. 소설가. 해학적 시각으로 어둡고 삭막한 농촌 현실과 농민들의 곤궁한 삶을 그렸다. 주요 작품으로 '동백꽃', '만무방', '금따는 콩밭' 등이 있다.



하고 되알지게 [◆] 쏘아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산으로 그저 도망친다.

나는 잠시 동안 어떻게 되는 심판인지 맥을 몰라서 그 뒷모양만 덩덤히 바라 보았다. 봄이 되면 온갖 초목이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한다. 사람도 아마 그런 가 보다, 하고 며칠 내에 부쩍(속으로) 자란 듯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5 아니다. 이런 걸 멀쩡하게 안직 어리다구 하니까…….

우리가 구장 [◆]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 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구 옷수염이(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으로 뽀죽히 빠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담는 손버릇이 있다.

10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 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

먼저 뚱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

15 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춤에…….”

하고 첫 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곁을 내려고 든다. 뱀두 뱀이래야 좋으냐구 창피스러우니 낱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당조짐을 받아 [◆]오면서

20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두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꺾 밟고 걸논 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김유정 소설의 문체적 특징

1930년대 농민 혹은 소시민이 사용하던 입말과 사투리, 비속어를 사용하여 이들의 생활 언어를 생생하게 살렸다. 묘사와 대화에 의한 장면의 극적 제시, 시적·서정적 묘사, 독백체나 대화의 묘미 등을 통해 일제강점기 농촌의 궁핍상과 순박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이들에 대한 애정과 슬픔을 해학적으로 드러냈다.

◆ 되알지게 힘주는 맛이나 억지손(무리하게 억지로 해내는 솜씨)이 몹시 세다. 몹시 올차고 아무지게.

◆ 구장(區長) 예전에, 시골 동네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

◆ 당조짐을 받아 단단히 다짐을 받아.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펍 딱한 모양이었다. 하키야 구장님뿐 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5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이 샷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쭉해져서 입맛만 짹짹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더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10

“글쎄, 이 자식이!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콧배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꺄꺄 웃더니(그러나 암만 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골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뼈를 펍 치는 것이다.

15

더럽다. 나두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콧 떼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쭐근하고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쌍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니 차마 못 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펍 쟁그러웠다.

20

(후략)

❓ ‘장인님’의 성격이 어떠한 지 생각해 보자.

- ◆ 왜 날 보구 떼냐 왜 나에게 떼를 쓰느냐.
- ◆ 콧배기 귀.
- ◆ 쟁그러웠다 웃음이 명랑하게 자꾸 피어났다. ‘쟁글거리다’에서 온 말.

전체 줄거리

‘나’는 점순이와 혼인시켜 준다는 장인 봉필의 말만 믿고 3년 7개월을 돈도 받지 않고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 나는 봉필에게 성례를 하게 해 달라고 대들지만 그는 점순이가 덜 컸다는 핑계로 혼인을 미룬다. 그런데 내가 봉필의 세 번째 데릴사위감이며, 만물은 머슴 대신 데릴사위를 열 명이나 알아치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나는 아프다는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는다. 역시 봉필의 공갈과 매질로 이어지지만 ‘나’도 이번에는 지지 않고 결사적으로 장인의 급소를 붙잡고 늘어진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에게 혼인시켜 달라고 요구하도록 부추긴 점순이가 내 편을 들지 않고 봉필의 편에 서서 나를 비난한다. 나는 맥이 모두 빠져 봉필의 매질을 그냥 맞고만 있다.

내용 학습

1 '시집살이 노래'에서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표현한 대목과, '봄 봄'에서 장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목표 학습

2 '시집살이 노래'와 '봄 봄'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표현된 내용을 관련 지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특성을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작품들과 '시집살이 노래'에서 볼 수 있는 작중 인물 묘사의 공통점을 말해 보자.

가 장구쟁이 영감의 마모색을 말합소.

할멈 마모색은 말새끼지.

장구쟁이 소모색은.

할멈 소모색은 소새끼지.

장구쟁이 인물걸이를 말합소.

할멈 인물걸이 참 잘 생겨 자빠라졌지. 난간이마♦에 우멍눈♦, 삼동코에 술을 한 반 잔쯤 먹었는지 얼굴이 불그레하고 오뉴월에도 개가죽관을 면치 못하는 영감일세.

- 지은이 모름, '강령 탈춤'에서

♦ 난간이마 정수리가 넓고 툇 불거져 나온 이마. ♦ 우멍눈 움푹 들어간 눈.

나 내려선 것을 보니, 실로 거판진♦ 체집입니다.

허리를 안아 본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아름답고도 반은 실히 될까 봅니다. 그런 데다가 키도 알맞게 다섯 자 아홉 치는 넉넉합니다. 얼핏 알아듣기 쉽게 빗대면, 지금 그가 타고 온 인력거가 장난감 같고, 그 큰 대문간이 들어서 기도 전에 사뭇 그들먹합니다.

얼굴도 좋습니다.(중략)

초리가 길게 째져 올라간 봉의 눈, 준수하니 복이 들어 보이는 코, 뿌리가 추욱 처진 귀와 큼직한 입모, (중략)

이 풍신♦ 이야말로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더면 일도의 방백♦(一道方伯)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 착오를 일으키고, 동경·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 채만식, '태평천하'에서

♦ 거판진 '거방진'의 방언. 몸집이 큰. ♦ 방백 '도지사'를 예스럽게 이르는 말.
♦ 풍신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 ♦ 대판 '오사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보자.

| | |
|-------------------|--|
|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은 (ㅎㄱㅇ)이 우리말과 우리글로 우리의 생활 체험과 사상,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다. 한국 문학의 영역은 (ㅇㅁ) 문학과 글말 문학으로 나눌 수 있고, 글말 문학은 다시 한글 문학과 (ㅎㅁ) 문학으로 나눌 수 있다. |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의 전통은 전통을 창조적으로 (ㄱㅅ)하고, 외래적인 요소를 주체적으로 (ㅅㅇ)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 문학의 특질로 은근과 끈기, (ㅍㅈ)와 해학, 한(恨)과 신명, 멋, (ㅈㅇ) 친화 의식 등을 들 수 있다. |

확인하기

2 작품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 | |
|---------|---------------------------|
| 격황소서 |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 바리데기 | 한국 문학의 어느 갈래에 속하는가? |
| 시집살이 노래 | 한국 문학의 특질이 드러나는 부분은 어디인가? |
| 봄 봄 | 한국 문학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작가·언어·내용 등을 기준으로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를 이해하였는가? | | | |
| 한국 문학사에 등장한 다양한 갈래를 이해하였는가? | | | |
|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전통과 특질을 이해하였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2 한국 문학의 역사

이 단원에서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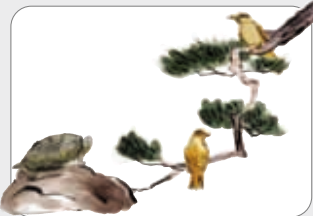
- 각 시기별 문학과 그 시기의 삶을 연관 지어 이해한다.
- 한국 문학사에서 갈래의 다양한 전개와 역사적 구현 양상을 이해한다.
- 각 시기별 문학의 양상을 오늘날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생각 열기

앞 단원에서 배운 작품들이 우리 문학사의 흐름 중 어디에 속할지 생각해 보고 표로 정리해 보자.

| | | |
|------------------------|-----------|--|
| 신라의 삼국 통일 (676) | 원시·고대 문학 | |
| 고려 건국 (918) | | |
| 몽고의 침입 (1231~1254) | 중세 문학 | |
| 조선 건국 (1392) | | |
| 훈민정음 창제 (1443) | 근대 태동기 문학 | |
| 임진왜란 (1592~1598) | | |
| 병자호란 (1636) | 근대 문학 | |
| 동학 농민 운동 및 갑오개혁 (1894) | | |
| 대한 제국 설립 (1897) | 근대 문학 | |
| 주권 상실 (1910) | | |
| 3·1 운동 (1919) | 현대 문학 | |
| 8·15 광복 (1945) | | |
| 6·25 전쟁 (1950) | 현대 문학 | |
| 4·19 혁명 (1960) | | |
| 광주 민주화 운동 (1980) | | |
| 제24회 서울 올림픽 대회 (1988) | | |

<작품> '별 헤는 밤' (윤동주), '외딴 방' (신경숙), '수오재기' (정약용), '자화상' (서정주), '심생전' (이육), '속미인곡' (정철), '규원가' (허난설헌), '님의 침묵' (한용운), '아리랑' (지은이 모름), '성에꽃' (최두석), '청노루' (박목월), '도요새에 관한 명상' (김원일), '사하촌' (김정환), '뫼야' (이육사), '허생전' (박지원), '농무' (신경림), '원고지' (이근삼), '생명의 서' (유치환), '규중칠우쟁론기' (지은이 모름), '꽃' (김춘수), '한림별곡' (한림제유), '차마설' (이곡), '고향' (백석), '화랑의 후예' (김동리), '광장' (최인훈),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나목' (박완서), '해' (박두진), '토지' (박경리)



(1) 원시·고대 문학

- 01 고대 가요 두 편 •해가 | 지은이 모름
- 02 원왕생가 | 광덕 •정읍사 | 지은이 모름
- 03 단군 신화 | 지은이 모름 •온달 | 지은이 모름



(2) 중세 문학

- 01 청산별곡 | 지은이 모름, 용비어천가 | 정인지 등
 •일신이 사자 훈이~ | 지은이 모름
- 02 한시 두 편 •들국 | 김용택
- 03 국순전 | 임춘
- 04 만복사저포기 | 김시습



(3) 근대 태동기 문학

- 01 만홍 | 윤선도 •논밭 갈아~ | 지은이 모름, 개화 | 이호우
- 02 누항사 | 박인로 •상춘곡 | 정극인
- 03 흥부전 | 지은이 모름 •흥보가 | 지은이 모름, 연의 각 | 이해조
- 04 하회 별신굿 탈놀이 | 지은이 모름 •봉산 탈춤 | 지은이 모름



(4) 근대 문학

- 01 해에게서 소년에게 | 최남선 •동심가 | 이중원, 봄은 간다 | 김억
- 0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이상화 •인동차 | 정지용
- 03 금수회의록 | 안국선
- 04 삼대 | 염상섭 •창선감의록 | 조성기



(5) 현대 문학

- 01 눈 | 김수영 •이 사진 앞에서 | 이승하
- 02 북어 | 최승호 •멸치 | 김기택
- 03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조세희 •공사장 끝에 | 이시영
- 04 불모지 | 차범석

(1) 원시 · 고대 문학

원시 · 고대 문학은 우리 민족이 이 땅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원시 시대부터 삼국이 국가로서 기틀을 확립하기 이전까지 창작 · 수용된 문학을 말한다.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다양한 현실적 욕구를 초자연적 존재에게 의탁하는 주술적 의식을 행하였다. 주술적 의식은 춤과 노래와 극적 요소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종합 예술적 성격을 띤다. 우리 민족의 문학은 바로 이 종합 예술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전 세계의 보편적인 양상이다.

고대 가요

고대 가요는 구전되다가 한역(漢譯)되었기 때문에 그 뜻만 전할 뿐 어떻게 불렀는지 본디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고대 가요는 대체로 배경 설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는데 원시 종합 예술의 집단 의식적 성격을 계승하는 한편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내용의 노래로 발전하였다. 집단적 · 제의적인 성격을 지닌 ‘구지가(龜旨歌)’, 개인적 경험과 서정을 다룬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황조가(黃鳥歌)’ 등이 전해진다.



‘구지가’가 새겨진 비석 ‘영대왕가비’

건국 신화

신화는 세상의 기원, 미래에 대한 예언,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의 유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원시 ·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신화의 내용과 구조가 고대 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건국 신화의 바탕이 되었다.

건국 신화는 고조선 이후 부여 · 고구려계의 해모수, 해부루, 동명왕, 금와왕 등에 얽힌 신화와 신라의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등의 신화, 가락국 김수로왕의 신화, 일본에 건너가 나라를 세웠다는 연오랑 · 세오녀의 신화, 탐라국의 고을라 · 양을라 · 부을라에 얽힌 신화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십여 세기 동안 나타난다. 이들 신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이후의 영웅을 다룬 문학의 본보기가 된다.

한문 문학의 출발

독자적인 표기 체계를 갖지 못한 우리 민족은 당시 동아시아의 공동 문어인 한자

우리나라 건국 신화의 공통점

- 국조(國祖)의 부계 혈통을 천신으로 설정함.
- 인간 중심적 사고에 바탕을 둠.
- 현세 중심의 낙관주의적 태도를 취함.

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고대 국가의 통치 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주로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서나 국내외 정치 및 외교 문서 등이 한자로 기록되며 당시 한문 문학은 상당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시기의 한문 문학 작품으로 을지문덕, 진덕 여왕, 설총, 최치원 등의 작품이 전해진다. 또한 발해를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아 발해의 한문 문학이 융성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하는 발해의 작품은 많지 않지만 ‘정혜공주묘비명’ 등의 비문이 전하고, 일본의 문헌에 양태사, 왕효렴 등의 작품이 남아 있다.

향가

향가는 주로 신라 시대에 창작된 우리말로 된 시가를 가리킨다. 향가는 4구체·8구체·10구체의 형식이 있으며 향찰로 표기되었다. 4구체 향가가 민요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10구체 향가는 개인작으로서 시적 기교가 매우 뛰어나고 특히 마지막 행에 나타나는 감탄사는 이후 시조나 가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한국 시가의 전통을 이룬다. 향가의 담당층은 매우 다양하였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현전하는 작품의 작가는 대개 당시의 지배층이었던 승려 또는 화랑이다. 향가는 오늘날까지 “삼국유사(三國遺事)”에 14수, “균여전(均如傳)”에 11수가 실려 모두 25수가 전한다. 고려 때 균여(均如)가 지은 ‘보현십원가(普賢十願歌)’를 마지막으로 문헌적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연극의 자취

자료를 통해 고구려에는 여러 가지 탈놀음과 꼭두각시놀음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고, 백제의 경우도 탈춤과 비슷한 것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에는 팔관회와 처용무가 있었고, 한가위 때에는 사람들이 가무백희(歌舞百戲)를 즐겼다.

한시

- ‘여수장우증문서’ (을지문덕)
- ‘추야우중’ (최치원)
- ‘야청도의성’ (양태사)

향찰

향가의 표기법으로 한자의 음(音)과 훈(訓)을 빌려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는 방법이다. 향찰은 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표기 체계라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주체적 의식을 잘 보여준다.

- ◆ 가무백희 주로 궁중 행사 때에 벌이던 노래와 춤 및 온갖 놀이.

01 고대 가요 두 편

이 작품들은 문학의 초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고대 가요이다. 배경 설화를 찾아 읽고 노래의 성격을 짐작해 보자.

구지가(龜旨歌)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지은이 모름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



(권두환 옮김.)

5

황조가(黃鳥歌)

훨훨 나는 피꼬리는
암수 서로 의지하는데
외로워라 이 내 몸은
누와 함께 살아갈까.

유리왕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권두환 옮김.)

10



유리왕(?~18)

고구려 제2대 왕. 부여에서 아버지 동명 성왕을 찾아 고구려에 입국하여 태자로 책립되고 동명 성왕에 이어 즉위하였다. 3년(유리왕 22년)에 도읍을 홀본(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겼다.

내용 학습

1 '구지가'에 나타난 화자의 말하기 방식을 화자가 바라는 바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내용 학습

2 '황조가'에서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난 시어나 구절을 찾아보자.

목표 학습

3 배경 설화를 찾아 읽은 후 '구지가'와 '황조가'의 특성을 비교해 보자.

| | 구지가 | 황조가 |
|--------|-----|-----|
| 창작 주체 | | |
| 화자의 태도 | | |
| 노래의 성격 | | |

적용 학습

4 다음 작품을 읽고 '구지가'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약탈해 간 죄 얼마나 큰가?
네가 만약 거역하고 내다 바치지 않으면
그물을 쳐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龜乎龜乎出水路
掠人婦女罪何極
汝若悖逆不出獻
入網捕掠燔之喫

- 지은이 모름, '해가'

02 원왕생가(願往生歌)

광덕

이 작품은 달을 통해 극락왕생의 바람을 표현한 향가이다. 향가의 특징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대표적인 향가 작품들

- 4구체: '서동요', '도솔가'
- 8구체: '모죽지랑가', '처용가'
- 10구체: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안민가'

- ◆ 무량수불 아미타불을 달리 이르는 말.
- ◆ 원왕생 극락왕생을 바람.
- ◆ 사십팔 대원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마음먹었던 마흔여덟 가지 큰 소원.

달님이시여, 이제
서방까지 가서서
무량수불 앞에
일러다가 사뢰소서.
다짐 깊으신 부처님께 우리러
두 손을 모아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 대원을 이루실까.

月下伊底赤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多可支白遣賜立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此身遺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5

10

(양주동 해독)



광덕(廣德)

신라 문무왕 때의 승려. 엄장(嚴莊)과 더불어 극락왕생을 이루었다는 설화의 주인공이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을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
|------|--|
| 1~4행 | |
| | |
| | |

목표 학습

2 이 작품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노래를 읽고 기원의 대상과 내용을 '원왕생가'와 비교해 보자.

들하 노피곰 도드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저재 너러신고요.
 어기야 즌 덕롤 드디올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내 가논디 점그롤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롱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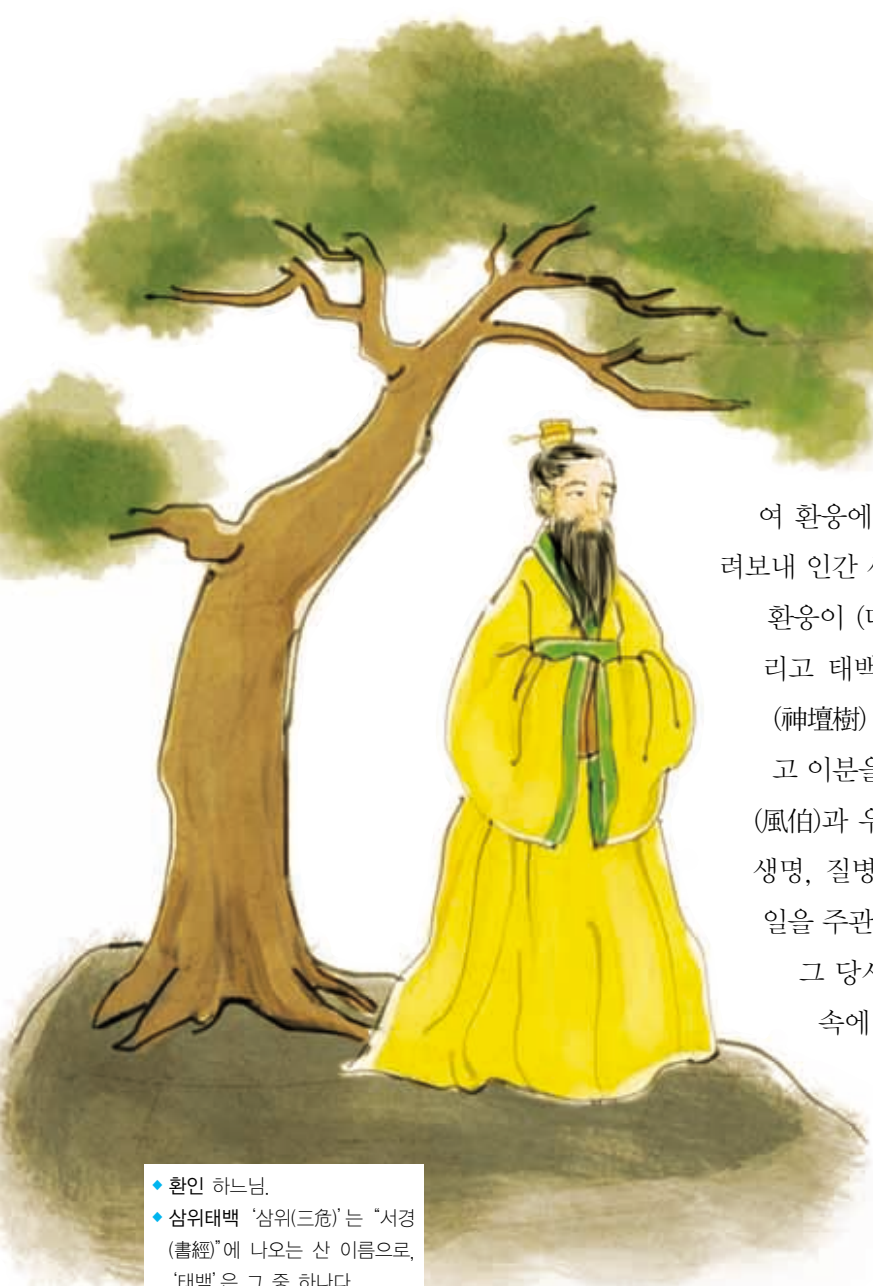


- 지은이 모름, '정읍사'

03 단군 신화

지은이 모름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뿌리와 고조선의 건국 과정을 보여 주는 건국 신화이다. 신화에 담겨 있는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고기(古記)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 환인(桓因) 제석(帝釋)을 말한다. 5

의 서자 환웅(桓雄)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는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 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 10

여 환웅에게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즉시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다스리는 데 필요한)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 즉 지금의 묘향산 꼭대기의 신단수(神壇樹)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神市)라 하 15

고 이분을 환웅 천왕이라고 한다. 환웅 천왕은 풍백(風伯)과 우사(雨師)와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

그 당시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같은 굴 20 속에 살고 있었는데,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항상 기원했다. 이때 환웅이 신령스러운 쭉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말했다.

- ◆ 환인 하느님.
- ◆ 삼위태백 '삼위(三危)'는 "서경(書經)에 나오는 산 이름으로, '태백'은 그 중 하나다.
- ◆ 천부인 신의 위력과 영감한 힘의 표상이 되는 물건.
- ◆ 풍백과 우사와 운사 각각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며 환웅의 통치를 보필하는 존재.

‘너희가 이것을 먹되,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상을 얻으리라.’

곰과 호랑이는 썩과 마늘을 받아먹으면서 삼칠일(三七日) 동안 금기했는데, (금기를 잘 지킨)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지만, 금기를 지키지 못한 호랑이는 사
5 람의 몸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웅녀(熊女)는 혼인할 상대가 없어 매일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단군왕검이라고 불렀다.

10 단군왕검은 당요(唐堯)가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庚寅年)^{당요가 즉위한 원년이 무진년(戊辰年)이니, 50년은 경인년이 아니라 정사년(丁巳年)이므로 사실이 아닌 듯하다.}에 평양성(平壤城)^{지금의 서경(西京)이다.}에 도움을 청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불렀다.

다시 도움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弓忽山)^{어떤 곳에 궁이 방(方)으로 되어 있다.} 또한 금미달(今彌達)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1,500년 동
15 안 백악산에서 나라를 다스렸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즉위하던 기묘년에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했다. 그래서 단군은 장당경(藏唐京)^{장당경 황해도 구월산 기슭과 만악산에 있던 땅 이름.}으로 옮겼다가 그 후 아사달로 돌아와 숨어 살면서 산신이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908 세였다.”

(김원중 옮김.)



❓ 환웅'과 '웅녀'의 혼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자.

◆ 장당경 황해도 구월산 기슭과 만악산에 있던 땅 이름.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다음 소재들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를 정리해 보자.

| | |
|-------------|--|
| 풍백, 우사, 운사 | |
| 호랑이, 곰 | |
| 쑥, 마늘, 100일 | |

목표 학습

2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말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작품을 읽고 인물의 삶을 드러내는 방식을 ‘단군 신화’와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 사람이다. 용모는 구부정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겼지만, 마음씨는 빛이 났다.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항상 밥을 빌어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떨어진 옷과 해진 신발을 걸치고 시정(市井) 사이를 왕래하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니 왕이 놀리며 말했다.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자라면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왕은 매번 이런 말을 하였다.

딸의 나이 십육 세가 되어 왕이 딸을 상부(上部) 고 씨에게 시집보내고자 하니, 공주가 왕에게 말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무슨 까닭으로 전날의 말씀을 바꾸십니까? 필부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존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 노릇 하는 이는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이 잘못되었으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말했다.

“네가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정 내 딸이 될 수 없다. 어찌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너는 네 갈 데로 가거라.”

- 지은이 모름, ‘온달’에서

◆ 시정 인가가 모인 곳.

◆ 상부 고 씨 상부는 고구려의 오부(五部) 중 동부(東部), 고 씨는 동부를 대표하는 높은 귀족일 것으로 추정됨.

◆ 필부(匹夫) 신분이 낮고 보잘것없는 사내.

◆ 지존(至尊)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2) 중세 문학

중세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전기 즉, 임병양란 이전까지이다. 중세 전기 문학의 주된 작자층은 귀족이었으며, 무신란 이후에는 신흥 사대부라고 불리는 새로운 작자층이 등장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에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어 우리 문학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고려 속요와 경기체가(景幾體歌)

고려 시대를 대표하는 시가로 고려 속요와 경기체가가 있다. 고려 속요는 주로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별의 정한, 삶의 고뇌와 같은 민중의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노래이다. 대체로 3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고 여음과 후렴구가 있으며 여러 개의 연이 중첩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고려 속요는 궁중에 유입되어 구전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정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 하여 많은 작품들이 삭제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조선 시대의 유교 윤리관에 비추어 남녀 간의 애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 저급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경기체가는 고려 중엽에 새롭게 등장한 갈래로 신흥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학문과 풍류를 노래한 지배층의 문학이다. 3·4음보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고 대상에 대한 감흥을 노래한 교술시로 조선 초기까지 이어져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제약과 관습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었다.

가사(歌辭)와 시조(時調)

고려 말에 새롭게 등장한 시가로 경기체가 외에도 가사와 시조를 들 수 있다. 가사는 4음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비교적 길게 서술된 시가이다. 경기체가보다 형식이 자유로워 서정적인 내용이나 교술적인 내용을 잘 담아낼 수 있었다. 초기의 작품으로는 불교 포교의 목적으로 지은 '승원가(僧元歌)', '서왕가(西往歌)' 등이 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사대부들이 주로 가사를 지었으며 자연 친화, 충절 등을 다루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정극인의 '상춘곡', 송순의 '면앙정가',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이 있다.

시조는 3장 6구 12음보라는 간결한 형식과 절제된 언어 표현을 사용한 새로운 정형적 서정시이다. 시조는 한시에 쓰인 기·승·전·결의 전개 방식을 3행으로 압축

향가계 여요

향가와 고려 속요 사이의 과도기 형태의 노래. 고려 의종 때 참소로 귀양을 간 정서가 억울함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한 '청과정곡'이 있다.

'경기체가'라는 명칭

'경(景)과 잇더 후니잇고' 혹은 '경기하여(景幾何如)'라는 후렴구 때문에 붙여졌다.

◆ 남녀상열지사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가사라는 뜻으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이 '고려 속요'를 낚잡아 이르던 말.

하여 표현한 것이며, 시상이 급격하게 마무리되는 종장 첫 구의 감탄사는 10구체 향가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시조는 유교 윤리에 입각한 사대부들에 의해 주로 창작되었으며 충절, 회고, 자연 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조의 작자층과 내용은 점차 다양해졌는데, 특히 기녀들은 남녀 간의 애정을 자유분방하게 노래함으로써 사대부의 시조와 다른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악장(樂章)

조선의 건국과 함께 지어진 악장은 국가의 공식 행사에서 불리던 노래로, 제왕의 위업을 기리고 건국을 정당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악장은 한시는 물론 우리말로 된 것까지 지어졌지만 문학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 충렬왕 11년(1285)에 승려 일연이 쓴 역사책. 단군·기자·대방·부여의 사적(史跡)과 신라·고구려·백제의 역사를 기록하고, 불교에 관한 기사·신화·전설·시가 따위를 풍부하게 수록하였다.

가전체 작품의 소재

- 돈: ‘공방전’
- 대나무: ‘죽부인전’
- 종이: ‘저생전’
- 얼음: ‘빙도자전’
- 지팡이: ‘정시자전’

서사 문학의 확대와 소설의 등장

설화는 입말로 전승되다가 고려 시대에 한문으로 많이 기록되었으며, 고려 후기에는 주체 의식을 드러내는 역사 문학과 설화를 담은 문집이 많이 등장하였다. 박인량이 편찬한 “수이전”에서 설화 문학은 새로운 모습을 보였으며, 역사서인 일연의 “삼국유사”, 김부식의 “삼국사기” 등에도 설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사람의 일생을 압축적으로 다루어 교훈을 주고자 한 전(傳)이 널리 지어졌으며, 사물을 의인화한 가전(假傳)이 등장하였다. 가전은 교술적 성격에 창의성이 더해진 이야기라는 점에서 소설에 좀 더 다가섰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런 토대 위에서 중국의 “전등신화(剪燈新話)”에 영향을 받은 김시습의 “금오신화(金鰲新話)”가 탄생하였다.

극 문학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팔관회(八關會),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발생한 연등회(燃燈會), 나례(儺禮) 등의 놀이가 있었으나, 연극의 면모를 온전히 갖추지는 못하였다. 중세 시대에 들어와 굿의 제의적 의미가 점차 축소되고 놀이의 의미가 강화되면서 무당굿 놀이라고 하는 민속극적 놀이가 생겨났다. 또



꼭두각시놀음 인형

한 민간에서는 농악대 곳에서 탈춤이라는 민속극이 생겨났는데 탈춤은 전승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여 조선 후기로 이어졌다.

한문학의 발전

유학을 익힌 신라 말기의 육두품 문인들이 과거 제도를 통해 고려의 귀족이 되면서 고려 시대에는 우리말 노래와 함께 한시가 크게 발전하였다.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정지상, 김부식 등이 있으며, 무신란 이후에는 이인로, 임춘, 이규보 등이 많은 한시를 남겼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흥 사대부는 한시는 물론 다양한 갈래의 한문학을 발전시켰다. 대표적인 문인으로 이제현, 이색, 정몽주 등이 있으며, 특히 이제현은 우리말 노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수집하여 한시로 옮긴 소악부(小樂府)를 여러 편 남기기도 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새로운 국가 질서와 이념에 따라 한문학도 재정비되었으며 작자층의 처지와 지향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서거정, 김종직, 이달 등이 있으며 여성 작가로는 허난설헌이 이름을 널리 알렸다.

훈민정음의 창제

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이 창제되며 한글 문학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창제 직후에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등을 지어 새로운 문자가 우리말 노래를 기록하기에 적합함을 입증하였으며, 유·불교의 경전이나 두보의 시를 번역하여 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구전되던 옛 노래들을 우리말 모습대로 문헌에 정착시킨 것은 한글 문학에 있어 획기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
건국 시조들의 영웅적인 행적을 찬양한 왕조 서사시.

‘월인천강지곡’
석가모니의 일생을 다룬 불교 서사시.



훈민정음

01 청산별곡(靑山別曲)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이 작품들은 고려 시대에 창작된 고려 속요와 조선 초기에 창작된 악장이다.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형식과 내용을 비교하며 읽어 보자.

청산별곡(靑山別曲)

지은이 모름

대표적인 고려 속요 작품들

- 이별의 정한:
'가시리', '서정별곡'
- 율령체: '동동'
- 남녀 간의 사랑:
'만전춘', '쌍화집'
- 부모에 대한 사랑:
'상저가', '사모곡'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렁공 더렁공 흑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녹무자기 구조개 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 살어리랏다 살겠노라. 살리로다.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 ◆ 멀위랑 머루랑.
- ◆ 널라와 시름 한 너보다 시름 많은.
- ◆ 가던 새 날아가던 새(鳥). 혹은 '갈던 사래(이랑)'로 보기도 함.
- ◆ 잉무든 장글란 이끼 묻은 쟁기 일랑.
- ◆ 디내와손더 지내 왔구나. 지내 왔도다.
- ◆ 누리라 마치던 돌코 누구를 맞이던 돌인가?
- ◆ 피리도 괴리도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 ◆ 녹무자기 구조개 나문재(海草)와 굴과 조개.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에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희금(奚琴)을 혀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 드로라 듣는다.
- ◆ 에정지 외딴 부엌이나 마당.
- ◆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사슴의 가면을 쓴 광대가 장대에 올라.
- ◆ 설진 강수를 비조라 독한 강술을 빛는다.
- ◆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조롱박꽃 누룩이 매워서 붙잡으니.

5 가다니 비브른 도끼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흐리잇고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10 해동(海東) 육룡(六龍)이 느르샤 일마다 천복(天福)이시니
 고성(古聖)이 동부(同符) 하시니

정인지 등

- ◆ 해동 우리나라.
- ◆ 육룡 여섯 용. 여기서는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이성계), 태종(이방원) 등 조선 건국기의 여섯 임금을 일컫는 말.
- ◆ 고성 옛 성현. 여기서는 '중국'의 옛 성군들을 일컬음.
- ◆ 동부 짝이 되어 일치함.

<제1장>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뭇씨 곱 도쿄 여름 하나니
 시미 기픈 므른 그르래 아니 그츄씨 내히 이러 바라래 가느니

- ◆ 불휘 뿌리.
- ◆ 뭇씨 움직이니.
- ◆ 도쿄 좋고.
- ◆ 여름 열매.
- ◆ 하나니 많으니.

<제2장>

15 천세(千世) 우희 미리 정(定)호산 한수(漢水) 북(北)에 누인개국(累仁開國)
 호샤 복년(卜年)이 굶 업스시니
 성신(聖神)이 니샤도 경천근민(敬天勤民) 호샤사 더욱 구드시리이다
 님금하 아로쇼셔 낙수(洛水)에 산행(山行)가 이셔 하나빌 미드니잇가.

- ◆ 누인개국 어진 덕을 쌓고 나라를 열.
- ◆ 복년 왕조의 운수.
- ◆ 굶 끝.
- ◆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히 힘씀.
- ◆ 산행 사냥.

<제125장>

내용 학습

1 두 작품의 형식 및 표현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목표 학습

2 두 작품이 창작된 시기와 창작 주체를 조사해 보고,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비교해 보자.

적용 학습

3 '청산별곡' 과 다음 작품을 견주어 내용상 연관성과 표현상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일신(一身)이 사자 훈이 물쫓 계워 못 견딜썸
 피(皮)스겨 ㄹ튼 갈양니 불리알 ㄹ튼 슈통니 줄인니 ㄹ씬니 존 별록 굴근 별
 록 강별록 왜(倭)별록 기는 놈 썬는 놈에 비파(琵琶) ㄹ튼 빈대 샷기 사령(使令)ㄹ튼
 등에아비 갈짜귀 삼의약이 셴 박희 높은 박희 박음이 거절이 불이 썸족흔 목
 의 달이 기다흔 목의 야윈 목의 술진 목의 글입애 썸록이 주야(晝夜)로 빈 쟈 업씨
 물건이 썸건이 빨건이 썸건이 심(甚)흔 당(唐)빌리 예셔 얼어왜라
 그 중(中)에 춤아 못 견들흔 오유월(五六月) 복(伏) 더위에 쉬포린가 흥노라

- 지은이 모름

- ◆ 피스겨 피의 겨. '피'는 벗과의 한해살이풀.
- ◆ 갈양니 아주 작은 이.
- ◆ 슈통니 굵은 이.
- ◆ 등에아비 '등에'의 옛말.
- ◆ 갈짜귀 각다귀. 모양은 모기와 비슷하나 크기는 더 크다.
- ◆ 삼의약이 사마귀.
- ◆ 박희 바퀴벌레.
- ◆ 거절이 거저리. 거저릿과의 곤충.
- ◆ 글입애 그리마.
- ◆ 당빌리 큰 비루. '비루'는 개나 말, 나귀 따위의 피부가 헐고 털이 빠지는 병. '당'은 크다는 뜻.

• 내용상 연관성:

• 표현상 차이점:

02 한시 두 편

이 작품들은 고려 시대에 창작된 한시이다. 화자의 정서 및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법을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송인(送人)

5

정지상

비 갠 긴 언덕엔 풀빛이 푸르는데,
남포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울먹이네.
대동강 물이야 어느 때 마를거나,
해마다 이별 눈물 강물을 더하는 것을.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신호열 옮김.)

10



부벽루(浮碧樓)

이색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잠깐 부벽루[◆]에 올랐어라.
15 성은 비었는데 달은 한 조각이요,
돌은 늙었는데 구름은 천추로다.
기린마[◆]는 가서 돌아오지 않고,
천손[◆]은 어느 곳에 노니르고,
길게 휘파람 불고 바람 부는 언덕에 서니,
20 산은 푸르고 강은 저대로 흐르더라.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
山青江自流

(양주동 옮김.)

- ◆ 영명사 평양 금수산에 있는 절. 고구려 광개토왕이 지은 아홉 절 중 하나라고 한다.
- ◆ 부벽루 평양 모란대 밑 청류벽 위에 있는 누각. 천여 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마치 대동강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름다운 누각이다.
- ◆ 기린마 고구려 시조 동명왕이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상상 속의 말.
- ◆ 천손 하늘의 자손. 동명왕을 가리킨다.

내용 학습

1 두 작품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를 각각 파악해 보자.

목표 학습

2 두 작품에서 화자가 상황과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법을 정리해 보자.

| | |
|-----|--|
| 송인 | |
| 부벽루 | |

적용 학습

3 '송인' 과 다음 작품에서 화자가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배경을 활용하는 방식을 견주어 보자.

산마다 단풍만 저리 고우면 뭐هند요
 뭐هند요. 산 아래 / 물빛만 저리 고우면 뭐هند요
 산 너머, 저 산 너머로
 산그늘도 다 도망가불고
 산 아래 집 뒤안 / 하얀 억새꽃 하얀 손짓도
 당신 안 오는데 뭘 헛짓이다요
 저런 것들이 다 뭘 소용이다요
 뭘 소용이다요. 어둔 산머리
 초생달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هند요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에
 허연 서리만 끼어가고 / 저 달 금방 저불면
 세상 길 다 막혀 막막한 어둠 천지일 텃디
 병신같이, 바보 천치같이 / 이 가을 다 가도록
 서리발에 하얀 들국으로 피어 있으면
 뭐هند요, 뭘 소용이다요.

- 김용택, '들국'



03 국순전(麴醇傳)

임춘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한 가전체 작품이다. 의인화된 사물의 특성이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국순(麴醇 누룩 술)의 자(字)는 자후(子厚 호뮷)이니, 그 조상은 농서(農西) 사람이다.
 90대(代) 조(祖) 모(牟 보리)가 후직(后稷)을 도와 못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으니, “시경(詩經)에 이른바, “내게 밀보리를 주다.” 한 것이 그것이다. 모가 처음 숨어 살며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받을 갈아야 먹으리라.”

하며 전묘(田畝)에서 살았다. 위(魏)에서 그 자손이 있던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 안거(安車)로 부르며, 군(郡)과 현(縣)에 명하여 곳마다 후(厚)히 예물을 보내라 하고, 하신(下臣)을 시켜 친히 그 집에 나아가, 드디어 방아와 절구 사이에서 교분을 정하고 빛에 화하며 티끌과 같이하게 되니, 훈훈하게 찌는 기운이 점점 스며들어서 온자(醞藉)한 맛이 있으므로 기뻐서 말하기를, “나를 이루어 주는 자는 벗이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옳구나.” 하였다. 드디어 맑은 덕으로써 들리니, 위에서 그 집에 정문(旌門)을 표하였다. 임금을 좇아 원구(圓丘)에 제사한 공으로 중산후(中山侯)에 봉하니, 식읍(食邑) 일만 호 식실봉(食實封) 오천 호요, 성(姓)을 국 씨(麴氏)라 하였다. 5세손이 성왕을 도와 사직을 제 책임으로 삼아 태평(太平) 열근한 성대(盛代)를 이루었고, 강왕이 위에 오르자 점차로 소대(少)를 받아 금고(禁錮)에 처하여 고령(誥令)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후세에 나타난 자가 없고, 다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위나라 초기에 이르러 순(醇)의 아버지 주(酎 소주)가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서, 상서랑(尙書郎) 서막(徐邈)과 더불어 서로 친하여 그를 조정에 끌어들이 말할 때마다 주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마침 어떤 사람이 위에 아뢰기를,

“막(邈)이 주(酎)와 함께 사사로이 사귀어 점점 난리의 계단(階段)을 양성합니다.”

25 하므로 위에서 노하여 막을 불러 힐문(詰問) 하니, 막이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기를,

“신이 주를 좇는 것은 그가 상인의 덕이 있삽기에 수시로 그 덕을 마시었습니다.”

하니 위에서 그를 책망하였고, 그 후에 진(晉)이 선(禪)을 받게 되자, 세상이 어

‘국순전(麴醇傳)’의 구성

- 국순의 가계 소개.
- 국순의 성품과 정계 진출.
- 임금의 총애와 국순의 전횡(專橫).
- 국순의 은퇴와 죽음.
- 국순에 대한 사관의 평가.

- ◆ 국순 술을 의인화한 말. 술의 재료인 누룩[麴]을 성으로, 술[醇]을 이름으로 삼음.
- ◆ 농서 진·한 시대 군(郡) 이름.
- ◆ 후직 중국 주나라의 시조. 농사일을 잘 다스려 순임금이 후직이란 이름을 줌.
- ◆ 전묘 밭이랑.
- ◆ 위 임금을 가리킴.
- ◆ 안거 노약자나 부녀자가 타고 갈 수 있게 만든 수레.
- ◆ 온자 속이 너그럽고 편안함.
- ◆ 정문 충신·효자·열녀를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세워 주던 붉은 문.
- ◆ 원구 천자가 동짓날에 하늘에 제사 지내던 곳.
- ◆ 식읍 조세를 개인이 받아 쓰게끔, 나라에서 공신에게 주는 땅.
- ◆ 식실봉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식읍.
- ◆ 소대(疏待) 푸대접.
- ◆ 금고 신분에 허물이 있어 벼슬에 쓰지 않음.
- ◆ 고령 포고령.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는 법령이나 명령.
- ◆ 힐문(詰問) 힐책하여 물음.

임춘

고려 인종 때의 문인. 강좌철현의 한 사람으로, 한문과 당시(唐詩)에 뛰어났다. 문집으로 “서하 선생집”, 작품에 ‘공방전’이 있다.

지러울 줄을 알고 다시 벼슬할 뜻이 없어 유영(劉伶), 완적(阮籍)의 무리[◆]와 더불어 대수풀에 놀며 그 일생을 마쳤다.

순의 기국(器局)[◆]과 도량이 크고 깊어, 출렁대고 넘실거림이 만경의 물결과 같아 맑혀도 맑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리지 않으며, 자못 기운을 사람에게 더해 준다. 일찍이 섭 법사(葉法師)[◆]에게 나아가 온종일 담론하였는데, 일좌(一座)[◆]가 모두 절도(絶倒)[◆]하게 되어, 드디어 유명하게 되어 호를 국 처사(麴處士)[◆]라 하였는데, 공경대부[◆], 신선, 방사(方士)[◆]들로부터 머슴꾼, 목동, 오랑캐, 외국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하며, 성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순이 오지 아니하면 모두 다 추연(惝然)하여, 말하기를 “국 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

하니, 그가 시속에 애중(愛重)됨이 이와 같았다.

태위(太尉) 산도(山濤)가 감식(鑒識)[◆]이 있었는데, 일찍이 그를 말하기를, “어떤 늙은 할미가 요런 가륵한 아이를 낳았는고. 그러나 천하의 창생(蒼生)[◆]을 그르칠 자는 이놈일 것이다.” 하였다.

공부(公府)에서 불러 청주 종사(靑州從事)[◆]를 삼았으나, 격(鬪)의 위가 마땅한 벼슬자리가 아니므로 고쳐 평원 독우(平原督郵)[◆]를 시켰다. 얼마 뒤에 탄식하기를, “내가 쌀 닷 말 때문에 허리를 굽혀 향리 소아(小兒)에게 향하지 않으리니, 마땅히 술 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뿐이로다.”

하였다.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그대 얼굴에 자줏빛이 떠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여 천종록(千鍾祿)[◆]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좋은 대가를 기다려 팔라.”

하였다. 진 후주(陳後主) 때에 양가의 아들로서 주객 원외랑(主客員外郎)을 받았는데, 위에서 그 기국을 보고 남달리 여

겨 장차 크게 쓸 뜻이 있어, 금구(金甌)[◆]로 덮어 빼고 당

장에 벼슬을 올려 광록대부 예빈경(光祿大夫禮賓卿)으로 삼고, 작(爵

작(爵)[◆]을 올려 공(公)으로 하였다. 대

개 군신의 회의는 반드시 순을 시켜 짐작하게 하니, 그 진퇴와 수작(酬酢)[◆]

이 조용히 뜻에 맞는지라, 위에서 깊이 받아들이고 이르기,

❓ ‘그 향기로운 이름을 맛보는 자는 모두 그를 흠모하며’라는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 ◆ 유영, 완적의 무리 중국 진나라 때의 이른바 죽림칠현(竹林七賢)들의 이름. 이들은 술과 청담(淸談)을 즐겼음.
- ◆ 기국 사람의 도량과 재간.
- ◆ 섭 법사 “태평광기”의 ‘섭법선(葉法善) 설화’에 나오는 인물.
- ◆ 일좌 온 좌석.
- ◆ 절도 까무러쳐 넘어짐.
- ◆ 처사 조용히 은거하여 사는 선비.
- ◆ 공경대부(公卿大夫) 높은 벼슬 아치.
- ◆ 방사 신선(神仙)의 술법을 닦는 사람.
- ◆ 흠모 기쁜 마음으로 사모함.
- ◆ 산도 죽림칠현 중의 한 사람.
- ◆ 감식 어떤 사물의 가치나 진위 따위를 알아냄. 또는 그런 식견.
- ◆ 창생 세상의 모든 사람.
- ◆ 청주 종사 좋은 술을 일컬음.
- ◆ 평원 독우 나쁜 술을 일컬음.
- ◆ 천종록 천 가지의 녹봉. 곧 많은 혜택.
- ◆ 금구 쇠나 금으로 만든 사발 또는 단지.
- ◆ 작 벼슬의 위계.



“경이야말로 이른바 곧음[直] 그것이고, 오직 맑구나. 내 마음을 열어 주고 내 마음을 질펀하게 하는 자로다.”

하였다. 순이 권세를 얻고 일을 맡게 되자, 어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접합이며, 늙은이를 봉양하여 술·고기를 줌이며, 귀신에게 고사[◆]하고 종묘[◆]에 제사함을 모두 순이 주장하였다. 위에서 일찍 밤에 잔치할 때도 오직 그와 궁인만이 모
5 실 수 있었고, 아무리 근신(近臣)이라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위에서 곧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고, 순은 이에 제 입을 재갈 물려 말을 하지 못하므로 예법의 선비들은 그를 미워함이 원수 같았으나, 위에서 매양 그를 보호하였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니, 시론(時論)[◆]이 그를
10 더럽다 하였다. 위에서 묻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두예(杜預)[◆]는 좌전(左傳)의 벽(癖)이 있었고, 왕제(王濟)[◆]는 말[馬]의 벽이 있었고, 신(臣)은 돈 벽이 있나이다.”

15 하니, 위에서 크게 웃고 권고(眷顧)[◆]가 더욱 깊었다. 일찍이 임금님 앞에 주대(奏對)[◆]할 때, 순이 본래 입에 냄새가 있으므로 위에서 싫어하여 말하기를,

“경이 나이 늙어 기운이 말라 나의 씬을 감당치 못하는가.”

하였다. 순이 드디어 관을 벗고 사죄하기를,

20 “신이 작(爵)을 받고 사양하지 않으면 마침내 망신할 염려가 있사오니, 제발 신을 사제(私第)[◆]에 돌려주시면 신은 족히 그 분수를 알겠나이다.”

하였다. 위에서 좌우에게 명하여 부축하여 나왔더니,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들어 하룻저녁[◆]에 죽었다. 아들은 없고, 족제(族弟)[◆] 청(淸)이 뒤에 당나라에 벼슬하여 벼슬이 내공봉(內供奉)[◆]에 이르렀고, 자손이 다시 중국에 번성하였다. 사신(史臣)이 말하기를,

25 “국 씨의 조상이 백성에게 공이 있었고, 청백을 자손에게 끼쳐 창(鬻)이 주(周)나라에 있는 것과 같아 향기로운 덕이 하느님에까지 이르렀으니, 가히 제 할아버지의 풍이 있다 하겠다. 순이 들병의 지혜로 독 들창에서 일어나서 일찍 금구(金甌)의 뿔힘을 만나 술 단지와 도마에 서서 담론하면서도 가(可)를
30 들이고 부(否)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왕실이 미란(迷亂)하여 엎어져도 붙들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거원(巨源)[◆]의 말이 족히 믿을 만한 것이 있도다.”

하였다.

(임창순 옮김.)

- ◆ 고사(告祀) 역운은 없어지고 풍요와 행운이 오도록 집에서 섬기는 신(神)에게 음식을 차려 놓고 비는 제사.
- ◆ 종묘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 ◆ 시론 한 시대의 여론.
- ◆ 두예 서진의 정치가.
- ◆ 왕제 진나라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있는데다 용기와 힘이 뛰어났다.
- ◆ 권고 관심을 가지고 보살핌.
- ◆ 주대 임금의 물음에 대답하여 아뢰.
- ◆ 사제 개인 소유의 집. 여기서 는 자신의 집.
- ◆ 하룻저녁 어느 날 갑자기.
- ◆ 족제 성과 본이 같은 사람들 가운데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서 같은 항렬의 아우뻘인 남자.
- ◆ 내공봉 임금을 호위하고 따르는 승관(僧官)의 직책.
- ◆ 미란하다 정신이 혼미하여 어지럽다.
- ◆ 거원 중국 진(晉)나라 때의 문인으로 '산도(山濤)'라고도 함. 죽림칠현 중 한 사람으로 인물을 보는 감식안이 뛰어났다고 함.

❓ ‘국순’이 은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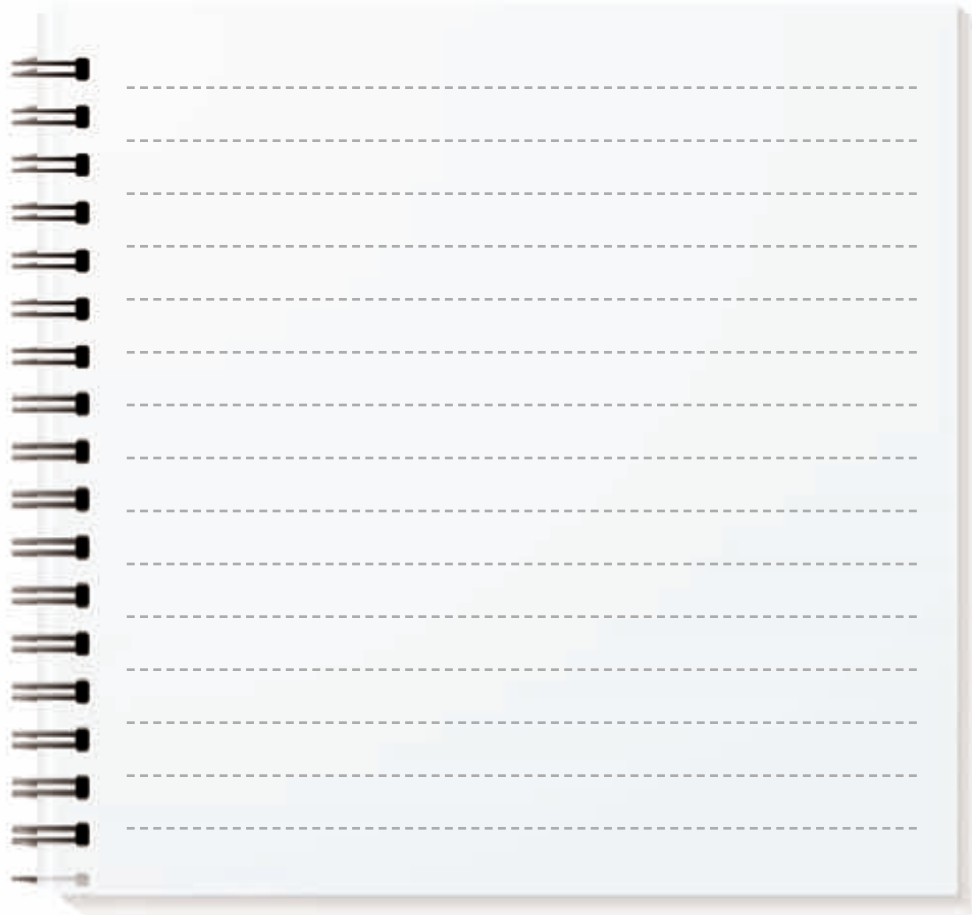
1 '술'의 특성을 설명한 부분을 찾아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2 이 작품에서 '술'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토의해 보자.

적용 학습

3 우리 생활에서 친숙한 사물을 정해 이를 의인화한 가전을 써 보자.



04 만복사저포기

김시습

이 작품은 “금오신화”에 실린 한문 소설이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물 간의 만남이 지닌 의미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남원 땅에 양생(梁生)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아직 결혼도 못한 채 만복사의 동쪽 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5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이 되어 배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그 모양이 마치 옥으로 나무를 깎은 것 같기도 하고, 은 무더기 같기도 하였다.

양생은 달빛이 그윽한 밤이면 늘 그 배나무 아래를 서성거리곤 했다. 낭랑한 목소리로 시도 읊었다.

10 한 그루 배꽃나무 외로움을 함께하누나.
가련하여라, 달 밝은 이 밤을 허송하다니.
젊은이 홀로 누운 외로운 창가로
어디서 아름다운 임이 등소를 불러 보내나.
물총새 쌍을 이루지 못해 외로이 날고
15 원앙도 짝을 잃고 맑은 물에 먹을 감네.
누구의 집에 약속 있나 바둑 두는 처 사람
한밤 등불꽃 켜며 창에 기대어 시름하네.

시를 다 읊었을 때 홀연 공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그대가 아름다운 배필을 얻고 싶다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심하리오?”

20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였다.

다음날은 마침 삼월 스무나흘이었다. 이 고장에는 이날이면 만복사에 등불을 켜 달고 북을 비는 풍속이 있었다. 그날도 많은 남녀가 만복사에 모여들어 제각기 소원을 빌었다.

25 날이 저물고 범패도 끝나자 인적이 드물어졌다. 양생은 법당으로 들어가 불상 앞에 섰다. 그러고는 소매 속에서 저포를 꺼내어 앞으로 던지며 말하였다.

“금오신화”

김시습이 경주 금오산(남산)에 은둔하면서 지은 전기 소설 집(傳奇小說集).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다섯 작품이 수록되어 전하지만 애초에는 모두 20편 정도가 수록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명나라 구우(瞿佑)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작품의 배경이나 내용이 모두 조선의 특색을 살렸으며 향토색이 짙다.

❓ 시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 ◆ 범패 석가여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를 말한다.
- ◆ 저포 원래는 나무로 된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였는데 조선에서는 옷을 저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김시습(1435~1493)

조선 초기의 학자이며 문인. 생육신의 한 사람으로 승려가 되어 방랑 생활을 하며 절개를 지켰다. 주요 작품으로 “금오신화”가 있으며, 저서로 “매월당집”이 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더불어 저포 놀이를 한판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법연을 베풀어서 제사를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지시하면 아름다운 여인을 얻어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5

양생은 축원을 마치고 저포를 던졌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는 즉시 불상 앞에 꿇어앉아 아뢰었다.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절대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양생은 말을 마치고 불상을 모셔 놓은 자리 아래 숨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다. 나이는 열대여섯쯤 되었을까, 양 갈래로 뿔아 내린 머리와 수수한 옷차림이 얽전한 아가씨였다.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처럼 아름다운 그녀는 바라볼수록 단정한 모습이

10

었다. 여인이 기름병을 들어 등잔에 기름을 부은 후 향을 꽂았다. 그리고는 부처 앞에 세 번 절을 올린 후 꿇어앉아 슬픈 한숨을 내쉬며 말하였다.

15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박명한들 어찌 이와 같을까?”

그녀는 품속에서 축원문을 꺼내어 불상 앞 탁자 위에 바쳤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여인’이 부처께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금오신화에 실린 다른 작품

- ‘이생규장전(李生窺齋傳)’: 세 차례에 걸친 이생과 최랑의 만남과 이별을 다룬 이야기.
- ‘취유부벽정기(醉遊浮碧亭記)’: 홍생이 선녀인 기씨녀를 만나 시를 읊으며 즐긴 이야기.
-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박생이 꿈속에서 염라국의 왕을 만나 사상적 담론을 나누는 이야기.
-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 한생이 꿈속에서 용궁에 가서 별궁의 상량문을 지어 주고 보물을 얻어 돌아온 이야기.

아무 고을 아무 지역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입니다. 천에 변방의 방어가 무너져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칼날이 눈앞을 가득 채우고 봉화가 해마다 피어올랐습니다.

20

왜구들이 집들을 불살라 버리고 백성들을 노략질하니 사람들은 동서로 달아나 숨고 사방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 외중에 친척과 하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25

소녀는 냇버들처럼 연약한 몸으로 멀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방 깊숙이 숨어 끝까지 경철을 지키고 깨끗한 행실을 보전하면서 난리의 화를 면하였습니다.

부모님께서서는 딸자식이 경철을 지켜 낸 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한적한 곳으로 피신시켜 임시로 초야에 묻혀 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미 삼

30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달밤과 꽃피는 봄날을 상심한 채 헛되이 보내면서 경철

없이 떠다니는 구름, 흘러가는 강물처럼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
입니다.

인적 없는 빈 골짜기에서 쓸쓸히 지내면서 박명한 한평생을 한탄하였
습니다. 또 맑게 갠 밤을 홀로 지새우면서 아름다운 난새[◆]의 독무(獨舞)
를 슬퍼하였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혼백이 상해 가고, 여름낮 겨울밤에는 간담이
찢어지고 창자마커 끊어질 듯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디 연민의 정을 드
리워 주시옵소서.

일생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전생의 업보도 피할 수 없겠지만
10 적에게 부여된 운명에 인연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만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나이다.

여인은 글을 내던지고 소리를 내며 흐느껴 울었다. 양생은 틈새를 통해 여인
의 자태를 보고 연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불쑥 뛰쳐나가 여인에게 말
을 건넸다.

15 “조금 전에 글을 올린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여인의 축원문을 읽어 본 양생의 얼굴에는 기쁜 빛이 넘쳐흘렀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홀로 여기에 왔습니까?”

여인이 대답하였다.

20 “소녀 역시 사람입니다. 무슨 의아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그대는 아름다운
배필만 얻으면 그만이지 이름은 물어 무엇하시렵니까? 그렇게 당황하실 것
없습니다.”

(후략)

(이지하 옮김.)

- ◆ 난새 봉황류의 신령한 새로 금실이 좋다고 한다.
- ◆ 독무를 슬퍼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짝을 잃고 홀로 춤추는 난새와 비슷하다고 슬퍼하는 것.

전체 줄거리 남원의 노총각 양생은 만복사 부처님과 저포 내기를 하여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빌었다. 이때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와 축원문을 올리는데 양생은 여인도 배필을 원하고 있음을 알고 두 사람은 인연을 맺는다. 여인의 집에 간 양생은 그녀와 즐거운 마음으로 사흘을 지내자 여인이 헤어질 때가 되었다며 은잔을 주고 보련사에서 자신의 부모를 만나라고 말한다. 보련사 가는 길에서 여인의 부모를 만난 양생은 은잔을 얻은 경위를 말하고 그녀가 왜구의 난 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보련사에 도착한 양생은 여인의 존재를 부모님께 확인하여 주고 부모는 양생을 사위로 인정한다. 여인과 헤어진 양생은 그녀의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개령동으로 가서 여인의 무덤에서 정식 장례를 치른 후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고 살았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의 내용 전개 과정과 그 의미를 정리해 보자.

| | | | |
|-------|------------|-------------------------|--------------|
| 내용 전개 | | 산 사람인 양생과 죽은 사람인 여인의 사랑 | |
| 의미 | 간절한 소망과 의지 | | 소망과 의지가 좌절됨. |

목표 학습

2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말해 보자.

| | 이 작품에서 확인되는 내용 | 이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 |
|--|----------------|---------------|
|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맞서는 자아의 의지가 뚜렷하게 형상화될 때 소설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다. | | |

적용 학습

3 다음은 이 작품의 작가인 '김시습'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가의 삶이 이 작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해 보자.

- 5세 때 세종 임금에게 시재(詩才)를 인정받고 장래에 크게 쓰겠노라는 약속을 받았다.
- 21세 때 수양 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승려가 되어 방랑하였다.
- 47세에 아내를 얻은 적도 있으나 곧 사별하고, 스님과 저포 놀이를 한 시를 “명주일록(溟洲日錄)”에 남겼다.

(3) 근대 태동기 문학

근대 태동기는 임병양란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전쟁은 조선 사회에 물질적·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며 사회 전체가 급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을 통해 양반 계층의 무력함을 절감한 평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으며,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비판 의식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였다. 작자층이 평민으로까지 확대되고 한글 문학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현실적인 문제를 다양한 양식으로 다루게 되었다.

시조의 응성

시조는 이 시기에 작품 수가 크게 늘고 내용도 매우 풍부해졌다. 평시조는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만흥(漫興)’ 등 많은 작품을 남긴 윤선도에 와서 절정에 이르렀다. 그 후 중인과 평민층으로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서민들의 생활 현장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설시조가 크게 유행하였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가객(歌客)이 등장하였고, 시조를 수집·정리하여 가집(歌集)을 편찬하는 것이 성행하였다.



어부사시사

대표적인 시조집

- “청구영언”(김천택)
- “해동가요”(김수장)
- “가곡원류”(박효관, 안민영)

가사의 다양화

시조와 마찬가지로 가사의 작자층이 다양해지면서 유배 가사, 기행 가사, 서민 가사, 규방 가사 등 다양한 가사가 창작되었다. 임진왜란을 소재로 한 박인로의 ‘선상탄(船上嘆)’, ‘태평사(太平詞)’를 비롯하여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 ‘연행가(燕行歌)’ 등의 기행 가사, ‘만언사(萬言詞)’, ‘북천가(北遷歌)’ 등의 유배 가사, 부녀자들의 규방 가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가사 작품이 많이 창작되었다.

기행 가사

- ‘일동장유가: 영조 39년(1763)에 일본 통신사(通信司)의 수행원으로 갔던 김인겸이 일본의 문물과 풍속을 기록한 작품.
- ‘연행가: 고종 3년(1866)에 홍순학이 청나라 연경에 서장관(書狀官)으로 갔다가 보고 느낀 것을 적은 작품.

소설의 확산

한글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洪吉童傳)’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유형의 소설이 나타났다. 김만중의 ‘구운몽(九雲夢)’, ‘사씨남정기(謝氏南征記)’, 조성기의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등이 나와 소설의 수준을 더욱 높였다.

영·정조 시대로 접어들면서 실학의 발흥, 중국 소설의 유입과 함께 소설 문학은 더욱 융성해졌다. 박지원은 당시 양반 계층의 무능과 위선을 고발하는 작품을 다수 남겼으며,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아 ‘운영전’, ‘숙영낭자전’ 등의 엄정 소설(艷情

세책가

세를 받고 책을 빌려 주는 책방.

전기수

예전에, 이야기책을 전문적으로 읽어 주던 사람.

小説)이 많이 등장하였다. 또한 임병양란의 경험과 관련된 ‘임진록(壬辰錄)’, ‘임경업전’, ‘박씨전’ 등의 군담 소설(軍談小說)과 ‘유충렬전’, ‘조웅전’ 등의 영웅 소설이 성행하였다.

판소리와 민속극의 성행

판소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설이 없지만, 대체로 서사 무가와 설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평민 예술로 출발한 판소리는 향유 계층이 양반층으로까지 확대되어 상하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 발전하였으며, 한문 중심의 양반 문학과 국문 중심의 평민 문학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우리 문학을 통합하는 데에 이바지하였다. 18세기 말경에는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등을 포함한 열두 마당이 갖추어졌으며, 이후 판소리계 소설로 발전하여 문헌에 정착되었다.

민속극으로는 가면극과 꼭두각시놀음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전하는 가면극은 해서 지방의 탈춤, 낙동강 동쪽의 들놀이, 낙동강 서쪽의 오광대놀이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마을곳의 일부분으로 놀았던 북청 사자놀이, 강릉 관노 탈놀이, 하회 별신굿 탈놀이가 전하며, 남사당의 덧뵈기도 공연 예술의 면모를 보여 준다. 꼭두각시놀음은 인형극으로 박첨지놀음 또는 흥동지놀음이라고도 한다. 민속극은 평민들의 삶을 담고 있으며 중세적 지배 질서에 대한 풍자와 해학을 드러내었다. 이는 봉건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근대적 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판소리의 성격

창(唱) 위주로 연희하기 때문에 음악적 성격이 강하나, 이야기로 엮어 나가는 ‘아니리’는 서사적 요소이고, 광대의 몸짓인 ‘발림’은 연극적 요소라는 점에서 종합 예술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동래 들놀이

01 만흥(漫興)

윤선도

이 작품은 자연 속에 사는 흥취를 노래한 연시조이다. 시조의 형식적 특성과 작품에 나타난 가치관에 주목하여 감상해 보자.

5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췌집 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놈들은 온는다 혼다마는
 어리고 하암 의 뜻의는 내 분(分)인가 호노라.

보리밥 찻노 물을 알마초 머근 후(後)에
 바회긋 뭉기의 슬쿠지 노니노라.
 그 나쁜 녀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라.

10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호라.
 말씀도 우움 도 아녀도 몰내 도하호노라.

누고셔 삼공(三公) 도곤 낫다 호더니 만승(萬乘) 이 이만호라.
 이제도 헤여든 소부 허유(巢父許由) | 낙뚝더라.
 아마도 님천 한흥(林泉閑興) 을 비길 곳이 업세라.

15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히 아랴실샤
 인간 만스(人間萬事)를 혼 일도 아니 맞더
 다만당 다토리 업슨 강산(江山)을 덕히라 호시도다.

20 강산(江山)이 도타 혼들 분(分)으로 누얼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더욱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자 호야도 히을 일이 업세라.



- ◆ 췌집 띠풀로 지붕을 이은 집.
- ◆ 어리고 어리석고.
- ◆ 하암 시골의 무식한 사람.
- ◆ 슬쿠지 실컷.
- ◆ 부를 부러워할.
- ◆ 우움 웃음.
- ◆ 삼공 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 만승 만대의 병거(兵車)라는 뜻으로, 천자 또는 천자의 자리를 이르는 말.
- ◆ 소부 허유 소부와 허유는 중국 고대의 은사(隱士).
- ◆ 낙뚝더라 약뚝더라, 영리하더라.
- ◆ 님천 한흥 자연에서 누리는 한가로운 흥취.
- ◆ 하늘히 하늘이.
- ◆ 덕히라 지키라.



윤선도(1587~1671)

조선 중기의 문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시조를 많이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 '견회요(遣懷謠)',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대립적 의미를 지니는 소재들을 찾아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2 이 작품의 제2수와 다음 작품을 비교해 보자.

논밭 갈아 기음 매고 뵈잠방이 ◆ 다임 ◆ 쳐 신들메고
 낮 갈아 허리에 차고 도끼 버려 두러매고 무림산중(茂林山中) ◆ 들어가서 삭다리
 마른 섯을 뷔거니 버히거니 지계에 질머 지팡이 바쳐 놓고 새암 ◆ 을 찾아가서 점심
 (點心) 도슭 ◆ 부시고 곰방대를 툯툯 떨어 님담배 꺾어 물고 코노래 조오다가,
 석양이 재 넘어갈 제 어깨를 추이르며 긴 소래 저른 소래 하며 어이 같고 하더라.

- 지은이 모름

- ◆ 뵈잠방이 베로 만든 잠방이.
- ◆ 다임 대님.
- ◆ 신들메고 들메끈을 매고.
- ◆ 무림산중 나무숲이 우거진 산속.
- ◆ 삭다리 삭정이.
- ◆ 새암 샘.
- ◆ 도슭 도시락.

| | 만흥 제2수 | 논밭 갈아~ |
|--------|--------|--------|
| 소재 | | |
| 작가의 계층 | | |
| 삶의 태도 | | |
| 형식적 특징 | | |

적용 학습

3 '만흥' 과 다음 작품을 견주어 내용과 형식상 차이를 토의해 보자.

꽃이 피네 한 잎 한 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아려 눈을 감네.

- 이호우, '개화'

02 누항사(陋巷詞)

박인로

이 작품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창작된 가사이다. 이전의 가사와 비교하여 어떤 점이 다른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일신(一身)이 여가(餘暇) 잇사 일가(一家)를 도라보랴,
 5 일노 장수(一奴長鬚) ◆는 노주분(奴主分) ◆을 이젓거든
 고여 춘급(告余春及) ◆을 어니 사이 생각허리,
 경당문노(耕當間奴) ◆인들 놀드려 물릴노고,
 궁경 가색(躬耕稼穡) ◆이 니 분(分)인 줄 알리로다.
 신야 경수(莘野耕叟) ◆와 농상 경옹(壟上耕翁) ◆을 천(賤)타 허리 업것마논,
 10 아므려 갈고전돌 어니 쇼로 갈로손고,
 한기 태심(旱旣太甚) ◆햏야 시절(時節)이 다 느즌 제
 서주(西疇) ◆눕흔 논애 잠깐 긴 널비 ◆에
 도상(道上) 무원수(無源水) ◆를 반만싼 디혀두고
 쇼 훗적 듀마 햏고 엄섬이 ◆ 햏논 말삼
 15 친절(親切)호라 나긴 집의 달 업슨 황혼(黃昏)의 허위허위 다라가서,
 구디 다든 문(門) 밧긔 어득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합이 ◆을 양구(良久)토록 ◆ 햏온 후(後)에
 어와 꺾 뉘신고 염치(廉恥) 업산 니옵노라.
 초경(初更)도 거원디 꺾 엇지 와 겨신고,
 20 연년(年年)에 이러햏기 구차(苟且)햏 줄 알건만논
 쇼 업슨 궁가(窮家)애 햏염 ◆ 만햏 왓삽노라.
 공햏니나 갑시나 주엄 즉도 햏다마논,
 다만 어제밤의 거넨 집 저 사롭이
 목 불근 수기치(雉) ◆을 옥지읍(玉脂泣)게 ◆ 꾸어 니고
 25 간 이근 삼해주(三亥酒) ◆을 취(醉)토록 권(勸)햏거든
 이러햏 은햏(恩惠)을 어이 아니 갑햏넨고,
 내일(來日)로 주마 햏고 큰 언약(言約) 햏야거든,

- ◆ 일노 장수 긴 수염이 난 중.
- ◆ 노주분 종과 주인 간의 분수.
- ◆ 고여 춘급 나에게 봄이 왔다고 알려 줌.
- ◆ 경당문노 밭 갈기를 종에게 물음.
- ◆ 궁경 가색 몸소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곡식을 거둬.
- ◆ 신야 경수 집초 많은 들에서 밭을 갈던 늙은이. 탕왕의 재상이 된 이윤(伊尹)을 말함.
- ◆ 농상 경옹 밭두둑 위에서 밭 갈던 늙은이. 진나라의 진승을 말함.
- ◆ 한기 태심 가뭄이 극심함.
- ◆ 서주 서쪽 두둑.
- ◆ 널비 잠깐 오다가 갠 여우비.
- ◆ 도상 무원수 길 위에 흐르는 근원이 없는 물.
- ◆ 엄섬이 엉성히. 탐탁지 않게.
- ◆ 아합이 '에햏' 하는 인기척.
- ◆ 양구토록 꽤 오래도록.
- ◆ 햏염 근심.
- ◆ 수기치 수평.
- ◆ 옥지읍게 구슬 같은 기름이 끓어 오르게.
- ◆ 삼해주 찹쌀을 발효시켜 빚는 약주.

박인로(1561~1642)

조선 중기의 무신이며 시인. 호는 노계(蘆溪). 임진왜란 때 무인으로 활약하였고, 은퇴 후 고향에 은거하며 많은 작품을 남겼다. 주요 작품으로 '선상탄', '태평사' 등의 가사 작품과 '조흥시가' 등의 시조가 있다.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사설이 어려워라.
 실위(實爲) 그러하면 혈마[◆] 어이홀고.
 현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너 오니
 풍채(風採) 저근 형용(形容)에 기 즈칠 썬이로다.
 와실(蝸室)에 드러간돌 잠이 와사 누어시랴.
 북창(北窓)을 비겨 안자 새배[◆]를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니 한(恨)을 도우는다.
 종조 추창(終朝惆悵)[◆] 하야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는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술 고기 이시면 권당[◆] 벗도 하렷마는 두 주먹 뷘게 쥐고
 세태(世態) 업슨 말숨에 양즈하나 못 고오니
 흐르 아적 불일 쇼도 못 비러 마랏거든
 흐물며 동곽 번간[◆]에 취홀 쫓을 가덜소냐.
 아싸온 저 소뉘[◆]논 벗보임[◆]도 도홀세고.
 가시 영권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 반벽(虛堂半壁)[◆]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출하리 첫봄의 푸라나 불일 거슬
 이제야 풀너흔들 알 니 잇사 사러오랴.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러쳐 더더두자.
 강호(江湖) 혼 꿈을 꾸언지도 오리려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져져다.
 첩피 기옥(瞻彼淇澳)[◆] 혼더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 들아 낙디 하나 빌려스라.

5

10

15

20

- ◆ 혈마 설마.
- ◆ 먼덕 멩덕, 짚으로 만들어 머리에 쓰는 것.
- ◆ 와실 달팽이의 집이라는 뜻. 작고 초라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새배 새벽.
- ◆ 대승 오디새.
- ◆ 종조 추창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함.
- ◆ 권당 친척.
- ◆ 동곽 번간 성 동쪽의 무덤 사이. "맹자" '이루'에서 인용한 것임.
- ◆ 소뉘 '쟁기'의 사투리.
- ◆ 벗보임 보습 위에 비스듬히 끼우는 쇳조각.
- ◆ 허당 반벽 빈집 벽 가운데.
- ◆ 구복 음식물을 섭취하는 입과 배.
- ◆ 첩피 기옥 저 기수의 물가를 바라보니.
- ◆ 유비군자 학식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



노화(蘆花)◆ 깃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남지 업슨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삼(無心)흔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허라.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라.
 5 이제야 쇼비 리 맹세(盟誓)코 다시 마자.
 무상(無狀)흔◆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렛노라.
 10 니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너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오라.
 인간(人間) 어너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가난타 이제 죽으며 가오며다 백년(百年)살냐.
 원현◆이논 몇 날 살고 석승◆이논 몇 히 산고
 15 빈이 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허건마는
 니 생애(生涯) 이러호디 설은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흔 뜻이 온포(溫飽)◆애논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20 화형제(和兄弟) 신붕우(信朋友) 외다◆ 허리 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렛노라.

전쟁의 현실을 담은 박인로의
 가사

- ◆ '태평사(太平詞)': 조선 선조 31년(1598)에 박인로가 지은 가사(歌辭). 임진왜란 때 성윤문(成允文)의 막하에서 중군하였던 작가가 성윤문의 명에 따라 사졸들을 위하여 지은 작품으로, 전란의 참상과 종전 후 태평상태를 맞이하게 된 기쁨과 성은에 보답하여 길이 이 태평을 즐기자는 뜻을 노래하고 있다.
- ◆ '선상탄(船上嘆)': 조선 선조 때에, 박인로가 지은 전쟁 가사(歌辭). 배 위에서 조국에 대한 충성 및 전쟁의 비애를 읊은 것으로, 임진왜란 때 통주사(統舟師)로 종군하여 부산에 있을 때에 지었다.

- ◆ 노화 갈대꽃.
- ◆ 무상흔 내세울 만한 선행이나 공적이 없는.
- ◆ 지취 의지나 취향을 아울러 이르는 말.
- ◆ 헤다 내졌다.
- ◆ 원현 공자의 제자인 자사(子思)의 본명.
- ◆ 석승 진(晉) 나라 때의 큰 부자.
- ◆ 단사표음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담은 밥과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 ◆ 온포 따뜻하게 입고 배부르게 먹는다는 뜻.
- ◆ 외다 그르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말해 보자.

목표 학습

2 ‘누항사’와 조선 전기 가사인 다음 작품을 비교하여 내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 보자.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모를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
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을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꺾
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
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몰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
이이 다룰소냐.

- 정극인, '상춘곡'

적용 학습

3 학교생활의 애환을 가사 형식으로 표현해 보자.

이 작품은 판소리 '흥부가'를 바탕으로 한 판소리게 소설이다. 표현상 특징을 중심으로 읽어 보자.

(전략)

5 집 안에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소반이 네 발로 하늘에 축수(祝手)하고, 솔
이 목을 매어 달렸고, 조리가 턱걸이를 하고, 밥을 지어 먹으려면 책력(冊曆)을
보아 갑자일이면 한 때씩 먹고, 생쥐가 쌀알을 얻으려고 밤낮 보름을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뿔이 서서 종기를 침으로 따고 앓는 소리에 동리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어찌 아니 서러울 건가.

10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아무리 젓 달란들 무엇 먹고 젓이 나며, 아무리 밥 달
란들 어디서 밥이 나랴.”

이렇게 달랠 때, 흥부는 마음이 인후(仁厚)하여 청산유수와 곤륜산의 옥결(玉
潔)과 같았다. 성덕을 본받고 악인을 저어하며, 물욕(物慾)에 탐이 없고 주색
(酒色)에 무심하니, 마음이 이리하니 부귀를 바랄 것인가.

흥부 아내가 하는 말이,

15 “애고 여복소, 부질없는 청렴(淸廉) 맏소. 안자(顔子) 단표(簞瓢)는 주린 염
치로 삼십 조사(三十早死)하였고, 백이숙제(伯夷叔齊)는 주린 염치로 청루
소년이 웃었으니,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굶겨 죽이겠으니, 아주버님
네 집에 가서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얻어 옵소.”

흥부가 하는 말이,

20 “낮을 쇠우에 슬훈고. 형님이 음식 끝을 보면 사춘을 몰라보고 똥 싸도록 때
리는데, 그 매를 뉘 아들놈이 맞는단 말이요?”

“애고 동냥은 못 준들 쪽박조차 깨칠쏜가.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나 본다
고, 건너가 봄소.”

25 흥부 이 말을 듣고 형의 집에 건너갈 때, 치장(治粧)을 볼 것 같으면 편자 없
는 현 망건에 박 쪼가리 관자 달고, 물렛줄로 당끈 달아 대고리 터지게 동이
고, 깃만 남은 중치막 동강 이은 현 술띠를 흥복통에 눌러 띠고, 떨어진 현 고
의(袴衣)에 청을치로 대님 매고, 현 짚신 감발하고 세살부채 손에 쥐고, 서
흡들이 오망자루 쫄무니에 비숙 차고, 바람맞은 병인(病人)같이 잘 쓰는 쇠소
(灑掃) 같이 어숙비숙 건너 달아 형의 집에 들어가서, 전후좌우 바라보니, 앞
30 노적, 뒤 노적, 멩에 노적 담불담불 쌓았으니, 흥부 마음은 즐거우나 늘부 심

❓ ‘소반이 네 발로~어찌 아
니 서러울 건가’의 구절이 주
는 효과는?

- ◆ 가래뿔 허벅다리에 생기는 멍을.
- ◆ 곤륜 옥결 곤륜산에서 나는 옥
돌의 결이 깨끗하다는 데서 흔
히 깨끗한 마음씨를 이르는 말.
- ◆ 안자(顔子) 공자의 수제자로
몹시 가난하였음.
- ◆ 단표(簞瓢) 단사표음. 청빈하고
소박한 생활을 이르는 말.
- ◆ 삼십 조사 서른에 일찍 죽음.
- ◆ 편자 망건을 졸라매기 위하여
아래 사물에 붙여 말춤으로 좁
고 두껍게 짠 띠.
- ◆ 관자(貫子) 망건에 달아 당줄을
궤는 작은 단추 모양의 고리.
- ◆ 청을치 칠당굴의 속껍질. 베를
짜거나 노를 만드는 재료로 씀.
- ◆ 감발 발감개.
- ◆ 세살부채 거의 다 찢어져 살이
몇 개 남지 아니한 부채.
- ◆ 오망자루 볼품없이 생긴 자그
마한 자루.
- ◆ 쇠소 물을 뿌리고 비로 쓰는 일.
- ◆ 노적 곡식 따위를 한데에 수북
이 쌓음.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로 불렸던 소설 또는 판소리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소설을 일컫는다. 판소리계 소설은 평민 계층의 현실적인 경험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해학과 풍자를 기본으로 하는 서민 정신을 담고 있다. 판소리 사설이 설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의 사설을 소설화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이 존재한다.

사는 무거하여 형제끼리 내외하여 구박이 태심(太甚)하니, 흥부 하릴없이 돌아
래서 문안하니, 놀부가 묻는 말이,

“네가 된고?”

“내가 흥부요.”

“흥부가 뉘 아들인가?”

“애고 형님 이것이 웬 말이요? 비웁니다. 형님 전에 비웁니다. 세 끼 굶어 누
운 자식 살려 낼 길 전혀 없으니, 쌀이 되나 벼가 되나 양단간에 주시면, 품을

5



판들 못 갚으며 일을 한들 공(空)할쏜가. 부디 옛일을 생각하여 사람을 살려 주시오.”

애걸하니, 놀부 놈의 거동 보소. 성낸 눈을 부릅뜨고 볼을 치며 호령하기를,
 “너도 염치없다. 내 말 들어 보아라. ‘천불생무록지인(天不生無祿之人) 이오,
 5 지불생무명지초(地不生無名之草) 라.’ 네 복을 누구를 주고, 나를 이리 보채
 느냐? 쌀이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노적을 헐며, 벼가 많이 있다 한들 너
 주자고 섬을 헐며, 돈이 많이 있다 한들 괴목괘(槐木櫃)에 가득 든 것을 문
 을 열며, 가룟되나 주자 한들 북고왕 염소독에 가득 넣은 것을 독을 열며, 의
 복이나 주자 한들 집안이 고루 벗었거든 너를 어찌 주며, 찬밥이나 주자 한들
 10 새끼 낳은 거먹 암개 부엌에 누웠거늘 너 주자고 개를 굶기며, 지게미나 주
 자 한들 구중방(九重房) 우리 안에 새끼 낳은 돌이 누웠으니 너 주자고 돌을
 굶기며, 껌섬이나 주자 한들 큰 농우가 네 필이니 너 주자고 소를 굶기랴.
 염치없다. 흥부 놈아.”

하고, 주먹을 불끈 쥐어 뒤통지를 짹 잡으며, 몽둥이를 지끈 꺾어 손잡 스펀
 15 의 매질하듯 원화상(元和尙)의 법고 치듯 아주 광광 두드리니, 흥부 울며 하
 는 말이,

“아이고 형님 이것이 웬일이요. 방약무인(傍若無人) 도척(盜跖) 이도 이보다
 는 성현이요, 무거불측(無據不測) 관숙(管叔) 이도 이보다는 군자로다. 우리
 형제 어찌 이다지도 극악한가.”

20 탄식하고 돌아오니, 흥부의 아내 거동 보소. 흥부 오기를 기다리며 우는 아기
 달랠 때, 물레질하며,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어제저녁 김 동지 집에 용정(春精) 방아 짚어 주고
 쌀 한 되 얻어다가, 너희들만 끓여 주고 우리 양주 어제저녁부터 이때까지
 그저 있다. 잉잉잉. 너의 아버지가 저 건너 아주버니 집에 가서 돈이 되나 쌀
 25 이 되나 양단간에 얻어 오면, 밥을 짓고 국을 끓여 너도 먹고 나도 먹자. 우지
 마라. 잉잉잉.”

아무리 달래어도 악을 쓰며 보채는구나. 흥부 아내 할 수 없어 흥부 오기만
 기다릴 때, 의복 치장 불작시면, 깃만 남은 저고리에, 다 떨어진 누비바지 몽당
 치마 펼쳐입고, 목만 남은 헌 버선에 뒤축 없는 짚신 신고, 문밖에 썩 나서며
 30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다릴 때, 칠년대한 가문 날에 비 오기 기다리듯, 구년
 지수 장마 진 데 별 나기 기다리듯, 제갈량(諸葛亮) 칠성단에 동남풍(東南風)
 기다리듯, 강태공(姜太公) 위수 상에 시절을 기다리듯, 만 리 전장에 승전하
 기 기다리듯, 어린아이 경풍에 의원을 기다리듯, 독수공방에 낭군 기다리듯,

- ◆ 천불생무록지인 어떠한 사람 이든지 먹고살 것은 타고난다는 말.
- ◆ 지불생무명지초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말.
- ◆ 괴목괘 해나무로 만든 상자.
- ◆ 지게미 모주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
- ◆ 돌 돼지.
- ◆ 껌섬 겨를 담은 섬.
- ◆ 도척 중국 춘추 시대의 몸서악한 사람.
- ◆ 무거불측 성질이 말할 수 없이 흉측함.
- ◆ 관숙 주나라 무왕의 동생. 반란을 일으켰으나, 동생 주공에 의해 진압됨.
- ◆ 동지(同知)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조선 시대에, 중추부에 속한 종이품 벼슬.
- ◆ 용정 방아 곡식을 찧는 방아.
- ◆ 양주(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이라는 뜻으로, '부부(夫婦)'를 이르는 말.
- ◆ 칠년대한(七年大旱) 칠 년 동안이나 내리 계속되는 큰 가뭄. 중국 은나라 탕왕 때에 있었던 큰 가뭄에서 유래한 말.
- ◆ 구년지수(九年之水) 오랫동안 계속되는 큰 홍수. 중국 요나라 때 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큰 홍수에서 유래한 말.
- ◆ 제갈량 칠성단(七星壇)에 동남풍 기다리듯 중국 삼국 시대 정치가 제갈공명이 유비를 도와 적벽전을 승리로 이끌 때, 칠성단을 쌓고 동남풍이 불기를 기도한 데서 비롯된 표현. 무엇을 간절히 기다림을 이룸.
- ◆ 위수(渭水) 웨이수이 강. 중국 황허 강(黃河江)의 큰 지류(支流)로 주나라 때 강태공이 이 강에서 낚시를 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려 문왕에게 발탁되었다고 함.
- ◆ 경풍(驚風)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 풍(風)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경련하는 병증.

춘향(春香)이 죽게 되어 이 도령 기다리듯, 과년한 노처녀가 시집가기 기다리
듯, 삼십 넘은 노도령[◆]이 장가가기 기다리듯, 장중(場中)에 들어가서 과거(科
擧) 하기 기다리듯, 세 끼 굶어 누운 자식은 흥부 오기 기다린다.

“아이고 아이고 설운지고.”

흥부가 울며 건너오니, 흥부 아내는 내달아 두 손목을 땃석 잡고,

“울지 마오, 어찌하여 우시오. 형님 전에 말하다가 매를 맞고 건너왔다. 출문
망(出門望)[◆] 출문망 허위허위 오는 사람이 몇몇이나 날 속였는지. 어찌하여
이제 오나?”

흥부는 어진 사람이라 하는 말이,

“형님이 서울 가고 아니 계시기에 그저 왔습네.”

(후략)

◆ 노도령 노총각.

◆ 출문망 문밖에 나가 기다림.

5

10

전체 줄거리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흥부를 내쫓는다. 흥부는 아내와
여러 자식을 거느리고 온갖 일을 하지만 가난하기만 하다. 어느 날, 흥부는 땅에 떨어져 다리
가 부러진 새끼 제비를 치료하여 날려 보내고 이듬해 그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 한 개를 물어
다 준다. 가을이 되어 박을 타 보니 그 속에서 온갖 보물들이 나와 흥부는 벼락부자가 된다.
흥부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놀부는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실로 동여매어 날려 보내고 제비
는 놀부에게도 박씨를 물어다 준다. 그러나 놀부가 거둔 박 속에서 온갖 괴물들이 나와 놀부는
재산을 모두 빼기고 그의 집은 수라장이 된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흥부는 놀부를 지성으로 섬
겨 형제는 함께 행복을 누린다.

내용 학습

1 '흥부'가 처한 상황이 잘 드러나도록 이 대목의 소재목을 붙여 보자.

목표 학습

2 다음 작품들을 읽고 '흥부전'과 비교해 보자.

• 자진모리장단: 소리를 빠르게 몰아가는 장단으로 어떤 일이 차례로 벌어지거나 여러 사건을 늘어놓는 대목에 주로 사용함.

가 “그 안 너머에 가면 지리산서 도끼자루 헐라고 박달 몽둥이 몇 개 갖다 뵈어. 그놈 가져 나오너라. 이놈 한 놈 오늘 식홀[◆] 놈 있다. (자진모리) 놀보 놈 거동 봐라. 지리산 몽둥이를 눈 우에 번쩍 추어들고[◆], “네 이놈, 흥보 놈아! 니 내 말을 들어 봐라. 쌀말이나 주자 현들, 남대청 큰 두지[◆]의 가득가득히 쌓였으니 너 주자고 두지 헐며, 벳말이나 주자 현들, 천록방[◆] 가리노적[◆] 다물다물[◆] 이 쌓였으니 너 주자고 노적 헐며, 돈냥이나 주자 현들, 옥당방[◆] 용목궤에 관[◆]을 지어서 넣었으니 너 주자고 관돈 헐며, 싸라기나 주자 현들, 황계 백계 수십 마리가 주루루루 벌여 있고, 찌경이나 주자 현들, 굶인[◆]방 우리간에 떼도야지가 들었으며, 식은 밥이나 주자 현들, 새끼 난 암개 두고 너 주자고 개 굶기랴? 잘살기 내 복이요 못살기 네 팔자라, 굶고 벗고 내 아느냐?” 강새암[◆]의 계집 치듯, 담에 걸친 구렁이 치듯, 여름날 번개 치듯, 냇더[◆]철떡 후닥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냇더 후닥딱! “아이고, 형님. 다리 부러졌소! 아이고, 형님. 나 다시는 안 오리다. 다시는 안 도랄[◆] 터이오니 살려 주오, 살려 주오. 제발 덕분에 살려 주오.”

- 지은이 모름, '흥보가'에서

- ◆ 식홀 '식힐'의 방언. '식히다'는 '늘씬하게 두들겨 패다'의 뜻으로 쓰이기도 함.
- ◆ 추어들고 '추켜들고'의 방언.
- ◆ 두지 뒤주.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 천록방 '하늘이 내린 복록이 들어찬 방'이란 뜻으로 공간에 붙인 이름.
- ◆ 가리노적 노적가리. 한데에 쌓아 둔 곡식더미.
- ◆ 다물다물 물건이 무더기로 쌓인 모양.
- ◆ 옥당방 글 읽는 방.
- ◆ 관 엽전 열 냇을 한 단위로 세는 말.
- ◆ 굶인 '굶은'의 방언. 더러운.
- ◆ 강새암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지나친 질투나 샘.
- ◆ 냇더 마구. 함부로.
- ◆ 박 '머리'의 속된 말.
- ◆ 도랄 '달라 할'의 방언.

나 (놀) 네 그 뒤에 박달 몽치 가져오너라
 놀보 놈 몹슬 마음 흥보에 고초상투 오른손에 감아쥘고 한 손에는 몽치 쥐고
 네 이놈 흥보 놈아 잘살기도 너 복이요 못살기도 네 팔자지 님들 엇지 후라 후

고 지금 와서 조르느냐 쌀이 만이 있다 혼들 널 주자고 섬쌀 혈며 벼가 여간 있다
 다 혼들 너 주조고 노적 혈며 콩 섬이나 있다 혼들 너 주자고 소 굶기며 찬 밥술
 이있다 혼들 너 주자고 기 굶기며 겨사 말이나 있다 혼들 올이간에 세도야지 다
 굶기고 너를 주랴 굴므며는 엇지라고 이더지 졸르느냐

이고고

와직끈쌈

이고 형님 흥보 죽소

놀보는

오냐 죽어라

직끈쌈

이고고 어떤니 나 죽소 이고이고 동리 스름들 스름 좀 살여주오 직끈쌈

이고이고 쌀도 실코 벼도 실코 밥도 실소

놀보에 모진 마음 흥보를 썬리는데 흥문연 큰 잔치에 응순 변쾌 썬여들 듯 구
 턴 응원 퇴공 신장 산벼락을 치는 듯이 화닥닥

이고고 죽네

- 이해조, '연의 각'에서

| | 서술상 특징 | 문체상 특징 |
|------|--------|--------|
| 흥부전 | | |
| 흥보가 | | |
| 연의 각 | | |

적용 학습

3 이 작품을 동화로 바꾸어 써 보고 구연해 보자.

04 하회 별신굿 탈놀이

지은이 모름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안동 지역에서 연희되던 탈놀이의 대사를 채록한 것이다. 인물의 대사와 행동에 드러난 당대의 가치관을 파악하며 읽어 보자.



양반, 선비 마당

(전략)

5

양반 아야, 초랭아. 이놈 거기서 출랑대지만 마고 저기 가서 부네나 찾아오너라.

❓ '부네'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이 말에 초랭이는 '야' 하고 부네를 데리러 쫓아다니지만, 어느새 부네는 양반 뒤에 와 있다. 선비는 몹시 언짢아한다.)

초랭이 부네 여 왔짚니껴.

10

(부네는 양반의 귀에다 대고 '복' 한다.)

◆ 여 왔짚니껴 여기 왔지 않습니까.

하회 별신굿 탈놀이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하회리에 전승되는 우리나라 농촌 탈춤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별신굿은 3년이나 5년 혹은 10년에 한 번씩 마을에 우환이 있거나 돌림병이 돌 때 거행되는데,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이 별신굿의 과정에 포함되면서도 연극적 독립성을 가진 놀이이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의 전체 구성

1. 강신(降神).
2. 무동 마당.
3. 주지 마당.
4. 백정 마당.
5. 할미 마당.
6. 파계승 마당.
7. 양반, 선비 마당.
8. 당제(堂祭).
9. 혼례 마당.
10. 신방 마당.

❓ '양반'과 '선비'의 말다툼을 통해 풍자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 있니까? 있습니까?
- ◆ 지체 어떤 집안이나 개인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신분이나 지위.

양반 아이쿠, 깜짝이야. 귀청 떨어질라. 오냐, 부네라!

(다시 초랭이는 관중들과 함께 부산을 떨고 선비는 연신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부네는 양반의 어깨를 주무르다 말고 양반의 머리에서 이를 잡는 시늉을 한다. 초랭이가 이를 보고)

초랭이 헤헤, 양반도 이가 다 있니까?

(양반과 선비가 모두 일어난다. 선비는 일어나면서 '예끼 고얀지고'라며 심경을 토로한다.) 5

양반 예 부네야, 그래 우리 춤이나 한 번 추고 놀아 보자.

(상쇠의 가락에 맞춰 양반, 선비, 부네, 초랭이가 어울려 '노는 춤'을 추며 마당은 곧 흥에 넘친다. 그러나 양반과 선비는 부네를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여, 춤은 두 사람이 부네와 같이 춤추는 내용으로 이어진다. 부네는 요염한 춤을 추며 양반과 선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두 사람의 심경을 고조시킨다. 이것을 간파한 초랭이는 양반과 선비를 싸움 붙이려는 계락을 꾸민다. 우선 양반에게로 가 무언가 얘기를 한다. 이에 양반은 초랭이가 시키는 대로 선비에게 가 얘기를 하고 선비는 관중석에서 누군가를 찾기 시작한다. 이를 기회로 양반은 부네와 춤을 계속 추게 된다. 관중 속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찾던 선비는 부네와 어울려 춤추는 양반을 보고는 '속았다'는 생각에 노발대발하여 양반을 부른다.) 10

선비 여보게 양반.

(이를 신호로 상쇠는 가락을 멈춘다.) 15

선비 여보게 양반, 자네가 감히 내 앞에서 이럴 수가 있는가?

양반 허허, 무엇이 어째? 그대는 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선비 아니, 그라마 그대는 진정 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양반 허허, 뭣이 어째? 그러면 자네 지체가 나만 하단 말인가? 20

선비 아니 그래, 그대 지체가 내보다 낫단 말인가?

양반 암, 낫고말고.

선비 그래, 낫긴 뭐가 나아.

양반 나는 사대부의 자손일세.

선비 아니 뭐라꼬, 사대부? 나는 팔대부의 자손일세. 25

양반 아니, 팔대부? 그래, 팔대부는 뭐로?

선비 팔대부는 사대부의 갑절이지.

양반 뭐가 어째, 어흠, 우리 할뻔은 문하시중을 지내셨거든.

선비 아, 문하시중. 그까지 끼……. 우리 할뻔은 바로 문상 시대인걸.

5 양반 아니 뭐, 문상 시대? 그건 또 머로?

선비 예헴, 문하보다는 문상이 높고 시중보다는 시대가 더 크다 이 말일세.

양반 허허, 그것참 빌꼬라지 다 보겠네. 그래, 지체만 높으면 제일인가?

선비 예헴, 그라만 또 머가 있단 말인가?

양반 학식이 있어야지, 학식이.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

10 선비 뭐 그까지 사서삼경 가지고. 어흠, 나는 팔서 육경을 다 읽었네.

양반 아니, 뭐? 팔서 육경? 도대체 팔서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 대관절 육경은 또 뭐가?

(초랭이는 여태까지 두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듣다가 껌싸게 끼어든다.)

15 초랭이 헤헤헤, 난도 아는 육경 그것도 모르니껴. 팔만대장경, 중의 바라경, 봉사의 안경, 약국의 길경, 처녀의 월경, 머슴의 새경 말이시더.

(고수는 육경을 한 소절마다 장단을 쳐 준다. 초랭이는 ‘머슴의 새경’을 더욱 강조하여 자신의 새경에 못마땅함을 보인다.)

선비 그래, 이것도 아는 육경을 양반이라카는 자네가 모른단 말인가?

20 양반 여보게 선비, 우리 싸워 봤짜 피장파장이께네 저짜 있는 부네나 불러 춤이나 추고 노시더.

선비 (잠시 생각하다가) 암, 좋지 좋아.

(하락)

양반, 선비 마당 줄거리

양반과 선비가 거들먹거리며 등장하여 춤을 추다가 서로 부네를 차지하려고 다툰다. 양반과 선비는 서로 자신의 지체와 학문을 자랑하다가, 백정이 소불알을 들고 나타나 ‘양기에 좋다.’고 하자 서로 차지하려고 다툰다.

❓ ‘초랭이’가 한 말의 특징을 생각해 보자.

- ◆ 할뻔 할아버님.
- ◆ 문하시중(門下侍中) ①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의 종일품 으뜸 벼슬. ② 조선 전기에, 문하부의 정일품 으뜸 벼슬. 좌우 두 사람을 두었다.
- ◆ 빌꼬라지 별꼴. 별나게 이상하거나 아니꼬워 눈에 거슬리는 꼬락서니.
- ◆ 사서삼경(四書三經) 사서와 삼경을 아울러 이르는 말. 곧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의 네 경전과 “시경”, “서경”, “주역”의 세 경서를 이른다.
- ◆ 바라경 불교 경전인 팔양경(八陽經).
- ◆ 안경 안경.
- ◆ 길경(桔梗) 도라지.
- ◆ 새경 머슴이 주인에게서 한 해 동안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 ◆ 저짜 저쪽.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양반’과 ‘선비’의 인물됨을 평가해 보자.

내용 학습

2 이 작품에서 ‘초랭이’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3 이 작품이 현대의 연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의해 보자.

| | |
|-----------|--|
| 작품의 구성 | |
| 관객의 참여 여부 | |
| 공연 방식 | |

적용 학습

4 다음은 황해도 봉산 지역에서 전승되던 ‘봉산 탈춤’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하회 별신굿 탈놀이’와 견주어 보자.

생원 쉬이. (음악과 춤을 멈춘다.) 여보게, 동생. 우리가 본시 양반이라, 이런 데 가
만히 있자니 갑갑도 하네. 우리 시조(時調) 한 수씩 불러 보자.
서방 형님, 그거 좋은 말씀입니다.
양반들 (시조를 읊는다.) “……만 남아 늙었으니 다시 젊지는 못하리라…….” 하하.
(하고 웃는다. 양반 시조 다음에 말뚝이가 자칭하여 소리를 한다.)
말뚝이 “낙양성 십 리허 에, 높고 낮은 저 무덤에…….”

• '봉산 탈춤'은 교통의 요충지이고 상업이 발달한 황해도 봉산 지방에 전승되는 탈춤이다. 봉산 탈춤의 '양반춤 마당'은 지배 계층에 대한 풍자가 잘 나타나 있고, '말뚝이의 양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들의 안심-춤과 화해'라는 틀이 반복된다.

생원 다음은 글이나 한 수씩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먼저 지어 보시오.
 생원 그러면 동생이 운자(韻字)를 내게.
 서방 네, 제가 한 번 내 드리겠습니다. '산' 자, '영' 잡니다.
 생원 아, 그것 어렵다. 여보게, 동생. 되고 안 되고 내가 부를 터이니 들어 보게.
 (영시조로) "울룩줄룩 작대산(作大山)하니, 황천 풍산(黃川豊山)에 동선령(洞仙嶺)이라."
 서방 하하. (형제, 같이 웃는다.) 거 형님, 잘 지었습니다.
 생원 동생 한 귀 지어 보세.
 서방 그럼 형님이 운자를 하나 내십시오.
 생원 '총' 자, '못' 잘세.
 서방 아, 그 운자 벽자(僻字)로군. (한참 꺽꺽거리다가) 형님, 한마디 들어 보십시오.
 오. (영시조로) "짚세기 앞총은 형갚총 하니, 나막신 뒤축에 거덜못 이라."
 - 지은이 모름, '봉산 탈춤'에서

- ◆ 십 리허(十里許) 십 리쯤. '허'는 어디쯤 되는 곳을 나타내는 말.
- ◆ 운자 한시의 운으로 다는 글자.
- ◆ 영시조(詠時調)로 한시를 읊는 어조로.
- ◆ 울룩줄룩 울묵줄묵. 큰 덩어리가 여러 개 고르지 않고 뻑뻑이 벌려 있는 모양.
- ◆ 벽자 흔히 쓰이지 않는 괴벽한 글자.
- ◆ 앞총 '엄지총'의 잘못. 짐신이나 미투리의 맨 앞의 양편으로 굽게 박은 낱알의 올.
- ◆ 형갚총 형갚으로 만든 신의 앞부분.
- ◆ 거덜못 세간이나 나무 그릇의 금 간 데나 떨어질 염려가 있는 모퉁이에 걸쳐 대는 못.

| 구분 | | 하회 별신굿 탈놀이 | 봉산 탈춤 |
|---------------------------------|----------|------------|-------|
| 공통점 | 대화 전개 양상 | | |
| | 인물 | | |
| | 주제 의식 | | |
| 차이점 | | | |
| 다른 지역에서 전승되는 작품이 공통점을 지니게 되는 이유 | | | |

(4) 근대 문학

근대는 개항 이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를 가리킨다.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은 근대화를 이루는 한편,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근대 문학은 외세에 저항하며, 전통의 토대 위에 서구의 사조를 받아들여 근대성을 확립해야 하는 국면을 맞게 된다.

시가의 흐름

개화 가사

가사와 창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으며, 최재우의 가사집 “용담유사”를 그 효시로 본다.

개화기의 중요한 시가 양식은 개화 가사, 창가, 신체시이다. 이들은 전통적인 시가의 형태를 이어받았으나, 내용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추어 외세에 대한 비판, 독립 의식 고취, 계몽사상, 신문명의 찬양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1910년대에는 김억과 주요한 등이 서구시의 경향을 수용하여 개인의 서정을 노래한 시들을 쓰기 시작하였고, 김억은 “태서문예신보”에 프랑스 상징주의 시론과 시를 집중적으로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때부터 우리의 시는 비로소 교훈적인功利성에서 벗어나 근대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3·1 운동 직후의 암울한 시대 분위기와 당대 세계 문학의 사조에 영향을 받아 퇴폐적 낭만주의 성향의 시가 성행하였다. 1920년대 중반에는 그동안 무비판적으로 서구 문예를 도입한 것에 대한 반성의 결과로 김억, 김소월 등에 의해 민요시가 창작되었고, 최남선은 시조 부흥론을 전개하였다. 또한 민족적 비애와 저항 정신을 형상화한 이상화, 불교적 사유를 심화하여 시 문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한용운 등이 작품을 남겼다.

카프(KAPF,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1925년에 결성되어 조직적으로 활동하다가 1935년에 해체되었다.

1930년대에는 순수시와 참여시가 공존하였다. 카프(KAPF)를 중심으로 한 임화, 김기진, 이찬 등은 계급 운동의 일환으로 당대 식민지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 작품을 창작하였다. ‘시문학과’ 시인들은 카프 문학에 반하여 감각적인 시어로 순수 서정을 드러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반해 정지용, 김기림, 김광균, 장만영, 이상 등의 모더니즘 시인들은 감성에 치우친 시를 지양하고 감각적 이미지와 지적 언어를 구사하였다. 1930년대 후반에는 생명파와 청록파 시인들의 활동이 활발하였다. 서정주와 유치환은 각각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고뇌,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를 형상화하였고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등은 자연을 친화와 교감의 세계로 인식하면서 우리의 전통 정서를 표현하였다. 또한 뿌리 뽑힌 서민의 삶을 노래한 이용악과 향토적인 것에 애착을 보인 백석 등도 있다.

소설의 흐름

개화기에 등장한 신소설은 신문명, 자유, 봉건성의 탈피 등 새로운 내용을 언문 일치에 가까운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고소설의 평면적·전형적인 인물 설정, 사건 전개, 우연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신소설은 고소설과 근대 소설의 교량 역할을 하여 문학사에서 전통 단절론을 극복하는 좋은 예가 되었다. 또한 국가 발전이나 독립에 기여한 인물들의 전기를 번역하거나 국권 수호와 자주독립의 애국정신을 뚜렷이 내세운 신채호의 역사 전기 소설 등이 유행하였다.

1917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은 근대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삼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을 형상화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로 평가되고 있다.

1920년대 소설은 1910년대 소설이 보여 준 신문명의 보급과 계몽이라는 목적성에서 벗어나 문학의 독자성과 예술적 형상성에 입각하여 주제를 구현하였다. 순수문학을 지향하며 현대적 문체 정립에 기여한 김동인, 하층민과 지식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한 현진건, 염상섭, 나도향 등이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이다. 또한 신경향파 작가인 최서해, 이기영, 조명희 등은 하층민의 억눌린 삶과 저항을 그린 작품을 발표하였다.

1930년대 소설은 일제의 검열과 탄압으로 창작에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장편 소설, 농민 소설, 역사 소설 등 복잡하고 다양한 흐름을 보여 주며 전개되었다. 이광수, 심훈, 이무영, 김정한 등은 농촌을 소재로 농민의 삶을 그렸고, 이태준, 박태원, 유진오 등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세태와 인정을 다루었으며, 김동인, 현진건, 박종화 등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염상섭과 채만식은 세대간의 갈등을 담은 가족사 소설을 통해 시대적 현실을 총체적으로 재현하였다. 한편 단편 소설 작가로는 해학적인 문체로 농촌 현실을 그린 김유정, 자연에 동화된 삶을 담아 낸 이효석, 자의식의 극한을 추구한 이상 등이 있다.

극 문학의 흐름

근대의 극 문학은 판소리를 변형한 창극이 공연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일제가 연희 단체인 원각사를 해체하면서 창극은 자취를 감추었다. 1910년대에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신파극이 새롭게 등장하였고, 1920년대에는 일본 유학파를 중심으로 신파극을 극복하고 현대극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김우진을 중심으로 한 '극예술 협회(1920)'와 박승희를 중심으로 한 '토월회(1923)' 등이 결성되어 많은 희곡 작품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나운규의 '아리랑', 심훈의 '먼동이 틀 때' 등 시나리오 창작과 영화 제작도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는 유치진을 중심으로 한

신소설

- '혈의 누', '은세계' (이인직)
- '자유종', '구마검' (이해조)
- '추월색' (최찬식)

역사 전기 소설

- 번역 소설: '이태리건국삼십년전', '애국부인전', '화성대전'
- 신채호: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농민 소설

- 농민 교화 소설(농촌 계몽 소설): '흙' (이광수), '상록수' (심훈)
- 토속적 농민 소설: '동백꽃' (김유정)
- 목가적 농민 소설: '제1과 제1장' (이무영)
- 사실적 농민 소설: '모범 경작생' (박영준), '사하촌' (김정한)
- 프로 문학적 농민 소설: '고향' (이기영)

극예술 연구회

고골의 '김찰관'과 입센의 '인형의 집' 등 세계 명작의 상연을 통해 서구 사실주의 극을 도입하여 신파 운동에 기여하였다.

‘극예술 연구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유치진의 ‘토막’, ‘소’, 함세덕의 ‘동승’ 등이 발표되었다.

수필의 흐름

근대 수필은 고전 수필의 전통을 토대로 서구의 수필을 수용하면서 근대적 면모를 띠게 되었다. 1920년대에는 국토 기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수필이 유행하였는데, 이광수, 최남선 등의 작품이 있다. 1930년대에는 김진섭, 이양하 등 전문적인 수필가가 등장하여 수필 문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또한 이태준, 이효석, 정비석, 마해송, 김용준 등이 수준 높은 수필을 발표하였다.

암흑기와 국민 문학

1937년을 기점으로 일제는 군국주의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으며 1940년대에 들어서며 극단적인 강압 정치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다. 일본식 성명 강요, 징병령, 신사 참배 강요 등과 함께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말 신문과 “문장”, “인문 평론” 등의 잡지가 폐간되었다. 작품을 발표할 매체를 잃은 작가들은 창작을 포기하거나 국민 문학, 즉 일본의 전쟁을 합리화하고 찬양하는 친일 문학을 창작하기도 하였다.

암흑과 같은 일제 말의 상황 속에서도 운동주는 도덕적 순결성에 바탕을 둔 지식인의 고뇌를 형상화하였고, 이육사는 선비 정신을 바탕으로 절망적 상황에 당당하게 맞서는 강인한 남성적 대결 의지를 보여 주었다.



“문장” 표지

1930년대의 문학잡지

- “시 문학(1930.3~1931.10)”: 박용철, 김영랑, 정지용 등이 중심이 된 예술지상주의의 시 문학 동인지.
- “삼사 문학(1934.9~1935.3)”: 이시우, 조풍연 등 연희 전문 출신들의 동인지로 제호는 1934년에 창간되었다는 뜻으로 붙임.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을 다수 발표.
- “문장(1939.2~1941.4)”: 일제 말기의 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월간 종합 문예지. 고전 발굴 및 우수 신인 발굴.
- “인문 평론(1939.10~1941.1)”: 최재서가 주관한 월간 문예지로 작품 발표 및 비평 활동에 주력.

01 해(海)에게서 소년(少年)에게

최남선

이 작품은 서구 자유시의 영향을 받아 1908년에 발표된 신체시(新體詩)이다. 작품의 형식과 표현 기법을 고려하며 읽어 보자.

1

터……르씩, 터……르씩, 툅, 싹……아.

5 짜린다, 부스다, 문혀 바린다,
 태산(泰山) ♦ 갓흔 높은 뫼, 덩태 같은 바위스들이나,
 요것이 무어야, 요게 무어야,
 나의 큰 힘 아나냐, 모르나냐, 호통짜디 하면서,
 짜린다, 부스다, 문혀 바린다,
 10 터……르씩, 터……르씩, 툅, 튜르릉 콧.

2

터……르씩, 터……르씩, 툅, 싹……아.

내게는, 아모것, 두려움 업서,
 육상(陸上)에서, 아모런, 힘과 권(權) ♦ 을 부리던 자(者)라도,
 15 내 압헤 와서는 썸썸 못하고,
 아모리 큰, 물건도 내게는 행세하디 못하네,
 내게는 내게는 나의 업헤는,
 터……르씩, 터……르씩, 튜르릉 콧.

3

20 터……르씩, 터……르씩, 툅, 싹……아.
 나에게, 덜하지, 아니한 자(者)가
 지금(只今)짜디, 업거던, 통괴 ♦ 하고 나서 보아라.
 진시황(秦始皇) ♦ 나팔룬 ♦ 너의들이나,
 누구 누구 누구냐 너의 역시(亦是) 내게는 굽히도다.
 25 나허구 겨르리 잇건 오나라.
 터……르씩, 터……르씩, 툅, 튜르릉 콧.

신체시

옛 시가와 근대시 사이에 놓인 과도기적 시가 형태. 갑오경장(甲午更張) 이후 개화 가사(開化歌辭)와 창가(唱歌) 다음으로 형성되었다. 3·4조가 기본이 되는 형식을 벗어나 7·5조, 3·4·5조 등의 새로운 형식을 취하고, 개화 의식, 자주 독립 정신, 신교육, 남녀평등 사상 등을 담고 있다.

- ♦ 태산 중국의 오악(五嶽) 중의 동악으로 여기서는 높고 큰 산을 뜻함.
- ♦ 권 권세, 권력.
- ♦ 통괴 기별하여 알림.
- ♦ 진시황 중국 전국 시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한 진나라 첫 황제.
- ♦ 나팔룬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한자의 가차(假借)식 표기.



최남선(1890~1957)

서울 출생. 문인. 최초의 종합 잡지 “소년”을 통해 잡지 문화를 개척하였으며, 근대 문학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주요 작품으로 ‘꽃 두고’ 등이 있으며, 저서에 “백팔 번 뇌”, “시조유취” 등이 있다.

4

터……르씩, 터……르씩, 툃, 썩……아.
 도고만 산(山)모를 의지(依支)하거나,
 도스쌀 갓흔 덕은 섬, 손스벽 만한 쌍을 가디고,
 고 속에 잇서서 영악한 테를,
 부리면서, 나 혼다 거룩하다 하난 자(者),
 이리 돛 오나라, 나를 보아라.
 터……르씩, 터……르씩, 툃, 튜르릉 콧.

5

5

터……르씩, 터……르씩, 툃, 썩……아.
 나의 짝 될 이는 한아 잇도다.
 크고 길고, 널으게 뒤덮흔 바 더 푸른 하날.
 덕은 시비(是非) 덕은 싹 온갓 모든 더러운 것 업도다.
 도짜위 세상(世上)에 도 사람터럼,
 터……르씩, 터……르씩, 툃, 튜르릉 콧.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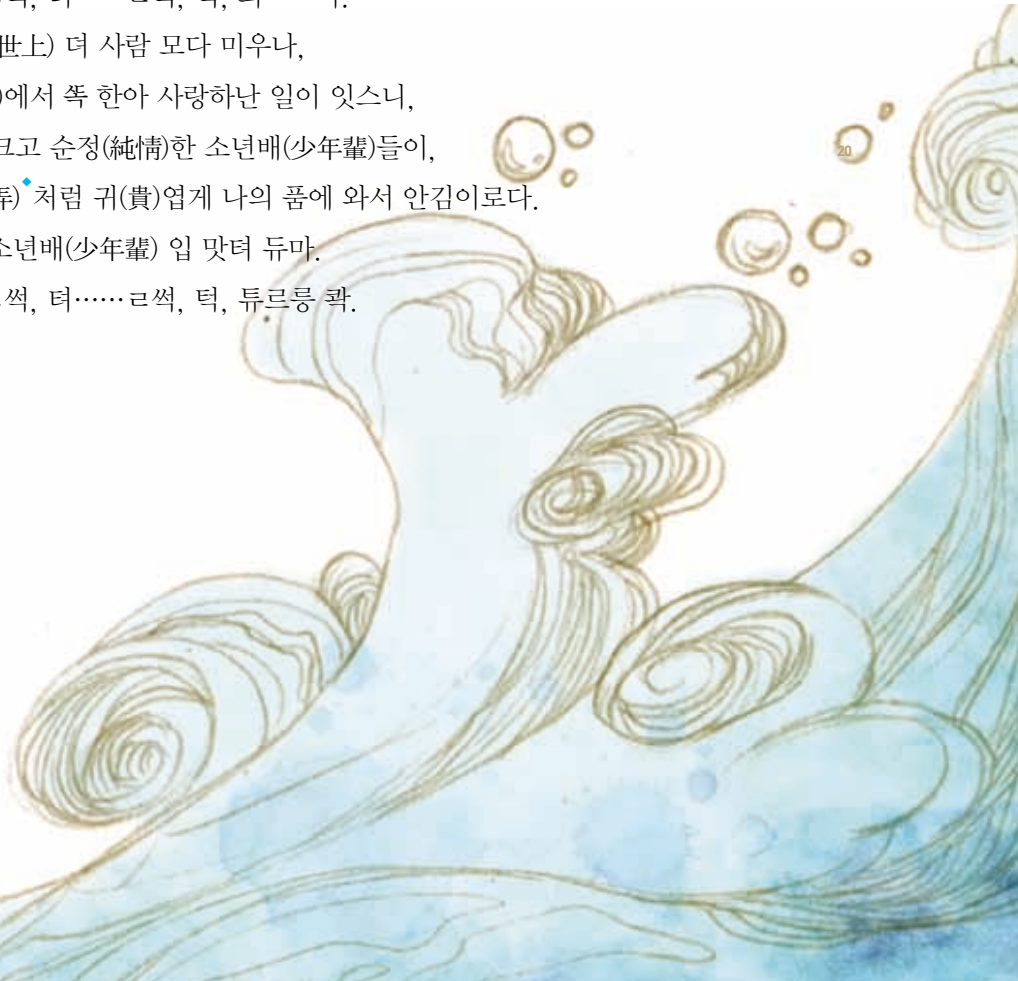
6

터……르씩, 터……르씩, 툃, 썩……아.
 더 세상(世上) 더 사람 모다 미우나,
 그 중(中)에서 쪽 한아 사랑하난 일이 잇스니,
 담(膽) 크고 순정(純情)한 소년배(少年輩)들이,
 재롱(才弄) 처럼 귀(貴)엽게 나의 품에 와서 안감이로다.
 오나라 소년배(少年輩) 입 맞터 듀마.
 터……르씩, 터……르씩, 툃, 튜르릉 콧.

15

20

- ◆ 산모 산모통이.
- ◆ 영악한 악착스럽고 모진.
- ◆ 시비 옳고 그름.
- ◆ 담 담력.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 ◆ 재롱 재주를 부리고 아양을 떨.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바다'가 사랑하는 대상을 찾고, 그것과 대비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목표 학습

2 이 작품의 창작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써 보자.

• 바다:

• 소년:

• 힘과 권을 부리던 자,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적용 학습

3 이 작품의 형식을 다음 두 작품과 비교해 보자.

잠을 지세 잠을 지세
 스천 년이 꿈 속이라
 만국이 회동(會同)하야
 사해(四海)가 일가(一家)로다
 구구세절(區區細節) 다 버리고
 상하(上下) 동심(同心) 동덕(同德)하세
 늪으 부강 불어 하고
 근본 업시 회빈(回賓)하라
 범을 보고 개 그리고
 봉을 보고 뚝 그린가
 문명(文明) 기화(開化)하라 하면
 실상(實狀) 일이 제일(第一)이라.
 못세 고기 불어 말고
 그물 미즈 잡아 보세
 그물 밋기 어려우랴
 동심결(同心結)노 미즈 보세

- 이중원, '동심가'

밤이도다
 봄이다
 밤만도 애달픈데
 봄만도 생각인데
 날은 빠르다
 봄은 간다
 깊은 생각은 아득이는데
 저 바람에 새가 슬피 운다
 검은 내 떠돈다
 종소리 빗긴다
 말도 없는 밤의 설움
 소리 없는 봄의 가슴
 꽃은 떨어진다
 님은 탄식한다

- 김억, '봄은 간다'

0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26년에 발표된 자유시이다.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 방식에 초점을 두어 작품을 읽어 보자.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어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는 않구나
네가 끄을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워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욱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가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 ◆ 가르마 '가리마'의 방언.
- ◆ 삼단 삼(麻)을 묶은 단. 길고 풍성한 머리채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임.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젓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이상화(1901~1943)

대구 출생. 시인. “백조” 동인으로 초기에는 탐미적인 시를 썼으나, 이후 민족 현실에 대한 관심과 저항 의식을 담은 시를 썼다. 주요 작품으로 ‘나의 침실로’ 등이 있다.

나비 제비야 깍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5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진 젓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웃어웁다 답을 하려무나.

10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 깍치지 '재촉하지'의 방언.
- ◆ 지심매던 김매던.
- ◆ 짬 현재의 상황이나 형편.
- ◆ 풋내 풀 냄새, 봄기운.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을 찾아보자.

목표 학습

2 다음 구절의 표현상 특징과 그 의도를 말해 보자.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잡혔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적용 학습

3 다음 작품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 드러난 화자의 시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비교해 보자.

노주인(老主人)의 장벽(腸壁)에
 무시(無時)로 인동(忍冬) 삼긴 물이 나린다.

자작나무 덩그럭 불이
 도로 피어 붉고,

구석에 그늘 지어
 무가 순돌아 파릇하고,

흙냄새 훈훈히 김도 사리다가
 바깥 풍설(風雪) 소리에 잠착하다.

산중(山中)에 책력(冊曆)도 없이
 삼동(三冬)이 하이양다.

— 정지용, ‘인동차(忍冬茶)’

- ◆ 삼긴 삼긴. 물에 삶아 우려낸.
- ◆ 덩그럭 불. 장작의 다 타지 않은 덩어리에 붙은 불.
- ◆ 잠착하다 어떤 한가지 일에만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
- ◆ 책력 달력.

03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

안국선

이 작품은 개화기에 나온 우화 형식의 신소설이다.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당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제칠석,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호랑이)

5 웅장한 소리로 회장을 부르니 산천이 울린다. 연단⁵에 올라서서 머리를 설레 설레 흔들고 좌중을 내려다보니 눈알이 등불 같고 위풍이 늠름한데, 주홍 같은 입을 떡 벌리고 어금니를 부지직 갈며 연설하는데, 좌중이 종용하다.

“본원의 이름은 호랑인데, 별호⁶는 산군⁷이올시다. 여러분 중에도 혹 아시는 이도 있을 듯하오. 지금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마디 할

- ◆ 가정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혹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 ◆ 연단 연설이나 강연을 하는 사람이 올라서는 단.
- ◆ 종용하다 성격이나 태도가 차분하고 침착하다.
- ◆ 별호 호, 별명(別名).
- ◆ 산군 '호랑이'를 달리 이르는 말.



안국선(1878~1926)

경기 안성 출생. 신소설 작가. 애국 계몽사상에 바탕을 둔 신소설을 주로 창작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공진회' 등이 있다.

우화 소설

우화는 동·식물의 가면을 쓴 유형적 인물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간 본성과 행위 원리를 예시해 주는 이야기로서, 윤리적·교훈적 목적의식이 강하며, 인간성의 결함이나 부조리를 비판하려는 풍자성을 수반하고 있다.

- ◆ 양자 중국 전국 시대 초기의 사상가인 양주(楊朱)를 높여 이르는 말.
- ◆ 자고 이래 예로부터 내려오면서,
- ◆ 횡행할 아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할.
- ◆ 청천백일 지하 맑은 하늘에 뜬 해 아래.
- ◆ 사전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때 죄인을 용서하여 놓아주던 일.
- ◆ 용사하여 일을 처리하는 데 개인의 사사로운 정을 두어.
- ◆ 등물 같은 종류의 물건.
- ◆ 만반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것.
- ◆ 경륜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 ◆ 굴평 중국 전국 시대의 정치가·시인.
- ◆ 포악 무쌍 사납고 악함이 심하다.

❓ ‘호랑이 나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

터인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옛적 유명한 성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뜻은 까다로운 정사(政事)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함이니, 양자(楊子)라 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말이 있는데 혹독한 관리는 날개 있고 뿔 있는 호랑이와 같다 한지라,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포악하고 무서운 것은 호랑이라 하였으니, 자고 이래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도리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당하며 살육을 당한 자가 몇 억만 명인지 알 수 없소. 우리는 설사 포악한 일을 할지라도 깊은 산과 깊은 골과 깊은 수풀 속에서만 횡행할 뿐이요, 사람처럼 청천백일 지하의 왕궁 국도에서는 하지 아니하거늘, 사람들은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으며 죄 없는 백성을 감옥서에 몰아넣어서 돈 바치면 내어 놓고 세 없으면 죽이는 것과 임금은 아무리 인자하여 사전(赦典)을 내리더라도 법관이 용사(用私)하여 공평치 못하게 죄인을 조종하고, 돈을 받고 벼슬을 내어서 그 벼슬한 사람이 그 밑천을 뽑으려고 음흉한 수단으로 정사를 까다롭게 하여 백성을 못 견디게 하니,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여 보면 몇 만 배가 될는지 알 수 없소. 또 우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발톱과 이빨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 천성의 행위를 행할 뿐이어서,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하여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배워서 사람의 도리에 유익한 옳은 일에 쓰는 것은 별로 없고, 각색 병기를 발명하여 군함이니 대포니 총이니 탄환이니 화약이니 칼이니 활이니 하는 등물(等物)을 만들어서 재물을 무한히 내버리고 사람을 무수히 죽여서, 나라를 만들 때의 만반 경륜은 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뿐이라. 그러므로 영국 문학 박사 판스라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잔인한 까닭으로 수천만 명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들어갔도다 하였고, 옛날 진회왕이 초회왕을 칭하매 초회왕이 진나라에 들어가려 하거늘, 그 신하 굴평이 간하여 가로되, 진나라는 호랑이 나라이라 가히 믿지 못할지니 가시지 말소소서 하였으니, 호랑이의 나라가 어찌 진나라 하나뿐이리요. 오늘날 오대주(五大洲)를 둘러보면, 사람 사는 곳곳마다 어느 나라가 욕심 없는 나라가 있으며, 어느 나라가 포악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으며, 어느 인간에 고상한 천리를 말하는 자가 있으며, 어느 세상에 진정한 인도를 의론하는 자가 있느냐? 나라마다 진나라요 사람마다 호랑이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호랑이는 포악 무쌍한 것이라 하되, 이것은 알지 못하는 말이라. 우리는 원래 천품이 은혜를 잘 갚고 의리를 깊이 아나니, 글자 읽은 사람은 짐작할 듯하오. 옛적에, 진나라 곽무자

라 하는 사람이 호랑이 목구멍에 걸린 뼈를 빼내어 주었더니 사슴을 드려 은혜를 갚았고, 영운 자문을 나서 몽택[◆]에 버렸더니 젓을 먹여 길렀으며, 양위의 효성을 감동하여 몸을 물리쳤으니, 이런 일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감동하고 의리를 아는 것이라. 사람들로 말하면 은혜를 알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몇몇이나 되겠소? 옛적 사람이 말하기를, 호랑이를 기르면 후환이 된다 하여 지금까지 양호유환(養虎遺患)[◆]이라 하는 문자를 쓰지마는, 되지 못한 사람의 새끼를 기르는 것이 도리어 정말 후환이 되는지라. 호랑이 새끼를 길러서 덕을 모으는 사람은 있으되 사람의 자식을 길러서 덕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소. 또 속담에 이르기를, 호랑이 죽음은 껍질에 있고, 사람의 죽음은 이름에 있다 하니, 지금 세상 사람의 정말 명예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소? 인생 칠십 고래희[◆]라, 한세상 살 동안이 얼마 되지 아니한데 옳은 일만 할지라도 다 못하고 죽을 터인데, 꿈결 같은 이 세상을 구구히[◆] 살려 하여 못된 일 할 생각이 시꺼멓게 있어서,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이는 자도 있으니 어찌 불쌍치 아니하리요. 옛적 사람은 호랑의 가죽을 쓰고 도적질하였으나, 지금 사람들은 껍질은 사람의 껍질을 쓰고 마음은 호랑이 마음을 가져서 더욱 험악하고 더욱 흉포한지라, 하느님은 지공무사(至公無私)[◆] 하신 하느님이시니, 이같이 험악하고 흉포한 것들에게 제일 귀하고 신령하다는 권리를 줄 까닭이 무엇이오? 사람으로 못된 일하는 자의 종자를 없애는 것이 좋은 줄로 생각하옵네다.”

(후략)

- ◆ 몽택 지명.
- ◆ 양호유환 범을 길러서 화근을 남긴다는 뜻으로,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환을 당하게 됨을 이르는 말.
- ◆ 인생 칠십 고래희 사람이 일흔 살까지 살기란 예로부터 드문 일이라는 뜻. 두보(杜甫)의 시에 나오는 구절임.
- ◆ 구구히 떼뺏기지 못하고 졸렬하게.
- ◆ 지공무사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

❓ ‘앞문으로 호랑이를 막고 뒷문으로 승냥이를 불러들이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

전체 줄거리 ‘나’는 타락한 인간 사회를 한탄하다가 잠이 들어 금수들이 회의하는 곳에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게 된다. 거기서 사회자가 세상 사람의 옳고 그름을 밝힐 것을 안건으로 상징하고 개회하자 까마귀, 여우, 개구리, 벌, 게, 파리, 호랑이, 원앙새 등의 동물들이 인간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인간이 제일 어리석고 더럽다고 결론을 내리며 폐회한다. ‘나’는 이런 결론을 변명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한탄하고, 인간의 회개를 촉구한다.

금수회의록의 구성

| 구분 | 등장 동물 | 연설 제목 |
|-----|-------|--------------|
| 제1석 | 까마귀 | 반포지효(反哺之孝) |
| 제2석 | 여우 | 호가호위(狐假虎威) |
| 제3석 | 개구리 | 정와어해(井蛙語海) |
| 제4석 | 벌 | 구밀복검(口蜜腹劍) |
| 제5석 | 게 | 무장공자(無腸公子) |
| 제6석 | 파리 | 영영지극(營營之極) |
| 제7석 | 호랑이 |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
| 제8석 | 원앙 | 쌍가쌍래(雙去雙來) |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서 호랑이가 지적하고 있는 당대 현실의 문제를 말해 보자.

내용 학습

2 이 작품이 우화 형식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토의해 보자.

목표 학습

3 이 작품에서 '반봉건', '반외세'의 가치가 드러난 부분을 찾아서 정리해 보자.

적용 학습

4 이 작품과 같이 동물의 입을 빌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점을 표현해 보자.

< 신 금수회의록 >

04 삼대(三代)

염상섭

이 작품은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통해 시대 현실을 보여 주는 소설이다.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상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두 친구

5 덕기는 안마루에서 내일 가지고 갈 새 금침[◆]을 아범을 시켜서 꾸리게 하고
 축대 위에 섰으려니까 사랑에서 조부가 뒷짐을 지고 들어오며 덕기를 보고,
 “애, 누가 찾아왔나 보다. 그 누구냐? 대가리 꼴하고……. 친구를 잘 사귀어
 야 하는 거야. 친구라고 찾아온다는 것이 왜 모두 그따위뿐이냐?”
 하고 눈살을 찌푸리는 못마땅하다는 잔소리를 하다가, 아범이 꾸리는 이불로
 10 시선을 돌리며 놀란 듯이,
 “애, 애,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이불이냐?”
 하며 가서 만져 보다가,
 “당치 않은! 삼동주 이불이 다 뭐냐? 주숙[◆]이란 내 낫세[◆]나 되어야 몸에 걸치
 는 거야. 가외 저런 것을 공부하는 애가 외국으로 끌고 나가서 더럽혀 버릴
 15 테란 말이냐? 사람이 지각머리가…….”
 하며 부엌 속에 쪽치고[◆] 섰는 손주 며느리를 쏘아본다.
 덕기는 조부의 꾸지람이 다른 데로 옮겨간 틈을 타서 사랑으로 빠져나왔다.
 머리가 덩수룩하고 꼴이 말이 아니라는 조부의 말눈치로 보아서 김병화가 온
 것이 짐작되었다.
 20 “야아, 그러지 않아도 저녁 먹고 내가 가려 하였었네.”
 덕기는 이를 만에 만나는 이 친구를, 더욱이 내일이면 작별하고 말 터이니만
 치 반갑게 맞았다.
 “자네 같은 부르주아[◆]가 내게까지! 자네가 작별하러 다닐 데는 적어도 조선
 은행 총재나…….”
 25 병화는 부엌계 먼지가 앉은 외투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딱 버티고 서서
 이렇게 비꼬는 수작을 하고서는 껄껄 웃어 버린다.
 “만나는 족족 그렇게도 짓궂게 한마디씩 비꼬아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겠냐?
 그 성미를 좀 버리게.”

가족사 소설

한 가족의 흥망성쇠 내력을 다룬 소설.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의 움직임과 변화 양상을 중시하고, 여러 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통해 시대적 변천사와 역사의 변모 양상을 밝힌다. 염상섭의 '삼대', 채만식의 '태평천하', 김남천의 '대하', 박경리의 '토지'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② '조부'의 심리를 추리해 보자.

- ◆ 금침 이부자리와 베개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주숙 명주불이.
- ◆ 낫세 나잇살.
- ◆ 쪽치고 문맥상 '기가 놀리어 꿈쩍 못하고'.
- ◆ 부르주아(bourgeois) 여기서는 '부자(富者)'를 속되게 나타낸 말.



염상섭(1897~1963)

서울 출생. 자연주의적 인생관과 사실주의적 창작 태도로 사회적 현실과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다. 주요 작품으로 '표본실의 청개구리', '만세전', '제야', '두 파산' 등이 있다.



작가의 말

‘삼대’는 신구 시대를 조손(祖孫)으로, 그 중간의 신구 완충 시대적인 시대, 즉 흑백의 중간적이지요 흐릿한 회색적 존재로서 부친의 대를 개재시키어 새 시대상의 추이와 그 특징을 밝힌 작품이다. 이 ‘조·부·손’ 삼대를 다시 명확히 규정한다면, 조부는 ‘만세’ 전 사람이요, 부친은 ‘만세’ 후의 허탈 상태에서 자타락(自墮落)한 생활에 헤매던 무이상, 무해결의 현실 폭로를 상징한 부정적인 인물이며, 손자의 대에 와서 비로소 새 길을 찾아들려고 허덕이다가 손에 잡힌 것이, 좌익에의 동조자 혹은 동정자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보더라도, 이것이 3·1 운동 후 한 귀퉁이에 나타난 시대상이자 동시에 인텔리 층의 일부가 가졌던 사상적 경향이었던 것이다.

◆ 피전(pigeon) 일제 강점기 때의 담배 상표.

덕기는 병화의 ‘부르주아 부르주아’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다. 먹을 게 있는 것은 다행하다고 속으로 생각지 않은 게 아니라, 시대가 시대이니만치 그런 소리가 - 더구나 비꼬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다.

“들어가세.”

“들어가선 무얼 하나. 출출한데 나가세그러. 수 좋아야 하루에 한 끼 걸리는 눈칫밥 먹으러 하숙에 기어 들어가고도 싶지 않은데……. 군자금만 대게, 내 좋은 데 안내를 해 줄게!”

“시원한 소리 한다. 내 안내할게 자네 좀 내 보게.”

하며 덕기는 임시 제 방으로 쓰는 아랫방으로 들어갔다.

“여보게 담배부터 하나 내게. 내 턱은 그저 무어나 들어오라는 턱일세.”

하며 병화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내밀었다.

“나 없을 땐 온통 담배를 굶데그러.”

덕기는 책상 위에 놓인 ‘피전’[◆] 갑을 들어 내던지며 웃다가,

“그저 담배 한 개라도 착취를 해야 시원하겠나? 자네와 나와는 착취 피착취의 계급적 의식을 전도시키세.”

하며 조선 옷을 훌훌 벗는다.

“담배 하나에 치를 떠는 - 천생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다!”

병화는 담배를 천천히 피워서 맛이 나는 듯이 흠뻑 빨아 후우 뿜어내면서,

“여보게, 난 먼저 나가서 기다림세. 영감님이 나와서 흰 동자로 위아렐 훑어 보면 될 일도 안 될 테니까!”

하고 뚜벅뚜벅 사랑문 밖으로 나간다.

아닌 게 아니라 덕기도 조부가 나오기 전에 얼른 빠져나가려던 차이다. 덕기는 병화의 말에 혼자 픽 웃으며 벽에 걸린 학생복을 부리나케 떼어 입고 외투를 들쓰며 나왔다. 조부는 병화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다만 양복 풀이나 머리를 덤수룩하게 하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무어나 뜯으려 다니는 위인일 것이요, 그런 축과 얼려서 술을 배우고 돈을 쓰러 다닐까 보아서 걱정을 하는 것이었다.

“내일 몇 시에 떠나나?”

“글쎄, 대개 저녁이 되겠지.”

덕기도 유한계급인[◆]의 가정에서 자라나니 만치[◆] 몇 시 차에 갈지 분명히 작정도 안 하였거니와, 내일 못 가면 모레 가고 모레 못 가면 글피 가지 하는 흐리멍덩한 예정이었다.

“언제 떠나든 상관 있나마는, 상당히 땀뺐네그려?”

“영감님 솜씨에 주판질 안 하시고 내놓으시겠나?”

“우는소리 말게. 누가 기대일까 봐 그러나?”

“기대면 줄 것은 있구…….”

“앗! 그래두 한 달치는 해 주어야 떠내 보낼 텔세. 있는 놈의 집 같으면 그대로 먹어 주겠지만, 주인 딸이 공장을 다녀서 요새 그 혼한 쌀값에 되되이 팔아먹네그려. 차마 볼 수가 있어야지…….”

“흥…….”

하고 덕기는 동정하는 눈치더니,

“자네 따위를 두기가 불찰이지.”

하고 웃어 버린다.

“그러기에 세상은 살라는 마련 아닌가?”

“딴은 그래!”

“하지만, ‘자네 따위는 사귀기가 불찰’이란 말은 차마 아니 나오나 보이그려?”

병화는 여전히 비꼬아 본다.

“그런 줄은 자네가 먼저 아네그려.”

덕기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한다.

“나니까 자네 따위를 줄줄 쫓아다니며 토주[◆]라도 해서 먹어 주는 줄은 모르구…….”

“왜 안 그렇겠나. 일세의 혁명가가 인제 중학교나 면한 어린애를 친구라기는

◆ 얼려서 어울려서.

◆ 유한계급인(有閑階級人) 재산이 넉넉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

◆ 자라나니 만치 자라나서 만큼.

◆ 토주 술을 사 달라고 졸라 댐.

◆ 결코 틀던 서로 지지 않으려고 버티고 뒤틀던.

창피도 할 걸세. 대단 영광일세.”

일 년에 한두 번 방학 때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터이나, 이 두 청년은 입심 자랑이나 하듯이 주고받는 말끝마다 서로 비꼬는 수작밖에 없건마는 그래도 한 번도 정말 노(怒)해 본 일은 없는 사이다.

중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첫째 둘째를 결코 틀던 수재이고, 비슷비슷한 가정 사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어린 우정일망정 어느덧 깊은 이해와 동정은 버려야 버릴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지적(理智的)이요 이론적(理論的)이기는 둘이 더하고 덜할 것이 없지마는, 다만 덕기는 있는 집 자식이요 해사하게 생긴 그 얼굴 모습과 같이 명쾌한 가운데도 안존하고 순편한 편이요, 병화는 거무튀튀하고 유들유들한 맛이 있는 니만큼 남에게 좀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는 고집이 있어 보인다.

그 수작 붙이는 것을 보아도 덕기 역시 넉넉한 집안에 파묻혀서 곱게 자라난 분수 보아서는 명랑하지 못한 성미이나, 병화는 이 이삼 년 동안에 더욱이 성격이 뒤틀어진 것을 덕기도 냉연히 바라보고 지내는 터이었다.

(후략)

❓ 상황을 고려하여 '병화'의 성격이 뒤틀어진 이유를 추리해 보자.

전체 줄거리 조의관은 재산과 가문 유지에만 힘쓰는 노인이다. 그는 아들 상훈 내외와 별거하고 젊은 부인 수원택을 얻어 산다. 한편 상훈은 신문물을 받아들여 교회의 장로 노릇을 하면서도 술집 출입을 하며, 독립투사의 딸이자 아들 덕기의 동창인 흥경애와 유치원 교사인 김 의경을 첩으로 얻기까지 한다. 덕기는 조부나 아버지와는 다른 신세대이지만, 사회주의자인 친구 병화로부터 '부르주아'라는 소리를 곧잘 듣는다. 일본에 유학하면서 조부와 아버지 사이에서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경험한 덕기는 병화로부터 사회주의자의 딸인 필순을 소개받는다. 조의관은 덕기에게 금고 열쇠를 맡기고 죽게 된다. 덕기의 집안은 유산 문제로 분란을 겪지만 덕기는 이를 잘 수습한다. 한편 사회는 3·1 운동의 실패로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어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도 불신과 반발이 고조되고 테러 행위가 자행된다. 이러한 가운데 덕기는 일본 경찰에 붙잡히게 된 병화를 돕고 아버지를 잃은 필순을 돌보리라 마음먹는다.

내용 학습

1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조의관
- 조덕기
- 김병화

목표 학습

2 이 작품에서 시대 상황을 보여 주는 표현을 찾고, 이를 통해 당대의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작품을 읽고 '삼대'와 다른 점을 찾아보자. 그리고 문학 작품의 특징이 시대에 따라 다른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화설, 무릇 인생에 남녀 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충효로 근본을 삼을 것이니, 우애 돈목(友愛敦睦) 지심과 낙선 행덕(樂善行德) 지의가 다 이것으로 나는 것이라. 자손이 창성하고 부귀영화 하는 복록이 유래함이 먼지라. 이런 고로 충효의 공업을 세워 마땅히 행할 바라. 그러나 위태한 곳이라도 반드시 평안하고, 그렇지 아니한즉 비록 평안한 곳이라도 위태하나니 가히 사람의 선악을 경계하리도다.

각설, 명나라 초에 장군 화운이라는 사람이 태평부에서 죽을 때에 그의 부인 곡씨도 남편을 좇아 죽으매 어린아이는 물속에 던져 버리더라. 그러나 웬일인지 아이는 이레 동안이나 물속에 있다가 죽지 않고 살아 나왔으니 어찌 천명이 아니리오.

화운의 칠 대손 육이 여양후 벼슬로 명나라 세종 황제 가정 십삼 년 시절에 과거하여 벼슬이 형부 상서에 이르고 이십삼 년에 길양을 쳐서 파멸한 공으로 여양후가 되었는데 화육은 위인이 방정 엄숙하고 정사에 연달하므로 천자를 그를 중히 여기시고, 벼슬을 돌우시와 병부 상서 도찰원 도어사를 삼으시고, 협서군무사를 총독게 하시더라.

이때 화육의 서울 집이 경성 만세교 남쪽에 있었는데 원비 심 씨는 공부 시랑 심학의 딸이요, 차비 요 씨는 태자소부 요관의 딸이요, 삼비 정 씨는 이부 시랑 정웅의 딸이더라. 심 씨는 말을 잘하고 자색이 절등하되, 마음이 매우 사납고 계다가 그 아들 춘은 품격이 매우 범용한 자여서 공은 심 씨를 그다지 사랑하지 아니하더라.

- 조성기, '창선감의록'에서

- ◆ 우애 돈목 형제간 또는 친구 간의 사랑이나 정분이 두텁고 화목함.
- ◆ 창성하고 기세가 크게 일어나 잘 뻗어 나가고.
- ◆ 방정 말이나 행동이 바르고 점잖음.
- ◆ 자색 여자의 고운 얼굴이나 모습.
- ◆ 절등하되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나지만.
- ◆ 범용한 평범하고 변변하지 못한.

(5) 현대 문학

현대 문학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문학을 가리킨다. 광복 직후에는 분단된 상태에서 극심한 이념 대립 등 사회 혼란을 겪어야 했다. 뒤이어 발생한 전쟁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고통과 후유증을 남겼다. 이후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겪었으며, 동시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 구조의 커다란 변동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의 현대 문학에서 다양한 소재와 주제로 변용되어 나타났다.

이 시기 문학의 특징으로 첫째, 독립된 나라에서 민족의 정서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었고, 둘째, 분단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문학이 상호 교류 없이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하였으며, 셋째,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작품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시의 흐름

1950년대의 시는 박목월, 박두진, 유치환, 김광섭, 박재삼 등이 발표한 전통적 서정시의 맥을 이은 작품과 전후 현실 속에서 불안에 휩싸인 인간의 내면을 담아낸 박인환, 김경린, 김규동, 박남수 등의 모더니즘 시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정한모, 김현승, 구상 등은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하였고 이은상, 이호우, 김상옥 등은 현대 시조의 창작에 관심을 기울였다.

1960년대에는 이성교, 조병화, 천상병 등의 전통적 서정시와 김춘수, 송옥, 황동규의 모더니즘 시, 그리고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김수영, 신동엽 등의 참여시 운동이 큰 흐름을 이루었다.

1970년대 시의 흐름은 현실 참여적인 경향과 모더니즘적 경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실 참여적인 경향의 시인으로는 김지하, 신경림, 조태일, 이성부, 최하림, 김준태, 정희성 등이 있으며 황동규, 정현중, 오규원 등은 모더니즘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

1980년대 시 문학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참여시’라는 용어 대신에 ‘민중시’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지식인 대신에 노동자와 농민이 시인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시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시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황지우, 최승호, 박남철 등의 시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 준다.

참여시의 흐름

- 김수영: ‘풀’, ‘거대한 뿌리’
- 신동엽: ‘금강’, ‘껍데기는 가라’
- 김지하: ‘오적’
- 신경림: ‘농무’
- 조태일: ‘국토’
- 이성부: ‘백제행’
- 최하림: ‘우리들을 위하여’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 논의가 활발해지고 해체시가 등장하는 등 형식이나 주제면에서 다양한 시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내면, 자본주의 현실, 생태계 문제, 여성의 현실 등을 문제 삼는 김기택, 유하, 장정일, 함민복, 장석남, 나희덕 등의 시인이 있다.

소설의 흐름

1950년대 소설은 전쟁의 충격과 그 극복을 모색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인간의 실존을 탐색하는 작품이 많이 나왔다. 손창섭, 장용학, 선우휘, 이범선, 하근찬, 서기원, 황순원 등이 활발히 활동하였다.

1960년대의 소설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 사회적 부조리, 인간 실존의 문제 등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다. 최인훈, 이호철, 전광용, 김승옥, 이청준, 박경리, 오영수 등이 이 시기의 작가이다.

1970년대는 산업화로 인한 인간성 상실과 그 극복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황석영, 최일남, 박완서, 조세희, 조정래, 윤홍길, 한승원, 최인호, 이문구, 김주영, 김성동, 오정희, 이문열 등의 수많은 작가들이 등장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은 역사의식의 심화, 민중 생활에 대한 관심, 산업화에 대한 성찰 등을 특징으로 한다.

1980년대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통일 운동, 여성 해방 운동 등 사회 개혁의 열정에 힘입어 민족 문학, 민중 문학, 노동 해방 문학, 여성 해방 문학 등 다양한 소설들이 창작되었다. 송기숙, 조정래, 현기영 등이 이 시기 대표적인 작가이다. 또한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과 같이 지난 역사에 대한 사실적 재조명을 담은 역사 소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1990년대에는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1980년대를 뒤돌아보고 정리하는 일련의 소설들이 나왔으며,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의 그늘에서 살아온 대중들의 삶이 주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섬세한 서정과 유려한 문체, 그리고 남다른 현실 인식을 갖춘 여성 작가들이 많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전쟁과 분단을 다룬 소설

- 1950년대: '비 오는 날' (손창섭), '요한 시집' (장용학), '유예' (오상원), '탈향' (이호철), '쫄리 킴' (송병수), '불꽃' (선우휘), '제3 인간형' (안수길)
- 1960년대: '광장' (최인훈), '병신과 머저리' (이청준),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시장과 전장' (박경리), '판문점' (이호철)
- 1970년대: '장마' (윤홍길), '노을' (김원일), '아베의 가족' (전상국)
- 1980년대: '태백산맥' (조정래), '아버지의 땅' (임철우)



한국 전쟁

극 문학의 흐름

8·15 직후 사상적 대립이 극심해지자 좌익의 경향극에 반대하여 유치진 등은 계몽극을 주도하였다. 이 시기의 희곡 작가로는 이광래, 유치진 등이 있으며, 시나리오 작가로는 윤봉춘 등이 있다.

한국 전쟁 후에 등장한 극작가들은 전쟁의 참상 속에 허덕이는 인간상을 주로 그려 보였다. 임희재, 차범석, 이근삼, 천승세 등이 대표적이다.

1960년대에는 서구 현대극의 기법이 전면적으로 도입되고 다수의 희곡 작가가 활동하며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다. 또한 매년 100여 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상영되면서 시나리오가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극 문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다수 창간됨으로써 창작 활동의 기반이 확대되었으며, 소극장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기존의 사실주의 희곡이 퇴조하고 다양한 형식을 실험하는 희곡이 많이 나오게 된다. 1970년대 이후의 극작가로서 오태석, 이재현, 윤대성, 허규, 이운택, 노천석, 이강백 등을 들 수 있다.

수필의 흐름

광복 이후 수필은 혼란한 현실 속에서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갔다. 김소운, 조지훈, 이희승, 이양하, 이어령, 피천득, 윤오영 등을 대표적 수필가로 들 수 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김규련, 김태길, 이문열, 신영복, 나희덕 등이 수필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반인들도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누리게 된 다양한 생활의 체험을 담은 수필을 창작하게 되면서 수필의 소재, 양식, 매체가 크게 확장되었다.

한국 문인 협회
(<http://www.ikwa.org/>)



이 작품은 눈을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표현한 시이다.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눈은 살아 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5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더러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10 기침을 하자

눈은 살아 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靈魂)과 육체(肉體)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

기침을 하자

15 젊은 시인(詩人)이여 기침을 하자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김수영의 시 세계

초기에는 모더니스트로서 현대 문명과 도시 생활을 노래했으나 4·19 혁명을 기점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참여시를 발표했다. 산문집 “시여, 침을 뱉어라”에서 김수영은 시인의 현실 참여는 시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시에서 자유나 민주주의에 대해 직접 말할 것이 아니라 시의 자유와 시의 민주주의를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수영의 시에는 시적 자아의 자의식이 깊이 배어 있으며, 독재 정권뿐만 아니라 소시민성 또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수영(1921~1968)

서울 출생. 시인. 4·19 혁명을 기점으로 초기의 모더니즘적 시 경향에서 벗어나 강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시를 썼다. 주요 시집으로 “달나라의 장난”, “거대한 뿌리”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눈', '시인' 과 관련하여 반복된 구절을 찾아보고, 그러한 표현의 효과를 말해 보자.

| 시어 | 반복된 구절 | 표현 효과 |
|----|--------|-------|
| 눈 | | |
| 시인 | | |

목표 학습

2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 가래라도 / 마음껏 뱉자.' 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화자의 현실 인식을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작품을 읽고 '눈' 과 비교하여 화자의 현실 인식을 정리해 보자.



식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교인을 향한
 인류의 죄에서 눈 돌린 죄악을 향한
 인류의 금세기 죄악을 향한
 인류의 호의호식을 향한
 인간의 증오심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나를 향한
 소말리아
 한 어린이의
 오체투지의 예가
 나를 얼어붙게 했다.
 자정 넘어 취한 채 귀가하다
 주먹가 골목길에서 음식물을 계운
 내가 우연히 펼친 '타임(TIME)' 지의 사진
 이 까만 생명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 이승하, '이 사진 앞에서'

02 북어(北魚)

최승호

이 작품은 '북어'를 통해 현대인의 삶을 표현한 시이다. 시적 대상의 의미와 표현 기법에 주목하며 읽어 보자.

밤의 식료품 가게
퀘퀘 묶은 먼지 속에
5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 개 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꿰어져 있었다.
10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한 셈이다.
한 쾌*의 혀가
자갈처럼 죄다 딱딱했다.
나는 말의 변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병어리를 말한 셈이다.
15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북어들의 뺏뺏한 지느러미.
막대기 같은 생각
빛나지 않는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20 해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닷없이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25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 ◆ 분대(分隊) 보병 부대 편성의 가장 작은 단위.
- ◆ 쾌 북어를 묶어 세는 단위. 한 쾌는 북어 스무 마리.



최승호(1954~)

강원 춘천 출생. 시인. 도시와 문명의 위기를 비판적으로 표현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대설 주의보', '세속 도시의 즐거움',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아마존 수족관'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 "고슴도치의 마을", "진흙소를 타고"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다음의 시구가 지닌 의미를 파악하고,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 시구의 의미 | 표현상의 특징 |
|-------------|--------|---------|
| 꼬챙이에 꿰어진 북어 | | |
| 딱딱한 혀 | | |
|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 | |
| 뺏뺏한 지느러미 | | |

목표 학습

2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현대인과 자신의 모습을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작품에서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발상과 표현 기법을 찾아 발표해 보자.

| | |
|---|---|
|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 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 었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 을 것이다 바람과 햇벌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 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 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뺏뺏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 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

- 김기택, '멸치'

03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의 이면에서 소외된 계층의 삶을 그린 연작 소설이다.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당대의 문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5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15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예요.”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가 말했다.

20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연작 소설

- ‘뫼비우스의 띠’
- ‘칼날’
- ‘우주여행’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육교 위에서’
- ‘궤도 회전’
- ‘기계 도시’
-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 ‘잘못은 신에게도 있다’
- ‘클라인 씨의 병’
-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 ‘에필로그’

❓ ‘철거 계고장’이 왔다는 말에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 난장이 작품 발표 당시는 ‘난장이’가 바른 표기였으나 현행 맞춤법에 따르면 ‘난쟁이’가 바른 표기임.

◆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조세희(1942~)

경기 가평 출생. 소설가. 1970년대 산업 사회의 문제점과 소외 계층의 애환을 다룬 작품을 주로 썼다. 주요 작품으로 ‘시간 여행’ 등이 있다.

연작 소설

부분적으로 독립된 단편이나 전체적으로 하나의 유기적 구조를 갖는 장편의 형태를 지닌 새로운 형식의 소설.

한국 소설사에서는 연작의 형식이 1970년대에 특히 유행했는데, 농촌의 붕괴 문제를 다룬 이문구의 '우리 동네', '관촌수필'과 도시 빈민 문제를 다룬 윤홍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 인물이 사는 곳을 '낙원구 행복동'으로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

낙 원 구

주택: 444,1

197×.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켜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물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들이 한데 뒤엉

◆ 거간꾼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는 일을 하는 사람.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낙원구 행복동



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5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10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 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⑦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심인물을 ‘난쟁이’로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15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도장포 도장을 돈을 받고 새겨 주는 가게.

전체 줄거리 서울 낙원구 행복동에 사는 ‘난쟁이’ 네 다섯 식구는 그 지역이 재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정해진 기일 내에 건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는다. 그들은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주권을 헐값에 팔게 된다. 이사를 가기 전날 막내 영희가 사라진다. 어머니는 영희가 영수와 영호가 다니던 공장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더욱 어려워진 집안 형편을 보다 못해 돈을 벌러 나갔으리라고 생각한다. 영호는 영희가 비행 접시를 타고 날아갔다는 주정뱅이의 말을 듣고 밤새워 기다려 보지만, 비행접시도 영희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영희는 아파트 입주권을 팔던 날 어떻게든 그것을 되찾아 볼 양으로 자기 집 입주권을 사간 사나이를 따라나선다. 그의 집에서 생활을 하며 기회를 엿보던 중 영희는 사나이를 마취하고 입주권을 찾아 도망친다. 영희는 입주 신청을 하고 옛날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식구들은 이미 떠났고 아버지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영희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오빠들을 만나는 꿈을 꾸고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혼내 줄 것을 힘주어 당부한다.

내용 학습

1 '난쟁이' 가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자.

목표 학습

2 이 작품에서 '난쟁이'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당대의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작품과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나타난 작중 상황과 인물의 행동을 비교해 보자.

“지금 부셔 버릴까”
 “안 돼, 오늘 밤은 자게 하고 내일 아침에…….”
 “안 돼, 오늘 밤은 오늘 밤은이 벌써 며칠째야? 소장이 알면…….”
 “그래도 안 돼…….”

두런두런 인부들 목소리 꿈결처럼 쉬이어 들려오는
 루핑 집 안 단칸 벽에 기대어 그 여자
 작은 발이 빠져나온 어린것들을
 불빛인 듯 덮어 주고는
 가만히 일어나 앉아
 칠흑처럼 깜깜한 밖을 내다본다

- 이시영, '공사장 끝에'

◆ 루핑 집 종이나 천 등에 아스팔트 가공을 한 방수포로 지붕을 인 집.

| 구분 | 공통점 | 차이점 |
|-------------------|-----|-----|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 |
| 공사장 끝에 | | |

이 작품은 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 전쟁 후 사회의 변화상과 세대 간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희곡이다. 작품에 나타난 인물들의 가치관 차이와 사회상을 생각하며 읽어 보자.

등장인물

- | | |
|---------------------------------|----------------------|
| 최 노인 60세, 혼구 세업 [◆] 주인 | 어머니 57세 |
| 경수 26세, 아들, 제대 군인 | 경제 18세, 아들, 고등학교 3학년 |
| 경애 23세, 딸, 영화배우를 꿈꾸는 처녀 | |
| 경운 20세, 딸, 출판사 식자공 | 복덕방 노인 65세 |

5

때 현대 **곳** 서울

무대

10

변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 정면에 유리문이 달리고,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이 둘 있고 좌편으로 기억 형으로 굽어서 부엌과 장독대 유리문 저쪽은 가게. 우편으로 대문을 끼고, 헛간과 방 하나의 판 채가 서너 평이 못 넘는 좁은 프락을 에워싸고 웅크리고 앉았다. 해묵은 지붕에는 푸른 이끼며 잡초까지 자라나서 오랜 풍상[◆]을 겪어 내려온 이 집의 역사를 말해 주는 듯하다. 배경으로 면목[◆]이 일신해져[◆] 가는 매끈한 고층 건물의 행렬이 옛보이고 좌우편에도 역시 3, 4층이나 되어 보이는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서 이 낡은 기와집을 거의 폐가처럼 멸시하고 있다. 좌편 건물은 아직도 건축 공사가 진척 중에 있는지 통나무로 엮어맨 작업 보조대에 거적때기가 걸려서 건물은 반쯤 가려진 채로다. 이처럼 대차적인 주변의 장애로 말미암아 이 낡은 집 안팎에는 온종일 햇볕이 안 드는 탓인지 한층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찬바람처럼 풍겨 나온다. 때는 초여름 어느 일요일 오전.

15

20

막이 오르면 질주하는 전차며 자동차의 소음이 잇달아 들려온다. 뜰 가에서 경운이가 함석 통[◆]에 담긴 빨래를 빨고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 좌편 담 아래에 마련된 조그마한 화단 앞엔 아까부터 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화초며 푸성귀들을 손보고 있다. 입에 물린 파이프에서 이따금 뱉어지는 담배 연기가 한가롭다. 잠시 후 경제가 물지계를 지고 좁은 대문을 간신히 빠져나와 경운 앞에도 부러 놓는다.

25

- ◆ 혼구 세업 혼인 때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빌려 주는 일. 여기서서는 그런 일을 하는 점포.
- ◆ 풍상 바람과 서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많이 겪은 세상의 어려움과 고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면목 사람이나 사물의 겉모습.
- ◆ 일신해져 아주 새로워져서.
- ◆ 함석 통 표면에 아연을 도금한 얇은 철판. 지붕을 이거나 양동이, 대야를 만드는 데 쓴다.



차범석(1924~2006)

전남 목포 출생. 극작가이자 연출가. 개성이 뚜렷한 사실주의 극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고, 주요 작품으로 단막 희곡 '별은 밤마다', 장막 희곡 '불모지', '장미의 성', '대리인', '열대어', 연출 작품에 '말괄량이 길들이기', '세일즈맨의 죽음' 등이 있다.



경재 어유 오늘은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 수도엔 난장판인걸! (하며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경운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렇겠지…….

경재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기시다. 물만 길르다가 내
5 년 봄엔 낙제하게 생겼는걸요! 하루 이틀도 아니구…….

최 노인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경운 애도 속없는 소리 잘하긴 경애 언니 닮았나 봐!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
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경재 살기 싫으면 판 테로 옮기면 될걸 왜 이런 개딱지 굴속에서 산다는 거
10 요?

최 노인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때서?

경재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
어요?

‘불모지’와 ‘태양을 향하여’

‘불모지’는 1957년 “문학예술”에 발표된 2막 희곡이다. 이 작품은 1962년 작가에 의해 ‘태양을 향하여’라는 이름의 4막 장막극으로 개작된다.

‘태양을 향하여’에서는 아버지와 갈등하던 경수가 집을 나간 후 제약 회사에서 경수의 취직 통지서가 온다.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다리던 경수가 무사히 나타나자 가족들은 기뻐하고 최 노인은 집을 팔겠다고 선언한다.

② ‘경재’는 무엇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차범석의 다른 희곡

- ‘산불’ (1962): 소백산맥 속에 있는 산속 마을에 숨어든 공비와 주인공 점례의 사랑을 통해 인간적인 욕망을 희생하는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작품.
- ‘청기와 집’ (1964): 지나간 시대에 매달려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세대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잘못 해석하여 파멸에 이르는 신세대의 갈등을 다룬 작품.

❓극의 전개상 ‘취직 통지서’의 역할은?

최 노인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

경재 (남은 물통을 비우며) 중도 없는 절을 뒀에 쓰게요? 도깨비나 날걸…….

최 노인 (약간 핏대를 올리며)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눔아!

경재 (못마땅한 낫으로)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

최 노인 (획 돌아서며) 뭐 뭐야?

경운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경재야, 한 번만 더 길어와! 물이 끊어지면 어땡길랴구…….

중간 부분 줄거리 가족들의 성화 때문에 최 노인은 집을 세놓기로 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한 경수가 이를 막으려 하고 최 노인은 아들의 행동을 집을 팔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오해하여 심하게 꾸짖는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대낮에 총을 들고 나가 강도질을 하려다 경찰에게 붙들린다. 한편 배우를 꿈꾸던 경에는 심사 위원을 사칭한 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자살을 선택한다.

경수 어머니 우시지 마세요, 저는 이미 눈물도 말라버렸어요. 제가 없더라도 경재가 제 몫까지 효성을 바칠 거예요…….

어머니 아…… 하나님도 변덕스럽지! 하루만 앞서 소식을 주셨어도 아들 하나 살릴 텐데…… 죽은 다음에 의사를 보내면 무슨 소용이람! 아이구…….

경수 무슨 얘기에요?

경재 (마루 끝에 놓인 편지를 보이며) 취직 통지서가 왔었어요…… 영등포에 서…….

경수 (고랑이 채인 손으로 편지를 받아 보며) 고마운 친구야…… 그래도 그 친구만은 신의를 지켜 주었군……. (발작적으로 웃으며) 나에게 주는 송별 꽃다발치고는 최고군! 핫하……. (하며 대문 쪽으로 걸어간다. 땅에 떨어진 편지를 경재가 줍는다.)

이때 대문이 열리며 경운이가 마치 유명처럼 들어온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았다. 경운과 마주친 경수는 화석처럼 서서 경운을 응시한다.

경수 (속삭이듯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경운아! 용서해라…….

경운 왜 남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며 외면을 한다.)

경수 (입술 가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알겠따……. 그렇지! 관계있을 리가 없지……. (뒤를 돌아보며) 어머니…… 경재야…… 아버님을……. (하며 휙 돌아서 나간다. 형사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밖이 어수선해지면서 군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난다.)

5 **형사** (소리만 비켜! 저리 가라니까! 뭘 보겠다는 거야! 저리 가!

이 말과 함께 군중들의 웅성대는 소리도 멀어지며 골목 안은 전처럼 조용해진다. 차도에서 들리는 기적 소리와 이웃 다방에서 울려오는 애상적인 경음악의 부조화 음이 유난히도 자극적이다.

어머니 (대문을 쓸어안을 듯이) 경수야! 경수야!

10 경운은 말없이 마루로 올라 방으로 들어간다. 최 노인은 마루 끝에 앉아 있고 경재는 땅만 내려다보고 있다. 침묵이 흐른다. 경운의 방에 불이 켜지며 발이 걸린 미닫이문 너머로 경운의 모습이 아련히 보인다.

경운 (무엇을 발견했는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앗! ……경재야! 경재야!

경재 누나! 왜 그래?

15 **경운** 언니가…… (누워 있는 경애를 흔들며) 언니! 언니! 정신 차려!

최 노인 무슨 일이냐?

경재는 급히 방으로 뛰어간다. 그러나 경운의 통곡 소리가 터지자 어머니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방 가까이 온다. 경재가 한 장의 종이를 손에 들고 나온다.

경재 큰누나가 자살을 했어요…….

20 **최 노인** 경애가?

어머니 아니 자살을 하다니…….

경운 죽긴 왜 죽어! 못난이! (하며 방에서 뛰쳐나온다. 그의 손에는 빈 약갑이 들렸다.) 수면제를 먹었어요…….

어머니 뭐라고?

25 **최 노인**은 유서를 읽고 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린다.

경애의 목소리 ‘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저는 속았어요. 마음도 몸도 남에게 속았으니 더이상 살 수 없어요……. 나일론 면사포를 사드리겠다는 것도 허사가 되었어요…….’

최 노인 (유서를 읽다 말고) 아니 이게 무슨 꼴이람! 이렇게 한꺼번에 집안이…… 아니 이게…….

5

최 노인은 벌떡 일어서며 안절부절못한다. 어느새 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서 경애의 시체를 안고 운다.

경운 아버지 진정하세요……. 네…….

❓ ‘플포기만 시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까지……’ 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최 노인 이런 팔자도 있담! 허…… 플포기만 시들게 하는 줄 알았더니 사람까지…… 아니 이게 정말이야? 경애야? (하며 발광하는 사람처럼 방으로 뛰어들려고 하자 경운이와 경재가 아버지를 안아 말린다.)

10

경재 아버지 들어가지 마세요.

최 노인 놈라! 이놈들아! 놈! 그년의 죽어 넘어진 꼴을 봐야겠다!

경운 아버지! 이러시지 마세요. 언니의 마지막 길을 조용히 떠나게 해 주세요…….

15

최 노인 사람 목숨이 그렇게 값없는 것인가? 너희들 사 남매를 길러 낼 때 나는 죽음이란 생각조차 못했는데 너희놈들은…… 아…… 이게 내가 얻은 전부야? (마룻바닥에 주저앉으며) 경수야! 경수야! (하며 비로소 방성통곡한다.)

경재와 경운은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 있고 방 안의 어머니는 더 슬피 운다.

20

- 막

내용 학습

1 '집'에 대한 최 노인과 경재의 생각 차이를 비교해 보자.

| 최 노인 | 경재 |
|------|----|
| | |

↔

목표 학습

2 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의 의미를 설명해 보자.

적용 학습

3 이 작품을 실제로 공연한다고 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계획을 세워 보자.

| | |
|-------|---|
| 인물 분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 노인 · 어머니 · 경재 · 경운 · 경수 |
| 무대 배경 | |
| 음향 | |

1 다음 설명을 읽고 빈칸을 채워 보자.

| | | | | | | | | | | | | |
|----|----|----|----|--|----|----|----|----|----|--|----|----|
| | | 01 | | | | | | | | | | |
| | 21 | | | | 11 | 30 | | 13 | 32 | | | 33 |
| 02 | | 22 | | | | 12 | | | | | | |
| | | 03 | | | 28 | | | 14 | | | | |
| 04 | | | | | | 31 | | | | | | |
| | | | 24 | | 07 | 29 | | | | | | |
| | 23 | | 06 | | | | | | 17 | | | 34 |
| 05 | | | | | | | | | | | | |
| | | | | | 27 | | 15 | | 35 | | | |
| | | | 08 | | | | | | 16 | | 36 | |
| | | | | | | | | | | | | |
| | 25 | | 10 | | | | 37 | | | | | 38 |
| 9 | | | | | | | | | 18 | | | |
| | | | | | | | 19 | | | | 20 | |

가로 열쇠

- 01 1960년대 현실 비판적인 시를 다수 발표한 시인. 대표작에 '풀', '폭포',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등이 있다.
- 02 고구려 제2대 유리왕이 지었다는 고대 가요. 부인 치희를 떠나보내고 피꼬리 한 쌍이 노니는 모습을 보고 지은 시로, 고대 가요 중 개인적인 서정을 담고 있는 노래.
- 03 조선 숙종 연간에 서포 김만중이 지은 소설로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 "남정기(南征記)"라고도 함.
- 04 죽은 사람의 넋.
- 05 고려 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고려 속요. 남녀 간의 애정을 주로 다루었던 다른 고려 속요에 비해, 삶의 비애와 고뇌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06 김유정의 소설 '소나기'의 주인공. 노름 밀천을 마련하기 위해 아내를 이 주사에게 보내는 농민.

세로 열쇠

- 02 1970년대 노동과 생산, 부와 빈곤의 문제를 다룬 소설가. 대표작에 '삼포 가는 길', '객지' 등이 있다.
- 09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바리데기'에서 온갖 어려움 끝에 약을 구해 돌아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목도한 바리데기는 ○○의 슬픔을 느꼈을 것이다.
- 10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15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冠)의 하나. 박지원이 지은 "허생전"의 주인공 허생은 이것의 재료가 되는 말똥을 사들여 장사를 한다.
- 18 향찰(鄕札)로 기록한 신라 때의 노래. 중국 시가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를 지칭하기도 함.
- 17 신라 시대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 신라 성덕왕 때 순정공의 부인 수로가 해룡에게 납치되었을 때 부른 노래.

- 07 조선 세종 때 지은 악장(樂章)의 하나. 선조인 목조(穆祖)에서 태종(太宗)에 이르는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한 서사시.
- 08 1957년 9월 “문학 예술”에 발표된 차범석의 희곡. 전후의 사회상을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의미하는 이것에 빗대어 표현함.
- 09 우리 민족의 시조이고 고조선을 세운 단군에 관한 신화.
- 10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 김 첨지의 아내가 먹고 싶어 했던 음식. 소의 머리, 내장, 뼈다귀 따위를 꼭 싫어서 만든 국.
- 11 이것을 보고 바닷속에서 이것이 지냈던 생명력을 상상하는 내용을 담은 김기택의 시 제목.
- 12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 ‘누항사’에서 박인로는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안분지족의 삶을 다짐한다.
- 13 이광수가 지은 장편 소설.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126회에 걸쳐 “매일신보(每日申報)”에 연재되었고, 근대 문학 사상 최초의 장편 소설로 간주함.
- 14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 ‘흥부전’에서 구렁이에게 쫓겨 바닥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가 흥부의 도움으로 살아난 제비는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15 조선 영조 때에, 봉당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탕평책을 논하는 지리의 음식상에 처음 올랐다는 ‘목청포’를 이르는 말.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은 봉당 정치의 갈등과 사도 세자의 비극적 죽음을 다룬 책이다.
- 16 1935년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김유정의 단편 소설. 순우리말로 염치가 없이 막대막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 17 해가 막 솟아오르는 때, 또는 그런 현상. 의유당의 ‘동명일기(東溟日記)’는 이를 본 감동을 담고 있다.
- 18 신라 때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국어 문장 전체를 적은 표기법. 특히 향가의 표기에 쓴 것을 이른다.
- 19 가락국(駕洛國) 시조인 수로왕(首露王)의 강림 신화에 함께 전하는 고대 가요.
- 20 서울을 의인화하여 전기(傳記)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
- 21 1958년 “현대 문학”에 발표된 오영수의 단편 소설. 한국 전쟁 직후 부산과 서울을 배경으로 구두땀이 소년 구칠과 중학교 교사 민우의 인정 어린 인간관계가 중심을 이루는 이야기.
- 22 조선 시대에 많이 창작된 시가와 산문 중간 형태의 문학. 주로 4음보의 율문이 길게 이어지는 형식을 취함.
- 23 황해도 봉산(鳳山) 지방에 전승되어 오던 7과장의 가면극.
- 24 조선 전기에 정극인이 지은 가사. 속세를 떠나 자연에 몰입하여 봄을 완상하고 인생을 즐기는 노래.
- 25 ‘호랑이’를 달리 이르는 말. 1908년 발표된 안국선의 신소설 ‘금수회의록’에서 ‘호랑이’가 소개한 자신의 별호.
- 27 박경리가 지은 전 5부 16권의 대하소설. 최씨 일가의 가족사를 중심으로 한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이 겪은 고난의 삶을 형상화해 낸 장편 소설.
- 28 1920~1940년대에 활동한 시인. 대표작에 ‘항수’, ‘유리창’, ‘장수산 1’ 등이 있다.
- 29 벗겨 놓은 씨리의 껍질. ‘시집살이 노래’의 ‘삼던 같던 요 내 머리 / ○○○춤이 다 되었네.’
- 30 1938년 3월 7일부터 14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채만식의 단편 소설. 풍자의 수법을 사용하여 잘못된 현실 인식을 지닌 이와 지식인의 모습을 그린 소설.
- 31 부레가 육상 동물의 폐와 같은 조직으로 바뀌어 공기 호흡을 할 수 있게 진화한 물고기. 오규원의 ‘물중’에 나오는 소재.
- 32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 어느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음.
- 33 신라 문무왕 때 광덕(廣德)이 지었다는 10구체 향가. 왕생(往生)의 소망을 달에 의탁하여 드러냄.
- 34 1930년대에 활동한 시인이자 소설가. 대표작에 ‘날개’, ‘오감도’ 등이 있다.
- 35 풍자 기법을 활용하여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고 비판하는 작품을 다수 남긴 소설가·극작가. 대표작에 ‘태평천하’, ‘레디메이드 인생’, ‘제항날’ 등이 있다.
- 36 ‘춘향전’에서 이 도령의 몸종으로 나오는 이. 조선 시대 지방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남자 종을 일컫는 말임.
- 37 우리말 특유의 가락을 살린 문장으로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작품화한 작가. 대표작에 ‘관춘수필’, ‘우리 동네’ 등이 있다.
- 38 고려 후기에 임춘이 지은 작품으로 술을 의인화한 가전

2 한국 문학의 흐름에 대한 보고서의 개요를 완성해 보자.

| 한국 문학의 흐름 | 시기 | 특징 | 대표적 작가와 작품 |
|---------------|------------------|--|------------|
| (1) 원시·고대 문학 | 원시 시대 ~ [] | 표현 언어 [] 주요 갈래 신화, 전설 ……. 문학 담당층 [] 주제 주술적 기원 | |
| (2) 중세 문학 | 고려 시대 ~ [] | 표현 언어 입말 한자 주요 갈래 [] 문학 담당층 사대부 주제 [] | |
| (3) 근대 태동기 문학 | 임병양란 ~ [] | 표현 언어 [] 주요 갈래 시서시조 문학 담당층 평민층 주제 [] | |
| (4) 근대 문학 | [] ~ 8·15 광복 | 표현 언어 [] 주요 갈래 자유시, 소설 문학 담당층 [] 주제 반외세, 반봉건 | |
| (5) 현대 문학 | [] ~ 현재 | 표현 언어 한글(국어) 주요 갈래 [] 문학 담당층 전문작가 주제 [] |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각 시기별 문학과 그 시기의 삶을 연관 지어 이해하였는가? | | | |
| 한국 문학사에서 갈래의 다양한 전개와 역사적 구현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가? | | | |
| 각 시기별 문학의 양상을 오늘날과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3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이 단원에서 우리는

-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문학 및 문화의 세계화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생각 열기



영화 '로빈 후드'의 한 장면

이 영화는 11세기 잉글랜드 셔우드 숲을 근거지로 활약한 로빈 후드(Robin Hood)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로빈 후드를 비롯한 리틀 존, 테크 수도사 등의 의적들은 포악한 관원과 욕심 많은 귀족이나 성직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횡포를 응징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비슷한 작품으로 _____ 이 있다.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01 경문 대왕의 귀 | 지은이 모름
미다스 왕의 귀 | 지은이 모름
• 석류들 | 발레리



(2)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 01 레 미제라블 | 빅토르 위고
애사 | 민태원



(3) 한국 문학의 세계화

- 01 진달래꽃 | 김소월
• AZALEA FLOWERS | 고창수 옮김
• Azaleas | 데이비드 맥캔 옮김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세계의 여러 민족과 나라는 각기 다른 삶의 환경과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꾸어 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문학의 특수성 또는 보편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 문학의 경우, 향가, 시조, 가사 등 외국 문학에는 없는 하위 갈래가 존재한다는 점은 특수성을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식민지 경험 및 전쟁, 분단 현실을 반영하고 그 극복을 지향하는 문학이 존재한다는 점은 외국 문학에서는 찾기 어려운 특수성에 해당한다.

한편 사랑을 느낄 때의 행복감이나 이별의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의 정서 등과 같이 인류의 보편적 정서나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개인의 권리와 자유 옹호, 전쟁과 폭력에 대한 부정, 부정과 부패에 대한 고발 등 인류 모두가 수긍하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한다. 문학의 보편성은 인류 모두가 수긍하는 이러한 보편적 정서 및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서 실현된다. 한국 문학이 세계 다른 나라의 문학들과 마찬가지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등 문학의 기본 갈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나 '여자의 일생' 형 또는 '영웅의 일생' 형 등의 서사 형식을 공유한다는 점은 한국 문학의 보편성에 해당한다.

근대 이전에 동아시아 문화권이었던 한국 문학은 동아시아 문학의 보편성뿐만 아니라 근대 이후 많은 영향을 끼친 서구 문학과도 공통점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와 교류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제3세계 문학과와의 공통점도 지니게 되었다.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나 보편성은 그 울타리를 굳게 지킴으로써 형성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 한국 문학으로 변용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우리는 보편성을 강조하여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폄하하거나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보편성을 소홀히 여기는 배타의식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학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편견 없이 대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온전히 인식하는 일은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류와 이를 통한 한국 문학의 발전에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

도스토옙스키, 빅토르 위고 및 토머스 하디는 각각 자기가 익히 아는 지역 사람들이 그들 특유의 환경에서 특유의 방식으로 살며 행동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특수한 인간들의 특수한 삶을 작품 속에 부각하면서도 이들은 그 특수성 근처에 깔린 보편적 인간 원리를 꿰뚫어 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작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바로 이 역량에서 그들의 호소력은 솟아난다고 할 수 있다.

- 이상욱, '우리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에서

01 경문 대왕의 귀

지은이 모름

이 작품은 '삼국유사 권 2, 기이 제2, 제48대 경문 대왕'에 나오는 설화이다. 이와 비슷한 설화가 다른 나라에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며 읽어 보자.

(전략)

5 왕은 즉위한 후 귀가 갑자기 당나귀 귀처럼 자랐다. 왕후와 궁인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복두장(幞頭匠) 한 사람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평생 토록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복두장이 죽을 때가 되자 도림사(道林寺) 대숲 가운데로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대나무를 향해 외쳤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10 그 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 숲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왕이 그것을 싫어하여 대나무를 모두 베어 버리고는 산수유를 심었는데 바람이 불면 이런 소리가 났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복두장 복두를 만드는 기술자. 복두는 관(冠)의 하나.

(후략)

(김원중 옮김.)





이 작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경문 대왕의 귀'와 비교하며 읽어 보자.

(전략)

미다스[◆]가 섬기던 판은 자기 피리 솜씨를 아폴론[◆]의 수금(豎琴)[◆] 솜씨와 비교해 보고, 이 수금의 신과 어디 한 번 겨루어 보자는, 참으로 터무니없이 무모한 생각을 했다. 아폴론은 이 도전을 받아들였다.

심판관으로는 산의 신 토몰로스가 뽑혔다. 연로한 산신 토몰로스는 심판석에 앉자 더 잘 들을 수 있게 귀뿌리의 수목을 깨끗이 뽑아내었다. 신호가 떨어지자 먼저 판이 갈대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판의 소박한 가락은 판 자신은 물론 그 자리에 참석해 있던 판의 충실한 신자 미다스를 만족스럽게 했다.

아폴론이 별떡 일어났다. 그의 머리에는 파르나소스 산의 월계수 관이 올려져 있었다. 튀로스 지방의 자춌빛 물감으로 물들인 옷이 대지에 끌렸다. 그는 왼손에 수금을 들고 오른손으로 현을 잡고는 줄을 골랐다. 그 아름다운 곡조에 반한 토몰로스는 오래 들을 것도 없이 수금의 신 아폴론의 승리를 선언했다.

모두가 이 선언에 승복했지만 미다스는 승복하려 들지 않았다. 미다스는 토몰로스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심판의 공정성을 의심했다.

이 꼴을 본 아폴론은, 이렇게 무식한 귀를 더 이상 인간의 귀 꼴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귀를 주욱 늘여 안팎에 털이 송송 돌아나게 하고는 귀뿌리로 그 귀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버렸다. 요컨대 당나귀 귀와 똑같이 된 것이었다.

미다스 왕은 이 불행한 사태에 몹시 기가 꺾이고 말았다. 그러나 잘하면 이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걸 숨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달랬다. 즉 머리에 넓은 머릿수건이나 두건을 써서 그 귀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왕의 머리카락을 손질하던 이발사는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왕은 토설하지 말라는 명령과 함께 만약에 이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엄벌을 받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했다. 이발사는 그 비밀을 토설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저히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 그 비밀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은 그는 들판으로 나가 땅바닥에 구덩이를 파고는 이 비밀을 말한 다음 구덩이를 다시 메웠다. 오래지 않아 이 들판에 갈대가 자라났다. 이 갈대가 이발사가 토설했던 비밀을 속삭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풍이 이 위를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갈대는 이 비밀을 속삭이고 있다.

(후략)

(이윤기 옮김.)

- ◆ 미다스(Mida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왕. 디오니소스에 의하여,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힘을 얻었으나, 먹으려는 음식과 사랑하는 딸마저 황금으로 변하자, 슬퍼하던 끝에 디오니소스에게 빌어 그 힘을 버렸다고 한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미다스는 '탐욕, 과욕'을, 미다스의 손(Midas touch)은 '돈 버는 재주'라는 뜻을 지닌 속어로 쓰인다.
- ◆ 아폴론(Apollon)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제우스와 레토의 아들로 올림포스 십이 신 가운데 하나이며, 예언·의료·궁술·음악·시의 신이다. 광명의 신이기도 하여 후에는 태양신과 동일시되었다. 로마 신화의 아폴로에 해당한다.
- ◆ 수금 하프.

내용 학습

1 두 이야기를 대비하는 표를 완성해 보자.

| 구분 | 경문 대왕의 귀 | 미다스 왕의 귀 |
|-----------------|----------|----------|
| 귀가 변한 모양 | 당나귀 귀 | 당나귀 귀 |
| 귀가 변한 원인 | | |
| 비밀을 아는 이 | | |
| 비밀을 말하는 곳 | | |
| 비밀이 드러나게 하는 매개체 | | |

목표 학습

2 두 이야기에 드러나는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 말해 보자.

적용 학습

3 다음 두 글을 읽고 '석류'를 바라보는 시각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교류가 없었던 두 사람이 동일한 대상을 비슷하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가 오, 방긋 입 벌인 석류들아,
너희가 당해낸 나날의 해가,
자존심에 시달린 너희더러
루비 간막이들을 찢게 했더라도,
또 메마른 금빛 껍질이
그 어떤 힘의 요구에 따라
과즙의 빨간 보석들로 터진다 하더라도,
이 눈부시게 빛나는 파열은
내가 전에 지녔던 하나의 낫더러
제 은밀한 열개를 꿈꾸게 하는구나.

- 발레리, '석류들'에서

나 선생이 어려서부터 어찌나 재주가 많던지, 말하기 시작하자 곧 글을 배워서,
세 살 때에는 벌써 글짓기를 하였는데, 할머니 등에 업혀서, 할머니가 따 주시는 석류(石榴)를 들고,
'껍질 속에 붉은 구슬이 깨어졌구나(石榴皮裏碎紅珠)'
라는 시를 지었다.

- 율곡의 일화

(2)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한국 문학에 영향을 끼친 중국 작품

“사서삼경”, 이백과 두보의 시(詩), “사기(史記)”, “고문진보(古文眞寶)”, “전등 신화(剪燈新話)”, “수호전(水滸傳)” 등.

인도의 문학과 불교의 영향을 받은 작품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석보(月印釋譜)’ 등.

외국어로 발표된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이미륵), ‘순교자’(김은국) 등.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의 일원인 동시에 개별 민족 문학으로서 다른 나라의 문학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해 왔다. 근대 이전의 한국 문학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일본, 인도와 영향을 주고받았다. 한자가 전래되면서 한국 문학은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 편입되었다. 한글 창제 이전의 글말 문학은 대부분 한문으로 창작되었으며, 중국에서 창작된 많은 문학 작품이 한자와 더불어 수용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학은 높은 문학적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중국의 “전등 신화”를 수용한 것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특색을 살리고 작가의 의식을 담아낸 매우 뛰어난 작품이다. 중국 문학 이외에도 많은 불교 경전들이 산스크리트 어에서 한자로 번역되어 전래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문학은 인도 문학에서도 풍부한 자양분을 얻어 많은 작품이 창작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문학은 서구 문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개화기의 신소설과 신체시는 서구 문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애국 계몽 소설의 경우 중국을 통한 수용도 적지 않았다. 특히, 비교적 서둘러 서구 문화를 수용한 일본은 한국 문학이 서양 문학을 받아들이는 데 가교 역할을 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외국 문학은 한국 문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에는 번역 등 수용 능력의 향상과 더불어 서구 여러 나라의 문학을 제삼자의 개입 없이 직접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에 저항하며 민족적·국가적 자주성을 찾고자 하는 제3세계 문학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형성되었다.

근대 이후 한국 문학 또한 외국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문학 작품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번역되고, 서양 선교사를 통해 서구에 알려지기도 하였다. 현대 문학의 경우, 다수 작품이 외국어로 발표되어 우리의 사상과 감정을 외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오늘날 세계가 다양화·다변화되면서 점차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또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은 보다 적극적인 상호 소통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은 서로가 의미와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순환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01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이 작품은 '장 발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소설이다. 어릴 때 동화나 만화로 본 기억을 떠올리며 읽어 보자.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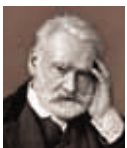
나뭇가지를 치는 계절에는 하루에 24수[◆]의 수입이 있었다. 그 밖에 들일, 품
5 일, 농장의 소몰이, 농사일 등을 닦치는 대로 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면 다했다. 누이는 누이대로 벌었지만, 아이가 일곱이나 되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갈수록 가난에 쫓기고 몰리는 가엾은 무리들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혹독한 겨울이 왔다. 장은 일거리가 없었다. 집에는 빵이 없
었다. 말 그대로 한 조각의 빵도 없었다. 어린아이들이 일곱이나 있는데도!

10 어느 일요일 저녁, 파브를 교회 앞 광장에 있는 빵집 주인 모베르 이자보가
막 잠들려는 참이었다. 가게의 창살 달린 유리 진열장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가 보니 마침 그때 창살과 유리를 한꺼번에 주먹으로 깨뜨린 구멍으

❓ '장 발장'이 도둑질을 한 이유는?

◆ 수(sou) 프랑스의 옛 화폐 단 위. 1수는 1상팀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1상팀(centimes)은 100분의 1프랑(franc).



빅토르 위고(1802~1885)

프랑스 출생. 시인, 소설가, 극작가. 주요 작품으로 '노트르담 드 파리' 등이 있다.

로 손 하나가 쑥 들어와 있는 게 눈에 띄었다. 그 손은 빵 하나를 훔쳐 가지고 나갔다.

이자보는 재빨리 밖으로 뛰어나갔다. 도둑은 손살같이 달아났다. 이자보는 그를 쫓아가 붙잡았다. 도둑은 이미 빵을 내던져 버려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팔에서 아직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장 발장이었다. 5

이것은 1795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장 발장은 ‘한밤중 남의 집 창을 부수고 도둑질한 죄’로 재판관 앞에 끌려나갔다. 그는 오래전부터 소송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다른 누구보다도 솜씨가 뛰어나 더러 밀렵도 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에게는 불리했다. 밀렵자는 당연히 곱지 못한 눈길로 보기 마련이다. 밀렵자는 밀수입자와 더불어 도적과 비슷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도회지의 끔찍한 살인자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밀렵자는 숲 속에 살고, 밀수입자는 산속이나 바다 위에 산다. 도시는 부패한 인간을 만들고, 또한 잔인한 인간을 만들어 낸다. 산과 바다와 숲은 야성의 인간을 만든다. 그러한 자연은 인간의 거친 일면을 키워 주기는 하지만 인간적인 면을 파괴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10 15

장 발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전의 규정은 뚜렷했다. 우리들의 문명에도 두려운 시기가 있다. 형벌이 인생의 파멸을 선언하는 때이다. 사회가 멀어지고 하나의 정신을 지닌 인간이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서 버림받는 순간, 아, 그것은 얼마나 저주스러운 순간인가! 장 발장은 5년의 징역을 선고 받고 항구의 감옥으로 가게 되었다. 20

(후략)

(송면 옮김.)

❓ ‘형벌이 인생의 파멸을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체 줄거리 장 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 형을 선고 받고 탈옥을 거듭하다가 19년 후에야 출옥한다. 하룻밤 숙식을 제공해 준 미리엘 신부의 집에서 은촛대를 훔쳤다가 다시 체포되어 끌려가게 되었을 때, 미리엘 신부는 그 은촛대는 자기가 장 발장에게 준 것이라고 증언하여 그를 구해 준다. 미리엘 신부의 모습을 보면서 장 발장은 비로소 삶의 진정성과 사랑에 눈을 뜨게 되고 마들렌느라는 새 이름으로 사업을 하여 재산을 모으고 시장으로까지 출세한다. 그러나 경감 자베르만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의 뒤를 쫓는다.

한 사나이가 장 발장으로 오인받아 체포되자 장 발장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다. 곧 탈옥한 장 발장은 예전에 도와주었던 여공의 딸 코제트를 구하여 수도원에 숨겨 주고 코제트는 공화주의자인 마리우스와 결혼한다. 장 발장은 코제트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 작품은 '레 미제라블'을 번안한 소설이다. 서양 문학이 어떤 경로로 우리 문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전략)

이 장팔찬이라는 박복한 사람은 어려서 부모의 사랑을 몰랐고 자라서는 여자의 사랑을 모른다. 나이 이십오 세가 넘도록 여자에게 마음 붙일 겨를이 없으며 그 대신에 칠 남매의 생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그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였다. 자기 누님이 알까 모를까 잘못된 일을 뒤덮어 주기도 하며 뒤도 많이 거두어 주었다. 그는 뚱하고 말수 없는 성질이지마는 속으로는 애정이 깊은 모양이라.

이듬해 겨울에는 눈이 몹시 와서 품도 팔 데가 없고 다른 일도 아주 할 것이 없어서 그 집안 아홉 식구는 그대로 추위에 떨어가며 굶을 수밖에 없이 되었다. 당일 벌어 당일 먹는 사람에게는 일기가 그런 것처럼 못 할 일이 없다. 이는 아주 하늘이 사람을 죽이는 셈이다. 하룻밤에는 그 마을 어떤 면보[◆] 장수가 그날 낮에 팔고 남은 면보 조각을 한편으로 치워 놓고 막 자려고 할 때에 바깥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지라. 주인이 깜짝 놀라 돌아다본즉 그 유리 깨진 틈으로 사람의 손이 쑥 들어와서 바닥에 놓인 면보 한 조각을 집어 가지고 달아났다.

곧 주인이 뛰어나가서 쫓아가 잡은즉 도적놈은 벌써 면보를 내버려서 손에 가진 것은 없으나 한편 손목에는 유리에 베인 상처가 있다. 물론 발명[◆]할 길이 없어 곧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이것이 곧 장팔찬이었다. 그는 여러 아이들의 배고파 우는 소리를 듣다 못하여 마침내 한 조각 면보를 훔칠 생각이 났다. 장팔찬이가 만일 면보 집주인에게 그 사정의 말을 하고 면보 한 개를 달라고 하였으면 필경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성질은 그렇지 못하였다. 남에게 그런 말을 할 비위도 못 되고 입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 까닭으로 필경 정식 재판이 되어서 조사한 결과에 장팔찬의 집에는 감찰 없는 사냥총이 있었다. 감찰 없이 사냥을 하는 놈이면 다른 도적질도 능준히 할 놈이라고 인정이 되었다.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였으나 필경 가택 침입죄와 절도죄로 징역 오 년에 선고되었다.

(후략)

번안(翻案)

원작의 내용이나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풍속, 인명, 지명 따위를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침.

개화기에 나온 번안 소설

- ◆ '설중매' (구연학): '설중매' (스에히로 멧초오)
- ◆ '장한몽' (조중환): '금색야차' (오자키 고요)
- ◆ '쌍옥루' (조중환): '오스가쓰미' (기쿠치 유희)
- ◆ '해왕성' (이상협), '진주탑' (김래성): '몬테크리스토 백작' (뒤마 페르)
- ◆ '부평초' (민태원): '집 없는 아이' (H. 말로)

- ◆ 생질(甥姪) 누이의 아들을 이르는 말.
- ◆ 면보 빵. 포르투갈 어인 '팜(pão)'의 중국식 역어(譯語)를 한자 독음대로 읽은 '면포(麵麩)'가 변형된 말.
- ◆ 발명(發明)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또는 그런 말.



민태원(1894~1935)

충남 서산 출생. 소설가. 번역 문학가. 언론인. 번안 소설로 '무쇠탈', '부평초' 등이 있으며, 수필로 '청춘 예찬' 등이 있다.

내용 학습

1 '장 발장'이 감옥에 가게 된 원인을 사회 현실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목표 학습

2 다음은 원작 소설과 번안 소설의 등장인물의 이름을 비교한 것이다. 번안 소설에서 이름을 바꾸어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 보자.

| 원작(레 미제라블) | 번안 소설(애사) | 이유 |
|------------------------|-----------|----|
| 장 발장 | 장팔찬 | |
| 미리엘(샤를르 프랑스와 비앵느뉘 미리엘) | 미리엘 | |
| 코제트 | 고설도 | |
| 마리우스 폰메르시 | 홍만서 | |
| 자베르 | 차보열 | |

적용 학습

3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근대에 우리나라에서 서양의 문학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 가 '애사'는 빅토르 위고의 원작 '레 미제라블'을 일본의 전문 번안 작가 구로이와 루이코(黑巖淚香)가 신문 연재소설 '아아, 무정(噫無情)'으로 옮긴 것을 바탕으로 다시 번안한 작품이다.
- 나 '애사'는 1918년 7월 28일부터 1919년 2월 8일까지 총 152회에 걸쳐 "매일신보" 4면에 연재되었다.

(3) 한국 문학의 세계화

한국 문학은 특수성과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에도 한국 문학은 끊임없이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더 풍부한 예술 세계를 형성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이루어 가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문학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전통을 재창조하고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등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며 문학의 대내외적 저변을 확대하고 다양화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 활동을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 매체를 활용한 문학의 소통에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한국 문학은 여러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여성, 청소년, 노동자, 노인, 장애인, 새터민 등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사람들의 삶을 문학의 제재로 다루어야 한다. 지역 문학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세계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해외 동포들의 작품도 우리 문학으로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내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 외연을 넓힐 수 있으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더욱 풍부한 문학적 자원을 지닐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 문학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필요하다. 근래에 들어 한국 문학의 해외 소개가 매우 활발해졌다. 국가 기관과 민간 기관 등에서 장기 계획을 세워 우리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외국에서 출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번역가들이 개별적으로 번역 작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 작가들이 직접 외국으로 나가 그 나라의 독자들을 만나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외국 문학 작품이 번역되어 국내에 소개되는 데 비해 우리 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한국 문학을 보다 많이 다른 나라에 소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번역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2001년부터 한국 문학 번역원이 설립되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민족 문학으로서의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한국 문학 작품을 효과적으로 번역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릴 때 한국 문학의 세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외국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



박지원의 '열하일기'(영국)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헝가리)



김만중의 '구운몽'(루마니아)

다문화 가정(가족)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남녀가 이룬 가정이나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널리 의미한다.

한국 문학 번역원

<http://www.klti.or.kr/>

01 진달래꽃

김소월

이 작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외국에 소개된 시이다. 외국어로 번역할 때 원시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원시와 번역한 작품을 읽어 보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5

영변(寧邊)에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10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15



김소월(1902~1934)

평북 구성 출생.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와 울격을 살린 시를 썼다. 주요 작품으로 '진달래꽃', '왕십리', '금잔디', '산유화' 등이 있으며 시집으로 "진달래꽃"이 있다.

AZALEA FLOWERS

When you hate to see me
And decide to leave,
I'll quietly let you go.

5 I'll pluck an armful of azaleas
In the Yaksan hills at Yungbyun
To strew over your path.
Tread softly on the flowers
Each step soft and silent.

10 When you hate to see me
And decide to leave,
I'll never, never shed tears.

(고창수 옮김.)

Azaleas

When you go away
Sick of seeing me,
I shall let you go gently, no words.

From Mount Yak in Yongbyon
An armful of azaleas
I shall gather and scatter on your path.

Step by step away
On the flowers lying before you,
tread softly, deeply, and go.

When you go away
Sick of seeing me,
though I die; No, I shall not shed a tear.

(데이비드 맥캔 옮김.)

고창수(1934~)

함남 흥남 출생. 한글과 영문으로 창작 활동을 하면서 한국시 번역도 하고 있다. "파편 줍는 노래" 등의 시집이 있으며, "코리아 타임즈"로부터 한국 문학 번역상을 받았다.

데이비드 맥캔(David McCann, 1946~)

미국 출생. 하버드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장 역임, 대산 재단 번역대상 등을 받았다.

내용 학습

1 '진달래꽃'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 | |
|------------------------|--|
| 시적 화자의 처지 | |
| 시적 대상에게 하고자 하는 말 | |
| 시적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처리하는 방식 | |

목표 학습

2 번역한 작품을 읽고 원시의 형식과 내용, 화자의 정서를 제대로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어떤 것인지 말해 보자.

목표 학습

3 'AZALEA FLOWERS'는 한국인, 'Azaleas'는 미국인이 번역한 것이다. 그 둘을 비교해 보고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토의해 보자.



4 다음은 한국 문학 번역원(www.klti.or.kr)의 통계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언어별 번역서 현황

(2011년 7월 현재)

| 언어 | 소설 | 시 | 기타 (수필, 희곡 등) | 인문·사회 | 고전 | 아동 | 계 |
|------------|-----|-----|------------------|-------|----|----|-----|
| 영어 | 57 | 28 | 7 | 4 | 21 | 13 | 130 |
| 불어 | 44 | 3 | 3 | 1 | 5 | 3 | 59 |
| 독어 | 44 | 15 | 2 | 2 | 6 | 4 | 73 |
| 스페인어 | 26 | 14 | 1 | 0 | 5 | 3 | 49 |
| 중국어 | 77 | 7 | 2 | 4 | 4 | 5 | 99 |
| 일본어 | 24 | 8 | 2 | 4 | 1 | 3 | 42 |
| 러시아어 | 23 | 4 | 3 | 0 | 5 | 0 | 35 |
| 덴마크어 | 0 | 1 | 0 | 0 | 0 | 0 | 1 |
| 네덜란드어 | 3 | 0 | 0 | 0 | 0 | 0 | 3 |
| 루마니아어 | 1 | 3 | 0 | 0 | 2 | 0 | 6 |
| 리투아니아어 | 1 | 0 | 0 | 0 | 1 | 0 | 2 |
| 말레이-인도네시아어 | 0 | 1 | 0 | 0 | 0 | 0 | 1 |
| 몽골어 | 4 | 1 | 0 | 0 | 1 | 0 | 6 |
| 베트남어 | 11 | 3 | 2 | 2 | 3 | 3 | 24 |
| 불가리아어 | 3 | 0 | 1 | 0 | 2 | 0 | 6 |
| 에스토니아어 | 1 | 0 | 0 | 0 | 0 | 0 | 1 |
| 우크라이나어 | 1 | 0 | 0 | 0 | 0 | 0 | 1 |
| 세르비아어 | 3 | 3 | 0 | 0 | 0 | 0 | 6 |
| 스웨덴어 | 9 | 2 | 0 | 0 | 0 | 0 | 11 |
| 아랍어 | 4 | 3 | 0 | 0 | 0 | 0 | 7 |
| 이태리어 | 5 | 2 | 0 | 0 | 4 | 0 | 11 |
| 체코어 | 0 | 2 | 1 | 0 | 7 | 0 | 10 |
| 태국어 | 1 | 0 | 0 | 0 | 0 | 0 | 1 |
| 터키어 | 6 | 3 | 0 | 0 | 0 | 0 | 9 |
| 포르투갈어 | 1 | 1 | 0 | 0 | 0 | 0 | 2 |
| 폴란드어 | 2 | 1 | 0 | 0 | 1 | 0 | 4 |
| 헝가리어 | 4 | 0 | 0 | 0 | 0 | 0 | 4 |
| 히브리어 | 1 | 0 | 0 | 0 | 0 | 0 | 1 |
| 힌디어 | 1 | 1 | 0 | 0 | 1 | 0 | 3 |
| 스와힐리어 | 1 | 0 | 0 | 0 | 0 | 0 | 1 |
| 총 30개 언어 | 358 | 106 | 24 | 17 | 69 | 34 | 608 |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써 보자.

| | |
|------------------|--|
|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보 편 성)은(는) 인류 모두가 수긍하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에서 실현되는 문학의 특성이다. • 모든 나라의 문학은 각각 그 나라의 발전 과정을 거쳐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학에만 나타나는 (특 수 성)이 있다. |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학의 (교 섭)이란 한 민족과 다른 민족의 문학이 서로 의미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
| 한국 문학의 세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와 적극적인 소개를 통해 한국 문학의 (세 계 화)를 이룰 수 있다. |

확인하기

2 작품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자.

| | |
|----------------|-------------------------------------|
| 경문 대왕의 귀 | 두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인가? |
| 미다스 왕의 귀 | |
| 레 미제라블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
| 애사 | |
| 진달래꽃 | 우리 문학 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 AZALEA FLOWERS | |
| Azaleas | |

평가하기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평가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해당 소단원으로 돌아가 보완하도록 하자.

| 평가항목 | 그렇다 | 보통이다 | 아니다 |
|--------------------------------|-----|------|-----|
|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였는가? | | | |
|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양상을 이해하였는가? | | | |
| 한국 문학 및 문화의 세계화와 그 의미를 이해하였는가? | | | |

단원을 마치며

이 단원의 학습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자유롭게 써 보자.

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1

한국 문학의 범위와 특징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
01 격황소서 | 최치원
바리데기 | 지은이 모름
• 압록강은 흐른다 | 이미륵



-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01 시집살이 노래 | 지은이 모름
봄 봄 | 김유정
• 강령 탈춤 | 지은이 모름
• 태평천하 | 채만식

학습 내용

- 한국 문학은 한국인이 우리말과 우리 글로 사상,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다.
- 한국 문학은 외래적인 요소를 수용 하면서 전통을 계승하여 왔다.
- 한국 문학은 풍자와 해학, 한과 신명, 멋, 자연 친화 의식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문학 작품을 민족의 삶과 관련지어 이해 하려는 태도 기르기.
- 고전 문학 작품을 즐겨 찾아 읽는 태도 기르기.
-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을 계승하는 작품을 모방하여 써 보기.

2

한국 문학의 역사



- (1) 원시·고대 문학
01 고려 가요 두 편
• 해가 | 지은이 모름
02 원왕생가 | 광덕
• 정읍사 | 지은이 모름
03 단군 신화 | 지은이 모름
• 온달 | 지은이 모름



- (2) 중세 문학
01 청산별곡 | 지은이 모름,
용비어천가 | 정인지 등
• 일신이 사자 흥이~ | 지은이 모름
02 한시 두 편
• 들국 | 김윤택
03 국순전 | 임춘
04 만복사저포기 | 김시습



- (3) 근대 태동기 문학
01 만홍 | 윤선도
• 눈발 갈아~ | 지은이 모름
• 개화 | 이호우
02 누형사 | 박인로
• 상춘곡 | 정극인
03 흥부전 | 지은이 모름
• 흥보가 | 지은이 모름
• 연의 각 | 이해조
04 하회 별신굿 탈놀이 | 지은이 모름
• 풍산 탈춤 | 지은이 모름

학습 내용

- 춤, 노래 등이 함께 어우러진 원시·고대 사회의 주술적 의식은 종합 예술적 성격을 지니며 문학의 기원이 된다.
- 원시·고대 문학은 건국 신화, 서사시, 전설, 민담, 향가, 민요가 주류를 이룬다.
- 문학의 주요 작자층은 중세 전기에는 귀족이었으나 차츰 다양해진다.
- 중세 문학은 고려 속오와 경기체가, 시조, 가사, 악장, 소설 등이 주류를 이룬다.
- 근대 태동기에는 평민 의식이 성장하여 평민 문학이 대두한다.
- 근대 태동기 문학은 시조, 소설이 융성해지고, 판소리 같은 연행 양식이 상공업의 발달에 힘입어 성행한다.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원시·고대 문학의 주요 갈래에 속하는 작품 찾아 읽기.
- 오늘날 종합 예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뮤지컬 등을 즐겨 감상하기.
- 자신이 처한 상황을 원시·고대 문학의 하위 갈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인터넷 매체에 발표해 보기.
- 중세 문학의 주요 갈래에 속하는 작품 찾아 읽기.
- 자신의 갈등이나 소망을 중세 문학의 하위 갈래 형식으로 표현해 보기.
- 인터넷 시조 동호회 등에 작품을 발표해 보기.
- 근대 태동기 문학의 주요 갈래에 속하는 작품 찾아 읽기.
- 평민들의 삶을 표현한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의 일상생활과 견주어 보기.
- 일상생활을 탈춤 형식으로 창작하여 학교 축제 때 발표해 보기.



| 한국 문학의 역사 | 학습 내용 |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
| <div data-bbox="244 380 387 492"></div> <p>(4) 근대 문학</p> <p>01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 동심가 이중현 • 봄은 간다 김억</p> <p>0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 인동차 정지용</p> <p>03 금수회의록 안국선</p> <p>04 삼대 염상섭 • 창선감의륙 조성기</p> <div data-bbox="244 692 387 805"></div> <p>(5) 현대 문학</p> <p>01 눈 김수영 • 이 사진 앞에서 이승하</p> <p>02 북어 최승호 • 멀지 김기택</p> <p>03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 공사장 끝에 이시영</p> <p>04 불모지 차범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는 반외세, 반봉건이라는 민족적 과제 해결을 모색하던 시기이다. • 근대 문학으로는 개화 가사, 창가, 신체시, 현대시 등의 시가와 애국 계몽 소설, 신소설, 근대 소설 등의 소설이 있다. • 현대는 한국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문제, 산업화로 인한 소외의 문제 등이 부각된 시기이다. • 현대 문학 작품은 다양한 문학적 흐름으로 분화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 문학의 주요 갈래에 속하는 작품 찾아 읽기. • 개화기 작품을 읽으면서 시대적 전환기의 작품이 지닌 특징을 생각하며 감상하기. • 일제 강점기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문을 써서 돌려 읽고 의견 나누기. • 문학 작품에 드러난 현대 사회의 모습을 평가하며 읽는 태도 기르기. • 다양한 양식의 작품에서 발견한 표현의 아름다움을 자신이 쓰는 글에 활용하기. • 교내 문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다양한 작품을 창작하고 이를 발표해 보기. |

| 3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 | 학습 내용 | 학습 내용 생활화하기 |
|---|--|--|
| <p>(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p> <p>01 경문 대왕의 귀 지은이 모름 미다스 왕의 귀 지은이 모름 • 석류들 발레리</p> <p>(2)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p> <p>01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고 에사 민태원</p> <p>(3) 한국 문학의 세계화</p> <p>01 진달래꽃 김소월 • AZALEA FLOWERS 고창수 옮김 • Azaleas 데이비드 백켄 옮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문학은 특수성과 함께 인류 모두가 수긍하는 보편성도 지닌다. • 한국 문학은 외국 문학과 상호 소통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 한국 문학의 저변 확대와 적극적인 소개를 통해 세계화를 이룰 수 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체험과 정서를 문학 작품으로 표현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친구들과 토의해 보기. • 한국 문학과외의 관련성을 고려하며 외국 문학 작품을 즐겨 읽는 습관 기르기. •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 문학 작품을 외국에 소개하기. |

김유정 문학촌 탐방

www.kimyoujeong.org

찾아가는 길



현장 스케치



탐방 보고서



Blank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report.



김유정 작품 찾아 읽기

Blank area for finding and reading Kim Yu-jeong's works.

부록

문학 용어 풀이 372

문학사 연표 378

저자 및 출처 384

사진 출처 387

찾아보기 390



● 문학 용어 풀이

가면극(假面劇) 가면을 쓰고 공연하는 연극. 주로 특권층인 양반들을 풍자하거나 비판하고 서민 생활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가족사 소설 한 가족의 흥망성쇠 내력을 다룬 소설. 가족사 소설은 가족 내의 개인보다는 가족이라는 사회 집단의 움직임과 변화 양상을 중시하며, 여러 대(代)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추적하기 때문에 연대기 소설의 형태를 띠게 된다.

가진술(假陳述) 일반적인 경험이나 상식을 뒤엎는 말하기. 상식을 뒤엎으면 서도 시적 진실을 추구하는 말하기 방식이므로 일상생활의 산문적인 말하기 방식과 구별된다. (의사 진술〈擬似陳述〉)

- 장대 끝에 / 아이들의 고향 소리가 / 물
어내고 있다.
- 수목원 벤치 위 여기저기에 봄이 뚝뚝
떨어져 있었다.

갈등(葛藤, Conflict) 의지적인 두 성격의 대립 현상. 인물과 인물, 인물과 환경 사이의 갈등을 '외적 갈등(External Conflict)' 이라 하고, 한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내적 갈등(Internal Conflict)' 이라고 한다.

감정 이입(感情移入) 자신의 감정을 대상 속에 이입하여 마치 대상이 자신과 같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다. 객관화된 자기 가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객관적 상관물(客觀的 相關物) 감정을 객관화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공식 역할을 하는 대상물을 말한다. 어떤 특별한 정서를 나타낼 공식이 되는 한 때의 사물, 정황, 일련의 사건으로서, 그 정서를 곧장 환기하도록 제시된 외부적

사실들이다.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서를 환기한다. 대상을 자신과 반드시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경수필(輕瑣筆) 개인의 취향, 체험, 느낌, 인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비격식적인 수필.

경향 문학(傾向文學) 의식적으로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계급적인 것을 취급하여 대중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계몽하고 유도하자는 목적 아래 쓰이는 작품. 교훈이나 프로 문학이 이에 속한다.

계몽주의(啓蒙主義) 서양에서 17, 8세기에 왕성했던 문예 사조로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여 이성이 올바른 인격과 사회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계몽주의 문학은, 작가가 교사나 선각자의 입장에서 합리성에 호소하여 민중을 가르치려는 일종의 교훈주의 문학이다.

고전주의(古典主義, Classicism) 17세기와 18세기의 유럽에서 성행했던 문예 사조를 가리킨다.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예술에 나타난 명확, 건실, 통일, 균제(均齊), 이성, 법칙, 절도, 전아(典雅) 등의 특성을 존중하여 이것들을 예술상의 규범으로 삼았다. 자아의 절대적 자유, 감정과 공상의 존중, 무한성과 혼돈의 강조 등을 특성으로 하는 낭만주의에 대립된다. 프랑스의 코르네유, 몰리에르, 영국의 드라이든, 애디슨, 독일의 괴테, 실러 등이 유명하다.

골계(滑稽) 기대와 실제 사이의 모순 또는 이상과 현실의 상이함으로 인해 심적 긴장이 갑작스럽게 이완되면서 생기는 감정.

공감각적 심상(共感覺的 心象)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轉移)됨으로

써 결과적으로 둘 이상의 감각이 이미지 단위 안에 공존하는 것이다. 곧, 표현의 대상과 그에 대한 언어적 표현의 감각적 특성이 불일치할 때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교술(敎述) 사물을 객관적으로 묘사, 설명해서 알려줌을 뜻한다. 자아와 세계의 관계로 보면 자아의 세계화이다. 고전으로는 경기체가, 가사, 교술 민요, 교술 무가 등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구조주의(構造主義) 문학 작품을 그 내부의 여러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로 조직된 하나의 전체로 보는 예술적 관점상의 한 경향.

낭만주의(浪漫主義)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유행한 문예 사조의 하나. 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생겨난 것으로 자유와 개성을 중시하고 현실보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풍부한 감정 표출을 특징으로 한다.

낯설게 하기(Defamiliarization)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서,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의 지각이나 인식의 틀을 깨고 사물의 모습을 낯설게 하여 사물에게 본래의 모습을 찾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낯설게 하기란, 그런 점에서 형식을 난해하게 하고 지각에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표현 대상이 예술적임을 의식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양식인 셈이다. 낯설게 하기는 궁극적으로 독자의 기대 지평을 무너뜨려 새로운 양식을 태동시키게 된다. 의미 심장한 내용을 작가가 모르는 체하며 이야기하는 수법이다.

내방 가사(內房歌辭) 국문학의 한 갈래로 부녀자의 가사, 특히 조선 후기에 부녀자들에 의해 지어지고 전해진 노래들의

총칭. 작자와 연대를 알 수 없는 것이 많다. 봉건 시대 여자들의 하소연과 슬픔, 남녀 간의 애정, 예외범절과 현모양처의 도리 등 부녀자의 생활을 노래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내포(內包) 단어의 소리나 상징적 의미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반응을 포함하는 이차적 의미.

누보로망(Nouveau Roman) 195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발표되기 시작한 전위적(前衛的)인 소설들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소설의 기법과 관습을 파기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고자 했던 일군 작가들의 소설을 가리킨다. 논자에 따라서는 앙티로망(반[反]소설)이라고도 한다.

다다이즘(Dadaism) 제1차 세계 대전 후의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등장한 전위적인 예술 운동. 일체의 제약을 거부하고 기존의 질서를 부정, 파괴하는 퇴폐적인 예술 경향으로 뒤에 초현실주의에 흡수되었다.

단가(短歌) ① 시조를 가리킨다. ② 허두가(虛頭歌), 곧 판소리를 부르기 전에 목을 풀기 위해서 간단히 부르던 소리. ③ 장가(長歌)에 대치되는 말.

대하소설(大河小說)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물들의 복잡한 삶의 양상을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의 변화 양상 및 인간 삶의 전체상을 포착하려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을 말한다. 대하소설은 여러 대에 걸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대체로 서술상 완만한 속도를 가지면서 이야기의 서두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순차적 계기성에 의해 사건이 제시되는 기법적 특징을 가진다.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주영의 '객주'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데카당스(Decadence) 19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유럽 각지로 퍼진 퇴폐적인 정신적 경향. 일시적, 향락적, 탐미적 내용을 중시하고 관능주의적 성격을 띠었다.

동반자 문학(同伴者文學) 1920년대에 사회주의 이념을 표방하고 나선 카프(KAPF)는 식민지 상황의 극복과 사회주의 국가의 건설을 위한 정치적 실천의 일환으로 문학 운동을 전개한다. 동반자 문학은 이 같은 운동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조직의 일원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사회주의 문학의 대의(大意)에는 동조하는 문학을 가리킨다. 이효석과 유진오, 유지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레제드라마(lesedrama) 연극성을 무시하고 문학성만 강조한 희곡으로, 상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읽기 위한 희곡.

리얼리즘(Realism) 사실주의(寫實主義). 19세기 후반에 낭만주의에 대응하는 유파로 출현하였다. 자연이나 인생 등의 소재에 대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예술상의 한 경향을 말한다.

매너리즘(Mannerism) 예술 창작에 있어서 늘 같은 수법을 되풀이하여 신선미나 독창성을 잃는 일.

멜로드라마(Melodrama) 연애를 주제로 하며, 변화가 많고 호화스러운 무대로 그 내용이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대중극을 말한다. 폭력을 동반하는 격렬한 행동이나 과잉된 정서, 또는 감상적인 요소들이 지배적인 서사물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유형화된 인물과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의존하며, 우연의 남발과 감정의 과장, 그리고 상투적인 비유 등이 멜로드라마의 두드러진

특성이다.

모더니즘(Modernism) 어떤 하나의 단일한 사조가 아니라 새로운 수법, 태도, 관점 등을 지닌 20세기 초기 현대 예술의 실험적 경향을 한데 묶어 가리키는 다소 막연한 명칭. 주지주의, 이미지즘,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심리주의 등의 사조들이 이에 속한다.

모순 어법, 모순 형용(矛盾語法, 矛盾形容, Oxymoron) 양립될 수 없는 말을 서로 짜맞추는 표현 방법이다. '쾌락의 고통' '사랑의 증오' 등 엘리자베스 시대의 연애시에 나오는 기발하고 독단적인 수사 형태이다. 이것은 또 인간의 지각과 논리를 초월하는 기독교적 신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종교사에서 사용된 표현법이었다. 밀턴이 '실낙원'에서 '당신의 옷자락은 어두우면서도 눈부시게 빛납니다.'라고 하나님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 등이다. 한국 현대시의 경우,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찬란한 슬픔의 봄', 정지용의 '우리창 1'의 '외로운 황홀한 심사'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모티프(Motif, Motive) 예술 작품을 표현하는 동기가 되는 중심 사상.

몽타주(Montage) 따로따로 촬영된 화면을 효과적으로 떼어 붙여 화면 전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는 영화나 사건의 편집 구성 기법. 문학에서는 독립될 수 있는 심상들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이루도록 하는 기법을 말한다. 전광용의 '꺼삐딴 리'가 이에 속한다.

반(反)소설(Anti-roman) 소설의 전통적인 규범에서 벗어나 있는 소설들로, 독자들이 소설에서 기대하는 사실주의나

자연주의의 효과, 즉 소설이 현실을 충실히 재현함으로써 독자에게 논리적이거나 정돈된 대리적 체험을 제공한다는 환상을 심어 주려 하지 않는 작품들을 말한다. 주요 특징으로는 플롯의 부재, 산만한 에피소드, 최소한의 성격적 전개, 대상의 표면에 대한 세부적 분석, 많은 반복, 어휘나 구두법, 문장의 다양한 변주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무수한 실험성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는 나탈리 사르트나 알랭 로브그리에 등의 누보로망 계열을 들 수 있다.

번안(翻案) 소설 외국의 소설을 자국의 현실에 맞게 각색해서 옮긴 소설을 가리킨다. 언어만을 옮기는 번역과는 달리 번안한 소설은 옮기는 과정에서 번안자의 주관적, 상상적 개입이 두드러지고, 심한 경우 원작의 상당 부분이 변형되거나 첨삭되기도 한다. 대체로 사건이나 줄거리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인명이나 지명, 풍속 그리고 인물들의 정서와 말씨 등을 자국의 것으로 바꾼다.

반어(反語, Irony) 말하고자 하는 본뜻과는 반대로 말하여, 언어 표현의 의미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사물, 사건, 사실, 현상)이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표현법.

변조(變調) 시의 리듬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시인의 개성적 호흡을 이루어 낼 뿐만 아니라, 시적 의미와 관련된 통일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음수율의 변화를 변조(박목월의 '청노루' 참조), 음보율의 변화를 변주(變奏)라고 하기도 한다. (변주는 김소월의 '가는 길', '접동새' 참조)

복선(伏線, Foreshadowing)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암시를 뜻하는 것으로

서 다가올 사건들의 전조(前兆)를 미리 드러내는 방식이다.

부조리 문학(不條理 文學)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가능함, 인간 의지의 전적인 무력함, 인간 간의 근본적인 야수성, 물질성, 비생명성 등 인간의 부조리를 아이러니하게 나타내는 문학을 일컫는 말.

사소설(私小說) 일본의 근대 소설에서 나타난 독특한 형태를 일컫는 말인데,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 번째 유형은 작가 자신을 자전적 형태로, 자신들이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상념까지도 드러내 놓고 거기에서 일종의 자학적 쾌감을 누리는 유형이며, 두 번째로는 작가의 감춰진 죄악을 까발리는 대신에 사소한 신변사의 의미를 반추하는 일에 집중하는 유형으로 '심경 소설'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사소설은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 리얼리즘의 일본적 변형이 가져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대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안희남의 '투계', '탁류를 헤치고', 김남천의 '처를 때리고' 등이 그 예이다.

삼 일치의 법칙 희곡 구성상의 법칙으로, 행위, 시간, 장소의 일치를 의미함.

상징(象徵, Symbol) 상징은 어떤 관념이나 의미와 같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정신적 내용을 구체적인 사물이나 양식(樣式) 같은 것으로 나타낸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상징은 브룩스(C. Brooks)의 말대로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로서 표면적으로는 은유와 구별이 안 되나, 보조관념과 원관념 사이에 '1대 1'의 관계가 성립하면 은유이고, '1대 다(多)'의 관계가 성립하면 상징이다. 은유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물과 사물의 연합이지만, 상징은 유사성이 없는 사물과 관념의 연합이다.

상징은 전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미리 정해진 관습적 상징(기호적 상징, 제도적 상징)과 시의 문맥 가운데서 비로소 정해지는 문학적 상징(창조적 상징, 개인적 상징)으로 나뉜다.

시적 허용(Poetic licence) 예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용인된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정으로서 문법, 어법, 리듬, 운, 역사적 사실 등에서의 이탈을 허용함을 말한다.

신비평(新批評, New Criticism) 1920년대 초부터 미국에서 일어난 문예 비평상의 한 흐름. 작품을 독립된 자율체로 보고, 언어의 의미와 애매성, 이미지 등의 분석을 통해 작품의 총체적 뜻을 파악하려 하는 비평 태도.

실존주의 소설 인간과 세계의 근본적인 불확실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존재론적 자각을 바탕으로 쓴 소설을 의미하는 용어로 좁게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철학적 성향의 문학들, 특히 사르트르와 카뮈의 문학을 지칭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부여된 어떠한 절대적인 선형적 가치도 거부한 채 유동적이고 유한한 삶 그 자체의 현존을 문제 삼았던 문학들 모두를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전후의 황폐한 현실 속에서 실존적 불안 의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작가들에게 새로운 지적 출구를 제공해 주었다. 장용학의 '요한 시집', 손창섭의 '낙서족', 오상원의 '유예' 등이 있다.

심상(Image) 실제로는 눈앞에 존재하

지 않지만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으며, 후각, 촉각으로 그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사물의 감각적 형상을 말한다.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前衛)의 뜻. 기성의 형식이나 전통을 부정하고 항상 새로운 것과 미지의 것을 추구하는 예술상의 혁명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제1차 대전 후 자본주의 사회가 낡은 예술인데, 사상의 쇠퇴와 혼란 속에서 기성의 권위에 반역한 시인과 화가들이 새로운 예술을 형성해 내기 위해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결과 다다이즘, 쉬르리얼리즘, 큐비즘, 미래파, 표현파 등의 예술 운동이 발생하였다. 아방가르드에는 예술적 전위와 정치적 전위를 통일하여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는 입장과 어디까지나 예술상의 전위에 국한하려는 입장이 있어 여러 가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아방가르드는 20세기의 모더니즘에서 생겨난 날카로운 예술 운동이다.

앙가주망(Engagement) 인간이 사회, 정치 문제에 관계하고 참여하여 자기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르트르가 주창하였는데, 그는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하여 정치라는 사회적 현상을 자유를 위한 역사 운동이라고 보고, 문학을 통해 정치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애매성(曖昧性, Ambiguity) 신비평의 용어로, 언어가 상식적인 의미 이외에 풍부한 암시성을 가지거나, 동시에 둘 이상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융통성을 뜻한다.

액자 구성 소설 구성 방식의 하나로 이

야기 속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를 안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소설 형식은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서술자의 시점을 배치함으로써, 전지적 소설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내부 이야기의 개연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문학적 장치이다. 김동인의 '배따라기', 김승옥의 '환상수첩' 등이 있다.

역설(逆說, Paradox)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표면적 진술을 떠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근거가 확실하든지, 깊은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뜻한다.

표면적 역설은 보통 서로 반대 개념을 가진, 또는 적어도 한 문맥 안에서 같이 사용될 수 없는 말들을 결합하는 '모순 어법'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유치환의 '깃발'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내면적 역설은 표현에 담긴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종교적 진술 가운데 사물의 본질이나 우주의 섭리에 관하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시의 문맥에 수용될 때, 내면적 역설로 설명될 수 있다.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 '타고 남은 재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가 이에 해당한다. 즉, 이 경우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종교적 역설로서 존재의 의미에 관한 초월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면적 역설이 성립된 것이다.

연작 소설 독립된 완결 구조를 갖는 소설들이 일정한 내적 연관을 지니면서 연

쇄적으로 묶여 있는 소설 유형을 가리킨다. 발자크의 '인간 희극'이나 에밀 졸라의 '루공·마카르 총서'는 장편 소설들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이지만, 우리나라는 단편 소설들이 모여 연작 형태를 이룬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 이문구의 '우리 동네', 이청준의 '서편제(남도 사람)' 등은 단편 소설들이 묶여진 연작 소설의 예들이다.

우의(寓意) 인간이 아닌 사물과 관련된 이야기나 진술을 통해 인간의 삶과 의식에 대한 의미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사물에 빗대어 넌지시 비춤을 말한다.

음성 상징(音聲象徵) 시적 표현에서 음성 자체가 감각적으로 떠올리는 표현 가치를 이른다. 모음이 주는 어감의 상징성은 '명↔암', '소↔대', '경↔중' 등의 차이를 나타낸다.

☞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시적 화자의 태도 시 속에 나타난 시적 대상 또는 시의 청자에 대한 자세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작품의 분위기, 어조, 시어 및 종결 어미의 선택에서 확인되며 그 속에는 시인 또는 화자의 인생관이 담겨 있다.

전기(傳奇) 소설 근대적인 의미의 소설이 수립되기 이전, 중국 및 우리나라의 산문 문학에서 널리 유행되었던 서사 장르의 하나로, 전기(傳奇)라는 말은 '기이한 것을 기록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전기 소설이라 불리는 작품들에는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괴기하고 신기한 내용들이 중점적으

로 표현되며, 현실적 인간 세계를 벗어나 천상과 명부(冥府), 용궁 등에서 전개되는 사건들,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이나 자연물 등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룬다. 고대의 서사물에 있어 전기적 요소란 서사물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였으며, 원시적 서사 형태인 신화, 민담, 전설 등에는 전기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김지섭의 ‘금오신화(金鰲神話)’를 예로 들 수 있다.

전형성(典型性)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 처해 있는 어떤 특정한 사회의 성격과 내부적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 주는 대표적인 성질들 혹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소설 속에 잘 반영된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주로 인물이라는 요소에 관련된 개념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물뿐만 아니라 사건 배경, 행위 배경 등의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곧, 전형화란 것은 객관적 진리를 목표로 하는 예술적 일반화의 독특한 방식으로서, 개인적인 것 속에 있는 사회적인 것을, 특수한 것 속에 있는 보편적인 것을, 우연적인 것 속에 있는 합법적인 것을, 여러 현상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발견해 내고 끄집어내어 예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정서(情緒)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물에 부딪쳐 일어나는 온갖 감정을 뜻한다. 이에겐 지성, 감정, 의지의 세 갈래가 있다. 시에서는 시어에 의해 환기되는 감정의 내적 반응을 말한다. 일반적인 감정인 ‘희로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하다. 사상이 집단적이고 의도적인 윤리적, 철학적 관념 또는 통치 이념이라면 정서는 개인적

이고 비의도적이다. 심리가 마음의 상태 또는 의식의 작용이라면 정서는 대상에 대한 느낌이다.

주지주의(Intellectualism) 감정적인 주장주의에 대하여 지성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리켜 주지주의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20세기 초엽에 엘리엇, 에즈라 파운드, 허버트 리드 등이 새로운 시의 방법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광균, 장만영 등이 주지주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구에서는 엘리엇이나 파운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역사적 감각을 지니고서 먼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시로 노래하려 시도해 볼 정도로 지성이 시의 발상을 지배하고 있다. 주지주의 시의 대표 작품으로 엘리엇의 장시 ‘황무지’가 유명하다.

중수필(重隨筆, Formal Essay)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인 논리 구조와 객관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하여 쓴 수필.

지배적 심상 작품 전체를 통해 통일적으로 드러나는 심상으로, 주제와 직결되는 형상 또는 그 형상에 내포된 관념을 말한다.

참요(讖謠) 어떤 정치적인 징후를 암시하거나 예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민요이다. 후삼국 이래의 참요들이 여러 문헌에 수집,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을 예언했다는 ‘계림요’, 이성계의 혁명을 암시했다는 ‘목자요(木子謠)’ 등이 그 대표적이다. 대체로 왕조나 정권의 대변동이 있을 때마다 참요가 나타났다고 하고, 폭정에 대한 민중의 항거가 참요로 암시되기도 했다. 참요는 주로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라고 한다. 아이들은 하늘의 뜻을 대변하고, 노래에

는 예언적 능력이 있다는 사고방식의 반영이다.

초현실주의(超現實主義 Surrealism) 문자 그대로 사람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의 세계보다 더 중요하고 진실한 것(초현실)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것을 예술에서 탐구하려는 태도이다. 초현실주의자들은 깊은 생각을 타당성 있는 학문이나 예술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이의 자유분방한 작용을 기하기 위하여 자동기술법에 의존했다. 다다이즘에 이어 프로이트의 심층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일어난 예술 운동이다. 기성의 미학, 도덕과는 관계없이 무의식적 내면을 충동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텍스트(Text) 작품을 재생시키거나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문서로서 원문(原文), 원본(原本), 원전(原典)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카타르시스(Catharsis)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비극은 어떤 행위를 모방한 것으로서 애련(哀憐)과 공포에 의하여 이것들의 정서 특유의 카타르시스(淨化)를 행한다.’고 말했다.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함으로써 마음속에 솟아오른 슬픔이나 공포의 기분을 토해내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을 말한다.

패러디(Parody) 일반적으로 패러디란 한 작가의 스타일이나 습관을 흉내 내어 원작을 우스꽝스럽게 개작했거나 변형시킨 작품을 가리킨다. 본질적으로 패러디는 풍자와 유희, 아이러니를 내포하고 있고, 또 이런 기법들 속에는 전대의 혹은 당대의 지배적인 신념 체계 속에 내포된 억압적 특성이나 허위의식을 폭로

하려는 예술가의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의 현대 소설 중에서 이 수법을 보여 주는 대표작으로는 최인훈의 '구운몽', '서유기',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대한 최인훈의 같은 제목의 소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에 대한 전진우의 '서울, 1986 여름' 등이 있다. 현대에 와서는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계열의 작품들에서 많이 발견된다.

풍자(諷刺) 직접 말하지 않고 슬며시 돌려서 사회나 인물의 결함, 죄악 같은 것을 조소적으로 드러내어 비판 받도록 하는 수법. 부조리한 사회 현상이나 인간에 대해 그 잘못을 공격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표현 방식. 냉소와 조롱, 익살, 야유, 희화화 등으로 대상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힘 우희 치달아 앉아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날, 가슴이
금즉하여 풀떡 뛰여 내닫다가 두힘 아래 자

빠지거고 모쳐라 날넌 널씩망정 예혈질 변화
괘라.

편집자적 논평 작가의 사상, 지식이나 관념을 적당히 배합하여 인물의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행동 및 심리적 변화의 의미까지 해석하는 것으로 고소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피카레스크(Picaresque) 소설 건달, 좀더 정확하게는 '재미있는 무뢰한'을 뜻하는 스페인어 '피카로(Picaro)'에서 유래한 소설 양식의 개념으로 이 양식은 주로 건달의 이야기를 다루며, 기사들의 환상적인 로맨스나 상류층의 이상주의적 문학에 맞서는 하류층 문학, 또는 기존의 관습에 대한 반동의 형태를 지니는 문학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주로 하층 계급에 속하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어, 비정하고 부도덕한 현실 사회에 맞서 재치 있는 임기응변과 심각하지 않은 탈선을 범하는, 일종의 사회적 모험담의 성격이 짙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는 이 부류의 가장 대표적 작품

이며, 마크 트웨인의 '톰 소여의 모험'에도 이러한 성격이 나타나 있다.

해학(諧謔) 정답고 긍정적인 우스개. 표현 대상과 주체, 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더불어 웃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 방법. 평범하거나 그 이하인 인물의 행위의 파격성, 비합리성, 비정형성을 통해 글의 흥미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비공격적이다.

휴머니즘(Humanism) 신(神) 중심의 중세적 억압으로부터 인간성의 해방과 옹호를 이상으로 하는 사상 혹은 심적 태도를 뜻한다.

희화화(Caricature) 인물의 외모나 성격 혹은 사건 자체를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는 기법. 일반적으로 진지한 주제를 일부러 희극적인 만화풍으로 그려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문학 작품이나 극적 연출을 의미하는 희작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될 수 있다.



● 문학사 연표

| 시기 | 한국 문학 | | 세계 문학 |
|------------|----------------------|-----------|------------------------------|
| | 작품 · 저서명 | 작가 | |
| 〈고조선〉 ? | 단군 신화 | (건국 신화) | 일리아드 · 오디세이(호메로스, 기원전 850년경) |
| | 주몽 · 박혁거세 · 김수로왕 신화 | | 시경(기원전 600년경) |
| | 공무도하가 | 백수광부의 처 | 우파니사드 성립(인도, 기원전 500년경) |
| 기원전 17 | 황조가 | 유리왕 | |
| ? | 구지가 | 구간 등 | |
| 〈신라 진평왕〉 ? | 서동요 | 서동 | 귀거래사(도연명, 405) |
| 612 | 여수장우중문시 | 을지문덕 | 베어울프(영국, 500) |
| 〈백제〉 ? | 정읍사 | 어느 여인 | |
| 681~691 | 화왕계 | 설총 | |
| 692~702 | 모죽지랑가 | 득오 | 두공부집(두보, 757) |
| 702~737 | 헌화가 | 어느 노인 | 이태백집(이백, 762) |
| 760 | 도술가 | 월명사 | 힐데브란트의 노래(독일, 770년경) |
| 742~765 | 제망매가 | 월명사 | 만요슈(일본, 771년경) |
| 742~765 | 안민가 · 찬기파랑가 | 충담사 | |
| 875~886 | 처용가 | 처용 | 백씨문집(백거이, 845) |
| 879 | 격황소서 · 계원필경 | 최치원 | |
| 888 | 삼대목 | 위홍, 대구 화상 | |
| 949~973 | 보현십원가 | 균여 | |
| 1047~1096 | 수이전 | 박인량 | 적벽가(소식, 1082) |
| 1241 | 국선생전 · 백운소설 · 동국이상국집 | 이규보 | 니벨룽의 노래(독일, 1200년경) |
| 1254 | 보한집 | 최자 | |
| 〈고려 교종〉 | 한림별곡 | 한림제유 | |
| 1260 | 파한집 | 이인로 | |
| 1285 | 삼국유사 | 일연 | 동방견문록(마르코 폴로, 1277) |
| 1314~1348 | 관동별곡 · 죽계별곡 | 안축 | 신곡(단테, 1321) |
| 〈고려〉 ? | 청산별곡 · 동동 · 가시리 | 지은이 모름 | 데카메론(보카치오, 1353) |
| 1363 | 익재난고 · 역옹패설 | 이제현 | 수호전(시내암, 1370) |
| 1392 | 단심가 | 정몽주 | 전등 신화(구우, 1378년경) |
| 〈고려〉 ? | 저생전 | 이첨 | 캔터베리 이야기(초서, 1387) |
| | 정시자전 | 식영암 | |
| 1393~1394 | 신도가 · 정동방곡 · 납씨가 | 정도전 | |
| 〈조선초〉 | 상대별곡 | 권근 | |
| 1431 | 강호사시가 | 맹사성 | |
| 1447 | 용비어천가 | 정인지 외 | |
| | 석보상절 | 수양 대군 | |
| 1449 | 월인천강지곡 | 세종 | |
| 1455~1468 | 금오신화 | 김시습 | |
| 1459 | 월인석보 | 세조 | |

| 시기 | 한국 문학 | | 세계 문학 | | |
|-----------|-----------------------|----------|-----------------------|---------------------|-------------------|
| | 작품 · 저서명 | 작가 | | | |
| 1474 | 동인시화 | 서거정 | 삼국지연의(나관중, 1494) | | |
| 1478 | 동문선 | 서거정 | | | |
| 1481 | 분류두공부시언해 (초간) | 유윤겸 외 | | | |
| 〈조선 전기〉 ? | 상춘곡 | 정극인 | | | |
| 1493 | 악학궤범 | 성현 외 | | | |
| 1498 | 만분가 | 조위 | | | |
| 1525 | 용재총화 | 성현 | | 유포피아(토머스 모어, 1516) | |
| 1533 | 면앙정가 | 송순 | | 아라비안나이트(1516년경) | |
| 1546~1567 | 시용향약보 | 지은이 모름 | | 당시선(1522) | |
| 1555 | 관서별곡 | 백광홍 | | 서유기(오승은, 1570) | |
| 1565 | 도산십이곡 | 이황 | | | |
| 1568~1587 | 독락팔곡 | 권호문 | | | |
| 1572 | 남명가 | 조식 | | | |
| 1578 | 고산구곡가 | 이이 | | | |
| 1578 ? | 수성지 · 원생몽유록 | 임제 | | 수상록(몽테뉴, 1580) | |
| 1580 | 관동별곡 · 훈민가 | 정철 | | | |
| 1585~1589 | 사미인곡 · 성산별곡 · 속미인곡 | 정철 | | | |
| 1605 | 선상탄 | 박인로 | | | 햄릿(셰익스피어, 1602) |
| 1613 | 계축일기 | 어느 궁녀 | | | 돈키호테(세르반테스, 1605) |
| 1615 ? | 강촌별곡 | 차천로 | 수전노(몰리에르, 1668) | | |
| 1618 | 홍길동전 | 허균 | | | |
| 1622 | 어우야담 | 유몽인 | | | |
| 1632 | 분류두공부시언해(중간) | 오숙 등 | | | |
| 1636 | 산성일기 | 어느 궁녀 | | | |
| 1651 | 어부사시사 | 윤선도 | | | |
| 1665 ? | 농암집 | 이현보 | | | |
| 1678 | 순오지 | 홍만종 | | | |
| 1687이후 | 구운몽 · 사씨남정기 · 서포만필 | 김만중 | | | |
| 1728 | 청구영언 | 김천택 | | 걸리버 여행기(스위프트, 1726) | |
| 1755 | 해동가요 | 김수장 | 에밀(루소, 1762) | | |
| 1777~1805 | 연암집 · 열하일기 · 양반전 · 호질 | 박지원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괴테, 1774) | | |
| 1795~1805 | 한중록 | 혜경궁 홍씨 | 빌 헬름 텔(실러, 1804) | | |
| 1853 | 북천가 | 김진형 | 적과 흑(스탕달, 1830) | | |
| 1863 | 남훈태평가 | 지은이 모름 | 파우스트(괴테, 1832) | | |
| 〈조선〉 ? | 춘향전 · 흥부전 · 심청전 · 토끼전 | 지은이 모름 | 검찰관(고골, 1836) | | |
| 1876 | 가곡원류 | 박효관, 안민영 | 백경(멜빌, 1851) | | |
| 1884 | 판소리 여섯 마당 정리 | 신재효 | 전쟁과 평화(톨스토이, 1869) | | |
| 1895 | 서유견문 | 유길준 | 인형의 집(입센, 1879) | | |

● 문학사 연표

| 시기 | 한국 문학 | | 세계 문학 |
|-----------|-------------------|-----|-----------------------------|
| | 작품 · 저서명 | 작가 | |
| 1896 | 애국가 | 이용우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1880) |
| | 동심가 | 이중원 | |
| 1908 | 경부철도가 | 최남선 | 수레바퀴 밑에서(헤세, 1906) |
| 1906~1908 | 혈의 누 · 은세계 · 귀의 성 | 이인직 | 파랑새(마테를 링크, 1906) |
| 1908 | 해에게서 소년에게 | 최남선 | |
| 1910 | 자유종 | 이해조 | 말테의 수기(릴케, 1910) |
| 1912 | 병자 삼인 | 조중환 | 기탄잘리(타고르, 1910) |
| 1917 | 무정 | 이광수 | 변신(카프카, 1916) |
| 1918 | 봄은 간다 | 김억 | 광인 일기(루쉰, 1918) |
| 1919 | 불놀이 | 주요한 | 달과 6펜스(뭉, 1919) |
| | 악한 자의 슬픔 | 김동인 | 데미안(헤세, 1919) |
| 1921 | 빈처 | 현진건 | 아큐정전(루쉰, 1921) |
| | 배따라기 | 김동인 | |
| | 표본실의 청개구리 | 염상섭 | |
| | 오뇌의 무도(번역 시집) | 김억 | |
| 1922 | 진달래꽃 | 김소월 | 황무지(엘리엇, 1922) |
| 1923 | 해파리의 노래(시집) | 김억 | 두이노의 비가(릴케, 1922) |
| | 나의 침실로 | 이상화 | 울리시스(조이스, 1922) |
| 1924 | 운수 좋은 날 | 현진건 | 마의 산(토마스 만, 1924) |
| | 만세전 | 염상섭 | |
| 1925 | 감자 | 김동인 | |
| | 병어리 삼룡이 | 나도향 | |
| | 화수분 | 전영택 | |
| | 탈출기 | 최학송 | |
| | 국경의 밤 | 김동환 | |
| 1926 | 고향 | 현진건 | 성(카프카, 1926) |
| | 님의 침묵(시집) | 한용운 |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헤밍웨이, 1926) |
|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이상화 | |
| | 백팔 번뇌(시조집) | 최남선 | |
| 1927 | 홍염 | 최학송 | 등대로(울프, 1927) |
| 1930 | 떠나가는 배 | 박용철 | |
| |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김영랑 | |
| 1931 | 삼대 | 염상섭 | 야간 비행(생텍쥐페리, 1931) |
| 1932 | 토막 | 유치진 | |
| | 흙 | 이광수 | |
| | 노산 시조집 | 이은상 | |
| 1933 | 거울 | 이상 | 인간의 조건(말로, 1933) |
| 1934 | 모범 경작생 | 박영준 | |

| 시기 | 한국 문학 | | 세계 문학 |
|------|------------------|-----------|---------------------------|
| | 작품 · 저서명 | 작가 | |
| 1934 | 오감도 | 이상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미첼, 1936) |
| | 레디메이드 인생 | 채만식 | |
| | 소 | 유치진 | |
| 1935 | 사랑손님과 어머니 | 주요섭 | |
| | 봄 봄 | 김유정 | |
| | 김 강사와 T 교수 | 유진오 | |
| | 상록수 | 심훈 | |
| | 백치 아다다 | 계몽묵 | |
| | 영랑 시집 | 김영랑 | |
| 1936 | 메밀꽃 필 무렵 | 이호석 | |
| | 날개 | 이상 | |
| | 지하촌 | 강경애 | |
| | 사하촌 | 김정한 | |
| | 동백꽃 | 김유정 | |
| | 무녀도 · 바위 | 김동리 | |
| 1937 | 성황당 | 정비석 | 구토(사르트르, 1938) |
| 1938 | 탁류 | 채만식 | |
| | 태평천하 | 채만식 | |
| 1939 | 와사등(시집) | 김광균 | 벽(사르트르, 1939) |
| | 제1과 제1장 | 이무영 | 분노의 포도(스타인벡, 1939) |
| | 청포도 | 이육사 | |
| | 춧불(시집) | 신석정 | |
| | 청마시초(시집) | 유치환 | |
| | 무영탑 | 현진건 | |
| | 가람 시조집 | 이병기 | |
| 1940 | 절정 | 이육사 | 고요한 돈 강(솔로호프, 1940) |
| | 봉황수 | 조지훈 |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헤밍웨이, 1940) |
| 1941 | 화사집(시집) | 서정주 | 이방인(카뮈, 1942) |
| 1943 | 맹 진사댁 경사 | 오영진 | 유리알 유희(헤세, 1943) |
| 1946 | 청록집(시집) | 박목월 · 조지훈 | 개선문(레마르크, 1946) |
| | 육사 시집 | 박두진 | |
| 1947 | 슬픈 목가(시집) | 신석정 | 페스트(까뮈, 1947) |
| | 이양하 수필집 | 이양하 | 제3의 주소(네루다, 1947) |
| 1948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시집) | 윤동주 |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윌리엄즈, 1947) |
| | 목 넘이 마을의 개 | 황순원 | 설국(가와바타 야스나리, 1948) |
| 1949 | 두 파산 | 염상섭 | 25시(게오르규, 1949) |
| | 해(시집) | 박두진 | 1984(오웰, 1949) |

● 문학사 연표

| 시기 | 한국 문학 | | 세계 문학 |
|------|---------------------|-----|--|
| | 작품 · 저서명 | 작가 | |
| 1951 | 귀환 장정 | 김동리 | 세일즈맨의 죽음(밀러, 1949) 노인과 바다(헤밍웨이, 1952) 고도를 기다리며(베케트, 1953) |
| 1952 | 풀잎 단정(시집) | 조지훈 | |
| 1953 | 갯마을 | 오영수 | |
| | 학 · 카인의 후예 | 황순원 | |
| 1955 | 비 오는 날 | 손창섭 | 닥터 지바고(파스테르나크, 1957) 양철북(그라스, 1959)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솔제니친, 1962) 암 병동(솔제니친, 1967) 성벽 없는 도시(오든, 1970) |
| | 오분간 | 김성한 | |
| | 흑산도 | 전광용 | |
| | 요한 시집 | 장용학 | |
| | 이호우 시조집 | 이호우 | |
| 1956 | 박인환 시집 | 박인환 | |
| | 귀향 | 차범석 | |
| | 바비도 | 김성한 | |
| 1957 | 초토의 시(시집) | 구상 | |
| | 수난이대 | 하근찬 | |
| | 불꽃 | 선우휘 | |
| | 학마을 사람들 | 이법선 | |
| | 불신 시대 | 박경리 | |
| 1959 | 쓰리 킴 | 송병수 | |
| | 볼모지, 성난 기계 | 차범석 | |
| |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시집) | 김춘수 | |
| 1960 | 흰 종이 수염 | 하근찬 | |
| | 원고지 | 이근삼 | |
| 1962 | 광장 | 최인훈 | |
| 1964 | 꺼삐딴 리 | 전광용 | |
| | 김 약국의 딸들 | 박경리 | |
| | 산불 | 차범석 | |
| 1965 | 만선 | 천승세 | |
| 1966 | 서울, 1964년 겨울 | 김승옥 | |
| | 나비의 여행 | 정한모 | |
| 1967 |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전혜린 | |
| | 모래톱 이야기 | 김정한 | |
| 1969 | 북간도 | 안수길 | |
| 1970 | 성북동 비둘기(시집) | 김광섭 | |
| | 성탄제(시집) | 김종길 | |
| | 수라도 | 김정한 | |
| 1970 | 토지(1부 완성) | 박경리 | |
|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최인훈 | |
| | 선생과 황태자 | 송영 | |

| 시기 | 한국 문학 | | 세계 문학 |
|------|------------------|-----|--------------------|
| | 작품 · 저서명 | 작가 | |
| 1971 | 객지 | 황석영 | 옛 시절(해럴드 핀터, 1971) |
| | 타인의 방 | 최인호 | |
| | 소문의 벽 | 이청준 | |
| 1972 | 한씨 연대기 | 황석영 | |
| 1973 | 어둠의 혼 | 김원일 | |
| | 장마 | 윤홍길 | |
| | 삼포 가는 길 | 황석영 | |
| 1974 | 이어도 | 이청준 | |
| |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 박완서 | |
| 1975 | 국토(시집) | 조태일 | |
| | 카메라와 워커 | 박완서 | |
| | 타는 목마름으로 | 김지하 | |
| | 꽃샘 바람 | 현기영 | |
| 1976 | 당신들의 천국 | 이청준 | |
| 1977 | 관촌수필 | 이문구 | |
| |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윤홍길 | |
| 1978 | 지리산 | 이병주 | |
|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조세희 | |
| 1979 | 사람의 아들 | 이문열 | |



● 저자 및 출처

| 대단원명 | 중단원명 | 소단원명 | 제재명 | 저자 | 출처 |
|-----------------------|-------------------|--------------------------|-------------------------|--|--|
|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문학의 수용 | (1) 내용·형식을 고려한 수용 | 산유화 | 김소월 | “원본 소월 전집”, 김중욱 편, 홍성사, 1982. |
| | | | 청노루 | 박목월 | “청록집”, 을유 문화사, 2006. |
| | | | 신록 예찬 | 이양하 | “이양하 수필선”, 을유 문화사, 2005. |
| | | | 도요새에 관한 명상 | 김원일 | “한국 소설 문학 대계 57”, 동아 출판사, 1995. |
| | | | 빈집 | 기형도 | “입속의 검은 입”, 문학과 지성사, 1989. |
| | | | 메밀꽃 필 무렵 | 이효석 | “우리 시대의 한국 문학 37”, 계몽사, 1996. |
| | | | 사하촌 | 김정한 | “한국 소설 문학 대계 31”, 동아출판사, 1995. |
| | | 학습활동 5 | 백나리, 조민정 | ‘이산가족 신문 기사’, 연합 뉴스, 2010. 11. 3. | |
| | | (2) 맥락을 고려한 수용 | 광야 | 이육사 | “원본 이육사 전집”, 심원섭 편주, 집문당, 1986. |
| | | | 춘망 | 두보 | “역주 분류두공부시연해”, 세종 대왕 기념 사업회, 2011. |
| | | | 봄 | 김소월 | “문학이란 무엇인가”, 유종호, 민음사, 1989. |
| | | | 허생전 | 박지원 | “이조 한문 단편집(하)”, 이우성·임형택 역편, 일조각, 1997. |
| | (3) 주체적 수용 | 농무 | 신경림 | “농무”, 창작과 비평사, 1975. | |
| | |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 최시한 | “한국 소설 문학 대계 91”, 동아 출판사, 1995. | |
| | | 원고지 | 이근삼 | “한국 현대 대표 희곡 선집 2”, 한국 극예술 학회 편, 월인, 1999. | |
| | | 생명의 서 | 유치환 | “청마 시 선”, 민음사, 1982. | |
| | 2 문학의 생산 |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규총칠우쟁론기 | 지은이 모름 | “고전 수필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상익 외, 집문당, 1999. |
| | | | 성복동 비둘기 | 김광섭 | “성복동 비둘기”, 민음사, 1986. |
| | | | 패러디 | 서울 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 | “국어 교육학 사전”, 대교 출판, 1998. |
| | | | 꽃 | 김춘수 | “김춘수 전집 1”, 현대 문학, 2004. |
| | | (2) 작품의 창작 | 라디오가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장정일 | “지하 인간”, 미래사, 1991. |
| | | | 한림별곡 | 한림제유 | “국어 자료 고문 선”, 박은용, 김형수, 형설 출판사, 1993. |
| | | | 소나기는 그쳤나요? | 장진 | “장진 시나리오집”, 열음사, 2008. |
| | | | 차마설 | 이곡 | “고등학교 국어(상)”,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 연구소, 1996. |
| | | | 이옥설 | 이규보 | “고전 수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집문당, 1999. |
| | | | 고향 | 백석 | “백석 시 전집”, 창작과 비평사, 1989. |
| | | | 화랑의 후에 | 김동리 | “한국 소설 문학 대계 26”, 동아 출판사, 1995. |
| | | | 설령탕 한 그릇 | 양준희 | “내일도 담임은 올 뻔이다”, 류연우 외, 나라말, 2011. |
| | 3 문화와 문학 활동 | (1) 문학과 인문·사회 | 오렌지 | 신동집 | “신동집 시 전집”, 영화 출판사, 1984. |
| | | | 노장사상 | 박이문 | “노장사상”, 문학과 지성사, 1980. |
| | | | 토지 | 박경리 | “토지(1)”, 숲, 1993. |
| | | | 새 1 | 박남수 | “박남수 전집 1-시”, 한양 대학교 출판원, 1998. |
| | | | 나의 열정, 나의 시 | 문정희 | 한국 문화 예술 교육 진흥원 강연문, http://blog.naver.com/bschun55?Redirect=Log&logNo=60018193355 mms://vod.kcaf.or.kr/friday/f1325_300k.wmv |
| | | | 작은 부엌 노래 | 문정희 | “어린 사랑에게”, 미래사, 2000. |
| | |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문정희 | “오라, 거짓 사랑아”, 민음사, 2001. |
| | | | 오빠 | 문정희 | “어린 사랑에게”, 미래사, 2000. |
| 광장 | | | 최인훈 | “한국 소설 문학 대계 42”, 동아출판사, 1995. | |
| 타는 목마름으로 | | | 김지하 | “타는 목마름으로”, 창작과 비평사, 1993. | |
| (2) 문학과 예술 | | 나목 | 박완서 | “나목·도둑맞은 가난”, 민음사, 1999. | |
| | | 납작납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김혜순 | “또 다른 별에서”, 문학과 지성사, 1981. | |

| 대단원명 | 중단원명 | 소단원명 | 제재명 | 저자 | 출처 | | |
|-----------------------|--------------------|---|--------------------|----------------------|--|---|--|
|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3 문화와 문 학 활동 | (2) 문학과 예술 | 해 | 박두진 | “가을 절벽”, 미래사, 2003. | | |
| | |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황지우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문학과 지성사, 1983. | | |
| | | | 느낌, 극락 같은 | 이강백 | “이강백 희곡 전집 6”, 평민사, 1999. | | |
| | | | 선학동 나그네 | 이청준 | “서편제(이청준 문학 전집)”, 열림원, 1998. | | |
| | (3) 문학과 매체 | | | 오발탄 | 나소운 · 이종기 각색 | “고등학교 문학(상)”, 상문 연구사, 2002. | |
| | | | | 빠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 이세룡 | “채플린의 마을”, 고려원, 1988. | |
| | | | | 가난한 현실 위에 짓는 '꿈의 공장' | 조정권 | “채플린의 마을”, 고려원, 1988. | |
| | | | | 토지(소설) | 박경리 | “토지 (3)”, 솔, 1993. | |
| | | | | 토지(만화) | 오세영 | “만화 토지 (6)”, 마로니에북스, 2007. | |
| | | | | 복덕방(소설) | 이태준 | “해방 전후(이태준 단편 선)”, 창작과 비평사, 1992. | |
| | | | | 복덕방(만화) | 오세영 | “오세영 한국 단편 소설과 만남”, 청년사, 2005. | |
| | | | | 아무리 봐도 | 이철수 | 이철수의 집(http://www.mokpan.com) | |
| | | | | 나의 가난은 | 천상병 | “천상병 전집”, 평민사, 1996. | |
| 빈집이지만 | 이철수 | 이철수의 집(http://www.mokpan.com) | | | | | |
| II 문학과 삶 | 1 나와 문학 | (1) 내 안의 풍경 | 별 헤는 밤 | 윤동주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권영민 편, 문학 사상사, 1997. | | |
| | | | 외딴 방 | 신경숙 | “외딴 방”, 신경숙, 문학 동네, 2011. | | |
| | | | 나의 열여덟은 아름답다 | 이현희 | “세 번째 교과서”, 사계절, 2008. | | |
| | | (2) 내 삶의 길 | |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권정생 | “사람 사이에 삶의 길이 있고”, 사계절, 2009. | |
| | 자화상 | | | 서정주 | “서정주 시선”, 고은 선, 민음사, 1989. | | |
| | 수오재기 | | | 정약용 | “다산 문학 선집”, 박석무, 정해림 편, 현대 실학사, 1996. | | |
| | 2 사람들과 문학 | | 생각 열기 | 어머니 3 | 김시천 | “부모와 자녀가 꼭 함께 읽어야 할 시”, 도종환 엮음, 나무 생각, 2004. | |
| | | | (1) 만남 | 심생전 | 이옥 | “심생전 · 운영전”, 현암사, 2004. | |
| | | | | 환생 | 윤종신 | http://music.naver.com/lyric/index.nhn?trackId=2327 | |
| | | | | 헬로우 고스트 | 김영탁 | 장편 영화 ‘헬로우 고스트’ 기획/제작 보고서, 최문수, 동국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11. | |
| | | | (2) 이별 | | 성탄제 | 김종길 |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 중2 시”, 김규중 외 2 엮음, (주)창비, 2010. |
| | | | | | 속미인곡 | 정철 | “원문 가사선(국어 국문학 총서 3)”, 국어국문학회 편, 대제각, 1979. |
| | | | | | 서포만필 | 김만중 | “서포만필(한국 고전 문학 전집)”, 심경호, 문학 동네, 2010. |
| 규원가 | 허난설헌 | “원문 가사선(국어 국문학 총서 3)”, 국어 국문학회 편, 대제각, 1979. | | | | | |
| 님의 침묵 | 한용운 | “님의 침묵”, 서울 대학교 출판부, 1996. | | | | | |
| 아리랑 | 지은이 모름 | “한국 민요집 VII”, 임동권 편, 집문당, 1992. | | | | | |
| 3 삶의 터전 과 문학 | (1) 공동체와 문학 | | 성애꽃 | 최두석 | “망초꽃밭”, 최두석, 미래사, 1991. | | |
| | | | 슬픔이 기쁨에게 | 정호승 | “슬픔이 기쁨에게”, (주)창비, 1979. | | |
| | | | 완득이 | 김려령 | “완득이”, (주)창비, 2008. | | |
| | | | 빨래 | 추민주 | “빨래”, 추민주, 극단 ‘명랑 시어터 수박’ 제공 대본, 2005. | | |
| | | | 성모 | 고은 | “문의 마을에 가서”, 청하, 1974. | | |
| | | | 쇠피르레기 | 림종상 | “북한 우수 단편선 I”, 살림터, 1998. | | |
| | (2) 자연과 문학 | | 우주 비행 | 홍명진 | “우주 비행”, 홍명진, (주)사계절 출판사, 2012. | | |
| | | | 누이와 늑대 | 한승원 | “누이와 늑대”, 한승원, 문이당, 1999. | | |
| | | | 두류산 양단수를 | 조식 | “우리의 고전 시가 2”, 임종욱 엮음, 나무 아래 사람, 2002. | | |
| | | | 환경 지상주의에 멎드는 국책 사업 | 이승원 | “동아 일보”, 2011. 6. 7. | | |
| 생태학적 상상력과 우리 시의 방향 | 이승원 | “한국 문학 명비평”, 김중희 엮음, 시와 시학사, 1995. | | | | | |
| 양계장집 딸 | 나희덕 | “그 말이 있을 물들었다”, 창작과 비평사, 1994. | | | | | |

● 저자 및 출처

| 대단원명 | 중단원명 | 소단원명 | 제재명 | 저자 | 출처 | |
|-----------------------------|---------------------------|--------------------------------|-------------------------------------|---|---|--------------------------------------|
| Ⅲ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1 한국 문학 의 범위와 특질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갈래 | 격황소서 | 최치원 | “동문선 V(고전 국역 총서 29)”, 재단 법인 민족 문화 추진회, 민족 문화 문고 간행회, 1984. | |
| | | | 바리데기 | 지은이 모름 | “한국 고전 문학 전집 30(서사 무가 1)”, 서대석,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96. | |
| | | (2)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 시집살이 노래 | 지은이 모름 | “한국 민요집 1”, 임동권 편, 집문당, 1974. | |
| | | | 봄 봄 | 김유정 | “한국 소설 문학 대계 18”, 동아 출판사, 1995. | |
| | | | 강령 탈출 | 오인관· 양소운 구술 | “한국 가면극 선”, 이두현, 교문사, 1997. | |
| | | | 태평천하 | 채만식 | “문학과 지성사”, 2005. | |
| | | 2 한국 문학 의 역사 | (1) 원시·고대 문학 | 구지가 | 지은이 모름 | “한국 문학 총서 1 고전 시가”, 권두환 편, 해냄, 1997. |
| | | | | 황조가 | 유리왕 | “한국 문학 총서 1 고전 시가”, 권두환 편, 해냄, 1997. |
| | 해가 | | | 지은이 모름 | “삼국유사”, 일연/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8. | |
| | 원왕생가 | | | 광덕 | “향가 해독법 연구”, 김완진, 서울 대학교 출판부, 1990. | |
| | 정음사 | | | 지은이 모름 | “한국 문학 총서 1 고전 시가”, 권두환 편, 해냄, 1997. | |
| | 단군 신화 | | | 지은이 모름 | “삼국유사”, 일연/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8. | |
| | 온달 | | | 지은이 모름 | “삼국사기 3”, 김부식/박장렬 외 5인 옮김, 한국 인문 고전 연구소, 2012. | |
| | (2) 중세 문학 | | 청산별곡 | 지은이 모름 | “국어 국문학회 편”, 원문 고시가 선, 대제각, 1976. | |
| | | | 용비어천가 | 정인지 등 | “국어 국문학회 편”, 원문 고시가 선, 대제각, 1976. | |
| | | | 일신이 사자 훈이~ | 지은이 모름 | “고시조 천수선”, 심재완 편, 형설 출판사, 1977. | |
| | | | 송인 | 정지상 | “동문선 II”, 재단 법인 민족 문화 추진회, 민족 문화 문고 간행회, 1984. | |
| | | | 부벽루 | 이색 | “동문선 I”, 재단법인 민족 문화 추진회, 민족 문화 문고 간행회, 1984. | |
| | | | 들국 | 김용택 | “참 좋은 당신”, 시와 시학사, 2007. | |
| | | | 국순전 | 임춘 | “동문선 VIII(고전 국역 총서 32)”, 재단 법인 민족 문화 추진회, 민족 문화 문고 간행회, 1984. | |
| | (3) 근대 태동기 문학 | | 만흥 | 윤선도 | “조선 시대 연시조 주해”, 황충기 편, 푸른 사상, 2009. | |
| | | | 논밭 갈아~ | 지은이 모름 | “고시조 천수선”, 심재완 편, 형설 출판사, 1977. | |
| | | 개화 | 이호우 | “삼불야: 이호우 시조 전집”, 목언예원, 2012. | | |
| | | 누항사 | 박인로 | “한국 고전 문학 전집 3”, 최강현 역주, 동아 출판사, 1993. | | |
| | | 상춘곡 | 정극인 | “한국 고전 문학 전집 3”, 최강현 역주, 동아 출판사, 1993. | | |
| | | 흥부전 | 지은이 모름 | “한국 고전 문학 전집 14 - 흥부전/변강쇠기”, 김태준 역주, 1995. | | |
| | | 흥보가 | 박봉술 사설 | “흥보전 전집 1”, 김진영 외 편저, 박이정, 1997. | | |
| | | 연의 각 | 이해조 | “구할자본 고소설 전집 29”, 은하 출판사, 1984. | | |
| | | 하회 별신굿 탈놀이 | 지은이 모름 | 하회 별신굿 탈놀이 보존회(http://www.hahoemask.co.kr/) | | |
| | | 봉산 탈춤 | 김진옥· 민천식 구술 | “한국 가면극 선”, 이두현, 교문사, 1997. | | |
| | (4) 근대 문학 | 해에게서 소년에게 | 최남선 | “현대문학 총서 소년(1~4)”, 한국학 자료원, 2009. | | |
| | | 동심가 | 이중원 | “한국 현대시 500선(상)”, 양승준 양승국, 월인, 2004. | | |
| 봄은 간다 | | 김억 | “한국 현대 문학 대계 1”, 권영민 엮음, 민음사, 1994. | | | |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 이상화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미래사, 1991. | | | |
| 인동차 | | 정지용 | “정지용 전집 1: 시”, 민음사, 2003. | | | |
| 금수회의록 | | 안국선 | “한국 소설 문학 대계 1”, 동아 출판사, 1995. | | | |
| 삼대 | | 염상섭 | “삼대(상)”, 창작과비평사, 1993. | | | |

● 저자 및 출처

| 대단원명 | 중단원명 | 소단원명 | 제재명 | 저자 | 출처 |
|-----------------------------|--------------------------|-------------------------------|----------------|---|---|
| Ⅲ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2 한국 문학 의 역사 | (4) 근대 문학 | 창선감의록 | 조성기 | “활자본 고전 소설 전집 10”, 동국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편, 아세아 문화사, 1976. |
| | | | 눈 | 김수영 |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03. |
| | | (5) 현대 문학 | 이 사진 앞에서 | 이승하 | “공포와 전율의 나날”, 문학의 전당, 2009. |
| | | | 북어 | 최승호 | “대설 주의보”, 민음사, 1983. |
| | | | 멀치 | 김기택 | “바늘 구멍 속의 폭풍”, 문학과 지성, 1999. |
| | | |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 조세희 |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조세희 소설집)”, 문학과 지성사, 1986. |
| | 3 한국 문학 과 외국 문학 | (1)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 경문 대왕의 귀 | 일연 | “삼국유사”, 일연/김원중 옮김, 민음사, 2008. |
| | | | 미다스 왕의 귀 | 토마스 벌핀치 |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운기 편역, 도서 출판 창해, 2004. |
| | | | 석류들 | 폴 발레리 | “발레리 시 전집”, 박은수, 민음사, 1987. |
| | | (2)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의 교섭 | 레 미제라블 | 빅토르 위고 | “레 미제라블 1”, 송면 옮김, 동서문화사, 2010. |
| | | | 애사 | 민태원 | “애사”, 박진영 편, 현실 문화, 2008. |
| | | (3) 한국 문학의 세계화 | 진달래꽃 | 김소월 | “원본 소월 전집(상)”, 김중욱 편, 홍성사, 1982. |
| | AZALEA FLOWERS | | 고창수 | “한국의 명시[KOREA'S GOLDEN POEMS]”, 한림 출판사, 1998. | |
| | Azaleas | | David McCann | “한국 문학의 세계화 전략”, 김효중, 푸른 사상사, 2008 (재인용) | |
| | | | 언어별 번역서 현황 | | 한국 문학 번역원(www.klti.or.kr) |

● 사진 출처

| 대단원명 | 쪽수 | 제재명 | 출처(소장자) |
|--------------------|-------------|---|--|
| Ⅰ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4 | 김재홍, '시집가는 날' | http://blog.paran.com/basava/31015209 |
| | 18 | 박목월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 시집 “청록집” 표지 | http://blog.aladin.co.kr/762066143/934871 |
| | 21 | 이효석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27 | 이산가족 | http://www.yonhapnews.co.kr/ , 2010. 11. 3. |
| | 30 | 춘향가(오페라, 연극, 뮤지컬, 창극, 영화) | 국립극장(http://www.ntor.go.kr/) |
| | 31 | 이육사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4 | 박지원 | 네이버 지식 백과(http://terms.naver.com/index.nhn?mobile) |
| | 41 | 이근삼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58 | 약에 제한 데는 약도 없습니다 | 공익 광고 협의회, 한국 방송 광고 공사 |
| | 61 | 김춘수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62 | 장정일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64 | 학생 | 아이클릭아트 |
| | 65 | 장진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 영화 '소나기는 그쳤나요?' 포스터 | http://libertarian.tistory.com/220/ |
| | 67, 68, 70 | 영화 '소나기는 그쳤나요?' 장면 | 환경 재단(www.greenfund.org/) |
| | 76 | 백석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82 | 홍승우, '돌하르방' | “비빔툰”, 문학과 지성사, 2005. | |
| 85 | 신동집 | http://www.naa.go.kr/ | |

● 사진 출처

| 대단원명 | 쪽수 | 제재명 | 출처(소장자) |
|--------------------|--------------------|--|---|
| I 문학의 수용과 생산 | 83, 85, 144 | 오렌지 | 토픽포토에이전시 |
| | 88 | 문정희 | http://blog.naver.com/hpytalk/120071761466 |
| | 94 | 최인훈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 '광장' 표지 | http://blog.naver.com/dokken0109/120110617999 |
| | 102 | 박완서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104 | '나무와 두 여인' 1962년, 캔버스에 유채 | http://blog.daum.net/gsj2020/8274221 |
| | 106 | '세 여인' 1960년세, 캔버스에 유채 | http://blog.naver.com/eengee/130045059627 |
| | 107 | 박두진 | http://www.gccc.or.kr/imgfiles/11031619371.jpg |
| | | 시집 "해" 표지 | http://blog.naver.com/minist9/10146841506 |
| | 108 | '해야' 악보 | http://www.musicscore.co.kr |
| | 110 | 이강백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 연극 '느낌, 극락 같은' 장면 | http://blog.naver.com/iago1004/50096312025/ |
| | 116 | 이법선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117, 119, 122 | 영화 '오발탄' 장면 | 영화진흥위원회 |
| | 124 | 영화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
| | 125 | 박경리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129 | 영화 '토지' (1974) 포스터 | http://hcr333.blog.me/120126905097 |
| | | 드라마 '토지' (2004~2005) 장면 | http://dibrary1004.blog.me/30105748986 |
| | 130 | 오세영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135 | '토지'의 배경이 된 하동 평사리 | http://blog.daum.net/sunny38/11775177 |
| 138 | 이철수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145 | 문학의 고장 통영을 찾아서 | http://art.tongyeong.go.kr/ | |
| II 문학과 삶 | 148 | 이소룡이 이소룡에게 묻는다 | EBS 지식채널e(http://home.ebs.co.kr/jisike/srchResultList) |
| | 151 | 윤동주 | http://blog.naver.com/tnthtmfgr/130071949504 |
| | 154 | 신경숙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162 | 권정생 | http://www.mimul.com/pebble/default/2007/05/18/1179499740000.html |
| | | '몽실 언니' 표지 | http://blog.aladin.co.kr/think7932/5818653 |
| | 164 |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 포스터 | http://blog.naver.com/u2won2/110106618438 |
| | 149, 165, 242 | 권정생 생가 | 독자와 함께 11년 문화의 향기 11년, 대구 은행, 2007. |
| | 167 | 정약용 | http://mahan.wonkwang.ac.kr/culture/2009-01/EMB530a.jpg |
| | 168 | 다산 초당 | http://cfile229.uf.daum.net/image/1269963850BB4D312E6ABA |
| | 174 | 박광수, '이제 어머니 가슴에 박힌 못을 빼드리겠습니다' | 박광수 미니홈피(http://www.cyworld.com/bborie69/) |
| | 183 | 김영탁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 영화 '헬로우 고스트' 포스터 | 시사회 전문 사이트(http://www.borakai.com/) |
| | 184, 187, 188, 190 | 영화 '헬로우 고스트' 장면 | 파일조(http://www.filego.com) |
| | 191 | 산수유 | 이미지클릭 |
| | 193 | 정철 | 위키 백과(http://ko.wikipedia.org/) |
| | 196 | 시집 "님의 침묵" 표지 | http://blog.daum.net/bicbic00/15297000 |
| | | 한용운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202 | 별별 이야기 2 - 여섯 빛깔 무지개 | 국가 인권 위원회(http://www.humanrights.go.kr/) |
| | 205 | 최두석 | 네이버 지식 백과(http://terms.naver.com/index.nhn?mobile) |
| | 207 | 김려령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영화 '완득이' 포스터 | | http://sandmeer.egloos.com/5579736 | |
| 215 | 고은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216 | 림종상 | "북한 우수 단편선 1", 쇠찌르레기, 살림터, 1993, | |
| 218 | 쇠찌르레기 | http://sallynice.blog.me/110019165691 | |

| 대단원명 | 쪽수 | 제재명 | 출처(소장자) |
|-----------------------|-----|-------------------------------------|---|
| Ⅱ 문학과 삶 | 220 | 학생 | 아이클릭아트 |
| | 222 | 한승원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231 | 이승원 | http://news.unn.net/news/photo/Gisa/20114/28/image/2011428141640.jpg |
| | 233 | 배추밭 | http://blog.naver.com/buzz2009/ |
| | 236 | 북해도 토목 공사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들 | http://www.k-hnews.com/home/bbs/data/column/jingyong.jpg |
| | | 일본 규슈 탄광 벽에 새겨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의 글씨 | http://blogimg.ohmynews.com/attach/6909/1244445351.jpg |
| | 238 | 나 여기 살아 있소 (시청자 UCC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 | 박송주 외, EBS 지식채널e (http://home.ebs.co.kr/jisike/srchResultList) |
| | 243 | 한국 가사 문학관 탐방 | www.gasa.go.kr/ |
| Ⅲ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249 | 최치원 | 네이버 캐스트(http://navercast.naver.com) |
| | 255 | 암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 http://blog.naver.com/pongpong02/ |
| | 258 | 김유정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266 | ‘구지가’가 새겨진 비석 ‘영대왕가비’ | http://blog.naver.com/novel1210/110121693475 |
| | 276 | 꼭두각시놀음 인형 | http://www.designdb.com/zine/20020708_04.asp |
| | 277 | 훈민정음 | http://hangeul.naver.com/hangeul |
| | 287 | 김시습 | http://ko.wikipedia.org/wiki/ |
| | 291 | 어부사시사 | http://ojsfile.ohmynews.com/STD_IMG_FILE/2009/0730/IE001087037_STD.jpg |
| | 292 | 동래 들놀이 | 문화재청(http://www.cha.go.kr/) |
| | 293 | 윤선도 | http://image.yes24.com/blogimage/blog/o/n/onlyvincent/yPjC4crN.jpg |
| | 312 | “문장” 표지 | 문장영인간행회, 운암사, 1981. |
| | 313 | 최남선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16 | 이상화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19 | 안국선 | 네이트 한국화(http://koreandb.nate.com/history) |
| | 323 | 염상섭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29 | 한국 전쟁 | http://kcm.kr/dic_view.php?nid=38247 |
| | 330 | 한국 문인 협회 | http://www.ikwa.org/ |
| | 331 | 김수영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33 | 최승호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35 | 조세희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40 | 차범석 | http://news.hankooki.com/ , 2006. 12. 19. |
| | 350 | 영화 ‘로빈 후드’의 한 장면 | 네이버 영화(http://movie.naver.com/) |
| | 357 | 빅토르 위고 | 네이버 캐스트(http://navercast.naver.com/) |
| | 359 | 민태원 | http://blog.naver.com/sungway/110035662362 |
| | 361 | 박지원의 “열하일기”(영국) | 한국 문학 번역원(www.klti.or.kr) |
| | | 조세희의 ‘난장이가 쓰아 올린 작은 공’ (헝가리) | |
| | | 김만중의 ‘구운몽’ (루마니아에서 출간) | |
| | 362 | 김소월 | 네이버 인물 검색(http://people.search.naver.com/) |
| | 364 | 학생들 | 아이클릭아트 |
| | 370 | 김유정 문학촌 탐방 | www.kimyoujeong.org/ |

※ 표지, 속표지는 “이철수의 웃는 마음”(이철수 저, 이다미디어, 2012)

※ 18, 31, 59, 61, 62, 76, 78, 87, 88, 90, 92, 107, 109, 144, 149, 151, 152, 182, 191, 196, 242, 265, 270, 271, 281, 282, 293, 296, 297, 313, 314, 331, 369, 371쪽은 아이클릭아트

※ 출처 표시가 안 된 자료(삽화 등 포함)들은 저자나 출판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 찾아보기

| | | | | | | |
|--------------------|----------|----------------------|---------------|--------------|----------|-----|
| ㄱ | | 김상옥 | 328 | 림종상 | 216 | |
| 가면극 | 292 | 김소월 | 310, 362 | ㄴ | | |
| 가사 | 275 | 김수영 | 328, 331 | 만복사저포기 | 287 | |
| 가전 | 276 | 김시습 | 287 | 만언사 | 291 | |
| 가족사 소설 | 323 | 김억 | 310 | 만화의 언어 표현 요소 | 130 | |
| 강호한정 | 221 | 김영탁 | 183 | 만홍 | 291, 293 | |
| 개화(開花) | 294 | 김유정 | 258, 259, 311 | 메밀꽃 필 무렵 | 21 | |
| 개화 가사 | 310 | 김정환 | 311 | 멸치 | 334 | |
| 건국 신화 | 266 | 김춘수 | 61, 328 | 문장 | 312 | |
| 격황소서 | 249 | 꽃 | 61 | 문정희 | 88 | |
| 경기체가 | 275 | ㄴ | | | 미다스 왕의 귀 | 354 |
| 경문 대왕의 귀 | 353 | 나목 | 102 | 미의식 | 40 | |
| 고대 가요 | 248, 266 | 나의 가난은 | 138 | 민태원 | 359 | |
| 고려 속요 | 275 | 나의 열정, 나의 시 | 88 | ㄷ | | |
| 고소설 | 248 | 나희덕 | 235 | 바리테기 | 30, 251 | |
| 고은 | 215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 335 | 박경리 | 125, 329 | |
| 고창수 | 363 | 날랜 사랑 | 231 | 박남수 | 328 | |
| 공무도하가 | 266 | 남작남작-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 106 | 박두진 | 107, 310 | |
| 공사장 끝에 | 339 | 내간체 | 50 | 박목월 | 18, 310 | |
| 관동별곡 | 275 | 논밭 갈아~ | 294 | 박수근 | 105 | |
| 광덕 | 270 | 농무 | 39 | 박완서 | 102, 329 | |
| 광야 | 31 | 농민 소설 | 311 | 박인로 | 295 | |
| 광장 | 94 | 누이와 늑대 | 222 | 박지원 | 34, 291 | |
| 구지가 | 268 | 누항사 | 295 | 배추의 마음 | 233 | |
| 국순전 | 283 | 눈 | 331 | 백석 | 76, 310 | |
| 권정생 | 162 | 느낌, 극락 같은 | 110 | 변안 | 359 | |
| 규방 가사 | 291 | 님의 침묵 | 196 | 별 헤는 밤 | 151 | |
| 규원가 | 195 | ㄷ | | | 복덕방 | 137 |
| 규중칠우쟁론기 | 50 | 다문화 가정 | 361 | 봄 | 33 | |
|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 90 | 단군 신화 | 272 | 봄봄 | 258 | |
| 근대 문학 | 310 | 데이비드 맥켄 | 363 | 봄은 간다 | 315 | |
| 근대 태동기 문학 | 291 | 도요새에 관한 명상 | 20 | 봉산 탈춤 | 309 | |
| 글말 문학 | 248 | 동심가 | 315 | 부벽루 | 281 | |
| 금수회의록 | 319, 321 | 두류산 양단수들~ | 230 | 북어 | 333 | |
| 금오신화 | 287 | 들국 | 282 | 불모지 | 340 | |
| 기행 가사 | 291 | ㄹ | | | 비교 문학 | 84 |
| 김광섭 | 328 |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62 | 빅토르 위고 | 357 | |
| 김기택 | 329 | 레 미제라블 | 357 | 빈집 | 20 | |
| 김동인 | 311 | | | | | |
| 김려령 | 207 | | | | | |
| 김만중 | 291 | | | | | |
| | | | | | 빈집이지만 | 141 |

| | |
|-----------------|-----|
| 빨래 | 214 |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 316 |
| 빼꾸기 등지 위로 날아간 새 | 123 |
| 人 | |
| 사는 거야 어디서 살건 | 162 |
| 사모곡 | 278 |
| 사하촌 | 26 |
| 산유화 | 17 |
| 삼국유사 | 276 |
| 삼대 | 323 |
| 상저가 | 278 |
| 상춘곡 | 298 |
| 상호 텍스트성 | 29 |
| 새 1 | 87 |
|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109 |
| 생명의 서 | 49 |
| 생태 소설 | 222 |
| 생태 환경 문학 | 221 |
| 서사 무가 | 252 |
| 서정주 | 310 |
| 서포만필 | 193 |
| 석류들 | 355 |
| 선상탄 | 296 |
| 선학동 나그네 | 114 |
| 설 | 73 |
| 성묘 | 215 |
| 성북동 비둘기 | 55 |
| 성에꽃 | 205 |
| 성장 소설 | 154 |
| 성단계 | 191 |
| 세책가 | 291 |
| 소나기는 그쳤나요 | 65 |
| 속미인곡 | 193 |
| 송인 | 281 |
| 쇠찌르레기 | 216 |
| 수오재기 | 167 |
| 슬픔이 기쁨에게 | 206 |
| 시 문학 | 312 |
| 시조 | 275 |
| 시집살이 노래 | 257 |

| | |
|----------|----------|
| 신경림 | 328 |
| 신경숙 | 154 |
| 신동집 | 85 |
| 신록 예찬 | 19 |
| 신소설 | 311 |
| 신채호 | 311 |
| 신체시 | 310, 313 |
| 신포극 | 248, 311 |
| 심생전 | 177 |
| ○ | |
| 약장 | 276 |
| 안국선 | 319 |
| 압록강은 흐른다 | 255 |
| 애사 | 359 |
| 양계장집 딸 | 235 |
| 어머니 | 174 |
| 역사 소설 | 311 |
| 연의 각 | 304 |
| 연작 소설 | 336 |
| 연행가 | 291 |
| 염상섭 | 311, 323 |
| 염정 소설 | 181, 291 |
| 영웅 소설 | 292 |
| 오렌지 | 85 |
| 오발탄 | 116 |
| 오빠 | 92 |
| 오세영 | 130 |
| 온달 | 274 |
| 완득이 | 207 |
| 외판 방 | 154 |
| 용비어천가 | 277, 278 |
| 우주 비행 | 220 |
| 우화 소설 | 320 |
| 운영전 | 291 |
| 원고지 | 41 |
| 원왕생가 | 270 |
| 월인천강지곡 | 277 |
| 유리왕 | 268 |
| 유배 가사 | 291 |
| 유치환 | 310 |

| | |
|----------|----------|
| 윤동주 | 151, 312 |
| 윤선도 | 293 |
| 이 사진 앞에서 | 332 |
| 이강백 | 110, 330 |
| 이곡 | 73 |
| 이규보 | 277 |
| 이근삼 | 41, 330 |
| 이범선 | 116, 329 |
| 이상화 | 310, 316 |
| 이색 | 277, 281 |
| 이승원 | 231 |
| 이양하 | 312 |
| 이옥 | 177 |
| 이옥설 | 74 |
| 이육사 | 31, 312 |
| 이철수 | 138 |
| 이청준 | 329 |
| 이태준 | 137 |
| 이호우 | 328 |
| 이효석 | 21, 311 |
| 인동차 | 318 |
| 인문 평론 | 312 |
| 일동장유가 | 291 |
| 일신이 ~ | 280 |
| 임춘 | 283 |
| 입말 문학 | 248 |
| 天 | |
| 자화상 | 166 |
| 작은 부엌 노래 | 89 |
| 장정일 | 62, 329 |
| 장진 | 65 |
| 전기수 | 291 |
| 정극인 | 298 |
| 정약용 | 167 |
| 정읍사 | 271 |
| 정지상 | 277, 281 |
| 정지용 | 310 |
| 정철 | 193 |
| 조성기 | 291 |
| 조세희 | 329, 335 |

| | |
|-------|----------|
| 조정래 | 329 |
| 조지훈 | 310, 330 |
| 중세 문학 | 275 |
| 진달래꽃 | 362 |

ㄸ

| | |
|-------|----------|
| 차마설 | 73 |
| 차범석 | 330, 340 |
| 참여시 | 328 |
| 창가 | 310 |
| 창극 | 311 |
| 창선감의록 | 291, 327 |
| 채만식 | 311 |
| 천상병 | 328 |
| 청노루 | 18 |
| 청록집 | 18 |
| 청산별곡 | 278 |
| 최남선 | 310, 313 |
| 최두석 | 205 |
| 최인훈 | 94, 329 |
| 최치원 | 249 |

| | |
|-----|-----|
| 추체험 | 40 |
| 춘망 | 33 |
| 춘향가 | 292 |

ㅋ

| | |
|---------|-----|
| 카타르시스 | 150 |
| 카프 | 310 |
| 케이트 밀레트 | 88 |

ㄴ

| | |
|----------|---------|
| 타는 목마름으로 | 100 |
| 탈춤 | 49 |
| 태평천하 | 261 |
| 토지 | 86, 125 |

ㅇ

| | |
|---------|-----|
| 관소리 | 292 |
| 관소리계 소설 | 299 |
| 패러디 | 60 |
| 페미니즘 | 90 |
| 풍자와 해학 | 292 |

ㅎ

| | |
|-----------|---------------|
| 하회 별신굿 | 292, 305, 306 |
| 한림별곡 | 64 |
| 한승원 | 222 |
| 한용운 | 196, 310 |
| 해 | 107 |
| 해가 | 269 |
| 해에게서 소년에게 | 313 |
| 향가 | 248, 267, 275 |
| 향찰 | 248, 267 |
| 허구 | 16 |
| 허균 | 291 |
| 허생전 | 34 |
| 헬로우 고스트 | 183 |
| 형상화 | 16 |
| 화랑의 후예 | 78 |
| 황조가 | 268 |
| 황지우 | 109 |
| 홍보가 | 292, 303 |
| 홍부전 | 299 |

집필자 소개

- 김대용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사, 교육과학기술부 7차 문학교과서 집필
- 강황구 협성중학교 교감, 교육과학기술부 7차 문학교과서 집필
- 권형중 대구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교육과학기술부 7차 문학교과서 집필
- 김태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교사
- 석은동 대륜고등학교 교사
- 신혜영 대구여자고등학교 교사
- 여승옥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교사
- 정강옥 강동고등학교 교사

단원별 집필자

- 1단원 김대용, 석은동, 여승옥
- 2단원 김태우, 정강옥
- 3단원 강황구, 권형중, 신혜영

- [디자인] 김득용, 여수정
- [편집] 민현숙, 오선아
- [삽화] 노영심, 조예진, 하지윤, 강화경, 아이클릭



<검정심의회>

검정심의회 심의위원장

이정영(경기대학교)

간사

민재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검정위원

김남희(우석대학교)

김택임(경인고등학교)

김민숙(천안중앙고등학교)

김성호(상계고등학교)

김성진(대구대학교)

서철원(성균관대학교)

이정원(경기대학교)

황청모(포곡고등학교)

연구위원

• 내용조사

강연호(원광대학교)

김명준(한림대학교)

김양선(한림대학교)

김용재(전주교육대학교)

박경주(원광대학교)

심상교(부산교육대학교)

이동찬(덕문여자고등학교)

이은주(영등포고등학교)

이주영(서원대학교)

최원오(광주교육대학교)

• 표기·표현

장중덕 대표(충북대학교)

고은희(진접고등학교)

김강출(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김수경(연세대학교)

김지혜(前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김태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손광식(성공회대학교)

이호석(초지고등학교)

정한데로(서강대학교)

최수일(성균관대학교)

<교육부>

조재익(교과서기획과 과장)

박중은(교과서기획과 장학관)

정상명(교과서기획과 교육연구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검정심사관리위원회 위원장)

문영주(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대표)

정학준(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대표)

백경선(검정심사관리위원회)

윤지훈(검정심사관리위원회)

김명정(검정심사관리위원회)

남창우(검정심사관리위원회)

전 훈(검정심사관리위원회)

이한나(검정심사관리위원회)

최윤정(검정심사관리위원회)

임혜균(검정심사관리위원회)

김명주(검정심사관리위원회)

최옥현(검정심사관리위원회)

고숙경(검정심사관리위원회)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고등학교

문학

2014. . . 초판 발행

정가 원

지은이: 김대용 외 7인

발행인: 도서출판 상문연구소 대구시 수성구 들안로48길 19

인쇄인:

이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전화 1566-8572, 누리집 주소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 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rra.kr)에서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및 구입 관련문의: 상문연구소 편집부 전화: (053)746-8068 전송: (053)746-8069

고등학교 **문학** 상문연구사